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 근대 퀴어 서사의 계보학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백 종 륜

국 문 초 록

본고는 기존의 한국문학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한국문학 속 퀴어한 존재들의 감정과 욕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문학(장)이 이성애 중심적으로 재편되는 원초적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한국문학(장)의 이성애규범성이 결코 자연적인(natural)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본고는 한국문학의 정치성을 (재)활성화하고, 과거의 한국문학을 읽는 행위 자체를 (다시) 정치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최근 퀴어가 사회적으로 더욱 가시화되면서, 과거의 문학 작품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견본"을 찾고자 하는 퀴어들의 갈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퀴어 당사자들의 욕망에 응답하는 한편, 1910~1940년대까지의 서사에 나타난 퀴어한 존재들에게 정당한 발언권을 되돌려줌으로써, 새로운 '한국퀴어문학사'를 쓰는 시론(試論)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1910~1920년대 초를 '퀴어 서사 시대'로 재규정한다. 이 시기의 남성 청년들은 조선을 문명한 사회로 이끌 시대의 전위이자, 역사를 부단히 앞으로 밀고 나가기 위한 희망의 기호로 호명되었다. 이때 남성 청년들 사이의 '사랑'은 동정(同情)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으로 적극 요청되었다. 당시 지식인-문인들은 동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문명과 야만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바, 남성 청년들은 서로 '동정=사랑'을 나눔으로써(만) 문명의 전위이자 미래의 기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퀴어 서사 시대'의 남성 청년들은 포옹이나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통해 서로를 향한 '동정=사랑'을 확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나의 감정-공동체를 구축했다.

감정-공동체란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 당시 남성 청년들이 '동정=사랑'의 교환을 통해 형성했던 공동체로서,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위한 감정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했다. 또한 문예적 글쓰기로서의 서간체 텍스트나 소설 등은 바로 이러한 '동정=사랑'의 코드를 남성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퀴어 서사 시대'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서간체 텍스트는 동성의 벗들끼리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글쓰기 관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었고, 남성 청년들 사이의 '사랑'은 연애에 가까운 낭만적 사랑, 즉 퀴어한 감정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남성 청년들 간의 '사랑'과 퀴어한 감정 사이에 긴밀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면, 감정-공동체의 근간 자체가 퀴어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바,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란 기실 퀴어한 감정-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남성에 대한 남성의 '사랑'을 표현했던 모든 텍스트 역시 잠정적으로 퀴어 서사의 계보에 위치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는 남성 간의 '사랑'을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퀴어한 감정으로서의 낭만적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감정-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직 한 사람과의 단수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복수적인 '사랑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공동체의 이율배반적인 명령 앞에서 남성 청년들은 퀴어한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조절해야 했다. 동성 간 친밀성을 재현한 '퀴어 서사 시대'의 소설들은 이러한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적절히 수행하기도 했고, 또한 그 명령의 균열 양상을 현시하기도 했다.

한편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을 경유해 서구의 성과학 및 동성애 담론이 식민지 조선에 수용·정착되었다. 당대의 성과학은 이성애에 기반을 둔 성도덕이 사회 진보를 위한 토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색(男色)과 같은 성적 실천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존재를 규정하기 위한 인종주의적 기표로 동원했다. 이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도 이성애자를 문명적 존재로, 동성애자를 야만적 존재로 배치하는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남성들끼리 손목을 잡거나 뺨을 비비는 등의 행위가 '동성애자=야만인'을 나타내는 일종의 징표로 의미화되기도 했다. 즉 '퀴어 서사 시대'에는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향한 의지를 추동하는 몸짓이었던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 동성애 담론의 수입과 함께 미래가 없는 '야만인' 즉 내부의 타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는 몸짓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환언하자면 동성애 담론 수입을 기점으로 동성 간 친밀성에 대한 문학적

재현의 위상이 '문명'에서 '야만'으로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작가들은 동성애를 재현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아가 작가 자신이 동성애자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동성 간 친밀성에 대한 묘사를 의식적으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는 지식의 전달자이자 사유의 전파자라는 지위를 점유·유지하려던 지식인-문인들의 갈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문학을 통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는, 나아가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는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한국문학(장)의 오랜 믿음이 한국문학(장)을 동성애혐오적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동성애 담론이 수용·정착된 192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까지의 퀴어 서사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양상으로 억압·굴절·은폐되어 나타났다. (1) 자신의 욕망을 이성애규범적 제도에 완벽하게 안착시킨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는 개인적·시대적 회고담으로서의 퀴어 서사, (2) 퀴어한 욕망을 병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데카당스의 징표로서의 퀴어 서사, (3) 퀴어 서사로 읽히지 않게끔 퀴어한 욕망을 적절히 숨기는 이성애 서사로 은폐되는 '퀴어 서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의 '퀴어 서사'는 분명히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지만, 동시에 한국문학의 전통 속에 퀴어한 감정과 욕망이 존재해 왔음을 (작가의 의지와 무관하게) 증명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편 '퀴어 서사 시대'에는 남성 작가와 남성 독자로 이루어진 연대가 문학장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퀴어 서사 역시 대체로 남성들 사이의 욕망을 그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재현한 문학은 주변화되었을지언정 끈질기게 존재해 왔다. 따라서 한국퀴어문학사를 새롭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동성애 담론의 수입 이후, 남성 간의 욕망을 재현한 서사가 점차 감소했던 반면, 여성 간의 욕망을 재현한 서사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여성 동성애자가 완벽하게 탈성화(desexualization)됨으로써, 여성 동성애가 이성애규범적 사회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 동성애가 이성애를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규정되면서, 독자들의 관음증적 욕망을 '안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고, 그 결과 여성들의 퀴

어한 관계를 다룬 서사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성적 선호와 무관하게 모든 여성이 “강제적 이성애”라는 제도 속에서 이성애적 생애 각본을 강요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적 억압을 타파하고 여성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여성들은 동정(同情)을 기반으로 여성들의 감정-공동체를 구축했고, ‘퀴어 서사 시대’부터 존재해 온 이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다수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이후 동성애에 대한 검열 및 병리화가 한층 더 심해지면서, 여성의 퀴어한 관계를 다룬 서사 역시 몹시 굴절되고 은폐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940년대까지의 한국 퀴어 서사가 맞닥뜨린 종착지와도 같았다. 이후 한국문학(장)은 국민-국가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50년대와 AIDS 패닉과 함께 동성애혐오가 더욱 노골적으로 광범위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이라는 두 개의 변곡점을 지나, 지금의 동성애혐오적 모습으로 구성되게 된다.

■ **핵심어** : 퀴어 문학, 퀴어 서사, 퀴어 서사 시대, 퀴어, 동성애, 동성 간 친밀성, 섹슈얼리티, 계보학, 감정, 공동체

■ **학 번** : 2017-27718

목 차

국 문 초 록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연구의 시각 ····· 13

제2장 1910~1920년대 초 담론장 분석 ····· 28

제1절 문명의 전위로서의 퀴어 주체 ····· 28

제2절 미래/희망의 기호로서의 청년 ····· 40

제3장 '퀴어 서사 시대'와 그 이후 ····· 52

제1절 서간/체 텍스트와 퀴어한 감정-공동체 ····· 52

제2절 '퀴어 서사 시대'와 욕망의 조절 ····· 74

제3절 '퀴어 서사 시대' 이후의 억압된 '퀴어 서사' ····· 106

제4장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둘러싼 담론과 문학 ····· 156

제1절 강제적 이성애와 여성들의 감정-공동체 ····· 156

제2절 욕망하는 소녀와 퀴어 서사 ····· 178

제5장 결론 ····· 206

참 고 문 헌 ····· 210

Abstract ····· 226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 저는 작년에 '차별금지법'과 '퀴어 퍼레이드'와 '교육부 성교육 지침'을 통과해 가며 두 편의 시를 썼습니다. 하나는 「항문 섹스」였고, 다른 하나는 「인권」이었습니다. (…) 어느 날 존경하는 선생님과 술을 마시다가 선생님께서 그 시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무 극단으로 갔다. 다수가 싫어하는 걸 쓰지 말고……"와 같은 걱정 어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외람되게도 '내가 계속 써야 할 것은 다수가 싫어하는 것들이겠구나'라는 막연하지 않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수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 불, 바람, 물, 마음의 서정 말고 항문 섹스의 서정과 동성애의 서정과 소수의 서정은 없는 걸까요? (…) 그렇다고 문학이 무슨 인권 보고서입니까? 문인이 무슨 인권 활동가입니까? /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문학이, 문인이 대체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이상하게도 우리가 혹은 내가 어떤 세대의 견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문학이 어떤 문학의 견본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문학인이 어떤 문학인의 견본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듯 말입니다. / 남중, 남고를 다니며 '시적인 생각'을 자주 할 때,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혼자서 자주 드나들 때 저는 저에게 견본이 되어 줄 이야기를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룩하는 이야기들을요. 그런 걸 이룩한 작가들을요. (…) 이런 고백들은 어떤 고백들의 견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이 기다려집니다.(강조—인용자)[1]

시인 김현은 「견본 세대 2」에서 "항문 섹스의 서정과 동성애의 서정과 소수의 서정"을 표현한 한국문학이 극히 드물다는 문제의식 하에, 작가들이 다음 세대의 퀴어들에게 "견본"이 될 수 있는 텍스트들을 산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젠더나 섹슈얼리티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문학(인)이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문

1) 김현, 「견본 세대 2」, 『질문 있습니다』, 서랍의날씨, 2018, 195-200쪽.

학과 문인을 각각 “인권 보고서”와 “인권 활동가”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룩하는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어느 “시적인” 청소년 동성애자의 갈망[2]이란, 과거의 문학 텍스트 속에서 동성애를 길어내고자 하는 욕망의 한 형태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욕망과 관련해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작품으로 19세기에 창작된 「방한림전」을 꼽을 수 있다. 여자로 태어나 유년기부터 남복(男服)을 입고 자란 방관주가 남성의 신분으로 높은 관직에 오른 뒤, ‘같은’ 여성인 영혜빙을 만나 동성혼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낙성이라는 이름의 아이까지 입양해 함께 기르게 된다는 설정 등을 통해, 「방한림전」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이때 「방한림전」이 『방한림전: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3]라는 책에 수록되면서 비전공자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던 2006년에는 그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다가, 문학동네 ‘한국고전문학전집’ 시리즈에 등재되어 출판된 2017년에는 SNS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독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차이는 2006년과 2017년 사이에 놓인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퀴어 서사에 대한 독자들의 욕망이 더욱 강렬해졌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2017년 출판 당시 “장군이 되고 싶은 여자와 남자의 아내로 살기 싫은 여자. 조선시대 소설에 당당히 등장한 두 여자의 결혼!”[4]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독자들의 관심은 결국 ‘레즈비언 동성혼 서사’라는 퀴어 서사에 대한 갈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퀴어들의 존재성과 정동이 폭발적으로 가

---

2) 이러한 갈망은 다음의 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이들의 크루징(cruising: 공공장소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는 일) 장소였던 파고다극장에서 사망해 동성애자라는 설이 있던 기형도 시인의 시를 좋아해서 “여자 기형도가 이상형”이라고 했거든요. (…) 10대 시절 정체성으로 고민할 때 시를 읽으며 위안 받았기에 이런 면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고 싶었어요.”(친구사이 & 가구넷, 「사랑에 차별이 있나요—레즈비언 부부 ‘낮잠과 유다’ 이야기」, 『신가족의 탄생』, 시대의창, 2018, 16쪽.); “내게 이름이 없던 시절에는 오직 이야기와 나뿐이었다. 나의 몸이 이야기와 완벽하게 포개지지는 않았지만 이름 없는 자도 기댈 곳은 필요하니까. 나는 이야기에 기대어 자랐다. (…) 그렇게 나는 이야기 안에서 은밀하게 숨어 있거나 모호하게 드러나는 퀴어 서사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전개해보곤 했다. 쓰여 있지 않은 나의 이야기를, 후일담을 꿈꾸었다.”(최성경, 「아주 오래된 후일담」, 이종산 외,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큐큐, 2018, 6-7쪽.)

3) 장시광 역, 『방한림전: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06.

4) 이상구 역, 『방한림전』, 문학동네, 2017, 뒤표지.

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5]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견본”에 목말라하던 퀴어 당사자들이 100여 년 전의 문학에서 그러한 “견본”을 발견하게 된 기쁨, 그 기쁨이 반영된 결과가 바로 「방한림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인 것이다.

당사자성의 맥락을 잠시 벗어난다면, 이러한 욕망은 국문학 연구에서도 그 모습을 단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특히 이 연구들은 「방한림전」과 같이 명백하게 퀴어 서사로 위치시킬 수 있는 작품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에 따르면, 20세기 이전에 창작된 문학 작품들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동성애’나 동성 간의 성행위를 재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모죽지랑가」, 「후정화」, 「한림별곡」[6]; 이규보와 허균의 시[7]; 김만중의 「구운몽」[8]; 남영로의 「옥루몽」[9]; 『좌계부담』 소재 「한사인처」와 임경주의 「매죽당이씨전」[10]; 『부장양문록』[11];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12]; 「매화전」[13]; 판소리 「적벽가」[14]; 『이야기책』 소재 「여기는 어디라더냐」, 『기문』 소재 「절에 가서 귀를 깨물리다」, 장한종의 『어수신화』 소재 「학질을 잘 치료하다」, 『각수록』 소재 「비역질로 학질을 치료하다」[15]; 『기이재상담』 소재 「비역으로 학질을 치

---

5) 강동호·박인성·오혜진·이우창·황현경, 「좌담: 우리 세대의 비평」, 『세대론-픽션』(『문학과사회』 제115호 별책), 문학과지성사, 2016, 96쪽 중 오혜진의 발언.

6) 구사회, 「「모죽지랑가」의 가요적 성격과 동성애 코드」, 『한민족문화연구』 제38집, 한민족문화학회, 2011.

7) 강문종, 「전통시대 동성애 연구」, 『영주어문』 제30집, 영주어문학회, 2015, 9쪽 및 24-27쪽.

8) 김병국, 「「구운몽」에 반영된 어머니 컴플렉스적 요소」,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제1권, 한국어교육학회, 1969, 19-22쪽.

9) 유광수, 「「옥루몽」, 성애 표현의 서사적 기능과 은폐된 폭력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479-484쪽.

10)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09-212쪽.

11)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9-54쪽.

12)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6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13) 김경미, 「조선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연구』 제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147-148쪽.

14) 박관수, 「1940년대의 ‘남자동성애’ 연구」, 『비교민속학』 제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390쪽.

15) 강문종, 앞의 책, 10-11쪽; 네 작품의 한글 표기 제목은 모두 김준형이 번역한 『조선후기 성 소화 선집』(문학동네, 2010)을 따른 것이다.

료하다」와 「아이를 많이 낳아 밑이 빠졌나?」, 『유년공부』 소재 「비역을 좋아하는 남편」[16]; 육용정의 「송소합전」과 「이성선전」[17] 등으로 이루어진 이 목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처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학에 나타난 동성 간 친밀성 내지 동성 간 성행위를 곧바로 '동성애'라는 용어로 치환하려는 연구의 태도는 다소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동성애'라는 용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느 시대에든 이 용어를 자유롭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18] 즉 게이·레즈비언 연구와 퀴어 이론[19]의 오랜 화두인 본질주의와 구성주의 사이의 논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자고스(Annamarie Jagose)에 따르면, 본질주의는 "동성애가 시간을 초월해 보편적 현상으로서 존재해 왔고, 주변화되어 왔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된 그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말한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란 "동성 간 성행위가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 안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다.[20] 이를 앞서 제기한 의문에 적용한다면, 본질주의는 근대 이전 문학에 나타난 동성 간 친밀성을 '동성애'로 명명하는 시각을 긍정할 것이다. 시·공간적 맥락을 초월해, 양자 사이에 행위 또는 감정 상의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성주의

---

16) 정병설 역, 『조선의 음담패설: 『기이재상담』 읽기』, 예옥, 2010, 43-44, 97-98, 120-121쪽.

17) 조혜란, 「좌절과 모색의 경계—개화 지식인 의전 육용정의 인물전 연구」, 『탈경계인문학』 제10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1, 41-44쪽 및 50-52쪽.

18) 애너매리 야고스, 『퀴어 이론: 입문』, 박이은실 역, 여이연, 2012, 18쪽.

19) 1990년에 드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에 의해 처음 제안된 퀴어 이론이라는 용어는 동성애자에 대한 멸칭이었던 퀴어(queer)를 전유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이 사회화 및 주체화 과정의 기반으로서 당연시해 온 정체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와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윤조원,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제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9, 133쪽.) 이후 퀴어 이론은 각각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안정성을 심문하는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과 버틀러(Judith Butler)를 거쳐, 성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지구화 시대의 모든 규범적 체제를 탐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현재 퀴어 이론의 관심사는 인종, 장애, 디아스포라, 국가주의/민족주의(nationalism), 신자유주의, 테러리즘 등을 아우른다.(정민우, 「퀴어 이론, 슬픈 모국어」, 『문화와 사회』 제13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58쪽.)

20) 애너매리 야고스, 앞의 책, 19-20쪽.

는 한국에 동성애 담론이 수용되기 이전에 창작된 문학 작품에 '동성애'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구성주의는 '동성애'라는 정체성 범주를 어느 특정한 시대의 문화적·담론적 구성물로, 다시 말해 근대의 발명품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성애 정체성을 둘러싼 본질주의 대 구성주의 논쟁이 일차적으로 문제시되어야 하는 까닭은 둘 중 어느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정합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방한림전」을 '레즈비언 동성혼 서사'로 규정하는 몇몇 본질주의적 독해들은 방관주의 젠더가 '여성'이라는 규범적 범주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 보인다. 즉 방관주가 "옥으로 새기고 꽃처럼 예쁜 딸"[21]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그/녀가 유년기부터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남복을 입었고, 입사(入社) 이전에 이미 길쌈이나 바느질 같은 "여도(女道)"를 멀리했으며, 죽고 난 뒤에도 남성으로 장례가 치러진 인물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독해들은, 방관주가 상주로서 부모의 장례를 주관했다는 대목, 이후 그/녀가 과거에 급제한 뒤 고향으로 내려가 양친의 제사를 지내고 가묘를 모셨다는 대목 등이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주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분법적인 젠더 역할을 강요하는 전통 사회 내에서, 남성에게 부과된 책임이자 특권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고자 했던 방관주의 욕망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22] 결국 「방한림전」 자체는 방관주가 완벽하게 여성으로 동일시한 인물이지에 대한 답을 유보하면서 그/녀가 남성과 동일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반면, 본질주의적 독해는 이를 제대로

21) 이상구 역, 앞의 책, 15쪽.

22) 이는 「방한림전」과 함께 여화위남계 소설로 분류되는 「홍계월전」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비교의 기준은 방관주와 홍계월이 애초에 남성으로 패싱(passing)한 것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는가와 관련된다. 방관주의 경우 자발적으로 남복을 입은 데 반해, 홍계월은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아버지 홍시랑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남복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방한림전」에서는 방관주가 남복을 입고 남성으로 패싱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이 전경으로 부각되고 영웅소설적인 요소는 후경으로 밀려나는 반면, 「홍계월전」은 반대로 영웅소설적인 측면이 전경에 부각되고 홍계월의 심리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후경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이는 두 인물이 남성으로 패싱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원래 자신의 이름인지와도 관련된다. 방관주의 경우는 죽을 때까지 방관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홍계월은 남성으로 패싱할 때 자신의 이름을 평국으로 바꾼다. 즉 방관주에게 있어 남성으로서의 삶이 자기 자신대로 사는 것이었다면, 홍계월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조광국 역, 『홍계월전』, 문학동네, 2017 참고.)

간파해내는 데 실패한다.

이처럼 방관주가 해부학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를 레즈비언으로 호명하는 몇몇 본질주의적 독해들은 ① 세상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젠더 이분법에 다시금 종속되는 독해처럼 보이며, ② 섹스와 젠더가 안정적으로 일치하는 상황(만)을 가정하는 듯한 매우 시스젠더(cisgender) 중심적인 독해처럼 보이고, ③ 나아가 "해부학은 운명"이라는 해묵은 명제에 대한 반복처럼 보인다. 핼버스탬(Judith Halberstam)은 이러한 유의 본질주의적 독해에 대해, "역사적 특수성을 부정하고 동성 간 욕망의 초기 형태들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덮어 가리는 것"[23]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레즈비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여성 간 친밀성을 가리켜 '레즈비언'이라는 "초역사적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현대적 이해를 뿌리치지 못하는 탓에 초기의 동성 간 욕망에서 드러나는 종잡기 힘든 갖가지 모습 (…) [다시 말해] 문제가 되는 성적 형태나 젠더 형태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은 해석에 불과하다.[24] 이러한 핼버스탬의 지적은 결국 본질주의적 독해가 당대 담론장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그 결과 작품에 재현된 등장인물의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그에 얽힌 생의 궤적을 정확히 묘사하는 데에도 실패함을 의미한다.

본고는 본질주의가 갖는 한계를 적시하면서, 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1910~1920년대 초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 퀴어 서사의 계보학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문학사가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퀴어한 욕망과 존재를 회복하고,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기 퀴어 서사에 대한 연구는 이광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종종 제출되어 왔으나, 대체로 본질주의 노선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25] 이러한 한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주의와 구성주의

---

23) 주디스 핼버스탬, 『여성의 남성성』, 유강은 역, 이매진, 2015, 80쪽.

24) 위의 책, 85-86쪽.

25) 이희춘, 「춘원 소설의 동성애에 관한 고찰」,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88; 방민호, 「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어문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한승옥, 「동성애적 관점에서 본 『무정』」, 『현대소설연구』 제2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이성희, 「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동성애" 고찰」, 『관악어문연구』 제30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이정숙, 「1910~20년대의 '동성애' 모티프 소설 연구」, 『한성어문학』 제26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7;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

사이의 논쟁을 가장 의식적으로 고려한 대표적 논자인 실비안(Gabriel A. Sylvian)의 논의를 경유할 필요가 있다.[26] 그는 이광수의 「사랑인가(愛か)」(『시로가네학보(白金學報)』, 1909.12)에 대한 연구에서, 미사오(操)를 향한 문길(文吉)의 감정을 '동성 간 사랑(same-sex love)'으로 부를 것인지 혹은 '동성애'로 부를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숙고 끝에 그가 다다른 결론이란, 핼퍼린(David M. Halperin)이 본질주의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비판 입장을 수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인가」를 '동성애' 서사로 (재)규정하는 것이 성 정치 시대의 '운동'의 차원에서 더욱 적합하리라는 '전략적 본질주의'[27]에 가까운 판단이었다.[28] 즉 이광수의 1910년대 소설들에 나타난 동성 간 친밀성과 욕망을 어떻게든 성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석하려 하는 일군의 동성애혐오적 비평들에 맞서, 그는 동성애라는 용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일례로 실비안은 이광수의 「사랑인가」에 대한 방민호의 해석을 "상황적 동

비평사, 2008; 임은희, 「탈주하는 성, 한국 현대소설: 1910~20년대 소설의 동성애적 모티프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등.

26) 가브리엘 실비안, 「'정'의 각성과 그 표현—「사랑인가」를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제1집, 춘원연구학회, 2008.

27) 전략적 본질주의란 어떠한 정체성 범주가 그 "사실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유효성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애너매리 야고스, 「페미니즘의 퀴어이론」, 박이은실 역, 『여/성이론』 제2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 128-129쪽.)

28) 실비안에 따르면, 핼퍼린은 「섹슈얼리티의 역사는 존재하는가?(Is There a History of Sexuality?)」와 「백년 동안의 동성애(One Hundred Years of Homosexuality)」에서 본질주의적인 동성애 역사 기술 방법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약 10년 후에 발표한 「남성 동성애의 역사를 쓰는 방법(How to Do the History of Male Homosexuality)」에서는 자신의 이전 입장을 수정하여, 서로 다른 시·공간에 나타난 동성 간 친밀성을 일종의 '동성애' 연속체, 즉 동성애의 계보 안에서 해석하는 것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물론 여기에는 각각의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같음과 다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명확한 전제가 달려 있었다. 즉 근대적 남성 '동성애'는 ① 여성스러움(effeminacy), ② 소년애(paederasty)/'능동적' 남색('active' sodomy), ③ 우정(friendship)/남성애(male love), ④ 수동성(passivity)/도착(inversion) 등의 네 가지 담론적 전통들과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바, 이 네 개의 범주와 ⑤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동성애를 모두 '동성애'라는 큰 개념 안에서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핼퍼린의 논의는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되, 전략적으로 본질주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비안은 이처럼 과거의 기록을 '동성애'의 역사로 다시 읽으려는 핼퍼린의 시도를 가리켜 현대의 동성애혐오적인 담론장을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비안은 핼퍼린의 도식을 따라 「사랑인가」를 근대적 의미의 동성애와 구분되는 우정/남성애로 규정하지만, 우정/남성애 역시 남성 '동성애'라는 연속체에 속하므로 「사랑인가」를 '동성애' 서사로 부를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가브리엘 실비안, 앞의 책, 237-242쪽 참고.)

성애"의 논리로 규정한 뒤, 이를 "이성애 억압설"이라는 이성애규범적 비평의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로 비판한 바 있다.[29] 여기에서 방민호의 주장의 핵심은 계몽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였던 이광수가 이성(異性)을 향한 개인주의적 욕망을 포기하고, 당시 일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남학생들끼리의 연애 문화 속에서 "동성애적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30] 이때 "상황적 동성애"가 "진짜 동성애"의 대립항으로 사용되는 개념임을 고려한다면,[31] 이러한 방민호의 주장은 결국 이광수가 "진짜" 이성애자임을 자명한 사실로 간주함으로써, 「사랑인가」에 나타난 동성 간 욕망을 예외적인 것, 즉 "상황적 동성애"로 규정하는 이성애규범적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인가」를 '동성애' 서사로 부르는 것만으로는 기실 이러한 "상황적 동성애"의 논리를 논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 속에서 범주적 정체성이란 언제나 단선적인 생의 역사를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전제로 한다.[32] 나아가 이러한 규정 속에서 모든 인간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두 젠더 중 하나로 지정되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동성애자 혹은 이성애자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정체성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33] 예컨대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동성애자로서, 결코 이성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의 「사랑인가」를 '동성애' 서사로 규정하려는 실비안의 시도는 다음과 같은 동성애혐오적인 반대를 계속해서 마주칠

29) 위의 책, 231-232쪽.
30) 방민호, 앞의 책, 115쪽.
31) David M. Halperin, "How to Do the History of Male Homosexuality," *How to Do the History of Homosexu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 114.
32) 이는 루인의 논의를 참고·변형한 것이다. 여기에서 루인은 규범적 이원 젠더 범주와 달리, 트랜스젠더의 삶은 결코 단선적인 역사로 기술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성애-젠더 이분법을 자연 질서로 여기는 사회에서, 소위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범주는 개인을 단순명료하게 구획한다. (…) 규범적 여성이란 범주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단선적인 역사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성'이란 범주로 자신의 전 생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규범적) 젠더 지시어는 한 개인의 현재 상태에 한정해서 그를 호명하지 않는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인 가능성까지 확정해서 지시한다."(루인, 「규범이라는 젠더, 젠더라는 불안: 트랜스/페미니즘을 모색하는 메모, 세 번째」, 『여/성이론』 제2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 61-62쪽.)
33) Eve Kosofsky Sedgwick, *Epistemology of the Close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 2.

수밖에 없게 된다. '이광수는 실제로 두 번이나 결혼을 했고, 나혜석과의 치정 관계를 둘러싼 소문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그가 동성과 나누었던 감정은 완벽하게 무의미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사랑인가」를 동성애 서사로 부를 수 없다.'[34] 이는 본질주의적 독해란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오해와 오독의 연쇄만을 야기할 뿐임을 의미한다.

물론 실비안이 이광수를 동성애자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사랑인가」에 나타난 문길의 욕망을 근대적 의미의 동성애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사랑인가」가 일본 유학 시절 이광수의 자전적 경험을 쓴 작품이라는 이해가 널리 공유되고 있음을, 나아가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 속에서 동성애자는 평생 동성만을 사랑하고 이성애자는 평생 이성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일종의 환상이 두루 퍼져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들의 종합으로 말미암아 「사랑인가」를 근대적 의미의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동성애' 서사로 유표화(marking)하는 실비안의 시도는 곧 이광수를 동성애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게 되고, 동성애자라는 '혐의'로부터 이광수를 어떻게든 구출해내려는 이성애규범적인 오해와 오독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동성애' 서사라는 명명은 '정체성의 혼란' 정도로 요약되는 "상황적 동성애"의 논리를 격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재소환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주의적 독해가 한국 퀴어 문학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퀴어 문학의 목록을 점점 더 길게 늘려 나가는 것만으로는 한국문학(장)의 고질적인 동성애혐오를 혁파하는 작업, 그리하여 '상식(common sense)'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작업[35]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

34) 이 서술은 세즈윅이 『벽장의 인식론(Epistemology of the Closet)』에서 제시한 동성애혐오적 비평의 전형적인 사례에 이광수의 경우를 대입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논의하고 있는 저자가 이성인 사람과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었거나 알려져 있으므로, 동성인 사람들에 대한 그의 감정은 완벽하게 무의미했었음이 틀림없다."(위의 책, 51쪽.)

35) 오혜진,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 『문화과학』 제85호, 문화과학사, 2016, 94쪽.

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여기의 동성애혐오적인 한국문학(장) 자체를 탈자연화(denaturalization)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문학(장)이 동성애혐오적으로 구성되는 데 있어 주된 영향을 끼친 담론의 전개 과정과 그 효과를 구성주의적·계보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틀러(Judith Butler)에 따르면, 계보학이란 어떤 사태의 기원이나 원인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 개의 산발적 출발지점을 가진 제도, 실천, 담론의 효과"임을 밝히는 비평 방법을 의미한다.[36] 즉 계보학의 핵심 과제는, 여러 담론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떤 것이 생산되었다가, 이후 그 형성 과정이 은폐됨으로써 결국 '자연적인(natural)' 것으로 보이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식민지 조선에 동성애 담론이 본격적으로 수입·정착되었던 1920~1930년대[37] 이전의 문학, 구체적으로 1910~1920년대 초의 문학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성 간의 달뜬 감정, 몸과 몸 사이의 성애적 접촉 등을 여과 없이 표출했던 1910~1920년대 초 서사들이 동성애 담론 수용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결국 '굴절된' 형상[38]으로만 문학장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1940년대까지의 서사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시스젠더-이성애자-남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문학(장)이 퀴어에 대한 재현 및 해석 체계를 가지지 못한 탓에 지적·문화적 자원의 전달자로서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타당한 지적[39]을 기꺼이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한국문학(장)이 '그들만의' 공동체적 공간으로부터 '동성애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추방함으로써 문명의 전달자이자 사유의 전파자라는 애초의 지위를 점유·유지할 수 있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대 한국문학(장) 내에서 동성애혐오는 이미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는

36)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76쪽.

37) 신지연, 「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 『민족문화연구』 제4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박차민정, 「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애 규범성'의 탄생」, 『역사와 문화』 제22집, 2011;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38) 이러한 서술이 1910~1920년대 초의 퀴어 서사를 '순수한' 퀴어 서사로, 다시 말해 퀴어 서사라는 '장르'의 '원본'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1910~1920년대 초에 활발히 창작되었던 어떤 한 형태의 퀴어 서사가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서로 다른 세 가지 양상으로 바뀌어 문학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지적에 가깝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3장 제3절을 참고할 것.

39) 오혜진, 앞의 책, 100쪽.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며,[40] 또한 현재 한국문학(장)이 처한 불안정한 지위를

40) 예를 들어 『2017 제8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문학동네, 2017)에 실린 김인숙의 심사평은 한국문학장에 만연해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인숙은 최은영의 「그 여름」을 단순히 "레즈비언들이 주인공"인 소설로 규정하는 것은 "촌스럽고 무례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소설은 Ze, 혹은 0, 혹은 또 다른 무엇으로 지칭되는 또 다른 젠더, 또 다른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즉 「그 여름」은 "그도 그녀도 아닌, 그렇다고 결코 그것도 아닌, 그들의 세계"를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쓴" 아름다운 소설이라는 것이다.(339-340쪽) 여기에서 김인숙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레즈비언을 마치 젠더 퀴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젠더 퀴어에 대한 무지 역시 동시에 보여준다.

그런데 김인숙의 발언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녀가 레즈비언이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이라는 식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듯하다는 점이다. 이는 동시대 한국문학장에 있어 동성애/퀴어혐오가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은폐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퀴어가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젠더/섹슈얼리티라는 식의 발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리하여 '교양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혐오발언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한국문학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듯하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동성애/퀴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개방적인' 태도 자체가 누군가의 윤리성을 보증하는 증표처럼 활용되고 있고, 김인숙의 발언 역시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자신의 윤리성을 과시하고 과신함으로써 스스로를 '윤리적 주체'로 정립하기 위해 퀴어를 인용할 때, 그가 인용하는 퀴어란 현실을 살아내는 몸이 소거된 단지 기표로서의 퀴어에 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한편 『2018 제9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문학동네, 2018)에 실린 노태훈의 비평은 김인숙이 부지중에 드러낸 동성애/퀴어혐오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박상영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조심스러웠던 게 아닐까. 소수자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언어를 고르고 골랐던 일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옳은 행위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짐짓 그들을 이해해주겠다는 시혜이고, 연민이고, 동정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닐까. 아니,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들의 고통만을 들여다보려 했던 게 아닐까. 오로지 그들이 소수자라는 사실에만 골몰해 모든 것을 그 마이너리티와 연결시키고 다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여러 '다른 모습'은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 이렇게 말하면서 글을 맺어보자.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게이 소설이라는 명명을 아무런 부담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325쪽 및 331쪽, 강조—인용자)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에서 노태훈은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가 '우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획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아마도 이 '우리'라는 말은 ① 한국문학장 및 그 구성원으로서의 비평가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 그리고/또는 ② 저자인 노태훈 자신을 포함해 이 비평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독자들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인 듯하다. 이때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한다면, 노태훈의 비평은 비유컨대 스스로를 확실하게 신원이 보증된 한국문학장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면서, 한국문학(장)을 대표해 통절한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까지 고려한다면, 이 글은 사실상 '우리'라는 언어의 울타리 안에 퀴어가 포함될 수 없는 구도를 만듦으로써, 여전히 퀴어를 한국문학(장)의 외부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편의 글 안에서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대명사는 저자와 독자를 동시에 가리킨다. 그런데 퀴어 당사자-독자는 기실 그가 제출한 '반성문'에서의 '우리'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로만 지칭될 따름이다. 즉 그는 박상영의 소설을 "게이 소설"이나

만든 '원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동성애혐오가 근대 한국문학(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식인-문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던 하나의 태도로서 생산된 것이라면, 작금의 사태는 이미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당겨 말하자면, 동성애혐오란 기실 한국문학을 '지금의' 한국문학으로 만들어준 근본적인 원동력이었다.

"퀴어라는 장르"로 명명하면서도, 퀴어 당사자를 예상 독자로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그의 '반성문'은 한국문학(장)이 '우리'라는 언어의 울타리 밖으로 퀴어들을 내몰고 있음을 한 번 더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대 한국문학/비평이 상상하는 독자의 형상이 철저하게 시스젠더-이성애자임을 짐작케 해준다. 교묘한 동성애혐오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무색하게도, 그는 김인숙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을 따라 자신의 비평이 '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글임을 과시하고 과신한다. 이처럼 ㉠ 한국문학장의 확실한 구성원이자, ㉡ 대부분의 구성원들과는 달리 윤리적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 결과, 그는 "퀴어 서사는 퀴어의 일상이어야만 한다"(328쪽)는 식으로 "퀴어 서사라는 장르"의 속성을 미리 규정해버리는 시도를 감행하게 된다.

제2절 연구의 시각

이처럼 계보학적 관점에 의거해 동시대 한국문학(장)의 동성애혐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갈등을 구성하는 (…)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혐오를 작동시키는 이러한 역사와 권력의 문제를 배제할 경우, 동성애혐오는 결국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1] 그렇다면 1910~1920년대 초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장)에서 퀴어 서사가 요청 및 은폐되는 양상을 탐구하려는 본고의 기획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동성 간의 (성적) 욕망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를 예비하는 이러한 출발점으로, 본고는 18세기 야담집 『유년공부』에 실린 「비역을 좋아하는 남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옛날에 한 남자가 '벽(비역, 곧 동성애—원문 그대로)'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남자 아이를 질투하여 말했다. "당신이 벽을 이리 좋아하니 나는 아무 데나 다른 데로 나가려오." 남자가 민망해서 말했다. "저 아이는 제가 '벽 쏘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벽 하기'를 좋아하니 내 뜻을 따른 것이라. 저는 아파도 견디며 쏘이니 그런 불쌍한 일이 없네." (…) 아내가 대답했다. "그러면 내게도 벽을 해보소. 아픈지 좋은지 알게." 그런데 그놈이 본래 '좆'이 작으니, 아내는 '밑구멍'이 크게 아프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한 말이라. 그놈은 아내를 아프게 해야 제 말이 설 것이기에, 자기 벗 가운데 좆 큰 이를 만나 이 사정을 말했다. 친구가 말했다. "그 벽하기 무엇이 어려우리오. 해줌세." (…) 그런데 그 벗이 본래 간사한 지라, 본뜻은 벽을 하러 왔으나 씹을 보니 견디지 못하여 '북충(北衝, 곧 벽)'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여자 또한 극한 음부(淫婦)라, 작은 좆으로 하다가 큰 좆이 배 기슭까지 들어오니 흥을 이기지 못하여 대성통곡을 했다. 남편이 그런 줄도 모르고 밑구멍이 아파 우는가 하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여자가 앞으로도 내 벽하는 것을 질투할까."[42]

---

41) 웬디 브라운, 『관용』, 이승철 역, 갈무리, 2010, 41쪽 참고.
42) 정병설 역, 「비역을 좋아하는 남편」, 앞의 책, 120-121쪽.

인용한 작품에는 주기적으로 항문 성교를 하는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의 배타적인 관계가 등장한다. 남성의 아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질투"는 할지언정 남편을 크게 비난하지는 않는다. 한편 육용정의 「이성선전」에는 이성선과 이웃집 소년 사이의 배타적 관계가 그려져 있는데, 그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성선은 아내와 사별한 뒤 이웃집 소년을 만나, 소년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맺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소년은 이 약속을 가벼이 여겨 종종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 이성선은 이를 질투해 결국 칼을 뽑아들기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저자인 육용정이 이러한 이성선과 소년 사이의 (성애적) 관계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소년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성선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43]

이와 관련해 조혜란은 「송소합전」과 「이성선전」의 내용을 토대로, 나아가 황현의 『매천야록』 기록이나 「매죽당이씨전」, 「방한림전」 등의 소설을 토대로, "동성애는 19세기 말 조선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소재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44] 실제로 「비역을 좋아하는 남편」과 「이성선전」의 서술자는 남성 간의 배타적 관계를 마치 일상적인 사건처럼 서술하고 있다. 박관수 역시 강원도에선 1940년대까지 이러한 남성 간의 배타적·성애적 관계가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동무 관계"라고 명명했다. 수동무 관계는 대체로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에 맺어지는데, 성인 남성은 항문 성교의 대가로 소년에게 꽤 많은 재화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수동무 관계가 맺어지면 마을 사람들 역시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였고, 수동무(소년)를 '○○의 작은 마누라'라고 불렀다. 성인 남성의 아내 역시 이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소년과 서로를 동서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기도 했다. 이러한 수동무 관계는 소년이 결혼을 하거나 성인(17세)이 되면 자연스레 해체되었다.[45]

물론 이러한 서술들이 19세기 이전의 과거를 해방의 이상이나 유토피아로 설정하는 것, 다시 말해 수동무 관계를 담론 이전의 섹슈얼리티로 가정하는

43) 「이성선전」에 대한 서술은 모두 조혜란, 앞의 책, 51-52쪽을 참고했다.
44) 위의 책, 58쪽.
45) 박관수, 앞의 책, 400-404쪽.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46] 이는 일차적으로 18~19세기 조선 사회에도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는 많은 성 담론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명관은 이러한 규제적 성 담론으로 성리학의 수양론과, 도가로부터 발원한 조선의 의학 담론 두 가지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자는 "출산으로서의 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쾌락으로서의 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쾌락을 도덕적으로 제어하려 했다. 이에 비해 후자는 무절제한 쾌락의 추구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한다"는 "건강의 차원에서 성에 대한 억압적 담론을 만들어내었다." 이때 두 담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규제 및 관리하고자 하는 무절제한 쾌락의 추구란 결국 "종법제에 입각한 가부장적 가족-친족 제도를 위협하는 성적 행위를 실현하는 것"이었다.[47] 이러한 분석을 수용한다면, 남성 간의 배타적·성애적 관계 즉 수동무 관계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수동무 관계를 맺는 남성들 역시 결혼과 재생산이라는 '의무'를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가족-친족 제도를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동무 소년이 17세가 되면 그 관계가 자연스레 해체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는 사실은 수동무 관계가 결국 결혼과 재생산의 의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승인되었던 풍속임을 의미한다.

한편 1932년에 발표된 이석훈의 「동성애 만담 (1)」(『동아일보』, 1932.3.17)은 조선 후기 야담이나 「이성선전」 등에 나타난 제한적인 '관용'의 대상으로서의 수동무 관계가 사회적으로 "징그럽고 우습고 못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19세기 말까지 조선 사회에 두루 퍼져 있던 남성 간의 배타적·성애적 관계가 1930년대 초에 이르러 "기태적 내지 병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 성욕이란 것은 식욕성과 생존욕과 가티 인간의 가장 중대한 본능욕의 하나이다. (…) 동성애란 것도 이러한 성적본능의 한 파생적 현상으로 매우 흥미잇는 문제의 하나이다. (…) 동성애란 일종의 기태적 내지 병적 현상은 남성에게도 만히 잇는 것이다. (…) 남성이란 대체—여성에 비하야 보다 비위 좃

46) 해방의 이상에 대한 비판은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262-284쪽을 참고할 것.
47)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성」,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한국한문학회, 2008, 16, 25, 28-32쪽.

> 코 렴치 업고 배심 조와서 여성들처럼 얼싸안고 눈물을 졸졸 싸며 정사까지는 하지 안키 때문에 남성 간의 동성애는 암흑면에 가리워 잇슬 샏이다. 과연 사내끼리 A가 B를 두 팔로 목을 껴안고 여드름이 툭툭 뵈여저 나온 번주그레한 쌤과 쌤을 부드치면서, 『컷스』의 『갤리 쿠르치』를 연주한다면 그에서 더 해괴망측한 꼬락산이가 어대 잇스며 가령 더벙머리 노총각이 십사오세 미동에에 홀딱 반—하야 가삼을 태우며 『사랑하는 총남(寵男?—식별불가능)이여! 나는 그대가 그리워 죽을 지경일세! 그대의 보등보등한 두 쌤, 그 샛별 가튼 두 눈 그러고 붉고 생족한 익은 앵도 가튼 입술! 아……』 이가티 맛치 이성에게나 하듯이 염서를 쓰고 안젓는 꼴을 여페서 본다면 그에서 더 징그럽고 우습고 못난 자식놈이 또 어대 잇겟는가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지?(강조—인용자)[48]

이때 이석훈이 사용하고 있는 “성욕”이나 “성적 본능”, “동성애” 등의 어휘는 이러한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성욕”, “성적 본능”, “동성애”와 같은 어휘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을 경유해 서구의 성욕학, 즉 성과학 담론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49] 성과학 담론이 한국의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초반으로, 이후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성과학과 관련된 전문 서적을 읽지 않는 이들도 성과학 담론에 꽤 익숙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0] 또한 성과학 담론과 함께 동성애 담론 역시 한국의 담론장에 기입되었는데, 그 용례가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동성애는 이성애와 대립되는 하나의 정체성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51]

문제는 당대 서구의 성과학 담론이 “이성애와 일부일처제 혼인에 바탕을 둔 성도덕·성질서야말로 사회진보를 위한 필수적 토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전파하기 위해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

---

48) 이석훈, 「동성애 만담 (1)」, 『동아일보』, 1932.3.17.
49) 신지연, 앞의 책, 266쪽.
50)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15-28쪽.
51) 동성애와 이성애가 명확하게 대립되는 범주로 이해되었다는 점은 다음을 참고할 것. “생(生)에 대하여는 사(死)며 신에 대하야는 악마며 동성애에 대하여는 이성애며 자연미에 대하여는 기교미며 현실에 대하여는 몽상이며 향토애에 대하여는 이국정조를 이단이라고 하네.”(임노월, 「경이와 비애에서」, 『개벽』 제21호, 1922.3, 27쪽, 강조—인용자.)

다는 점이다.[52] 특히 "'남색'과 '수간'과 같은 특정한 성적 실천이 타 인종과 민족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존재로 정의하기 위해 인종주의적 기표로 동원되었"[53]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한 국가의 구성원 내에서도 이성애자를 문명적 존재로, 동성애자를 야만적 존재로 배치하는 효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20년대 이후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통해 재현된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남자 혹은 남성 동성애자는 범죄자, 낙오자, 타락자, 문제아 등으로(만) 형상화되었다.

일례로 『별건곤』 제7호(1927.7)에 실린 송작생(松雀生) 차상찬의 글은 땅꾼들 사이에 남첩(男妾) 제도라는 진기한 성 풍속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54] 그가 말하는 남첩 제도란 연소자를 "애동(愛童)"으로 삼아 남성끼리 배타적·성애적 관계를 맺는 풍습을 가리키는데, 이는 수동무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설명이다. 주목할 것은 그가 수동무 관계를 동성애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땅꾼 사회에 "시대의 사조"가 점차 파급됨에 따라 이러한 수동무 관계 내지 동성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증언하는 대목이다. 이때 차상찬이 말하는 "시대의 사조"란 동성애를 비정상적 섹슈얼리티이자 야만의 징표로 배치하는 성과학 담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글은 동성애 담론의 수용과 함께 기존에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던 수동무 관계가 동성애로 재규정됨으로써 결국 야만적인 것으로 그 의미가 충전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차상찬은 땅꾼 사회의 남첩 제도를 설명한 뒤, 곧바로 장(章)을 바꾸어 땅꾼들을 "우리 인간사회에 낙오자이요 불행자"로 묘사함으로써, 남성 간의 배타적·성애적 관계 자체가 곧 "낙오자"와 "불행자"의 징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55]

이는 곧 1920~1930년대에 동성애 담론이 수용·정착되는 과정에서, 비역을 좋아하는 '철부지' 남편이 과잉성애화된 '타락자'로 그 의미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56] 푸코(Michel Foucault)의 말을 빌리자면, "남색

52) 박차민정, 앞의 책, 28-30쪽.
53) 위의 책, 32쪽.
54) 차상찬의 필명에 대해서는 정현숙, 「차상찬 연구 (1)—기초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제언」, 『근대서지』 제16호, 근대서지학회, 2017, 74쪽 참고.
55) 송작생, 「대탐사기 깍정이로 변신 잠입하야 포사군의 소굴에 일야동숙, 경성명물. 깍정이. 땅군의 진기한 생활내막」, 『별건곤』 제7호, 1927.7, 84-85쪽.

가는 과오를 반복하는 사람이었던 반면, 이제 동성애자는 하나의 종(種)"[57]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 간의 성적 욕망이 '행위'의 차원에서 '정체성'의 차원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즉 동성애 담론 수입 이전인 19세기까지는 '적절한 유혹'이 주어지기만 하면 모든 남성이 남색이라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반면, 한국에 동성애 담론이 수입된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남성 동성애자라는 특정한 정체성 범주에 속한 개인만이 이러한 남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 이해 방식이 점차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생애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그의 범죄를 남색이라는 성적 실천과 연결시키고, 다시 그러한 성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천적으로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로서,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식의 논리가 이 시기에 성립되었다는 사실[58]은 이러한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당대의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를 하나의 '종'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요섭의 「학생풍기물란론」(『동광』, 1931.12)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섭은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적인 풍기문란, 특히 "계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 ① 춘기발동기에 잇어서는 수음, 계간 등 악습을 방지하기 위하야 한방에 동년배로 2인 이상식을 거처하케 하는 것이 득책이다. 그러나 기혼자와 미혼자를 잡거시키면 잘못이다.
>
> ② 변소는 원래 더러운 곳이거니와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행동은 많기는 변소에서 시행된다. (…) 계간 같은 것도 변소에서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잇다. 또 변소에서 변태성욕자들이 낙서를 많이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충동을

56) 역사에 기록된 동성 간 욕망을 근대적 의미의 동성애로 재해석하는 경향은 다음을 참고할 것. 이석훈, 「동성애 만담 (2)」, 『동아일보』, 1932.3.19; 유창선, 「전통과 창조 (4)」, 『동아일보』, 1939.1.26.

57)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2010, 53-54쪽.

58) 박차민정, 앞의 책, 71-75쪽.

> 받게 되는 수가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몬저 각 학교와 기숙사의 변소를 개혁할 필요가 잇다. 우선 대변문(大便門)은 아레 위로는 뚤리어 밖에서 그 안이 들여다 뵈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면 밖에서 볼 것이 무서워서 (…) 2인이 한 간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59]

주목할 것은 현재의 시선에서 봤을 때 다소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이 제안들이 당대에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으리란 점이다. 현재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전술했듯이 특정한 개인의 유형 즉 '종'으로서의 남성 동성애자들만 남성 간 성행위를 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요섭이 이 글을 발표한 1930년대 초에는 남성 간의 성행위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득책"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가 동성애 담론이 점차 정착되어 가는 시기, 즉 일종의 과도기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박차민정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을 원용해, 주요섭이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성적 규범을 내면화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소라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변소는 "시선의 작동을 통해 관찰되고 감시되어야 할 공간이자, 특정한 방식으로 정향된 성적 신체와 정체성의 구조가 생산되는 훈육의 공간"이었다.[60] 이는 동성애 담론이 수용·정착되는 과도기 속에서, 당대의 지식인들이 일반 민중들에게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과 이성애규범성, 즉 '문명'을 내면화시키는 훈육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1920년대 중반에 차상찬이 제출한 두 편의 글 역시 주목에 값한다. 관상자(觀相者)라는 필명으로 『개벽』 제49호(1924.7)에 발표한 글에서, 차상찬은 남첩을 둔 한 유산계급의 행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61] 여기에서 그는 남색을 하는 사람을 '똥물 오입쟁이'와 같이 부름으로써 수동무 관계를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성애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즉 그의 비판은 남색이라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며, 더 정확히는 축첩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약 1년 뒤에

---

59) 주요섭, 「학생풍기물란론」, 『동광』 제28호, 1931.12, 52쪽.
60) 박차민정, 앞의 책, 59-62쪽.
61) 관상자, 「색색형형의 경성 첩마굴 가경가증한 유산급의 행태」, 『개벽』 제49호, 1924.7, 82-83쪽.

발표한 「전라북도답사기」(『개벽』, 1925.12)에서는 수동무 관계에 있는 두 남성이 기차역에서 눈물겨운 이별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동성애라고 규정한 뒤, 친구의 '똥냄새'나 그리워하는 것은 우습고도 불쌍한 일이라고 평하고 있다.[62] 이때 그가 동성애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는 점은 그의 조롱이 남색이라는 행위를 넘어 동성애자라는 정체성 자체를 향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동일한 저자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발표한 두 글에서 비판/조롱의 방향이 '행위'와 '정체성'으로 각각 상이하다는 사실은 1920년대 담론장의 과도기적 성격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전라북도답사기」에서, 저자인 차상찬이 동성애라는 근대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수동무 관계 당사자는 미동(美童)이라는 전근대적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역시 눈길을 끈다. 이처럼 비동시적인 두 해석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은 이 시기의 과도기적 성격과 함께, 당대의 지식인들이 일반 민중들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근대의 동성애 담론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63] 이러한 담론의 속도 차이는 일차적으로 당대의 지식인들이 성과학과 동성애 담론을 실어 나르는 운반자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과학을 진리와 등치시켰으며, 진리에 대한 선각자이자 일반 민중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할 과업을 부여받은 계몽자로 스스로를 인식했다는 점에 있다.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들은 선각자와 계몽자라는 이 우월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가 동성애라는 야만적 정체성에 부착되는지를 일반 민중들보다 더 빠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이때 차상찬이 기차역 앞에서 마주친 두 남성을 동성애자로 대번에 확신했던 근거란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손목을 쥐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즉 선각자이자 계몽자로서 차상찬은 남성들끼리 손목을 잡는 행위를 동성애적 정체성을 암시하는 코드로 파악했고, 동성애란 이성애보다 '열등한' 것인바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손목을 쥔다는 표현, 즉 차상찬이 명확하게 동성애의 징후로 인식했던 남성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표현이,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까지의 서사에선 '우정'의

62) 차상찬, 「전라북도답사기」, 『개벽』 제64호, 1925.12, 109-110쪽.
63) 박차민정, 앞의 책, 83-84쪽.

상징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예컨대 1920년에 발표된 해북생(海北生)의 「병우(病友)」(『개벽』, 1920.7)의 한 대목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발견된다. 「병우」에서 준식은 친구 윤호의 병문안을 갔다가 잠든 그의 모습을 보고 "동무들이 윤호를 안주(安州)집이라 별명하야 뺨을 대이며 손목을 잡아끌으며 하더니 이제 보니까 참말 입뿌긴 입뿌다. 남중일색(男中一色)이다. (…) 너는 정적(情的)이고 시적(詩的)이다."[64]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달뜬 감정을 느끼던 준식은 이후 아픈 윤호를 깨워 손목을 마주 잡고 함께 산보를 다녀오는데, 다음 인용할 대목은 산보에서 돌아온 준식의 감상과 꿈 내용을 보여준다.

> 준식은 옷도 아니 벗고 자리에 펄석 두러눕는다. 천정을 쳐다보며 속으로 무엇을 응얼걸인다. 책상 설합(舌盒)을 빼더니 사진 한 장을 내인다. 보고 다시 보며 뺨에도 대여본다. (…) 윤호의 사진에 입을 마춘다. 그리고 사진을 얼굴에 가리우고 부지중에 잠이 든다. 준식은 꿈 세계로 들어간다. (…) [이하는 꿈 내용—인용자] 준식은 윤호의 시체를 붓안고 엉엉 운다. 「윤호야 네가 죽다니 웬일이냐? 제가 죽으면 나는 엇더케 하늬? 윤호야 나도 너와 가티 죽어 영원히…」 (…) 준식은 새로 봉봔한 윤호의 묘 압헤 정신업시 거꿀어저 호천동지(呼天動地) 슬피 운다. / 「윤호야 네가 이러케 죽을진대 당초에 너와 나와 만나지 안앗슴이 안이 조흐냐? 만나더라도 정(情)이 안이 들엇슴이 조치 아니하냐? 만나자 정들고 정드자 지기(知己) 되엇다가 이제 거연(遽然)히 너 혼자 가게 되니 (…) 이로부터는 누와 더불어 말하며 누와 더불어 웃어 보겟늬? 윤호야 대답 좀 하여라. 너와 나와 손목 쥐고 단이던 학교 너와 나와 어깨 겻고 단이던 길 너와 나와 보던 책 너와 나와 잠자던… 아— 누와 더불어 가티 하겟늬? 아— 무정한 윤호야. 네 동무 준식이 여기 잇다. 말 좀 하여라. 한번 웃어라 윤호야.」(강조—인용자)[65]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산책에서 돌아온 준식은 윤호의 사진에 뺨을 비비고 키스를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어 윤호가 죽는 꿈을 꾸게 된다. 이때 꿈속에서 준식은 죽은 윤호를 애도하며 통곡하다가, 윤호를 따라 죽음으로써

64) 해북생, 「병우」, 『개벽』 제2호, 1920.7, 132쪽.
65) 위의 책, 136-138쪽.

영원히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친다. 이 대목에서 준식이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따라 죽기는 거의 정사(情死)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66] 특히 작가가 '너와 나와 ○○하던 ○○' 구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중, "너와 나와 잠자던" 이후만을 말줄임표로 처리했다는 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서술은 "지기"와 "동무"로 설명되는 준식과 윤호 사이의 관계를 성애적인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기"와 "동무"들 사이의 달뜬 감정을 성애적인 방식으로 독해하는 것은 차상찬이 「전라북도답사기」를 발표했던 1925년의 시선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차상찬은 미동(美童)이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기차역에서 만난 남성들이 서로 손목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동성애 관계로 확신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20년까지 잡지라는 공론장에 '우정'이라는 형식으로 무리 없이 등장했던 남성들 사이의 친밀성이 1925년에는 과잉된 성애적 친밀성으로 인식되었던 까닭은 1920년과 1925년 사이의 친밀성의 코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상대의 손목을 쥐는 신체 접촉과 그것이 추동하는 친밀성이라는 정동(affect)을 중심에 놓고 보았을 때, 1920년과 1925년 사이의 어떤 시점에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범의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짐작하다시피 두 시기 사이에 놓인 이러한 차이의 주요한 요인은 동성애 담론에 내재된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과 그에 얽힌 고질적인 동성애혐오이다. 그런데 이때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이란 동성애자에게만 중요성을 갖는 문제라기보다, "섹슈얼리티의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모든] 삶에 대해,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에 가깝다.[67] 예컨대 동성끼리 서로 손을 잡거나 뺨을 비비는 등의 행동이 동성애의 징표로 의미화되는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인식되고 싶어 하지 않는 개인은 비록 그/녀가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동성과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이 동성애자뿐 아니라 기실 모든 개인의 몸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66)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212쪽 참고.
67) Eve Kosofsky Sedgwick, 앞의 책, 1쪽; 세즈윅은 이를 보편화 관점(universalizing view)이라고 부른다.

문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작품 속 인물을 동성애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려면, 나아가 작가 자신이 동성애자로 '오인'되지 않으려면, 작가들은 이러한 과잉된 성애적 친밀성에 대한 묘사를 의식적으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192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러한 종류의 남성 간 친밀성의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고, 설령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러한 친밀성을 '병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데카당스의 징표 정도로만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성과학과 동성애 담론이라는 하나의 렌즈만으로 당대의 문학장 재편 양상을 설명하는 것은 기실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 물론 동성애 담론이 이러한 문학장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성애 담론의 수용과 정착에 대한 고찰만으로는 왜 1910~1920년대 초의 문학에서 이러한 종류의 친밀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의문, 나아가 왜 1920년대 중반 이후 동성애혐오가 유독 문학의 영역에서 강력하게 작동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 즉 퀴어 서사의 계보학을 위해서는, 제2장에서 서술하듯이 이러한 동성애 담론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문학장을 형성해 나갔던 다양한 담론들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본론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근대문학의 형성기로 평가되는 1910~1920년대 초 문학에서 동성 간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주체들, 곧 퀴어 주체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요청되기까지 했다면, 한국문학(장)은 기실 '퀴어 서사 시대'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퀴어 주체들이 어떠한 계기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비체화(abjection)되어 한국문학(장)의 주변부로 재배치되는 양상, 다시 말해 근대적 지식의 선각자로서 지식인-문인들이 퀴어한 욕망을 재현한 서사를 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한국문학(장) 자체가 동성애혐오적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기의 문학과 담론에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사적 통념 속에서 1910년대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2인 문단 시대'로, 1920년대 초는 '동인지 문단 시대'로 각각 이해된다. 본고는 바로 그 '2인'과 '동인'에 속했던 작가들이 퀴어 주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시기를 '퀴어 서사 시대'로 재규정함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본고가 사용하는 '퀴어 서사 시대'란, 1910~1920년대 초에 문명의 전위이자 미래의 기호로서의 남성 청년들의 '사랑'을 재현한 서사가, 당대 담론장과 문학장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요청되었다는 점에 착안한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재규정은 ㉠ 남성들 사이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반복 인용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도를 초과해 '연애'에 가까운 감정, 즉 퀴어한 감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 나아가 이처럼 '사랑'과 퀴어한 감정 사이에 긴밀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면, 남성 간의 '사랑'을 표현한 서사를 잠정적으로 퀴어 서사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본고가 동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 내지 성적 욕망을 표현한 서사들을 가리키기 위한 개념으로 퀴어 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듯하다. 주지하듯이 퀴어는 성을 둘러싼 당대의 규범적 체제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섹스·젠더·섹슈얼리티를 아울러 지칭하는 포괄어(umbrella term)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1910~1920년대는 가족-친족 제도의 유지와 재생산을 전제로 한 섹슈얼리티가 규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성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동성을 애인으로 삼으려던 남성 주체들을 비롯해, 동성을 향한 강렬한 욕망을 표현한 모든 주체들은 기실 당대의 퀴어한 존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역사를 연속성과 일관성 속에서 파악하는 정체성의 차원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행위의 차원에 주목하는 것, 버틀러 식으로 말하자면 행위 뒤에 행위자는 없음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68]

본고가 동성애규범적인 분석으로 읽힐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시도를 감행하는 까닭은, 서두에서 실비안을 언급하며 썼듯이, 이성애를 자연적인 것으로 승인하는 이성애규범적 오해와 오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이다. 즉 1910~1920년대 초 서사에 나타난 동성 간 욕망을 동성애로 '잘못' 부름으로써 오독의 향연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견본"을 찾고자 하는 지금-여기의 퀴어들의 욕망에 응답하기 위해, 본고는 퀴어 서사라는 용어를 사

6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31쪽.

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여기의 퀴어와 그때-거기의 퀴어가 정확히 똑같은 종류의 경험을 했음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같은 젠더, 인종, 국적/민족(nationality), 계급 그리고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그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순수한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69] 본고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지금-여기의 퀴어가 느끼는 '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을 그때-거기의 '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과 연결시키고,[70] 이를 통해 '퀴어 서사 시대'의 문학과 동시대 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것에 가깝다. 이는 기존의 한국문학사가 간과해 왔으나 기실 한국문학의 전통 속에 잠재되어 있는 퀴어한 요소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과거의 문학을 읽는 행위 자체를 (다시) 정치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추동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의 시각 하에, 제2장은 1910~1920년대 담론장을 분석함으로써, 남성 청년들 사이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요청되었던 정황을 논구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문명 및 동정 담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당대 지식인-문인들이 열망했던 지적·문화적 자원의 전달자로서 스스로의 위치는, '과학=진리'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유포된 동성애 담론에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1910년대 문명 담론의 핵심에 정적(情的) 주체로의 전회라는 동정(同情) 담론이 놓여 있었던바, 이후 '야만=동성애'로 인식되게 되는 동성 간의 성적 욕망에 대한 표현이 1910~1920년대 초 문학에선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당대의 지식인-문인들이 미래를 상상했던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1910~1920년대 문명 및 개조 담론은 진보적 역사관을 담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문명한 미래가 반드시 도래하리라는 들끓는 희망을 추동했다. 특히 당대 지식인-문인들은 이러한 미래와 희망을 전적으로 소년,

---

69) Eve Kosofsky Sedgwick, 앞의 책, 25쪽.

70) 이 표현은 웬델(Susan Wendell)에 대한 전혜은의 분석에서 빌려온 것이다. "웬델은 모든 장애인이 같은 인식론적 이점을 갖고 있거나 모두 같은 경험을 하고 경험에 대한 해석이 같다고 주장하는 대신, 다만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비장애인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전혜은, 「수잔 웬델—손상의 현상학자」, 『여/성이론』 제27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2, 197쪽.)

청년, 아이 등의 상징적 기호에 의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문제는 1920년대 중반 이후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에 따라 동성애자는 이러한 희망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로, 다시 말해 '긍정적인' 가치를 결여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퀴어 서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3장은 1910~1920년대 퀴어 서사와 그 이후 1940년대까지 제출된 퀴어 서사를 직접 분석하는 데 할애된다. 먼저 제1절은 서간체 소설을 포함해 '문예'라는 이름 아래 느슨하게 배치되어 있던,[71] '퀴어 서사 시대'에 발표된 모든 서간/체 텍스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당대의 공론장이었던 신문과 잡지에 실린 서간체 텍스트들은 발신자(저자)와 수신자(독자)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남성 간의 사랑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문명화의 희망을 담지한 감정-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퀴어한 관계를 표현하는 몇몇 서간/체 텍스트들의 경우, 나아가 '사랑'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초과해 퀴어한 감정으로 전이되는 경우, 이 공동체 자체가 매우 퀴어하게 변화하는 효과, 즉 퀴어한 감정-공동체가 탄생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3장 제2절에서는 당대의 감정-공동체가 퀴어한 감정이 형성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차단하려 했음에 초점을 맞춰, 고한승, 김동인, 김환, 박석윤, 이광수, 이익상 등의 텍스트를 분석한다. 당대의 퀴어 주체들은 감정-공동체의 명령에 따라, 남성을 향해 배타적 욕망을 품지 않게끔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제2장에서 서술한 문명 및 개조 담론, 진보적 역사관과 미래 담론 등이 이미 이 텍스트들에 나타나 있는바, 이러한 '퀴어 서사 시대'는 시작부터 이미 그 끝을 예비하고 있었음 역시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퀴어 서사 시대'가 막을 내린 뒤 그 이후의 문학에 나타난 '퀴어 서사'들을 살펴본다. 이때 '퀴어 서사 시대'의 마감은 감정-공동체 내에서 퀴어한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실패함에 따른 결과였으며, 나아가 문명 담론, 미래 담론, 동성애 담론 등의 절합(articulation)에 따른 결과였다. 이 절에서는 김동인, 이광수, 이기영, 이효석, 지하련 등이

71) 신지연, 「'느슨한 문예'의 시대: 편지형식과 '벗'의 존재 방식」, 『반교어문연구』 제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313쪽.

192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퀴어 서사들을 간략히 분석한다. 이들의 문학은 ① 회고담 양식을 취함으로써 남성 간의 퀴어한 관계가 직접 제시되는 경우(이광수, 이기영), ② 남성 동성애가 데카당스의 징표로 직접 제시되는 경우(이효석), ③ 남성 간의 욕망이 억압·은폐됨으로써 퀴어적으로 읽히지 않게끔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김동인, 지하련)로 대별된다.

제4장은 '퀴어 서사 시대'의 종언 이후 남성 퀴어 서사가 감소하는 데 반해 여성 퀴어 서사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해,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둘러싼 담론과 문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여성 간의 욕망을 둘러싼 담론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1920년대 이후 언론에 재현된 여성 동성애는 탈성화된(desexualized) 소녀들의 전유물이자, 이성애와 재생산을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의미화되었고, 그 결과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는 관음증의 대상으로 소환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고는, 여성들이 '퀴어 서사 시대'부터 꾸준히 그녀들만의 감정-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감정-공동체는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재현한 서사가 문학장에 나타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제2절에서는 전술한 담론장의 지형을 염두에 두면서, 1910~1940년대에 발표된,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다룬 다양한 서사들을 분석한다. 이처럼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재현한 서사가 급증한 것은 일차적으로 관음증적인 욕망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관음증적 욕망이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편협한 시각을 거부하면서, 관음증적 욕망에 부합하기 위해 생산되었던 퀴어 서사들이 오히려 여성들의 동성애 욕망을 생산해내기도 했음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동성애 욕망의 생산은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퀴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문학장에 기입되는 양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나아가 본고는 '동성(연)애' 등의 어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작품의 경우에도, 예민한 감각을 동원해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고 또 읽어내야 함을 논의할 것이다.

제2장 1910~1920년대 초 담론장 분석

제1절 문명의 전위로서의 퀴어 주체

1910~1920년대 초 담론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문명과 개조였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당대 지식인-문인들은 조선을 문명국으로 개조해야 할 과업을 자임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명 담론은 기실 문명의 절대적 타자로서 야만을 상정하는 방식, 다시 말해 문명과 야만의 확고한 이분법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당대 지식인들이 자행했던 프릭 쇼(freak show)이다. 프릭 쇼란 원래 19세기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성행했던 "'야만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을 전시하는 '인간 동물원'"을 일컫는 단어이다.[72] 프릭 쇼는 시선의 주체인 문명국의 비장애-백인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원시적'이고 '괴물적'인 몸들을 관음함으로써 제국주의적·인종주의적 우월감을 획득하는 당대 최고의 오락거리였다.[73] 이처럼 프릭 쇼는 문명인과 야만인의 몸이 서로 다르다는 환상, 즉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발명하고 유포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했다. 『청춘』과 『개벽』을 비롯해 1910~1920년대 초의 다양한 매체들은 이러한 프릭 쇼의 논리를 전유해 조선과 대비되는 새로운 타자의 형상을 만듦으로써, 식민지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문명화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했다.

잡지라는 공론장에 '야만인'의 삶을 전시하는 이러한 프릭 쇼는 일차적으로 이미지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예컨대 길진숙은 『청춘』이 '문명국'과 '야만인'의 이미지를 권두에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야만인 구경하기"를 통해 상대적인 우월감을 획득하고자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74] 또한 길진숙의 논의를 이어받은 이영아는 『청춘』의 화보들에서 서구가 문화와 도시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데 반해, 비서구는 자연과 육체의 이미지로만 등장

72) 이재원, 「식민주의와 '인간 동물원'—'호텐토트의 비너스'에서 '파리의 식인종'까지」, 『서양사론』 제106권, 한국서양사학회, 2010, 6쪽.
73) 루인, 「괴물을 발명하라: 프릭, 퀴어, 트랜스젠더, 화학적 거세 그리고 의료규범」, 권김현영 외,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모음, 2012, 61-64쪽 참고.
74) 길진숙, 「문명 체험과 문명의 이미지」, 권보드래 외,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73-75쪽.

하는 것은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 '남성=문화=문명=정신' 대(對) '여성=자연=야만=몸'이라는 서구식 근대적 이분법이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 점차 내면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75] 이와 같이 조선의 몸과는 다른 '야만인'의 몸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문명의 타자로서 '야만인'을 발명해내려는 프릭 쇼는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문명한 삶을 꿈꾸었는가를 방증한다. 특히 『청춘』이 사용한 이러한 '야만인' 화보가 실은 일본에서 유통되던 서적이나 잡지 등에서 선별된 것들이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76] 이는 『청춘』을 통해 유포된 '야만인' 이미지가 조선인의 시선에 포착된 것이 아니라, 기실 서구나 일본과 같은 '문명국'의 시선에 포착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야만인' 이미지를 관음하는 행위란 결국 조선이 문명국과 동일한 시선의 주체로 격상되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10~1920년대 초의 담론장에 나타난 프릭 쇼는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전제한 뒤, 서구와 조선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기 위해 다른 인종·민족·국가를 '그들'로 호명하는 작업이었다. 중요한 것은 프릭 쇼란 '우리'의 몸이 '그들'의 몸과 완벽히 다르고, 그러한 차이가 '그들'의 야만성을 보증한다는 "과학적 인종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77] 실제로 조선의 외부에서 야만적 타자를 발견하고자 하는 당대의 시도 역시 인종학(ethnology)이나 골상학과 같은 '과학'의 이름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청춘』의 창간호에 실린 「인종」(1914.10)이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1910~1920년대 초는 인종의 분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다. 또한 이에 따라 문명과 야만을 각 인종의 '안면각도(顔面角度)'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즉 문명인일수록 안면의 각도가 직각에 가깝고, 야만인일수록 직각에서 멀다는 '과학적'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78] 그런데 이러한 안면각도 분류법이 유행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글들에

75) 이영아, 「1910년대 조선인의 타자의 몸에 대한 시선 고찰—잡지 『청춘』, 『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257-258쪽.
76) 길진숙, 앞의 책, 60쪽.
77) 이재원, 앞의 책, 10-11쪽.
78) 삼일학인, 「널니 인류를 보라」, 『청춘』 제8호, 1917.6, 35쪽; 「각 민족의 안면각도」, 『개벽』 제5호, 1920.11, 10쪽.

는 이 분류가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이 분류에도 예외가 있다는 식의 전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안면각도 분류법 하에서 조선인의 얼굴이 문명보다는 오히려 야만에 더욱 가까웠고,[79] 따라서 이 미신이 조선과 서구를 '우리'로 묶는 데 방해가 되는바,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문명의 몸과 야만의 몸이 표면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결국 몸의 내부로 상상되었던 정신을 강조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이광수는 「거울과 마조 안자」(『청춘』, 1917.5)에서, 안면각을 비교해 봤을 때 유럽인과 조선인의 골격이 그리 다르지 않음에도, 왜 유럽인의 머리카락은 조선인의 것보다 더 아름다운가에 대해 자문한다. 이에 대해 그는 "머리썌 속에 무슨 발광체가 잇서서 그것이 모공을 통하야 전기 모양으로 털끗마다 육안으로 아니 보이는 광선을 사출하"기 때문이라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발광체는 눈이라는 "창경(窓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이광수는 자신의 눈에 대한 감상을 풀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눈이 "동포의 위로가 되어 본 적도 업고 (…) 타면(惰眠)에 빠진 자를 깨이어 준 적이 업스며 혹 미(美)와 신비한 빗이 화가나 시인의 탄영(嘆咏)하는 대상도 되지 못하엿"던, "미를 보고도 미인 줄도 모르고 진(眞)을 보고도 진인 줄도 모르는 눈"이라고 탄식한다.[80] 즉 그는 조선이 유럽에 비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몸의 차이가 아니라 정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정신의 차이로 ㉠ 동정(同情)의 부족, ㉡ 계몽의 부재, ㉢ 예술의 낙후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10~1920년대 초의 프릭 쇼가 단순히 몸의 차이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정신의 차이까지를 표시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청춘』에 실린 「세계 일등의 야만인」(1914.11)과 『개벽』에 실린 박윤원의 「대유잡감(臺遊雜感)」(1921.3) 등은 조선인과 '야만인'을 구분해주는 '민족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먼저 「세계 일등의 야만인」은 "원시적 생활을 남의 20세기로 알고 지내는 유수한 종족 중에서도 가장 열등으로 가장 하급

79) 안면각도 분류법에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같은 동북아시아인인 중국인이 여덟 개의 비교 대상 중 하위 세 번째(72도)에 속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80) 외배, 「거울과 마조 안자」, 『청춘』 제7호, 1917.5, 80-82쪽.

으로 본제목의 주인공이 되는 호태리아 토인의 이약이"[81]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선주민을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무지하고 무감각한, 잔인하고 나태한 "종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이들은 수(數)의 관념을 4까지밖에 모르며 때때로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등의 야만인"으로 소개된다. 한편 「대유잡감」은 대만 선주민의 문화를 이제 겨우 석기시대를 지나 철기시대에 들어선 '원시인'의 것으로 형상화한다. 박윤원은 이러한 원시적인 부족에게도 배울 만한 '민족성'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들을 '칭찬'하는데,[82] 이러한 칭찬은 이미 문명과 야만의 위계를 내면화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박윤원은 대만 선주민을 '야만인' 중에서는 그나마 '문명'에 가깝고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종족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선을 상징적인 문명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민족성'에 대한 관심은 결국 조선인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과 직결되어 있었다. 비유컨대 프릭 쇼는 단순히 조선의 외부를 비출 뿐 아니라, 조선의 내부까지를 함께 비추는 거울이었던 것이다. 전술했던 이광수의 자성(自省)과 같이, 1910~1920년대 초의 조선인은 예술을 통해 동정을 아는 종족으로 계몽되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었다. 이광수의 「동정」(『청춘』, 1914.12)은 이러한 문명화와 동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에 따르면, 동정은 정신적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만 꽃피는 "인류의 영귀(靈貴)한 특질 중에 가장 영귀한 자"[83]이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이광수가 동정의 범위를 단순히 자국(민)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그는 "윤리와 풍속이 수이(殊異)한 외인(外人)의 행동을 제 것과 갓지 안타 하야 조매(嘲罵)함은 아조 무지몰각한 일"로서, "동정의 염(念)이 업"기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

81) 「세계 일등의 야만인」, 『청춘』 제2호, 1914.11, 78쪽.

82) 박윤원이 대만 선주민을 칭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족 간의 전쟁 이후에도 멸망한 부족의 정신만은 살아남아 자신의 부족을 위해 결사적으로 복수를 감행하는 것, 평화조약에 있어 "적아(敵我) 간 확고한 신의를 지키며 붕우 간에 순일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서로 적대시하던 부족들이 외세의 침략에 맞설 때에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 "공산주의"와도 같은 생활양식과 "입헌주의"라 부를 만한 정치 체제, 자유결혼 풍습과 여성들의 일부종사하는 '정절' 등.(박윤원, 「대유잡감」, 『개벽』 제9호, 1921.3, 93-100쪽.)

83) 외배, 「동정」, 『청춘』 제3호, 1914.12, 57쪽.

다.[84] 이는 곧 프릭 쇼와 같이 적극적으로 외부의 타자를 발명해내는 작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그러한 작업에 대한 비판 의식 역시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이광수의 논리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라는 전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제 이광수는 동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며, 이러한 구분법은 단순히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실 개인에게까지 적용된다. 이는 이광수가 보편적 인류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조망함으로써, 1900년대식 민족주의가 전제하고 있던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관념[85]을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광수에게 있어 민족은 이질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상상된 공동체이므로, '민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것을 문명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민족을 이루는 각 개인이 변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동정」에서부터 그 싹이 보이고, 이후 「민족개조론」(『개벽』, 1922.5)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이광수의 '인종개선' 논리[86]란 결국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 내부의 타자를 발견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없었다.[87] 환언하자면, 「동정」은 외부의 타자를 적극적으로 발명해내지 않는 대신, 외부와 내부를 막론하고 문명의 타자를 발견해내려는 관점을 보여줄 따름인 것이다.

1920~1930년대 동성애 담론의 수용·정착 이후 동성애자는 바로 이러한 내부의 타자로 발명되고 비체화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1910~1920년대 초의 이광수에게 동성 간 욕망을 표현하는 퀴어들이란 오히려 문명의 전위에 해당했다. 이광수는 「동정」에서 동정이 있는 세계를 "열루(熱淚)의 자릿자릿한 맛도 알고 사랑의 싸뜻하고 보드라운 맛도 볼" 수 있는 곳으로, 동정이 없는 세계를 "칼이 잇고 어름이 잇고 쟁투와 살벌이 잇서 지옥의 고토(苦土)를 현출"하는 곳으로 묘사했다.[88] 즉 동정의 유무를 따뜻함과 차가움이라는 감각

84) 위의 책, 63쪽.

85) 권보드래,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 운동」, 『대동문화연구』 제6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234쪽 참고.

86) 박성진, 「일제하 인종주의의 특성과 적용형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6, 110쪽.

87) 당대 담론장에서 이러한 인종개선의 논리를 떠받치고 있던 것 역시 바로 '과학'이었다. 예컨대 『우리의가뎡』에 실린 「인종기선학」(1914.2)은 우생학자 골턴(Francis Galton)의 이름을 빌려, 문명진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종개선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1920년대 초 『개벽』의 필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경향은 공통적으로 동정이 없는 세계를 '냉(冷)세계'나 '빙(冰)세계' 등으로 비유했다. 그리고 청년들은 바로 이러한 '빙세계'를 녹이고 조선을 문명화로 이끌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개조의 주체들로 호명되었다.[89]

1910~1920년대 초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다룬 서사들, 예컨대 이광수의 「윤광호」(『청춘』, 1918.4), 김환의 「동정의 루(淚)」(『학지광』, 1920.1~7), 이희철의 「K선생을 생각함」(『창조』, 1920.3) 등에 나타난 남성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동정이 없는 세계를 얼음과 같이 차가운 세계로 표현하고, 이 세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또 다른 남성을 간절히 욕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1910~1920년대 초 퀴어 서사에 등장한 남성들 사이의 성애적 친밀성이 동정이나 우정의 이름으로 봉합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처럼 함께-있음을 환기시키는 남성들 사이의 동정이라는 정동이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되었다면, 1910~1920년대 초의 문학에 나타난 퀴어들은 기실 문명의 전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의 남성 작가들은 퀴어를 표현하는 것이 내부의 타자로 인식될지도 모른다는 부담 없이, 동성을 향한 욕망을 비교적 '자유롭게' 서사화할 수 있었다.

특히 동정을 위시한 감정의 표출에 주력했던 당대 문학은 '민족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문명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예컨대 이광수는 「문학의 가치」(『대한흥학보』, 1910.3)에서, 지(智)나 의(意)로부터 독립된 "정(情)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문학이 인간 사회에 상존하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근대 과학의 발전, 프랑스혁명, 미국의 노예해방 등을 비롯한 문명으로의 진보란 모두 문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90] 또한 그는 「문학이란 하(何)오」(『매일신보』, 1916.11.10~23)에서도 문학을 "인(人)의 사상과 감정을 발표"함으로써, 인생에서 겪는 숱한 감정들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문학의 본령이란 독자로 하여금 "인류의 최각(最覺)한 덕이요, 다수 선행의 원동력 되는 동정심"을 갖게 하는 것이자, 세대를 거듭해 "민족의 정신적 문명"과 "민족성의 근원"을

88) 이광수, 앞의 책, 57-58쪽.
89) 손유경, 앞의 책, 75-81쪽.
90) 이보경, 「문학의 가치」, 『대한흥학보』 제11호, 1910.3, 15쪽 및 17-18쪽.

전달하는 것이었다.[91]

이처럼 이광수가 주장한 계몽 담론의 핵심에 '정(情)의 해방'이 놓여 있었음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김행숙에 따르면, 이광수에게 있어 '정의 해방'이란 "감정의 배치와 친밀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로서, "전근대적인 관습, 이른바 구습의 해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92] 이광수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문인들이 "전근대적인 관습"의 대표로 조혼을 이야기하고, 이를 극렬히 거부하면서 자유결혼과 자유연애를 부르짖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의 맥락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전근대적인 관습"이 "'도방'이나 '복록방'에서 여러 연령대의 남자들이 혼숙을 하면서, 나이가 든 남자들이 어린 남자 아이들을 보채며 반강제적으로 항문 성관계를 하는"[93] 관습을 가리키기도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무정』(『매일신보』, 1917.1.1~6.14)에는, 구습의 징표로서 적극적으로 거부되었던 남성을 향한 남성의 욕망과, 문명의 전위로서 적극적으로 요청되었던 남성들 사이의 욕망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 형식은 인력거 위에서 자기가 첫 번째 평양에 오던 생각을 하였다. 머리는 아직 깎지 아니하여 부모상으로 흰 댕기를 드리고 감발을 하고 (…) 종일 평양 구경을 하다가 관 앞 어떤 객주에 들렀다. 탕건 쓴 주인이 '너 돈 있니?' 할 때에 (…) '나도 손님인데' 하면서 서슴지 아니하고 아랫목에 내려가 앉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 이튿날이 평양장이라 하여 감발한 황화장사들이 십여 인이나 형식의 주인에 들었다. 형식은 얼마큼 무서운 생각이 있으면서도 아주 태연한 듯이 벽에 바른 종이의 글을 읽었다. 그러나 밤에 자려 할 때에 같이 있던 이삼 인이 서로 다투어 형식의 곁에서 자려 하였다. 형식은 무서운 마음이 생겨서 방 한편 구석에 말없이 앉아서 그 사람들의 하는 양을 보았다. (…) 세 사람은 한참이나 다투더니 그중에 제일 거무데데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웃고 형식을 안으며 '얘, 나허고 자자, 돈 주께' 하고 형식의 목을 쓸어안으며 입을 맞추려 한다. 형식은 울면서 방 안에 둘러앉은 십여 명을 보았다. 그러나 모두 벙글벙글 웃을 뿐이요

91)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이광수전집』 제1권, 삼중당, 1966, 507-512쪽.
92) 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제33집, 상허학회, 2011, 70쪽 및 73쪽.
93) 박관수, 앞의 책, 399쪽.

그중에 한 사람이 '얘, 나허고 자자' 하며 자기의 주머니에서 엽전을 한 줌 집어낸다. 형식은 반항하였다. 그러나 그 거무데데한 사람의 구린내 나는 입이 형식의 입에 닿았다. (…) 이때에 저편 구석에 말없이 앉았던 키 큰 사람이 벌떡 일어나 달아 오더니 형식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의 상투를 잡아 당기며 주먹으로 귀쌈을 서너 번 때리더니 방바닥에 그 사람을 엎드려 놓고 '이놈! 이 짐승놈!' 하고 발길로 찬다.(제56회, 강조—인용자)[94]

㉡ 형식은 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가 학생들에게 대한 일언일동은 어느 것이나 뜨거운 사랑에서 아니 나옴이 없었다. 형식은 어린 학생들의 코도 씻어주고 구두끈과 옷고름도 매어주었다. 어떤 교사들은 형식의 이렇게 함을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형식이가 학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을 좋지 못한 뜻으로까지 해석하였다. 더구나 형식이가 이희경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필연 희경의 얼굴을 탐내어 그러는 것이라 하며 어떤 자는 형식과 희경의 더러운 관계를 확실히 아노라고 장담하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형식도 어떤 친구에게 충고를 받은 일도 있었고 희경도 동창들 사이에 좋지 못한 조롱을 받은 일도 있으며 희경이가 우등을 하는 것은 형식의 작간이라고 험구를 하는 자도 있었다. / 그러나 형식은 여전히 학생들을 사랑하였다. 만일 학생들 중에 사람의 피를 마셔야 살아나리라 하는 병인이 있다 하면 형식은 달게 자기의 동맥을 끊으리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중에도 이희경 같은 몇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듯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다.(제67회, 강조—인용자)[95]

먼저 ㉠은 이형식이 자신의 유년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객주에서 성인 남성이 어린 형식을 강간하려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성인 남성들과 한방에 자게 되었을 때 형식에게 즉각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는 대목은 객주 등에서 성인 남성이 소년을 강간하는 '문화'가 당대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방증한다.[96] 주목할 것은 서술자가 "댕기", "탕건", "감발", "상투" 등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시대가 아직 단발(斷髮)을 하지

94) 이광수,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215쪽 및 217-218쪽.
95) 위의 책, 259-260쪽.
96)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강간 문화가 서론에서 언급한 종류의 수동무 관계, 즉 남성들 사이의 지속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않은 '전근대적' 시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에 나타난 남성을 향한 남성의 성적 욕망이 타파되어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자 야만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무정』이 씌어진 1917년의 이광수에게 있어, 항문 성교와 같은 남성 간의 육체적 성행위는 점차 야만의 징표이자 내부의 타자의 징표로 이해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에는 형식이 제자인 이희경에 대해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듯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있음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과 희경의 관계를 가리켜 동료 교사와 학생 들이 "좋지 못한 뜻"이나 "더러운 관계"라고 수군거림에도, 형식이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도 드러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무정』의 희경은 「K선생을 생각함」의 저자이자, 그에 대한 답신인 이광수의 「H군의게」(『창조』, 1920.7)에서 차가운 세상을 녹일 "일백건아의 대표"라는 뜻의 "히터(Heater)"[97]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희철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98] 나아가 만약 희경이 자신의 피를 먹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내어주겠다는 모티프 역시, 요절한 이희철을 추모하며 쓴 「H군을 생각하고」(『조선문단』, 1924.11)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이처럼 1910~1920년대 초 이광수의 작품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독해했을 때 이형식-이희경의 관계란 기실 이광수-이희철의 관계와 거의 일치하며, 이들의 관계는 동정을 상징하는 '뜨거운' 감각으로 충전되어 있는바, 문명의 전위로 승인되는 퀴어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서 형식이 교사와 학생 들의 수군거림에도 비교적 의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

즉 1910~1920년대 초에 남성들 사이의 욕망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이분되어 이해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욕망은 문명의 전위로 또 육체적 욕망은 야만의 징표로 활용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는 윤익선의 「엄격한 의미로 본 오인(吾人)의 행복」(『개벽』, 1921.6)에서 볼 수 있듯이, 육체와 정신이 외부와 내부로 비유되면서 이분법적으로 이해되던 정황, 즉 "육체는 정신의 뇌옥"으로서 음탕한 성욕으로 인해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원흉으로 규정되었

97) 춘원, 「H군의게」, 『창조』 제7호, 1920.7, 59쪽.
98) 권두연, 「소설의 모델, 독자, 작가—이희철의 문학적 행보에 대한 고찰」, 『비평문학』 제42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 44-50쪽.

던 정황과 맞닿아 있었다.[99]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 방식이 곧 남성들 사이의 육체적 욕망 일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이광수는 『무정』에서 "외모만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의 사랑이요 정신만 사랑하는 사랑은 귀신의 사랑이다. 육체와 정신이 한데 합한 사랑이라야 마치 우주와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깊고 봄날과 같이 조화가 무궁한 사랑이 된다."[100]라고 썼다.

물론 소설에서 이는 명백하게 이성 간의 사랑을 지시한다. 그러나 『무정』 완재 직후에 발표한 「어린 벗에게」(『청춘』, 1917.7~11)의 "엇지하야 우리는 아름다은 사람(남자나 여자나)을 보고 사랑하여 못 쓰나잇가, (…) 아름다운 꽃을 대할 쌔 그것을 감상하고 읍져리고 찬미하고 입 마초지 아니하나잇가. (…) 그의 얼굴을 대하고 말소리를 듯고 손을 잡기를 엇지 금하오리잇가"[101]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광수에게 사랑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부착될 수 있는 감정이었다.[102] 즉 "문명할사록 (…) 정신적 만족을 육체적 만족보다 더 귀히 녀기는 것"[103]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신적 만족"이라는 "귀신의 사랑"만으로는 전인격적 사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이광수의 판단이었고, 이는 남성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그는 구습을 환기하는 항문 성교를 제외하면, 입을 맞추거나 허리를 쓸어안는 행위 등과 같이 몸의 접촉에 대한 욕망을 반복적으로 서사화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단지 이광수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당대 담론장에 매우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던 종류의 것이었다. 1910~1920년대 초는 "서로 벗이 되어 (…) 웃고 즐기고 입 마치고 껴안으며 새 힘을 엇고 새 느낌을 받는 것"이 "교우의 극치"[104]로 의미화되던 시대였고, "사랑하는 벗"이 이상을 실현하는지를 지켜본 뒤 그를 "친구로 계속하던지 나의 애인으로 하던지"[105]를 결정하겠다는 시적 화자가 무리 없이 문학장에 그 모습을 드러내던 시대였다. 즉 포옹이나 키스 등으로 대표되는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

---

99) 윤익선, 「엄격한 의미로 본 오인의 행복」, 『개벽』 제12호, 1921.6, 30-31쪽 참고.
100) 이광수, 『무정』, 414쪽.
101)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9호, 1917.7, 108-109쪽.
102) 신지연, 「이광수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성 간 관계와 감정의 언어화 방식」, 『상허학보』 제21집, 상허학회, 2007, 192쪽 참고.
103) 외배, 앞의 책, 106쪽.
104) 「벗의 왕국」, 『개벽』 제3호, 1920.8, 122쪽.
105) 보월, 「애우」, 『개벽』 제15호, 1921.9, 139쪽.

‘우정’의 상징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모스(George L. Mosse)가 지적했듯이, 동성성애(homoeroticism)는 동성애(homosexuality)와 달리 육체적 사랑보다 정신적 사랑을 더욱 강조했으며, 우정이라는 숭고한 이상은 바로 이 동성성애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106] 이처럼 1910~1920년대 초에 우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현한 남성 간의 성애적 욕망은 문명으로 나아가는 힘을 추동하는 근원이었고, 따라서 ‘안전하게’ 공론장에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3장에서 다시 다루듯이, 동성 간의 ‘사랑’으로 불렸던 이 모종의 성애적 욕망은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도를 초과해 ‘연애’를 추구하는 배타적 욕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1910~1920년대 초에 문명의 전위로 승인되었던 동성 간의 성애적 욕망이 퀴어한 욕망과 잇닿아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동정=사랑=퀴어한 욕망’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면, 나아가 1910년대 혁명의 주체였던 소년과 청년 들에게 이러한 ‘동정=사랑=퀴어한 욕망’이 문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되었다면, 당대 청년들은 퀴어한 욕망을 가졌음에도 문명의 전위로 소환되었던 것이 아니라, 퀴어한 욕망을 가졌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문명의 전위로 호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우정’이라는 형식에 늘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었던 동성성애적 욕망을 표현하는 행위는 곧바로 정체성 범주로서의 과잉성애화된 동성애자, 즉 내부의 타자로 인식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1910~1920년대 초의 문학은 동성 간의 ‘사랑’을 전파하는 발신지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독자를 충독(蟲毒)할 만한 음담패설을 재료로 한 문학을 작(作)”[107]하는 것을 경계했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범주적 정체성으로서 동성애로 재배치될 동성 간의 사랑을 재현한 서사는 “음담패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동성애혐오는 문학의 영역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1920년대 중반 이후 문명 담론과 동성애 담론이 절합되면서, 문명의 전위였던 퀴어는 결국 내부의 타자로서 ‘그들’이라는 야만인·이방인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동성애 담론이 ‘과학’과 ‘의학’의 이름으

---

106)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회 역, 소명출판, 2004, 124-125쪽.

107)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510쪽.

로 유입되었다는 점이 특히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르 블랑(Guillaume Le Blanc)은 『안과 밖(Dedans, Dehors)』에서 “외국인은 국가의 규범들에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존재하기를 그친 모든 사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08]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재원으로 상상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을 통칭하는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 당시 ‘야만’의 영역에 배치된 동성애자들은 이후 바로 이러한 의미의 외국인·비국민이 되었으며, 민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 존재해선 안 될 불순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지식인-문인들이 계몽자이자 선각자로서의 위치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동성 간 욕망의 표현 자체를 거부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제 문학(장)에서 퀴어한 존재와 욕망은 “지배적 규범에서 일탈한 타자로 표지가 붙여지고”, 이에 따라 퀴어 서사는 점차 비가시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109]

108) 기욤 르 블랑, 『안과 밖』, 박영옥 역, 글항아리, 2014, 12쪽.
109)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역, 모티브북, 2017, 272-273쪽 참고.

제2절 미래/희망의 기호로서의 청년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광수에게 있어 '정의 해방'을 통한 "참생활"이란 유교적 질서나 타인의 욕망을 경유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삶을 꾸려나가는 문명한 것이었다.[110] 이처럼 유교적 질서로 대변되는 과거와의 단절이 1910~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의 담론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였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문명 및 개조에 대한 희망을 어떤 단일한 사상의 프리즘만으로 해명하려는 시도가 무참히 실패하리라는 점 역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근대성이 정의할 수 있는 한정된 관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 또는 실천들을 비-근대와 동일시(identify)해야 한다"[111]는 사실이다. 이처럼 문명 및 개조에 대한 희망이 담지하고 있던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 즉 인류적 차원에서의 자유의 점진적 확대라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것에 반하는 '후진성(backwardness)'과 깊이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당대의 지식인-문인들이 역사가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제1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후진성을 표상하는 외부 및 내부의 타자를 반드시 발명할 필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112]

예를 들어 박석윤은 「자기의 개조」(『학지광』, 1920.7)에서, 전통이라는 노예상태로부터 벗어나, 참사람·참사랑·참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 영구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개조의 본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도덕이 요구되는 법인데, 타성에 젖은 민중들은 이러한 새로운 도덕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전통이라는 노예 도덕을 고수한다고

---

110) 이광수, 『무정』, 337-340쪽.

111) Dipesh Chakrabarty, *Habitations of Modernity: Essays in the Wake of Subaltern Studies*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ix.(Heather Love, *Feeling Backward: Loss and the Politics of Queer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 5에서 재인용.)

112) 이는 1900~1910년대 청년 담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소영현에 따르면, 『소년』은 "청년을 '우리'의 이름으로 호명"함으로써, "'우리'와 '청년'이 아닌 존재의 근본적 불충분함을 폭로하는" 방식의 수사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동일한 수사학은 『청춘』과 『학지광』 등에서도 발견된다.(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51쪽.) 대표적으로 현상윤의 「조선 청년과 각성의 제일보」(『학지광』, 1918.3)를 들 수 있다.

비판하기도 했다. 즉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소수의 지식인들이며, 대다수의 민중들은 오히려 이러한 역사의 진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가 말하는 역사의 진보란, "자기의 개조"를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됨으로써, 전 인류가 '깨어 있는'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는 데 조선인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113] 이처럼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직선적 시간관을 전제한 뒤, 보다 완벽한 이상적 사회라는 목적(telos)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진보적 역사관[114]은 기실 진보에 참여하는 주체와 참여하지 않는 주체를 구분하는 것을 반드시 수반한다.

이러한 박석윤의 주장은 『개벽』에 실린 이돈화의 글들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이돈화는 「생활상으로 관(觀)한 경제관념의 기초」(1921.5)에서,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희구하는 욕망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사람성(性)"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욕망의 가치를 개조"하고 "욕망의 범위를 향상"함으로써, "문화건설"과 "문명향상"이라는 이상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때 주목할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는 "퇴화의 악마에 불과"하다는 그의 언술이란 기실 "미래적 신(新)욕망"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주장이었다는 점이다. 이돈화에 따르면, 이러한 "미래적 신욕망"은 청년들에게 깃들기 쉬운바, 그는 세대를 기준으로 진보에 참여하는 주체와 불참하는 주체를 적극적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다.[115]

이와 같이 지식인과 민중을 대비시키고 젊음과 늙음을 대비시킴으로써, 지식인-청년을 신문화건설의 주체로 호명하는 전략은 『개벽』 제15호(1921.9)에 실린 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여기에서 이돈화는 당대 조선이 무궁한 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소년의 조선"이라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어떤 문명의 발달이 극치에 다다를 경우 그 문명이 쇠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명의 맹아가 싹튼다. 소년과 청년들은 바로 이러한 맹아로서, 정신의 개조를 통해 선조들이 이룩한 과거의 역사·문화를 뛰어

113) 박석윤, 「자기의 개조」, 『학지광』 제20호, 1920.7, 8-10쪽 및 13쪽.
114) 김홍중,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시학—니체와 벤야민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70호, 비판사회학회, 2006, 90쪽.
115) 이돈화, 「생활상으로 관한 경제관념의 기초」, 『개벽』 제11호, 1921.5, 11-15쪽.

넘어,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116]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죠선은 갓난애기라 함니다. 처음 보기에는 참 어리지요! 샛쌀갓치요! 그러나 그 생장은 빠르고 그 발육은 기르는 법이 죠흐면 죠흘사록 완전순결할 줄 암니다."라는 주요한의 문장에서도 발견된다.[117]

이처럼 소년이나 청년을 진보의 주체로 호명하는 태도가 당대 담론장을 지배하고 있었음은 최남선이 1910년대에 주재한 잡지들의 성격만 일별해보아도 쉽게 짐작 가능하다.[118] 특히 「『소년』의 기왕과 및 장래」(『소년』, 1910.6)는 어릴 적부터 신문광(新聞狂)이었던 최남선이 『소년』을 만들게 된 배경과 그 목적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소년』의 목적은 소년들을 깨닫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란 결코 쉬이 달성될 수 없었다. 이때 최남선이 거듭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잡지 주재라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젊은 사람—자라가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즉 "더운 피"로 상징되는 청년 특유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정신상 물질상으로 허다한 장해"를 만나도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119] 또한 이러한 열정은 「잡언십(雜言十)」(『소년』, 1910.8)에서 보듯이, 문명한 미래를 향한 원동력으로서의 희망과 노력으로 의미화되기도 했다.[120]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년이나 청년이라는 혁명의 주체들은 반드시 '성장'을 전제한 뒤에라야, 미래와 희망의 기호로서 그 지위를 점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광수의 『무정』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민호에 의하면, 『무정』 제115회에서 형식

---

116) 이돈화, 「생활의 조건을 본위로 한 조선의 개조사업, 이 글을 특히 민족의 성쇠를 쌍견에 부한 청년제군에 부팀」, 『개벽』 제15호, 1921.9, 2-6쪽.

117) 벌꼿, 「장강 어구에서」, 『창조』 제4호, 1920.2, 59쪽.

118) 최남선은 1910년대에 『소년』, 『붉은져고리』, 『아이들보이』, 『새별』, 『청춘』 등 총 다섯 종의 잡지를 주재했다. 이 중 『소년』과 『청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소년'과 '청년'을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 외 세 개의 잡지는 모두 아동잡지이다.(최덕교, 『한국잡지백년』 제1권, 현암사, 2004 참고.) 이는 곧 소년, 청년, 아동 등이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재목들로 소환되었음을 의미한다.

119) 최남선, 「『소년』의 기왕과 및 장래」, 『소년』 제3권 제6호, 1910.6, 16-18쪽.

120) 최남선, 「잡언십」, 『소년』 제3권 제8호, 1910.8, 9쪽: "문명은 희망의 연속이라. / 속에 잇난 희망이 것흐로 나오면 노력이 되나니 모든 문명은 이 노력의 집적이어늘 노력은 희망의 아들이니라. / 사회란 덩어리를 만든 자는 누구뇨, 역사를 생기게 한 자는 누구뇨, 희망은 모든 것의 원동력이로다."

은 조선의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주의에만 경도되었던 자신의 태도를 “어린애” 같은 행동이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방민호는 이광수의 “어린애”라는 표현을 칸트(Immanuel Kant)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에 등장하는 “미성년”의 번역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방민호가 주목한 것은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칸트의 문장이었다. 이 문장을 통해 그는, 형식이 “결단과 용기”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형식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21] 이러한 분석은 매우 타당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사항이 더 덧붙여져야 하리라 판단된다. 방민호가 인용한 대목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형식의 상상은 더욱 날개를 펴서 이희경 일파를 생각하고 경성학교 학생 전체를 생각하고 또 서울 장안 길에서 보던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성명도 모르는 남녀 학생들과 무수한 어린아이들을 생각한다. 그네들이 모두 다 자기와 같이 장차 나갈 길을 부르짖어 구하는 듯하며 그네들이 다 자기의 형이요 동생이요 누이들인 것같이 정답게 생각된다. 형식은 마음속으로 커다란 팔을 벌려 그 어린 동생들을 한 팔에 안아본다. / 형식의 생각에 자기와 선형과 또 병욱과 영채와 그 밖에 누군지 모르나 잘 배우려 하는 사람 몇십 명 몇백 명이 조선에 돌아오면 조선은 하루이틀 동안에 갑자기 새 조선이 될 듯이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슬픔을 잊어버리고 혼자 빙그레 웃으며 잠이 들었다.(제115회, 강조—인용자)[122]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어린애”라고 명시되지는 않지만) 소년소녀와 학생은 “미성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잘 배우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조선을 문명국으로 만들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한 존재들로 묘사된다. 이와 관련해, 『무정』의 가장 유명한 대목인 삼랑

121) 방민호, 「「문학이란 하오」와 『무정』, 그 논리구조와 한국 문학의 근대 이행」, 『춘원연구학보』 제6집, 춘원연구학회, 2012, 237-239쪽; 임마누엘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13쪽.
122) 이광수, 앞의 책, 433-434쪽.

진 수해 장면 역시 주목을 요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장면에서 형식 일행은 "만삭 된 태모"의 간호를 맡은 것이 계기가 되어 수재민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그 자선음악회에서 병욱·영채·선형이 합창한 노래의 첫 구절이 "어린 아기 보챕니다 / 젖 달라고 보챕니다 / 짜도 젖이 아니 나니 / 무엇 먹여 살리리까"였다는 점 역시 자못 의미심장하다.[123] 이처럼 아이와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서술은, 형식 일행이 개최한 자선음악회가 궁극적으로 '아이=희망'을 구출하는 행위, 즉 문명화를 예비하는 노력인 것처럼 읽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장을 전제한 아이'라는 희망의 상징은 『무정』의 결말이 보여주는 미래의 문명한·유정한 세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태도를 추동하게 된다. 이때 『무정』의 결말은 형식이 "어린애" 같은 이상주의적 태도를 버리고자 했으나, 결국 아이라는 희망의 기호에 사로잡혀 다시금 그러한 이상주의적 태도로 말려 들어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아이라는 기호를 둘러싼 당대의 중층적인 의미부여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낙관적 희망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했다. 이러한 균열에 의해, 이광수는 형식 일행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제125회의 장면에, "생물학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새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쌍하다"[124]라는 계몽에 대한 비판적 언술을 슬며시 끼워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성장을 전제한 아이가 희망의 상징이라는 이광수의 인식은 『청춘』 제3호 권두시인 「새 아이」(1914.12)에서도 나타난다. 이 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네눈이 밝고나 엑스빗갓다 / 하늘을 째쑬코 쌍을들추어 / 온가지 진리를 캐고말랸다 / 네가 「새 아이」로구나
> 네손이 슬귑고 힘도크도다 / 불길도 만지고 돌도줌을너 / 새롭은 누리를 지려는고나 / 네가 「새 아이」로구나
> 네맘이 맑고나 예민도하다 / 하늘과 쌍새에 미묘한것이 / 거울에 더밝게

123) 위의 책, 448-462쪽 참고.
124) 위의 책, 466쪽.

비최는고나 / 네가 「새 아이」로구나
네인격 놉고나 졍셩과사랑 / 네손발 가는대 화평이잇고 / 무심한 미물도
다밋는고나 / 네가 「새 아이」로구나[125]

주목할 것은 「새 아이」에서 "네 맘이 맑고나 예민도하다"로 시작하는 3연을 생략하고, 반복구인 "네가 「새 아이」로구나"를 "네가 참다섯뫼의 아이로구나"로 교체하면, 이광수가 작사한 오산학교 교가가 된다는 점이다.[126] 주지하듯이 『무정』을 비롯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그린 이광수의 1910년대 소설은 바로 이 오산학교를 주요 무대로 삼고 있다. 이는 이광수 초기 소설에 재현된 청년들 사이의 '동정=사랑'이 희망으로 충전된 관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광수에게 있어, 이웃 간의 동정은 사회·국가·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출발점이었으며,[127] 문학은 감정교육[情育]을 통해 '동정=사랑'을 전파함으로써 감정-공동체를 만드는 매개였다.[128] 즉 '동정=사랑'이라는 감정은 문명의 전위이자 미래의 기호인 청년들을 정서적으로 묶어주는 접착제로 기능하며, 그리하여 정치적·사회적 집결체인 감정-공동체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129] 그렇다면 청년들 간의 '동정=사랑'을 확산시키는 이광수의 퀴어 서사 역시, 역사의 진보를 위한 초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와 희망의 기호로서 청년들이 '동정=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인식은 이광수라는 특정한 작가나 오산학교라는 특정한 공간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학지광』 제6호(1915.7)에 실린 학우회 졸업생들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장덕수는 「졸업생을 보내노라」에서, 사회 발전의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력을 대표하는 자"인 청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문명한 꼿동산"으로의 전진을 방해하는 퇴보와 타락의 징후들을 타파하는 것을 청년의 임무로 규정하기도 한다.[130] 환언하자면, 장

125) 외배, 「새 아이」, 『청춘』 제3호, 1914.12, 2-3쪽.
12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제1권, 솔출판사, 1999, 292-293쪽.
127) 이보경, 「금일 아한 청년과 정육」, 『대한흥학보』 제10호, 1910.2, 17쪽.
128) 배개화, 「이광수 초기 글쓰기에 나타난 '감정'의 의미」, 『어문학』 제95집, 한국어문학회, 2007, 357-358쪽.
129) 박미선, 「행복을 통한 규율과 "정서적 변환"의 정치 비판—사라 아메드의 『행복의 약속』」,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58쪽.
130) 장덕수, 「졸업생을 보내노라」, 『학지광』 제6호, 1915.7, 4-5쪽.

덕수의 글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전제한 뒤,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외부 및 내부의 타자를 척결할 혁명의 주체로 청년을 호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박이규의 「여(余)의 직관적 소감」은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려는 희망을 "청년의 출발점이며 기초"로 설정한다. 이에 따르면, 청년은 "품격이 고상하며 사상이 원대하며 공명정대한" 청년을 벗으로 삼아 자신을 수양하고, 이러한 자립을 통해서만 "참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131]

주의할 것은 박이규가 말하는 자립에는 반드시 좋은 벗[良友]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정충원의 「아아 형제여」가 말하듯, 이러한 자립이 "개인과의 개인" 즉 "단독적 개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학우회 회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민족과의 개인" 즉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개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강력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랑 만은 형 밋 아우들" 즉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야 했음을 의미한다.[132] 이처럼 학우회 회원들에게 있어, 문명으로의 진보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이 공동체는 김이준의 「출진하는 용사 제군의게」에서 보듯이, "동정의 혈루" 및 "박애의 희생"이라는 '감정'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133]

이를 종합한다면,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는 감정-공동체의 구축이야말로 문명진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남성 청년들의 감정-공동체를 구축한 뒤,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업적을 이룩한 카보우르(Camillo Benso Conte di Cavour)처럼 국가를 "자기의 일생 애처(愛妻)"로 삼는 삶이 1910~1920년대 초 담론장에선 하나의 이상적인 삶의 태도로 제시되기도 했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공동체의 구축은 최승구와 나경석 사이에 오갔던 편지를 잡지에 수록하는 방식,[134] 즉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보듯이 서간체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131) 박이규, 「여의 직관적 소감」, 위의 책, 20-21쪽.
132) 정충원, 「아아 형제여」, 위의 책, 38쪽.
133) 김이준, 「출진하는 용사 제군의게」, 위의 책, 29쪽.
134) "K, S형에게"에게 보내는 최승구의 「정감적 생활의 요구」(『학지광』, 1914.12)와 이에 대한 나경석의 답신인 「저급의 생존욕」(『학지광』, 1915.2)을 가리킨다.(권유성, 「1910년대 『학지광』 소재 문예론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4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14쪽 참고.)

한편 안확은 「조선의 문학」(『학지광』, 1915.7)에서, 문학을 "미감상(美感想)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자 "인(人)의 사상을 활동식히며 이상을 진흥식히는 기계"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는 당면한 "민족성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문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문학 자체가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감정-공동체를 구축하는 매체이며, 이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민족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즉 안확에게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문학이란, 과거의 유교적 질서로부터 탈피해 "자손 만세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었다.[135][136]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텍스트로 이광수의 「자녀중심론」(『청춘』, 1918.9)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조선은 부조(父祖)를 중심으로 한 "뒤만 돌아보는 생활"을 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 "앞만 내다보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녀를 부조의 노예로 만"드는 유교적 질서로부터 탈피해, 문명국과 같이 자녀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문명국에서 자녀가 해방되었다고 조선에서 그를 본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혹자의 질문에 대해, 이광수가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전혀 모르는 자의 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광수가 전 인류의 보편적 자유 확대라는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이광수의 진보적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족과 세대의 문제였다. 그에 따르면, 자녀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종족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세대를 거쳐 종족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글을 끝맺는다.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가치를 부쳐야 할 것이라. (…) 자녀여, 너희야말로 우리의 중심이오 희망이오 깃븜이로다."[137]

---

135) 안확, 「조선의 문학」, 『학지광』 제6호, 1915.7, 64쪽 및 72-73쪽.

136) 이러한 인식은 신채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송지연에 따르면, 신채호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상적인 국민상을 체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소설의 도구적 가치를 신봉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문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채호는 "구성원 전부를 무조건 동원하게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즉 그는 문학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안확의 「조선의 문학」이나 이광수의 「문학이란 하오」 등으로 이어지면서, 문명화를 향한 감정-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송지연, 「1910년대 계몽의 기획—근대소설과 근대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4집, 구보학회, 2008, 124-125쪽 및 136쪽 참고.)

요약하자면 「자녀중심론」은 역사의 진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자녀(청년)'라는 상징적 기호에 투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직선적인 시간관 속에서 모든 개인은 오직 종족의 미래와 다음 세대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는 곧 이광수에게 있어 미래가 "'진보', '발전', '해방', '유토피아' 등의 수사로 장식되어 있던 개념"이었으며, 또한 "언제나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의 시간"[138]을 의미했음을 암시한다. 물론 이광수는 "인류의 목적이 (…) 개체의 보전과 종족의 보전 발전에 잇다 하면 천하의 중심은 자기요, 다음에 중한 것은 자손일 것이니 타인을 위하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악(惡)이라"[139]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동시에 그가 결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결국 모든 개인이 결혼과 재생산을 통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인을 위하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악으로 설정했던 것 역시 자유결혼과 자유연애를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자녀중심론」은 석란생(石蘭生)의 「소설 임상순」(『개벽』, 1921.6~7)에 나타난 사유와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자녀들이나 잘 가르치어서 그들로 하여곰 낙 잇는 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근거로 조혼의 폐해를 참고 견디라는 주장에 맞서,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충실한 생을 개척하는" 것이 제일의(第一義)인바 사회와 국가를 위해 개인의 욕망을 희생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주인공 상순의 반박과 공명하는 것이다.[140] 이처럼 자유결혼 및 자유연애에 대한 갈망은 결코 결혼과 재생산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를 통해 양산되는 '아이'라는 희망의 상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오히려 결혼과 재생산은 이미 전제되어 있되, 그 전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유교적 질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태도에 가깝다. 다시 말해, 당대의 지식인-문인들에게 있어 아이라는 희망의 상징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컨대 이광수에게 있어 이상적인 미래란 기실 "아해가 되고

137) 춘원, 「자녀중심론」, 『청춘』 제15호, 1918.9, 9-17쪽.
138) 김홍중, 「미래의 미래」,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50쪽.
139) 춘원, 앞의 책, 12쪽.
140) 석란생, 「소설 임상순」, 『개벽』 제13호, 1921.7, 144-145쪽.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된 뒤, "건강한 부(夫)와 부(婦)가 철웅(鐵雄) 가튼 자(子)와 녀(女)를 다수히 산(産)하는 가족"이 되는 것,[141] 그리고 이를 통해 '승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진보적 역사관이 동성애 담론과 만났을 때, 퀴어는 "미래적 신욕망"이 없는 '야만'과 퇴화의 징표로서, 혐오의 대상이자 내부의 타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동성애 담론의 수용과 정착은 결국 동성애자를 하나의 '종'으로 발명하는 과정이었다. 동성애 담론 수입 이전의 동성 간 친밀성은 이성과의 결혼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감정적·육체적 교류였고, 그 결과 이러한 성적 실천에 참여하는 개인들 역시 재생산이 불가능한 존재로 상상되지 않았다. 반면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종'으로서의 동성애자는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에 의해 이러한 재생산이 불가능한 존재로, 따라서 미래나 희망과 같은 '긍정적' 가치를 결여한 존재로 상상되기 시작했다. 즉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동성 간의 모든 성적 실천은 "결혼이나 일부일처제에 '정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행위로 표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142]

이는 문명 담론과 동정 담론의 절합을 통해, 나아가 진보적 역사관과 미래 담론을 통해 문명의 전위이자 혁명의 주체로 소환된 '청년들' 사이의 동성 간 친밀성이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소년, 청년, 아이 등의 기호가 희망으로 충전되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이 전제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동성애자는 결혼과 재생산이라는 일대 '의무'를 행하지 않는 개인, 즉 "성장을 거부하는 아이"[143]로 이해되었다. 에델만(Lee Edelman)이 말했듯이, 퀴어는 미래와 희망을 표상하는 '아이(the Child)'를 재생산하지 못하는 상징적 존재들로, 재생산적 미래주의(reproductive futurism) 속에서 언제나 "사회적인 생존가능성의 모든 형식에 대립하는 부정성", 즉 죽음 충동만을 표상할 수 있도록 강제되었던 것이다.[144] 이에 따라 1910~1920년대 초에 폭발적으

141) 춘원, 「위선 수가 되고 연후에 인이 되라」, 『학지광』 제11호, 1917.1, 35쪽.
142) Heather Love, 앞의 책, 22쪽.
143) 위의 책, 6쪽.

로 등장했던 동성 간의 욕망을 표현한 퀴어 서사들은, 동성애를 재현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그리하여 역사의 진보와 문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 일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문학장에서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이후 동성애/퀴어를 데카당스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탄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본고는 "최소의 비용으로 새로운 노동자 세대를 재생산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 동성애혐오가 작동한다는 사회주의적 주장[145]으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도 타당한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안확과 이광수의 문학론에서 엿볼 수 있듯, 당대 문학은 세대에 걸쳐 전승되는 '민족성'과 이를 통해 획득되는 '미래성'을 특히 강조했었다. 그렇다면 문학의 영역에서 작동한 동성애혐오는 노동력의 재생산보다, 오히려 상징적인 층위에서의 희망의 재생산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이처럼 성장을 전제한 아이를 통해 재생산되는 희망, 즉 진보적 역사관이 추동하는 희망이란 기실 식민지 시기라는 역사적 암흑기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즉 이러한 희망은 좋은 삶을 약속하고 또 예언함으로써, 억압으로 경험되는 엄혹한 시간의 흐름을 묵묵히 견뎌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원시안적(遠視眼的)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약속과 예언은 매우 양가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희망이 상실될 경우 "무언가에 희망을 품을 능력이 모조리 파괴될 것"[146]을 선제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는 곧 '희망이 희망을 희망하는'[147] 순환적 구조의 탄생을 의미한다. 당대 지식인-문인들은 바로 이러한 우로보로스(Ouroboros)와 같은 희망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 복무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동성애자/퀴어가 내부의 타자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

144) Lee Edelman, "The Future Is Kid Stuff,"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2004, p. 10.

145) 노라 칼린·콜린 윌슨,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이승민·이진화 역, 책갈피, 2016, 202쪽.

146) 로렌 벌랜트, 「잔혹한 낙관주의」,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163쪽.

147) 김홍중, 앞의 책, 64쪽.

동성애자/퀴어가 이 희망의 순환적 구조를 멈출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로 포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오껭겜(Guy Hocquenghem)이 말했듯이, 동성애자/퀴어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의 단계들로서의 세대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금의 희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 다만 문명이 가멸적(mortal)임을 알 뿐이다."[148] 즉 동성애자/퀴어는 지배적 규범의 균열을 폭로하며, 역사가 세대를 거듭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그러한 직선적 시간성 자체를 해체한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1910~1920년대 초의 퀴어 서사는 미래/희망의 기호인 청년들 간의 '뜨거운' 우정을 재현함으로써 문명의 전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에 따라 동성애자로 재배치된 퀴어한 주체들은, 상술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진보적 역사관이 담지하는 희망 자체를 거부하는 존재이자 문명에 반(反)하는 야만이 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문학(장)에서 퀴어한 욕망들이 억압·은폐·굴절되는 양상은 이러한 1910~1920년대 초 담론장의 구조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148) Guy Hocquenghem, *Homosexual Desire*, trans. Daniella Dangoor, Duke University Press, 1993, p. 138, 147(Lee Edelman, 앞의 책, 31쪽에서 재인용.)

제3장 '퀴어 서사 시대'와 그 이후

제1절 서간/체 텍스트와 퀴어한 감정-공동체

1910~1920년대 초 담론장과 문학장을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바로 서간체 텍스트의 범람 현상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들은 서간체라는 형식적 층위의 동일성만을 가질 뿐, 각각의 내용은 매우 상이해 보인다. 예를 들어 ㉠ 『청춘』과 『매일신보』의 독자투고 문예란에 실린 서간체 텍스트들은 대체로 신변잡기적인 성격을 띤다.[149] 또한 이 시기 『청춘』, 『학지광』, 『학생계』, 『창조』, 『신청년』, 『여광』, 『개벽』, 『청년』, 『배재』 등에 발표된 서간체 텍스트들은 대체로 수신자인 '형'에게 개인적인 감상을 토로하는 경우에 속한다. 한편 ㉡ 이광수의 「상해서」(『청춘』, 1914.12~1915.1), 「해삼위로서」(『청춘』, 1915.3), 「동경에서 경성까지」(『청춘』, 1917.7) 등과 같이 박영희가 '서간체 기행문'이라고 명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텍스트들도 존재했다.[150] 또한 ㉢ 최승구의 「정감적 생활의 요구」(『학지광』, 1914.12) 및 「불만과 요구」(『학지광』, 1915.7), 또는 박석윤의 「C형님의게」(『학지광』, 1920.1)나 김유방의 「「K」형의게」(『폐허』, 1920.7)처럼 직접적으로 문명 및 개조를 향한 의지를 표출한 텍스트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나 고한승의 「산구(山口) C형에게」(『여광』, 1920.6)[151]를 비롯해, 다수의 서간체 소설이 창작되기도 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텍스트 중 이광수의 것을 제외하면, 1910~1920년대 초에 발표된 대부분의 서간체 텍스트는 '형'을 수신자로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고백의 내용 역시 신변잡기적인 것부터 문명 및 개조에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까지 매우 다양해 보이지만, 기실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위해 (특히) '동정=사랑'이라는

149) 신지연, 「'느슨한 문예'의 시대: 편지형식과 '벗'의 존재 방식」, 320-321쪽.

150) 김성수, 「근대 서간의 매체별 존재양상과 기능」, 『현대문학의 연구』 제4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105-107쪽 참고.

151) 이 작품은 서원(曙園)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서원이 고한승의 아호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경돈, 「동인지 『여광』의 문학과 정체성의 공간」, 『한중인문학연구』 제26집, 한중인문학회, 2009, 81쪽 참고.

감정을 추동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오광진의 「나의 편지—K형의게」(『청년』, 1922.6)를 들 수 있다. 이 텍스트는 K형과 이별할 때 '나'가 보였던 무덤덤한 태도가 결코 진심이 아니었음을, '사랑하는' K형이 알고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매우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같은 제하에 실린 「나의 편지—동군(鍊君)의게」와 겹쳐 읽을 경우, 이러한 벗들 간의 '사랑'이 역사와 미래를 광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의식의 소산임을 알 수 있게 된다.[152] 즉 신변잡기적인 것으로 보이는 서간체 텍스트조차 문명 및 개조를 향한 의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조두섭의 「신춘에 고향의 벗에게」(『배재』, 1922.11)를 들 수 있다. 이 텍스트는 빙국(氷國)을 녹이는 듯한 봄비를 바라보던 '나'가 고향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나'에게 고향은 무엇보다도 망양(望陽) 형에 대한 그리움으로 먼저 다가온다. 그리고 이렇게 "형님의 고흔 자태가 것침업시 지나자 나의 정서는 갑작이 실낫갓치 흣허지어 자아도 불각(不覺)하고 정신병자와 갓치 쌍만 나려다보고 묵묵히 안잣다가" '나'는 형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 이러한 단순한 감상은, 따뜻한 봄[陽春]이 얼음감옥을 깨뜨리고 만물에 생명을 주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게 만들기 위해 "형님이나 내나 다 갓치 이 사회를 위하야 몸을 밧치는 (…)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텍스트에서 수신자인 '형'의 이름이 '망양' 즉 '따뜻함을 바람'으로 설정된 것 역시, 이러한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텍스트는 "사랑하는 지기"들의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식민지라는 엄혹한 시대적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인 것이다.[153]

한편 임영빈의 「K형에게」(『여광』, 1920.6)에는, 편지란 원래 "자기의 정서와 생각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텍스트에서 "광명한 사회와 이상의 생활을 동경"하는 '나'는 "암흑한 사회에서 모순인 생활"을 하는 까닭에 고독을 느낀다. '나'는 파괴·개조·각성의 비애에 사로잡혀 있으며, 예의 고독을 달래고자 자신과 똑같이 비애를 느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K형에게 편지를 쓴다. 즉 '나'는 편지를 통해, K형과 서로의 슬픈 현실을 동

152) 오광진, 「나의 편지」, 『청년』 제2권 제6호, 1922.6, 43-44쪽.
153) 조두섭, 「신춘에 고향의 벗에게」, 『배재』 제1호, 1922.11, 76-79쪽.

정하는 감정-공동체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K형에게」에는 이러한 감정-공동체를 기반으로, 온 조선에 "이 번뇌의 소리 이 비애의 울음"을 퍼트림으로써, 조선의 문명 및 개조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 역시 피력되어 있다.[154] 이처럼 「K형에게」의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오광진의 「나의 편지」나 조두섭의 「신춘에 고향의 벗에게」를 비롯해, 당대 서간체 텍스트들이 구축하려 했던 청년 공동체가 기실 문명화를 향한 감정-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주목할 것은 『여광』 편집진이 제2호 목차에서 「K형에게」를 문예가 아닌 "소식"으로 분류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상술했던 서간체 텍스트 유형 중 ㉠ 개인적 감상을 고백하는 텍스트를 퀴어 서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게 만드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설"이라는 명기(明記) 하에 동일한 지면에 수록된 고한승의 「산구 C형에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서간체 "소설"은 발신자인 '나'가 친구인 R군의 일화를 수신자인 C형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그 일화란 R군이 아름다운 여성에게 반해 연애편지를 쓴 뒤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일상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차호가 발행되지 않아 미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구 C형에게」와 「K형에게」를 다른 장르로 구별할 만한 구성상의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저자인 고한승은 "소설"의 말미에 "경애하는 고송(孤松) 형에게"[155]와 같이, 『여광』 동인이었던 마해송이 '편지'의 수신자임을 명시해 놓기도 했다. 즉 이경돈의 주장처럼, 「산구 C형에게」는 "서간문을 그대로 '소설'로 소개한 경우"로 여겨질 정도로 "허구적 구성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던 것이다.[156]

「K형에게」와 「산구 C형에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유사성은 1910~1920년대 초 문학장의 장르 규범이 그리 확고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예림은 1920년대 초의 장르 미분화 양상을 지적하면서, "'소설'이라는 표제를 달고 발표된" 허구적 텍스트들이 구성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수필의 비허구적 요소들을 도입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당대

154) 석계, 「K형에게」, 『여광』, 1920.6, 15-17쪽.
155) 서원, 「산구 C형에게」, 『여광』 제2호, 1920.6, 14쪽.
156) 이경돈, 앞의 책, 92쪽.

문인들에게 소설과 수필이 서로 다른 장르로 여겨졌다고 하더라도, 결과물만을 놓고 보았을 때, 두 장르를 변별케 해주는 유의미한 차이가 양자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57] 또한 신지연 역시 1910~1920년대 초 문학장에 등장한 서간체 텍스트들을 가리켜, "'문예'라는 말이 확고한 바운더리를 형성하기 전 느슨하고 모호하게 '문예'라는 말 주위로 모여든 텍스트들"이라고 불렀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서간체 텍스트들이 허구("소설")와 비허구("실제 편지")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158]

이는 일반적으로 소설과 수필의 가장 큰 차이로 여겨지는 허구성[159]이 이 시기에는 양자를 구분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1910~1920년대 초에는 '수필'이라는 특정한 글쓰기 양식을 가리키는 명칭 역시 존재하지 않아 산문, 보통문, 소품문, 감상문, 기행문 등과 같이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160] 즉 이 시기는 소설과 수필의 경계가 불분명했을 뿐 아니라, 수필의 특성 역시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소설뿐 아니라 기존의 문학사에서 다소 배제되어 왔던 수필을 포함한 산문 일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퀴어 서사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당대 청년들의 경험과 그들이 '사회'와 관계 맺었던 양상을 보다 적실히 재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가운데 문예적 글쓰기로서의 성격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퀴어 '서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P형. 한양 일별(一別)이 어언 두 달이오. 또 보름이외다. 모교 운동장 느트나무 아레서 상별(相別)을 고할 때 연연(戀戀)한 정을 서로 난후기 어려워 눈물 겨운 그 눈으로 얼굴만 서로 쳐다보며 손목을 쥐엇다 노앗다 하다가 최후로 전신의 열정을 다 기울여 팔이 떠러저라 하고 「하우 두 유 두」를 하면

157) 김예림, 「1920년대 초반 문학의 상황과 의미—서사 장르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6집, 상허학회, 2000, 197-198쪽.
158) 신지연, 앞의 책, 313-314쪽.
159) 김현주, 「1930년대 "수필" 개념의 구축 과정」, 『민족문학사연구』 제22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3, 254-255쪽.
160) 정주환, 「수필문학의 명칭 형성과정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 3-6쪽.

서 이러한 말로 서로 발길ㅅ을 돌려 노치 안이하얏나잇가. / 「피차간 어대를 가던지 무엇을 하던지 자체(自體)의 이동(異動)이 생길 적마다 반듯이 통신하야써 천리의 상사(相思)를 서로 위로하자고」 / 그리고 또 내가 교문을 거(距)하기 한 10여 보쯤 되엇슬 때에 형님은 무슨 큰일이나 잇는 듯이 안이 무슨 절실한 부탁이나 잇는 듯이 헐덕거리며 뛰어와서 나의 어깨에 손을 언즈며 (…) 다시 내 손을 꼭 붓잡고 한 손으로 나의 뺨을 쓸어보면서 / 「이러케 어엽븐 얼굴을 언제나 다시 볼른가? 아마 만날 때는 수염도 나고…」 / 하다가 선듯이 내 손을 노흐며 / 「자— 부대부대 평안히. 응」 / 하고 돌아서지 안이하얏나잇가? 두 달 전 일이나마 어제 일 가티 그 진경(眞景)이 머리속에 그린 듯하오며 형님의 정다운 말이 귀에 살짝살짝 들어오는 듯하여이다. (…) 내가 형님의 소경(所經) 실사(實事)를 알고저 함과 가티 형님도 나의 지낸 바를 응당 알고 십허 하리이다. 그래서 별로 자랑거리도 못되고 또 청안(淸案)의 운치도 못될 듯하나 정심(情深)한 탓으로 되나 안 되나 나의 친문친견(親聞親見)한 궁왕실답(躬往實踏)한 만주행의 소감을 긔록하야 보내나이다. 시취(詩趣)가 만코 여행을 조화하시는 형님이라 의례히 이 편지에 정다운 「키쓰」를 줄ㅅ줄 그윽히 자신하나이다.(강조—인용자)[161]

'나'가 P형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방정환의 「경성 P형에게」(『개벽』, 1920.6)에는 '나'와 P형 사이의 달뜬 감정과 함께, 손목을 쥐거나 뺨을 쓰다듬는 등의 친밀한 신체 접촉이 묘사되어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10~1920년대 초의 청년들은 문명의 전위로서 벗들과 '뜨거운' 감정을 나누고, 이를 통해 역사를 진보시키는 개조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주는 접착제는 '우정'의 상징인 몸과 몸 사이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었다.[162] 가까운 예로 앞서 언급

161) ㅅㅎ생, 「경성 P형에게」, 『개벽』 제1호, 1920.6, 102-103쪽.

162) 이는 제1장 제2절에서 인용했던 해북생의 「병우」와 제2장 제1절에서 인용했던 「벗의 왕국」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번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벗의 왕국」을 다시 한 번 인용하기로 한다. "형제여 나를 조금이나 회의치 말지어다. 나는 별로 측측한 마음이 업소라. 다못 엇더케 하면 나의 하고 십흔 마음의 일을 남에게 베풀어 보고 남의 슯흠과 깃븜을 내가 더불어 가티 늣겨 볼가 몃가지 절원(切願)뿐이다. (…) 아아 서로 벗이 되어 그리고— 웃고 즐기고 입마치고 껴안으며 새 힘을 엇고 새 느낌을 느끼는 것! 이것이 교우의 극치가 안일가. 이런 교의(交誼)가 이 세간을 경위(經緯)하야 하로 바삐 벗의 왕국을 버퍼지고 위선 나와 형제들 사이에 그리하고 십허서."(「벗의 왕국」, 121-122쪽.)

한편 『청춘』의 독자문예란에 실린 김형원의 글은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의인화해, 사람들

했던 「산구 C형에게」에서도 “사랑하는 친구와 손을 잡”[163]는 행위는 우정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었다.

1910~1920년대 초에 쏟아져 나온 서간체 텍스트들은 문학의 영역에서 이러한 접촉을 수행하는 매개 역할을 했다. 물론 당대의 서간체 텍스트들이 모두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의 층위를 넘어 편지라는 형식이 갖는 본원적인 특성, 다시 말해 발신자의 몸을 연장해 수신자의 몸에 가닿으려는 그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에 인용한 「경성 P형에게」에서 ‘나’는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에 P형이 틀림없이 정다운 키스를 해주리라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자신의 몸을 연장하고 현재라는 시간을 길게 늘임으로써, 상상적인 층위에서 미래의 P형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희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일인칭을 전제한 뒤, 이인칭으로 불리는 ‘너’를 향해 ‘나’를 보내는 행위이다. 김성수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편지의 외양을 본뜬 서간체 텍스트 역시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가로놓인 시공간을 압축시켜 실감을 부여”하며, 구어적 문체를 통해 “수신인이 그것을 읽는 순간 발화자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효과를 생산해낸다.” 나아가 「경성 P형에게」와 같이 인쇄된 매체에 실린 서간체 텍스트들은 특정한 수신자를 향해 ‘나’를 보낼뿐더러, 그 텍스트를 읽을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수신자로 삼아 ‘나’를 보내는 이중의 송신이기도 하다.[164] ‘나’가 P형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적 영역에 공개되는 순간, 독자들은 이니셜로만 표기되는 P형의 자리에 자신을 대입시킬 수 있게 된다. ‘나’와 P형 사이에 성립된 친밀성

이 이 불만족을 마치 친한 벗처럼 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불만족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향상과 전진을 가능케 한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불만족이 친한 벗임을 나타내기 위해, “손목을 잡고 단이든”이나 “너는 꼭 부듸어 안고, 입도 맛치고, 쌈도 대이며 연연한 정을 못 니져, 한숨 쉬어 눈물 지우니”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김형원, 「그래도 「불만족」」, 『청춘』 제13호, 1918.4, 101쪽.)

이광수의 『그의 자서전』(『조선일보』, 1936.12.22~1937.5.1)이 그리는 1910년대 풍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품에서 K진위대의 참령인 S는 부하들을 꼭 껴안고 서로 뺨을 비빔으로써 ‘동지애’를 다시금 추동하려 한다.(이광수, 「그의 자서전」, 『이광수전집』 제9권, 삼중당, 1966, 335-336쪽.)

163) 서원, 앞의 책, 10쪽.

164)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 양식 연구 (1)—근대 서간의 형성과 양식적 특징」, 『민족문학사연구』 제39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75쪽.

과 유대감은 이제 '나'와 P형과 독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친밀성과 유대감으로 전이된다. 독자들은 '나'가 보낸 편지를 자신에게 '잘못' 도착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P형으로 구성된다.[165]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P형 '들'은 '나'와 '뜨거운'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동질적인 감정-공동체로 묶이게 된다.

이때 감정-공동체란, 문명의 전위이자 미래의 기호였던 청년들이 문명으로의 진보를 위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동정=사랑'이라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형성했던 공동체를 말한다. 뒤에서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당대 감정-공동체는 그 구성원인 청년들에게 그러한 '동정=사랑'을 느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경성 P형에게」에는 '나'와 P형 사이의 신체 접촉을 동반한, 퀴어한 관계가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텍스트의 내용적 층위에 구현된 이러한 '나'와 P형 사이의 퀴어한 관계가, 서간체라는 형식적 층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나'와 무수한 독자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로 변형될 때, 이 공동체 자체가 매우 퀴어하게 변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서간체 텍스트의 원래의 의도는 아마도 "수신자인 형을 향한 개인적 독백을 통해 식민지 민중의 사회적 발언을 담아내는"[166] 것이었으리라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경성 P형에게」에서, '나' 또는 저자 방정환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추동한 것은 대사회적 발언을 해야 하다는 지식인-문인으로서의 의무감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텍스트 안에서 '나'는, 가난에 못 이겨 만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하층계급을 동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P형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는 텍스트 바깥에서 저자 방정환이 독자인 P형'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167] 그렇다면

165) 민승기, 「재로 남아 저항하는 편지들—데리다의 『우편엽서』」, 『비교문학』 제74집, 한국비교문학회, 2018, 74쪽 및 87쪽; 이때 민승기가 말하는 편지의 실패 가능성, 즉 편지가 우편엽서가 되는 과정은 결국 발신자-수신자 사이의 관계에 우편체계가 개입되면서 발신자의 원래의 의도가 초과되어 전달되는 과정, 즉 '산종'(dissemination)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후술하듯이 서간체 텍스트를 둘러싸고 '사랑'이 초과 인용되는 상황과도 잇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66)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 양식 연구 (2)—근대 서간 텍스트의 역사적 변천과 문학사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4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46쪽.

167) 「경성 P형에게」는 ㅅㅎ생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다. 방정환은 1918년 『청춘』 현상문예에 응모할 때부터 이 필명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염희경은 ㅅㅎ생을 방정환의 필명으

저자가 '나'와 P형 사이의 친밀성을 재현한 의도란 결국 이를 저자와 독자들 사이의 친밀성으로 치환함으로써, 독자들이 저자의 대사회적 발언을 더욱 경청하게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저자인 방정환은 '나'와 P형 사이의 과잉된 친밀성이 문명의 전위이자 희망의 기호로서의 청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과잉된 친밀성이야말로 예의 청년 공동체가 성립되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박달성의 「대경축시(對境觸時)의 감(感)으로 ㄷ형에게 올림」(『개벽』, 1920.8)에서도 발견된다. 이 텍스트에서 그는 "아모 의식 아모 체면 업는 어린 벗들의 사회"[168] 등으로 표현되는 이상적 사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치단결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아이라는 기호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 청년 공동체의 성격을 이상적 미래, 무한한 희망, 부단한 진보 등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수신자로 상정된 ㄷ형이 발신자인 '나'의 맞은편에 앉아 정(情)을 주고받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고 씀으로써, '나'와 ㄷ형 사이에 놓인 시공간을 압축시켜 제시한다. 특히 박달성은 '나'와 ㄷ형 사이의 친밀성을 묘사하기 위해, '나'가 ㄷ형의 아름다운 외모를 상찬하는 모습, ㄷ형의 따뜻한 손길이 '나'의 무릎에 얹혀 있는 상황을 상상하는 모습 등을 서두에 제시하고 있다.[169] 즉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로 확정하고, 「경성 P형에게」 역시 방정환의 작품으로 분류했다.(염희경, 「숨은 방정환 찾기—방정환의 필명 논란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4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4, 114쪽 및 156쪽 참고.) 흥미로운 것은 「경성 P형에게」에서 '나'가 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1920년 5월 9일 만주로 떠났으며, 편지 역시 5월 12일 만주 봉천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시기 방정환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정이 사실일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또 다른 염희경의 글에 따르면, 1920년 초 방정환은 천도교청년회원이자 보성전문학생으로서 각종 잡지 발간에 참여하고 있었고, 6월부터는 전국 순회강연을 돌기도 했다.(염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42-43쪽 및 256쪽 참고.) 이러한 행적의 불일치는 ㉠ 「경성 P형에게」의 저자가 방정환이 아니거나, ㉡ 「경성 P형에게」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구성이 짙은 텍스트임을 의미한다. 「경성 P형에게」가 실린 『개벽』 창간호에, 방정환이 소설 「유범」(필명—목성)과 시 「어머님」(필명—잔물) 등을 발표하는 등, 『개벽』 창간호의 필진으로 활발히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는 ㉡의 가능성이 더 높으리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성 P형에게」는 신지연이 지적했듯이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놓인 텍스트이자, 기실 허구 쪽으로 더욱 기운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성 P형에게」는 1920년대 초의 장르 미분화 양상을 방증하는 또 다른 예인 것이다.

168) ㄷㅅ생, 「대경축시의 감으로 ㄷ형에게 올림」, 『개벽』 제3호, 1920.8, 93쪽.

169) "형님의 갈죽—한 얼골에 정(情)이 잘잘 끌는 웃음의 입술이 반쯤 열리며 진주 가튼 하

의도 하에, 남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활용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결국 '나'와 ㄷ형, 나아가 저자 박달성과 독자 ㄷ형'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치단결한 당대의 청년 공동체가 과잉된 친밀성으로 구성되는 감정-공동체였음을 보여준다.

전술했듯이 1910~1920년대 초 서간체 텍스트들을 살펴볼 경우, 꽤 많은 수의 텍스트들이 발신자인 '나'와 수신자인 '형' 사이에서 교환되는 감정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김용원의 「사랑ᄒᆞᄂᆞᆫ 벗에게」(『신청년』, 1919.1)는 수신자인 "나의 사랑하는 일해군(一海君)"을 만나러 그의 집에 찾아갔었으나, 마침 길이 엇갈려 그를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는 간단한 일화를 다룬 텍스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 일해군의 "압만 보고 나아가는 일이 모다 나의 바라는 바와 갓흔지 알고 십"다고 쓰는 대목은 '나'와 일해군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우정일 뿐만 아니라, 같은 이상과 꿈을 품은 청년 공동체임을 보여준다.[170] 『신청년』 자체가 "경성청년구락부라는 조직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문학"을 추구했으며, 텍스트의 수신자인 일해군이 경성청년구락부의 부회장이었던 이중각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171] 한편 야광주(夜光珠)의 「B형의게」(『청년』, 1922.10)는 '사랑하는' B형에게 실연 따위로 자살을 선택하지 말 것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B형이 "신앙이 업는 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에 소중한 생명을 쉽게 포기하려 하는바, '나'는 B형에게 다시 '성실한' 청년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B형에게 자신의 편지를 "본래붓터 잇는 ᄯᆞᆺ거운 사랑의 눈으로" 봐달라고 첨언하고 있다.[172]

그런데 상술한 두 텍스트는 매우 관습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에서 청년들 간의 '사랑'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습'의 문제이다. 이는 당대의 청년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얀 니가 비죽이 나타나는 진경(眞景)이 소제(小弟)의 눈에 확실히 보이오며 형님의 심장 가운대서 끌어나오는 열정의 음조가 소제의 귀에 살짝 살짝 드는 듯 십소이다. 그리고 형님의 지석(指石) 가티 당길 성(性) 잇는 따뜻한 손길이 소제의 무릅 우에 사뿐이 노여지는 듯 십소이다."(위의 책, 92쪽.)

170) 김용원, 「나의 사랑ᄒᆞᄂᆞᆫ 벗에게」, 『신청년』 제1호, 1919.1, 12쪽.

171) 안용희, 「신청년의 분화(噴火/分化)와 '운동'의 문학적 형상화」, 『어문연구』 제44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170쪽 및 182쪽.

172) 야광주, 「B형의게」, 『청년』 제2권 제9호, 1922.10, 36-37쪽.

이름으로 불렸던 모종의 감정을 '관습적으로' 교환함으로써(만) 하나로 묶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10~1920년대 초 담론장과 문학장은 이러한 청년들끼리의 '사랑'을 서간체 형식으로 공적 영역에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이 감정-공동체 안으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지탱되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 불리는 이 (과잉된) 친밀성이란 기실 사적인 감정이면서 동시에 매우 공적인 감정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성들 사이의 '사랑'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사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사회가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감정인 동정의 또 다른 언표라는 점에선 매우 공적인 감정이었다.[173] 1910~1920년대 초의 문학은 서간체 텍스트라는 지극히 사적인 글쓰기가 잡지라는 공적 영역에 지속적으로 틈입됨으로써,[174]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코드를 가르치는 발신지 역할을 담당했다.[175] 즉 당대의 서간체 텍스트들은 (발신자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수신자인 '형'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글쓰기라는 관습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이는 서간체 텍스트가 문명으로의 진보를 위한 감정-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남성 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생산·요청했음을 의미한다.[176]

---

173)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의 '사적'이라는 표현이, 느낌과 감정이 전적으로 자아의 "몸과 마음에서 기원하는 사적 실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버킷(Ian Burkitt)이 지적했듯이, 감정은 자아가 타자 혹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느낌이 특정한 감정으로 판정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 또는 특정한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정이 특정한 관계 유형과 관련된 것이라면, 역사적·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 유형이 창출될 때, '감정적 삶' 역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1910~1920년대의 초의 '감정적 삶'과 2010년대의 '감정적 삶'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동성 간의 '사랑' 역시 상이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값을 갖게 된 감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안 버킷, 『감정과 사회관계』, 박형신 역, 한울아카데미, 2017, 10-11쪽 및 51쪽 참고.)

174) 노지승,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 사적 영역의 성립 및 근대적 개인의 탄생 그리고 편지 형식 소설과의 관련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20집, 민족문학사학회, 2002, 354쪽.

175)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새물결출판사, 2009, 37-38쪽 참고.

176) 가장 직접적인 예로는 윤자영의 글을 들 수 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이 못 견듸어 쒸노는 심장의 말을 마음으로 들어주시오—귀로는 말고—두근두근하는 가슴의 편지를 것흐로는 눈감ㅅ고 속으로 보아주시요 / 나는 밋으렴니다 나는 정말 밋으렴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형제들도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 나는 깁히 밋으렴니다 (…) 형제들이여 깁히 바라나이다 눈 오고 바람 찬 쓸쓸한 벌에서 갈 곳 업시 방황하는 외로운 나의 생명

만약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주장처럼 모든 언어 행위가 근본적으로 수행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177] 당대 서간체 텍스트들 역시 진술문(constative)이 아니라 수행문(performative)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진술문과 수행문은 오스틴(John L. Austin)의 용어로, 진술문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발화를 의미하며, 수행문은 "어떤 것을 '기술하거나', '보고하거나' 혹은 진위적(眞僞的)으로 진술하지(constate)" 않는 발화, 특히 말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행하는 발화를 의미한다.[178] 즉 수행문은 "세계 안에 있는 특정한 사태관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태관계를 창출"하는 것이다.[179] 따라서 오스틴은 수행문에 있어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으며, 오직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고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수행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 중 하나로 관습을 이야기한다.[180]

그러나 데리다는 이처럼 진술문과 수행문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오스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발화는 진술문이면서 동시에 수행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즈마(東浩紀)의 예를 빌리자면, "이 소는 위험하다"라는 벽보는 ㉠ 단순히 소의 특성에 대한 진술문으로 읽힐 수도 있고, ㉡ 사람을 해칠 수 있으므로 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수행문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181] 이를 1910~1920년대 초 서간체 텍스트의 맥락에 적용하면, 텍스트에 재현된 '나'와 '형' 사이의 사랑은 ㉠ 단순히 '나'가 '형'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진술문의 차원과, ㉡ 그러한 사랑이 인쇄된 매체에 반복적으로 인용될 만큼 공인된 감정 즉 '관습'이라는 인식을 유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다시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수행문의 차원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에 형제들이시여 싸뜻한 쌈을 대여 주시요 그 부드러운 입김으로 나의 두 손을 녹여 주시요 나의 가슴에 어름덩이는 풀어지고 두 팔로 힘 잇게 형제를 껴안으리다"(소야, 「고생하는 언니와 외로운 아우의게」, 『아성』 제1호, 1921.3, 81-82쪽.)

177)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역, 문학과지성사, 57쪽.

178) J. L. 오스틴, 『말과 행위』, 김영진 역, 서광사, 1992, 25-27쪽.

179) 게오르크 W. 베르트람,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정대성 역, 도서출판 박이정, 2015, 130쪽.

180) J. L. 오스틴, 앞의 책, 35-36쪽.

181) 아즈마 히로키, 『존재론적, 우편적』,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15, 23쪽.

또한 이러한 수행문의 차원은, 수신자(독자)에게 답장을 해야 한다는 부채감을 안겨주는 서간체 텍스트의 본원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광수가 "사랑하는 벗"에게 띄운 서간체 소설 「어린 벗에게」 역시 당대 서간체 텍스트가 수행문으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당대 담론장과 문학장에서 『무정』 완재 직후의 이광수가 차지하고 있던 중심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 「어린 벗에게」는 벗들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한' 태도로 비춰지게 만듦으로써, 그러한 관습을 더욱 강화했으리라 판단된다.[182] 다시 말해,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가 벗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종의 '교본'으로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어린 벗에게」가 사랑을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부착될 수 있는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화자는 남성 수신자인 "그대", 마찬가지로 남성 인물인 김일홍, 여성 인물인 김일련 등에게 공통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다. 먼저 화자는 이역만리 타국인 상하이에서 홀로 병고와 싸우던 중, 과거 자신이 병석에 누웠을 때 자신을 돌보아주었던 "그대"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그리워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이란 오직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때 '타인'이란 일차적으로 편지의 수신자인 "그대"를 가리킨다.

> 인생이 생(生)을 앗기고 사(死)를 두려워함은 생이 잇슴므로 어들 무엇을 일허바리기를 앗겨 함이니 (…) 내가 지금 사를 생각하고 공포함은 무엇을 앗김이오리잇가. 나는 부귀도 업나이다, 명예도 업나이다, 내게 무슨 앗가울 것이 잇사오리잇가, —오직 「사랑」을 앗김이로소이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쾌락과 남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데서 오는 쾌락을 앗김이로소

182) 당시 이광수의 영향력에 대한 단적인 예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청년과 남녀 학생 간에 흠모하는 목표가 되고 존경을 밧게 된 것은 우연함이 아니라 합니다. 그때에 군의 『오도답파기』[1917—인용자]란 기행문을 절발(切拔)하라고 학생 간에 신문 쟁탈이 유행한다는 것을 내가 향촌에서 들엇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만 보아도 당시 청년들의 신문예에 대한 동경이 여하한 것과 춘원 군의 새로 부르지즈는 일언일구가 새것에 동경한 그들에게 영향을 줌이 어떠케 크고 깁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잇습니다."(이익상, 「예술적 양심이 결여한 우리 문단」, 『개벽』 제11호, 1921.5, 107쪽.)

이다. 나는 그대의 손을 잡기 위하야, 그대의 다정한 말을 듯기 위하야, 그대의 향기로온 입김을 맛기 위하야, 차듸차고 쓰듸쓴 인세(人世)의 광야에 내 몸은 오직 그대를 안고 그대에게 안겻거니 하는 의식의 싸르르 하는 묘미를 맛보기 위하야 살고져 함이로소이다. 그대가 만일 평생 내 머리를 집허 주고 내 손을 잡아 준다면 나는 즐겨 일생을 병으로 지나리이다.(강조—인용자)[183]

위의 대목은 화자와 "그대" 사이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화자는 상하이에도 자신을 간호해 줄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체면치레로 간호해 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차라리 "상상으로 실컨 사랑하는 그대의 간호를 밧는 것이 천층만층(千層萬層) 나으리라 하야 아모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이는 화자가 "그대"에게 느끼는 사랑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존재하는 우정보다, 더욱 과잉된 종류의 친밀성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치료를 거부하던 화자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때 청복(淸服)을 입은 부인과 소년이 자신을 간호해주고 있음을 발견한다. 화자는 자신을 간호해주는 소년을 보자, "무인광야에서 동무를 만난 듯하야 꽉 그 소년을 쓸어안고" 싶어 한다. 그는 일면식도 없으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두 은인을 "가장 사랑하는 누이"와 "가장 사랑하는 아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문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을 해나갈 결심을 한다.[184]

한편 며칠 뒤 몸을 회복한 화자는 그 은인들의 살내와 입김을 다시 맡을 수 있도록 환기(換氣)를 시키지 말았어야 함을 한탄한다. 이처럼 사랑을 환기(喚起)시키는 '입김' 모티프는 앞서 인용했던 "그대"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묘사할 때에도 활용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병간호를 해주었던 부인이 기실 6년 전 사랑했던 여성인 김일련임을 알게 된 화자가, 그녀를 만나게 된 경위를 "그대"에게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이러한 입김 모티프가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화자가 김일련을 만나게 된 계기를 제공했던, 동경 유학 시절 친구인 김일홍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화자와 김일홍 사이의 '키스'가 등

183)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9호, 98-99쪽.
184) 위의 책, 100쪽 및 104쪽.

장한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첨 만날 때부터 서로 애정이” 깊어 “서로 형제 가치 애인 가치” 사귀었던 사이였다. 그들은 “산보할 때에도 반다시 손을 꼭 잡고 2, 3일을 작별하게 되더라도 서로 떠나기를 앗겨 서양식으로 꽉 쓸어 안고 입을 마초”는 관계였던 것이다.[185] 여기에서 이러한 화자와 김일홍 사이의 키스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서, 입김 모티프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화자가 여성인 김일련에게 느끼는 감정은 남성인 “그대”나 김일홍에 대한 사랑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일련의 사진에 뺨을 비비고 열렬하게 입을 맞추며, 꿈속에서 그녀와 서로 “따뜻한 입김”을 감각하는 키스를 하는 등 ‘입김’과 ‘키스’를 활용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서술은 각각 “그대”와 김일홍에 대한 묘사에서 이미 한 차례 등장한 바 있는 것이다.[186] 이처럼 “그대”, 김일홍, 김일련 등에게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모두 ‘입김’이나 ‘키스’ 등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형성·설명된다는 점은, 남성 인물을 향한 ‘사랑’과 여성 인물을 향한 ‘사랑’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해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 위에서, 화자가 “그대”와 김일련을 모두 ‘애인’으로 부른다는 점, 또 이 애인이라는 칭호는 과거 김일홍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187]

그러나 동시에 화자는 남성-여성의 관계를 “상사하는 애정”으로 부르는 반면, 남성-남성의 관계는 “상사적 우정”으로 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188] 이 지점에서 1920년대 전후에 ‘연애’라는 단어가 이성 간에만 할당되었던 반면, ‘사랑’은 동성 간과 이성 간을 막론하고 사용되었다는 언어적 관습에

185) 위의 책, 111쪽.

186) 위의 책, 114쪽 및 120쪽; 한편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에 뺨을 비비고 입술을 맞대는 모습, 또 그러한 행동을 한 이후 까무룩 잠이 들어 꿈속에서 그 사람과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강렬히 감각하는 모습 등에 대한 묘사는, 제1장 제2절에서 언급했던 해북생의 「병우」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마도 해북생이 이광수의 소설을 모방한 결과인 듯하다. 당대 문학장에서 이광수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이러한 모방들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손유경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사항은 「윤광호」의 ‘빙세계’ 모티프를 이어받은 김환의 「신비의 막」(『창조』, 1919.2)에서도 발견된다.(손유경, 앞의 책, 142-144쪽 참고.) 이는 이광수의 소설이 감정과 관계의 모범을 가르치는 일종의 ‘교본’으로 기능했음을 방증한다.

187)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10호, 1917.9, 27쪽.

188)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9호, 99쪽.

주목할 필요가 있다.[189] 개인은 언어에 속박되어 있고, 그 언어의 바깥을 사유할 수 없다. 이는 당대의 남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아무리 연애에 근사한 것이었다고 해도, 남성과의 관계에서 그 감정을 느꼈다면 '사랑'으로 지칭할 수밖에 없었음을 암시한다. 언어화되기 이전에 뒤죽박죽 섞인 상태로 존재하는 감정의 덩어리를 지시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는 발화 행위는 필연적으로 실패로 귀결된다. 언어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결코 개인의 감정을 오롯이 설명해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랑'이나 '연애'와 같이 상이한 언어로 불렸던 모종의 감정(들)의 의미차란 기실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상술했듯이 데리다는 어떤 발화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진술문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담은 수행문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썼다. 일차적으로 이는 어떤 발화를 둘러싼 맥락의 전체적 모습을 완벽하게 구명해낼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190] 나아가 버틀러의 독해를 참고한다면, 데리다의 주장이란 단순히 어떤 예외적 '상황' 하에서 관습적인 언어 행위가 실패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은 언어적 관습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 즉 언어 행위의 반복 가능성(iterability) 속에서 수행문이 늘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데리다에게 있어 수행문의 실패란 기실 수행문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다.[191]

버틀러에 따르면, 수행문이란 언어적 관습의 반복 인용을 통해 무언가를 행하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반복 인용의 과정에는 원래의 관습을 초과하는 경우, 즉 수행문이 '실패'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192] 이는 대상이 동성인지 혹은 이성인지에 따라 '사랑'과 '연애'라는 상이한 언어를 할당하는 언어적 관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서간체 텍

189) 신지연, 앞의 책, 335쪽.
190) 아즈마 히로키, 앞의 책, 346쪽.
191)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역, 알렙, 2016, 280-281쪽; Jacques Derrida, "Signature Event Context," trans. Samuel Weber & Jeffrey Mehlman, *Limited Inc*, ed. Gerald Graff,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p. 12, 15, 17, 20.
192)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68쪽 및 272-282쪽; 조주영,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5권 제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84-89쪽; 임옥희, 「혐오 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83-84쪽 및 87쪽 등 참고.

스트가 동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중의) 언어적 관습을 반복 인용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원래의 의도를 초과해 '연애'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대 서간체 텍스트는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숭고한' 목적 아래, 남성 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생산·요청하는 감정-공동체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연애에 근접한 것이면서 동시에 연애라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낯선(queer)' 감정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남성 간의 '사랑'이 '낯선' 감정 즉 퀴어한 감정으로 전이될 때, 이 감정-공동체는 원래의 의도를 초과해 퀴어한 감정-공동체로 변화하게 되고, 그리하여 '퀴어 서사 시대'를 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사랑'과 퀴어한 감정 사이에 긴밀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면, ① 퀴어한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감정-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감정-공동체 자체를 퀴어한 감정-공동체로 재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 ② 나아가 남성에 대한 남성의 '사랑'을 표현했던 모든 텍스트들을 잠정적으로 퀴어 서사의 계보에 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도출된다.

'서간체' 텍스트는 아니지만 '서간'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희철의 「K선생을 생각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오산인(五山人)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글에서, 이희철은 이광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 K선생! 나에게 대하야셔는 엇더케나 사랑스럽고 그립은 말인고. 이 말을 듯기만 하여도 나는 까닭모를 눈물이 쌈에 흐르고는 한다. 말하쟈면 K선생과 나와는 그 과거에 동성의 연인이다. (…) 나는 K선생을 사랑한다, 사랑한담보다도 그리워한담이 이런 째에는 적당한 표언(表言)이겟지. K선생도 그 과거에는 깁히 나를 사랑하여 주셧다. 물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련마는 운명의 손은 두 몸을 서로 천애(天涯)에 갈나버리고 기럭이조차 발자최를 끈헛으니 알냐도 드를 바이 업다. 아아! 지금은 다만 과거의 단꿈을 회고하고 다시 도라오지 못할 그 시절을 멀리 바라볼 섄이다. (…) 나도 웬 까닭인지는 모르나 K선생과 언제든지 가치 잇엇으면 하는 생각과 하로라도 뵈옵지 못하면 크게 맘이 적적함을 감(感)하엿다. 아아. 이것이 웬일일가? 이것이 연모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어렷을 째에 「사랑한다」던가 「그립어한다」던가 하는 것은 다만 남녀 사이에 잇는 줄만 생각하엿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K선생이란 남성을 그립어하는 것은 무슨 심리작용을 밧은 까닭일

가. K선생으로 말할지라도 그 역(亦) 엇더한 동기로 나라는 남성을 사랑하엿을가. 서로 남성이면서 서로 연애한담이 이상하다. 그러나 연애에는 두 가지 길이 잇다. (…) K선생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빗최고 귀에 들닐 것이면—물론 그때에 K선생과 나와의 관계가 정열하여짐을 짜라 학생 간에는 여러 가지 비평이 이러낫다—나는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랴보다 샤랑을 요구하는 인생의 일부분에는 이러한 현상도 잇다 함을 무릇 사람들에게 가라치고져 하노라. (…) 내가 K선생을 일는다 하면 나는 자기의 생명을 일는 것과 마치 한가지다. 냉랭하고 암흑한 세계는 다시 나를 붓드러 가는 것이다. 단꿈을 야반에 째우친 나는 무서운 폭풍우를 창외(窓外)에 듯는 것이다. 아아, 나의 전도를 비최던 한줄기 광명도 이제는 슬허져버리고 여전이 캄캄한 세계에 방황하여야 할 나의 운명이다. / K선생은 그만 써나버렷다.(강조—인용자)[193]

인용한 대목에서 이희철은 이광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사랑, 그리움, 연모 등의 언어를 동원해 설명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종류의 감정이 남녀 사이에서만 형성된다고 생각했으나, 이광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란 기실 '연애'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서로 남성이면서 서로 연애한담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그와 이광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연애'라는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는, 퀴어한 감정이었음을 암시한다.

주목할 것은 이희철이 자신의 감정이 분명히 '연애'에 가까운 것이었으되, 자신과 이광수 모두 그 당시에는 "다 갓흔 청년"이요 "붉은 피의 소유자"였기에, 이는 기실 "모자의 정, 부자의 정, 우정"이 합해진 감정이기도 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194] 이러한 태도는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에서도 엿보이는데, 그는 '나'와 "그대"의 "상사적 우정"을 "순결한 청년 남녀의 상사하는 애정"뿐 아니라, "모자의 애정, 어린 형제자매의 애정" 등과 비유함으로써, 이것이 전적으로 '순수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자신의 사랑에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육체적 성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름다온 소년을 사랑한다 하면 곳

193) 오산인, 「K선생을 생각함」, 『창조』, 1920.3, 89-90쪽 및 96쪽.
194) 위의 책, 93쪽.

추행을 상상하는 이는 정신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비천한 인격자"라는 이광수의 선제적 비판에서도 발견된다.[195] 이는 곧 '연애'에 가까웠던 자신들의 감정을, 당대 독자들이 모두 무리 없이 수용하던 감정, 즉 청년들 사이의 감정-공동체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랑'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방증한다. 첫째, 당대 감정-공동체는 남성 간의 사랑이 연애에 가까운 감정으로 전이될 때, 이를 차단하려 했다. 이는 제2절에서 밝혀지듯이, '연애'라는 감정에 수반되는 배타적 관계에 대한 욕망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감정-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개인을 향한 단수적 사랑이 필요할뿐더러,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향한 복수적 사랑'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애에 가까운 감정에는 전자만을 추구하면서 후자를 거부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감정-공동체는 이러한 배타적 욕망을 반드시 관리해야 했다. 둘째,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감정-공동체를 지탱했던 사랑의 감정이 매우 쉽게 연애로도 전이되는 퀴어한 감정이었음을 반증한다. 즉 당대 감정-공동체 자체가 이미 퀴어한 감정-공동체였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본고는 「K선생을 생각함」이 '서간체'라는 형식으로 씌어지지 않았음에도, '서간' 텍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K선생 즉 이광수가 실제로 「H군의게」라는 답장을 『창조』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경훈은 동인도 아니었던 이희철의 글이 『창조』에 실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광수로 하여금 『창조』에 글을 보내게 하려는 동인들의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제2호부터 동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작품을 단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은 이광수를 회유하고자, 동인들이 이희철의 「K선생을 생각함」을 『창조』에 게재했다는 것이다.[196] 이처럼 「K선생을 생각함」이 이광수로 하여금 답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지에 해당한다면,[197] 결국 '사랑'과 '연애' 사이

195)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9호, 99, 106, 109쪽.
196) 이경훈, 「춘원과 『창조』—근대 문단 형성의 한 양상」, 『현대소설연구』 제14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191-197쪽 참고.

어딘가에 놓여 있는 퀴어한 감정을 표출했던 이 텍스트는 이광수에게 띄우는 '연애편지'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당대의 공론장 역할을 담당했던 잡지라는 매체에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담은 연애편지들이 '공적으로' 오갔던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퀴어 서사 시대'의 서간/체 텍스트들은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감정으로서의 퀴어한 사랑을 연애편지의 형태로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기입했으며, 또한 공적 영역은 문명 및 개조와 역사의 진보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이러한 퀴어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연애'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연애'와 그 강렬도에 있어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사랑이 서간/체 텍스트를 통해 당대 문학장에 확산되고 있었다면, 이 시기를 '퀴어 서사 시대'로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도출된다. 특히 이러한 연애편지의 교환이 이광수의 이름으로 『창조』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주지하듯이 이광수는 1910년대 '2인 문단 시대'의 문단의 지주(支柱) 중 한 사람이었고, 『창조』는 1920년대 '동인지 문단 시대'를 예비하는 대표적인 문예 동인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문명(文名)을 얻지 못한 '아마추어' 저자들뿐 아니라,[198] 이광수와 같은 문단의 지주들도

---

197) 이광수의 「H군의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희철은 「K선생을 생각함」의 화자인 "H군"이 자신임을 이광수가 알아챌 수 있도록 여러 단서들을 흩뿌려 놓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오산인」이 소학부 3년급에 잇슬 째에 「K선생」이 20세(기실 나는 19세엿스나)이던 것과, 「K선생」의 용모가 서양인 갓핫다는 말을 종합하야 그것이 내다 함을 추측하고 또 내 일홈의 수자(首字), 우(又)는 내 당시의 별호 고주(孤舟)의 수자가 K이던 것을 생각하야 더욱 이것이 내다 함을 확실히 알고, 담에 H자는 성(姓)의 수자가 아니오 일홈의 수자리라 하야 마츰내 희(熙)자의 수자인 것을 발견하엿다. H군! 내 발견이 올흔가 (…) H군. 군은 과연 희—군인가. / 군은 형제가 학교에 다니다가 중도에 형은 퇴학하엿다 하고, 또 군은 십리나 되는 데 통학하엿다 하며, 또 군은 기숙사의 마루를 통하야 「신 아니 신고」 내 방에 단녓다 하며, 또 뒷산에 올라가 울엇다 하니 군은 과연 희—군인가. 그러나 군은 군의 집이 농(農)을 업으로 하여 하니 이것이 나로 하여곰 「H군」의 본체를 알기 어렵게 한 일 원인이라, 그러나 지금 생각하여 보건댄 군의 가업이 당시에는 농업이엇섯다. 그러면 과연 군은 희—군인가."(춘원, 「H군의게」, 『창조』 제7호, 1920.7, 57쪽.)

198) '아마추어' 저자가 쓴 대표적인 '연애편지'로는 ㅊ생의 「이형(李兄)에게」(『학생계』, 1922.9)를 들 수 있다. 이 텍스트에는 자유를 찾아 머나먼 타국으로 떠난 이형, "우리의 빗"이자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줄 이형에 대한 과잉된 사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나'는 이성에 대한 사랑보다도 형에 대한 사랑이 자신에겐 더욱 소중하며, 나아가 그것만이 자신의 유일무이한 사랑이라고 쓴다. 다음을 참고할 것. "형님! 이것이 가리움 업는 어린 아우의 진정한 하소연임을 아실 터이지오? 죽어 넉(魂)이라도 형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 얼마나한 아우의 깃붐인지를…… 기구한 운명의 주인인 나는 일즉이 부모의 사랑은 밧엇스나 그를 깨닷기도 전에 스러젓나이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도, 세인의 흔히 말하는

이러한 퀴어한 감정-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직접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1910~1920년대 초가 명실상부한 '퀴어 서사 시대'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문면에 드러난 것만을 보았을 때, 이광수의 「H군의게」는 「K선생을 생각함」에 나타난 것만큼 감정이 과잉되어 있지 않으며, 이희철과의 사이에 있던 퀴어한 감정 역시 최대한 에둘러 표현되고 있다. 즉 얼음처럼 차디찬 세계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희철에게 지어준 별명 "히터(Heater)"를 중심으로 오산시절 전반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여기에는 「K선생을 생각함」에 나타난 연애에 가까운 퀴어한 사랑이 그리 부각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H군의게」에서 부각되는 것은 청년들의 감정-공동체가 기꺼이 승인했던 만큼의 감정, 즉 연애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요청되었던 사랑 정도라고 할 수 있다. 「H군의게」가 보여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은폐의 양상은 「어린 벗에게」를 거쳐, 「K선생을 생각함」과 「H군의게」라는 연애편지의 교류로 '정점'을 찍었던 퀴어한 감정-공동체가 점차 소멸해가리라는 사실을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이광수는 「문사와 수양」(『창조』, 1921.1)에서, 문학이 인간의 "정서를 직접으로 감동ᄒᆞ는 정서의 무기를 이용ᄒᆞ야 자가(自家)의 이상과 사상을 (비록 무의식적인 수도 잇다 ᄒᆞ더라도) 세인의 정신에 깁히 주사ᄒᆞ는 능력이 잇"다고 주장했다. 즉 문학은 특유의 "전염력"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이상을 공유하는 감정-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 조선은 마치 "소아(小兒)"와도 같이 사상의 백지 상태(Tabula Rasa)에 놓여있는바, 문사들은 "자국의 역사와 제 민족의 국민성"에 대한 지식과 심리학 등 "인문과학의 지식"을 기르고 배우려는 수양을 통해, "민족의 희망인 청춘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위대한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민족과 인류를 문명으로 이끌 "신성한 직무"를 부

이성의 사랑도 맛본 적이 업나이다. 오직 형님의 쌋뜻한 그 사랑에 안기여 만족하고 십소이다. 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애닯흔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겟습닛가? 이 세상 사람은 이것을 허위라 하며 가식이라 하여 비우슬 터이지오? 이좀 젊은이들의 부르짓는 그 사랑보다, 나는 홀노 순결무구한 우정에 만족하려 합니다. / 형님! / 이 어린 아우의 가엽고 애닯흔 호소를 시인하시는 동시에 동정의 눈물을 앗기시지 안으며 비애와 고독에 우는 어린 것을 사랑의 날개(翼)로 덥허 주시겟지오? (…) 아!! 언제나 우리도 눈물 파도 거츠른 고해(苦海)를 지나 우숨의 시내가 흐르는 동산에서 향내 나는 승리화(勝利花)를 안고 그리운 형님의 품에 안기여 만단(萬端) 시름 펼처볼가. 생각사록 가슴만 답답하고 손이 썰니나이다."(ㅊ생, 「이형에게」, 『학생계』 제17호, 1922.9, 56-57쪽.)

여받은 존재들이었다.[199]

주목할 것은 이러한 주장 속에서 이광수가 "「데카단스」의 망국정조(亡國情調)"를 가장 경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문사들이 당시 유행하던 데카당한 생활을 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문사의 평소 생활이 곧 문학에 반영된다는 이광수의 신념을 고려하면, 이는 문학의 영역에서 데카당스적인 것을 재현하지 말라는 주장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동성애/퀴어는 주로 데카당스의 징표로 활용되었다. 특히 당대 남성 동성애자는 변태성욕적인 타락자로서, 그의 "모든 것이 성생활과 관련"[200]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광수가 1920년대 중반 이후 동성애/퀴어를 더 이상 재현하지 않거나, 재현한다 하더라도 '왜곡된' 형상으로만 재현했던 근인(近因)이 되었다. 그가 「어린 벗에게」에서 '나'와 "그대"의 "상사적 우정"을 어떻게든 "육적 만족"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했음을 염두에 둔다면,[201] 남성 동성애자라는 '육체적 성욕'의 화신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퀴어한 욕망과 감정을 그가 더 이상 재현하지 않으려 했던 까닭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적 영역에 등장했던 퀴어한 서간/체 텍스트들 역시 동성애 담론이 수입·정착되고, 이것이 문명 담론 및 미래 담론과 절합되어 이성애규범적인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던 1920년대 중반 이후 대개 그 자취를 감추었으며, 다시 사적인 영역에 정박되게 되었다. 즉 이성애규범성이 친밀성을 오직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에만 관련된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비규범적인 성적 삶의 양태들이 공적 영역에 틈입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다.[202][203] 이제 동성애자로 '오인'될 소지의 친밀성을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는

---

199) 춘원, 「문사와 수양」, 『창조』 제8호, 1921.1, 10, 12, 14, 18쪽.

200) 미셸 푸코, 앞의 책, 53쪽.

201)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9호, 109쪽.

202) Lauren Berlant & Michael Warner, "Sex in Public," *Critical Inquiry*, Vol.24, No.2, Winter 1998, p. 553.

203) 여기에는 1930년대 초에 제기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도 개입되어 있으리라 판단된다. "만약 예술이 감정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민족주의적 예술가와 맑스주의적 예술가가 감정으로 불립되엿다는 말인가? / 그리고 에로문학과 민족주의적 문학을 놓고 말할 때 그것은 다 감정의 표현이니 자유라고 말한다는 뜻이겟지 그러면 민족의 도덕을 흔들게 하는 에로문학을 민족주의 문학가도 손벽을 치여 줘야 한다는 말이겟지 사회적 형태와 그때에 처해잇는 현실과 사람의 의식이 다름으로 예술은 갈너진다."(이경(二耕), 「일기의 편편」, 『문우』

일은 미래가 없는 야만인, 즉 내부의 타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1920년대 중반 이후 남성들의 '공동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서사들은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이 "남성 동성사회적 욕망(male homosocial desire)"이라 불렀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친밀성만을 표현하게 된다.[204] 즉 "남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성"과 "남성을 사랑하는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을 사실상 끊어내기 위해, 두 남성 사이에 반드시 한 명의 여성을 끼워 넣음으로써 동성애적 욕망을 효과적으로 은폐하는 서사들이 문학장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욕망의 방향이 굴절된 서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김동인과 지하련의 소설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제1호, 1932.12, 32쪽.)

204)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제2절 ‘퀴어 서사 시대’와 욕망의 조절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퀴어 서사 시대’는 벗들끼리의 키스와 포옹을 통해 새로운 힘과 느낌을 얻는 것을 “교우의 극치”로 의미화하던 시대였다. 즉 노자영의 시 「애우(愛友)를 일코」(『매일신보』, 1919.10.6)가 보여주듯이, 당대 우정의 모범이란 친구끼리 서로 손목을 잡고, 허리를 안으며, 거룩하고 깨끗한 키스를 나누는 사이였던 것이다.[205] 이러한 사항은 춘강생(春岡生)의 「금계동 Y군을 생각하고」(『신청년』, 1921.1)에서도 발견된다. 이 텍스트는 3·1 운동 참여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있는 친구 Y군에 대해 ‘나’가 느끼는 간절한 그리움을 묘사한다. 이때 저자 춘강생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나’가 “그리고 그리든 우리 Y군을 만나 열광적 킷쓰를 ᄒᆞ고 깃붐과 슬품에 울어가며 무한한 회포를 말ᄒᆞ든 ᄭᅮᆷ”[206]을 꾸는 장면으로 글을 시작한다. 다시 말해, 동성 간의 “열광적 킷쓰”가 우정과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모범적인 몸짓으로 의미화되고 있는 것이다.[207]

---

205) 노자영, 「애우를 일코」, 『매일신보』, 1919.10.6.

206) 춘강생, 「금계동 Y군을 생각하고」, 『신청년』 제4호, 1921.1, 8쪽.

207)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금계동 Y군을 생각하고」의 바로 옆 페이지에 실린 박종화의 시 「눈물의 ᄭᅮᆷ길」 역시 다르게 읽힌다. 시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나’와 ‘그대’가 격렬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시의 어느 구절에도 두 사람의 젠더를 확정할 만한 근거는 명확히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 이성애를 자연적인 것으로 승인하는 이성애규범적 독해 관습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 시를 읽는다면(비슷한 맥락에서 신지연, 앞의 책, 335-336쪽 역시 김소월의 시를 퀴어하게 읽어낸 바 있다), ㉡ 또 꿈속에서 서로 “열광적 킷쓰”를 나누는 남성들의 관계를 그린 「금계동 Y군을 생각하고」와 마찬가지로, 이 시 역시 꿈속에서 서로 격렬한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을 묘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 마지막으로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음으로써 「금계동 Y군을 생각하고」를 읽은 직후에 이 시를 연달아 읽는다면, 이 시에 묘사된 두 사람의 관계를 퀴어한 관계로 규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허연구름은 별을 니고서 / 하늘ᄭᅳᆺ 나로라로 써나라난다. / 나는 귀여운사람의 손을 붓들고 / 푸른 삼(杉)나무 욱어져잇는 / 어렴풋한 ᄭᅮᆷ길을 거러서간다. // 내손이 그대의 손을 써나서 / 바람에 흔들니는 입흘 ᄯᆞᆯ대는, / 그대는 우스며 별을 보더니, / 내눈이 우스며 그대를 볼쌔는, / 그대의 눈에는 안개가 어리엿다. // 당신의 눈에 엉키인게 무엇이야오 / 내가 말할쌔에는 / 내눈에도 무엇이 엉키엿섯다, / 그가 나의 손을 만지며 / 안이여요 그러나 당신의눈에는 무엇임니가 / 하고 말할쌔에는, / 두줄두의 네줄눈물은 / ᄭᅳᆺ업시 업시 흘녀네려서, / 이슬의 저즌옷을 ᄯᅩ 적셔준다. // 별은 하늘에 새ᄭᅮᆷ이 길고 / 안개는 뫼기슭에 잔잔할쌔에, / 사랑하는두사람의 가슴물결은 / 사랑의 바람에 흔들니어서, / 비갓흔 킷스가 격렬할젹연, / 두사람의 거름은 바다(海)로 갓다. // 그와내가 서로안고서 / 사나운 물결에 더지랴할제, / 창에는 붉은해가 비츨 더지고 / 새는 쳠아에서 재짝언린다.”(월탄, 「눈물의 ᄭᅮᆷ길」, 『신청년』 제4호, 1921.1, 9쪽.)

우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은, 신체 접촉을 통해 감정-공동체 구축의 초석이 되는 '사랑'의 감정이 추동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예컨대 CS생의 「나의 일기 중에서」(『배재학보』, 1921.4)에는 전선축구대회(全鮮蹴球大會) 전야에, "사랑하든 동창이 한자리에 모혀 가슴에 넘치는 싸듯한 정으로 서로 끼여안고 한자리에 뒹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나아가 저자는 "오늘 이 자리가 만세토록 잇기를 바라고 나의 몸과 여러 동창의 몸이 갓치 한자리에 사라지기[生—인용자]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한다.[208] 이는 몸과 몸 사이의 부딪힘을 통해 함께-있음이라는 느낌이 추동되며, 이로 말미암아 모종의 공동체 의식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9]

그러나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는 남성 간의 사랑이 연애에 가까운 감정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이는 연애와 같은 배타적 감정이란 공동체 구축을 위한 감정이라기보다, 오히려 공동체 자체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킬 위험을 내포한 감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벗들끼리의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한 느낌을 추동하고, 이를 통해 감정-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전략은 그러한 원래의 의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동성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권장이 원래의 의도대로 '우정'이나 '사랑'을 산출하는 것을 넘어, '연애'에 가까운 퀴어한 감정까지 산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명호는 "외부 세계에 대한 신체의 '감각(sensation)'이 '느낌(feeling)'으로, 그리고 그 느낌이 구체적 '감정(emotion)'으로 인지되고 해석되고 명명되는 것은 사회적 담론과 상징적 의미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감정은 "사회적으로 습득되고 공유된" 것에 의해 형성된다.[210]

---

208) CS생, 「나의 일기 중에서」, 『배재학보』 제1호, 1921.4, 22-23쪽.

209) 한편 당시 축구는 협동심을 기른다는 목적 하에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던 운동이었다. 김원태의 「산아이거든 풋뽈을 차라」(『개벽』, 1920.11)에 따르면, 축구는 "나 하나이라는 개인적 정신"이 아니라, "사회생활 국가생활을 하는 대 요하는 정신" 즉 "단체를 위하야 자기를 불고(不顧)하는 큰 덕성을 양성"하는 운동이다. 다시 말해, 축구란 "희생적 정신"이나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과 같이 "애국적 대정신의 근원"을 가르치는 "정신적 교육"인 것이다.(김원태, 「산아이거든 풋뽈을 차라」, 『개벽』 제5호, 1920.11, 106-107쪽.) 이는 CS생의 「나의 일기 중에서」가 이러한 "애국적 대정신"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신체 접촉에 대한 재현 역시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210) 이명호, 「감정의 문화정치」, 이명호 외, 『감정의 지도 그리기』, 소명출판, 2015, 6쪽;

이는 아메드(Sara Ahmed)가 지적했듯이,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추동되는 느낌과 감정 역시 과거의 역사와 규범을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형성됨을 뜻한다.[211] 이와 같이 감정이 수행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면, 당대 감정-공동체가 동성 친구들 간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권장함으로써 생산·요청했던 우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반복 가능성 속에서 원래의 의도를 초과해 연애에 가까운 배타적 감정으로 전이될 수 있었다는 분석 또한 가능해진다. 이는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가 남성 간의 관계에서 연애에 가까운 배타적 감정이 산출되지 않게끔 욕망을 조절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퀴어한 욕망이 산출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욕망을 조절하라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예로는 박석윤의 「벗의 죽엄」(『학지광』, 1920.7)을 꼽을 수 있다. 소설은 이틀 뒤 결혼을 앞둔 창호가 친구 원영의 부고를 듣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후 창호는 "온아(溫雅)한 자태와 항상 미소를 먹음은 얼굴"의 원영, 그 "사랑하고 존경하던 벗"과의 과거를 회상한다. 이때 가장 주요하게 서술되는 과거는 창호가 미래의 아내에게 청혼하기 위해 사주를 들고 서울에 왔다가 원영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모의 재량대로 혼사를 결정하는 "유풍(遺風)"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작품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부르짖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원영의 판단이다. 원영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이 해결해야 할 더욱 시급한 문제는 "조선 사회의 한 사람"이자 "전 인류의 한 분자"인 소년들이 "새로운 도덕에 적합한 인성과 개성"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다.[212] 이는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봤던 진보적 역사관의 문학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벗의 죽엄」은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위해, "강력주의를 이상으로 삼는" 두 청년의 '사랑'을 그린다. 본고의 맥락에서 이 작품이 흥미로운 까닭은 박석윤이 강력주의를 역설하는 과정에서 몸과 몸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벗의 죽엄」은 창호와 원영이 서로 손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 171.

211) Sara Ahmed, 앞의 책, 6-8쪽 및 12쪽.

212) 용주인, 「벗의 죽엄」, 『학지광』 제20호, 1920.7, 60-66쪽.

을 잡는 행동을 강조한다거나, 몸과 몸 사이의 접촉을 동반하는 씨름을 "순결한 소년들의게 육(肉)의 힘과 영(靈)의 힘"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213] 박석윤은 두 사람의 씨름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두리는 옷을 벗고 발을 벗고 달려들어서 서로 훔쳐 잡엇다. 원영은 보드라운 여름풀의 시원한 키스를 양발에 늣기면서 배를 내밀고 창호의 북박치는 힘의게 대하야 응전하엿스나 원래부터 원영은 창호의 적이 아닌 고로 창호의 힘을 대항치 못하엿다. 흠씬 두리 쒸고 놀다가 이마에서, 가슴에서, 구슬땀을 씨스며, 서로 약속한 것 갓치 두리 발이 동시에 계류(溪流)로 향하엿다. (…) 두리 물에 발을 당그고 이런 말 져런 말을 하기 시작하엿다. 「군의 미래의 「와이뿌」는, 내가 잘 아니까 이 댐 가정을 가진 후에는 가금 놀러 갈 터이니 두리 나와서 대접을 극진히 잘하오. (…) 웃는 말이 아니오, 그째 가서 대접을 잘 못하면, 업드려 노코 볼기를 째릴에야.」 하고, 원영은 싼 손수건을 태양빗을 향하야 두세 번 연해서 양편 끗을 잡고 훌훌 썰엇다.(강조—인용자)[214]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옷을 벗은 두 인물 사이의 땀으로 범벅된 씨름 장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박석윤은 불필요하게 "키스" 등의 단어를 활용한다. 동성 간의 키스가 '퀴어 서사 시대'엔 우정의 극치로 받아들여졌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서술은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을 재현함으로써 감정-공동체를 구축하려 했던 당대 문학장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벗의 죽엄」은 동성 간의 사랑을 문명에의 의지로 아주 매끄럽게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봉합은 당대의 '모범적인' 감정이었던 우정과 사랑이 동성성애적인(homoerotic) 신체 접촉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전술했듯이 본고는 이러한 신체 접촉에서 추동되는 '느낌'이 사회적인 체계와 기준에 의거해 '감정'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도를 초과해 '우정'이나 '사랑'을 넘어서는 과잉된 친밀성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잉된 친밀성은 특정 친구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나타나기도 한

213) 위의 책, 67-68쪽.
214) 위의 책, 68-69쪽.

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K선생을 생각함」과 「H군의게」라는 '연애편지'가 공적으로 오갔던 무대인 『창조』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김환의 「고향의 길」(『창조』, 1919.3), 「동도(東渡)의 길」(『창조』, 1919.12), 「나의 묵은 일기에서」(『창조』, 1921.6) 등은 당시 청년 공동체 사이에서 어떠한 감정들이 교환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먼저 「나의 묵은 일기에서」는 동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을 묘사하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그'라고 불리는 친구 S군에 대한 '뜨거운' 감정과 애착이 묘사되어 있다.

> 어제 져녁에 목욕탕 녑헤서 그의게 「나는 내일 써나겟소!」 ᄒᆞᆯ 쌔에 그는 얼골을 살쟉 불키면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잇섯댓다. 그는 내가 동경에 건너온 뒤에 처음으로 친ᄒᆞ게 된 나의 유일한 우인(友人)이엿섯다. 그는 나의게 위안도 주엇지만 번민도 주엇섯다. 무엇보다도 침묵ᄒᆞᆫ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나의 호기심을 끌엇고 언제나 비관적인 듯ᄒᆞᆫ 그의 표정은 나로 ᄒᆞ여금 애정이 자생ᄒᆞ게 ᄒᆞ엿섯다만은 내가 강호(江戶)를 써나게 되면 모든 과거의 순간은 오직 나의 기억에 남어 잇는 꿈 흔젹에 지나지 못ᄒᆞᆯ 터이다. (…) 하숙 문을 나셜 쌔에 S가 자기 집 문 밧게서 울음을 먹음은 목소래로 「안령이 가십시요!」 ᄒᆞ는 간단ᄒᆞᆫ 말 ᄒᆞᆫ마듸가 나의 정신에는 무한ᄒᆞᆫ 자극을 주는 동시에 심장의 고동을 극렬ᄒᆞ게 ᄒᆞ엿섯다. 언덕길노 나려가는 내 뒤를 그는 정신없이 바라보고 셧다가 내가 휙 도라볼 쌔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생긋 우섯다. 이 순간은 나의 일생에 닛지 못ᄒᆞᆯ 인상을 주엇다.[215]

김환은 동경에서 친해진 유일한 벗 S군이 자신에게 위안과 번민을 동시에 주었으며, 처음 만날 때 느꼈던 호기심은 이윽고 애정으로 발전했다고 술회한다. 나아가 S군과 헤어지던 날, 언덕길을 내려가는 '나'에게 S군이 싱긋 웃어주었던 기억은 김환에게 일생에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기에서 김환이 S군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은, 감정-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요청되었던 우정과 사랑을 넘어, 특정 친구를 향한 애착을 동반한 퀴어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이 감정-공동체 자체를

215) 흰뫼, 「나의 묵은 일기에서」, 『창조』 제9호, 1921.6, 46-47쪽.

와해시킬 위험을 내포한 것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이는 「나의 묵은 일기에서」가 S군뿐만 아니라 김환과 친분을 맺었던 수많은 '군'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즉 김환은 특정 친구를 향한 애착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우정을 나누었던 다양한 친구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자신이 감정-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묵은 일기에서」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환은 「나의 묵은 일기에서」뿐 아니라, 동경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던 심경을 묘사한 「고향의 길」, 나아가 다시 고향에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동도의 길」 등에서도 동성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했다. 이사유가 적절히 지적했던 것처럼, 문단과 『창조』를 중심으로 한 '군'이나 '형'들과의 감정 교환은 김환의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주제이자 제재였던 것이다.[216] '퀴어 서사 시대' 서간체 텍스트들과 이광수 초기 소설 등에서도 발견되는 이러한 특징은, 당대 문학(장)이 우정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감정-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김환은 「고향의 길」에서 자신을 아우라 부르는 P형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규정하면서, "나를 위하야 자기의 몸이라도 희생하겟다"는 P형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또한 그는 R형이 겨울에 춥게 지낼 것을 염려하면서, R형에게 동정을 베풀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한다.[217] 이러한 장면들은 당대 청년 공동체가 동정, 우정, 사랑 등의 이름으로 묶여 있던 감정-공동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도의 길」을 함께 살펴본다면, 이러한 감정-공동체란 결국 퀴어한 감정-공동체였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 텍스트 역시 '군'이나 '형'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C군과의 '사랑'은 유독 그 감정이 돌출되어 있다.

「동도의 길」에서 '나'는 C군에게 "정신상 영적 신성한 사랑"을 구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C군은 "동물의 본능적 만족"을 위해 그런 '나'를 버리고 떠나는 무정한 인물이다. 즉 '나'는 C군에게 "일생 독신

216) 이사유, 「『창조』의 실무자 김환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제3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39쪽.
217) 백악, 「고향의 길」, 『창조』 제2호, 1919.3, 53-54쪽.

으로 살면서 나의 정신상 안위를 달나"고 요구하지만, C군은 "일생에 형으로 섬기고 사랑하갯스나 독신생활은……"이라며 말을 줄이고 얼굴을 붉히는 인물로 그려진다. '나'에게 있어 이런 C군의 모습은 처음에는 "미(美)의 신(神)"이자 "애(愛)의 엔젤"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나'의 품을 떠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저 "악마"처럼 보일 따름이다. 결국 '나'는 자신의 "정신적 애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남의 "물질상 애인"이 되기 위해 떠난 C군을 원망하면서, 이제 자신은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탄식하게 된다. 봄 같던 C군이 떠난 뒤에 자신은 추운 겨울의 흰 눈으로 뒤덮인 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218]

여기에서 C군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일견 매우 퀴어한 욕망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동도의 길」이 여자인 C군을 일차적으로는 남자로 보이도록 각색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219]하다는 신지연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동도의 길」을 「향촌의 누이로부터」(『매일신보』, 1919.11.17)와 함께 읽을 때 매우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김환의 이름으로 발표된 서간체 텍스트 「향촌의 누이로부터」는, 고향에 있는 여동생이 여성으로부터 실연을 당한 오빠를 위로하려 보낸 편지의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때 「동도의 길」에 나타난 '나'와 C군 사이의 관계와, 「향촌의 누이로부터」에 나타난 오빠와 헤어진 애인 사이의 관계는 매우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두 작품 모두 '나'/오빠를 위해 독신으로 살겠다는 C군/여성의 모습을 그리며, 이후 C군/여성이 '나'/오빠를 배신하자 이에 대해 정신적·영적 욕망을 희구하는 척하더니 결국 동물적 본능에 제 몸을 던졌다며 비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신지연은 바로 이러한 유사성에 착안해, "이성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나 '연애'를 둘러싼 일은, [동성 간의 관계로 변형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화자를 매개하는 등의] 간접화 과정을 거쳐야만 쓰기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220]

나아가 이러한 신지연의 주장은 김환의 「자연의 자각」(『현대』, 1920.1)까지 살펴볼 때 더욱 확실해지는 듯하다. 김동인과 염상섭 사이의 비평 논쟁을 촉

218) 흰뫼, 「동도의 길」, 『창조』 제3호, 1919.12, 7-9쪽.
219) 신지연, 앞의 책, 343쪽.
220) 위의 책, 345쪽.

발한 것으로(만) 유명한 「자연의 자각」은, 김환이 여성으로부터 실연을 당했을 때 박영섭이 김환에게 보낸 편지를 기반으로 창작된 소설이다. 특히 이 소설에는 「향촌의 누이로부터」를 직접 언급하는, 박영섭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직접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221] 이때 중요한 것은 「자연의 자각」 역시 「향촌의 누이로부터」와 마찬가지로 제3자를 (초점)화자로 내세우는바, 김환에게 있어 일인칭으로 여성과의 연애를 '고백'하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소 의문스러운 것은 조혼 등의 영향으로 인해 김환이 아무리 여성과의 연애실패담을 일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남성으로 변형시킬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다시 두 개의 추가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즉 ㉠ 독자들은 이처럼 남성들이 서로를 '정신적 애인'으로 삼는 것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당대의 퀴어한 관계에 익숙했는가, ㉡ 「향촌의 누이로부터」와 「자연의 자각」을 통해 「동도의 길」에서 C군의 '정체'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동도의 길」을 통해 「향촌의 누이로부터」와 「자연의 자각」에 등장하는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환의 「동정의 루」를 경유할 필요가 있다. 「동정의 루」는 O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인 화자와 그의 제자인 B 사이의 "소위 「동성연애」라는 명칭을 부칠 수밖게 없"[222]는 사랑을 그린 소설이다. 작품에서 화자는 10년 전에 죽은 "공익을 위하야 몸을 밧치고 처자를 불원(不願)하"던 "나를 사랑하는 의인" R군을 떠올리며 독신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인물이다. 이때 화자가 R군과의 관계를 회상할 때, 그 추억들은 R군이 "뒤로 가만이 와서 내 손을 꼭" 쥐던 것, R군의 "쌋듯한 사랑의 가슴에 안기엿든" 것 등으로 묘사된다.[223] 한편 B는 부모형제가 없는 천애고아로서,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친구의 딸과 조혼을 한 인물이다. 화자는 이런 B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다가 그를 동정해 눈물을 흘리고 이내 사랑

221) 이사유, 앞의 책, 40쪽; 박영섭의 편지 내용은 그가 백야생(白野生)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실연을 동정하면서」(『매일신보』, 1919.12.8)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222) 백악, 「동정의 루」, 『학지광』 제20호, 1920.7, 79쪽.
223) 백악, 「동정의 루」, 『학지광』 제19호, 1920.1, 71-72쪽.

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화자에게는 '사랑'보다 더욱 중요한 이상이 있었고,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 동경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 O학교를 떠나게 된다. 이후 소설은 화자가 고향으로 잠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아 섭섭했다는 B의 편지로 이어진다. 이 편지에서 B는 화자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빌어준다. 소설은 겉봉에 적힌 발신인의 이름을 볼 때부터 눈물을 흘리던 화자가 편지를 읽으며 손을 떠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화자와 R군의 관계에서 드러나듯이, 작중 동성 간의 퀴어한 관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서로 "정신적 위안"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이다. 또한 화자와 B 사이의 '동정=사랑'이 형성되는 장면 역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나는 한 손으로 포켓트에서 수건을 끄내여 호르는 눈물을 시츠면서 한 손으로 B의 무릅 우에 노혀 잇는 살빗 죠은 손을 꼭 잡을 째 내 가슴에는 B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맘이 생겻다. B의 자태와, 거동이, 썩 엡부게 보인다. 내 눈에 비잇는 지금 B는, 이성보다도 더욱. 나의 맘을 끄는 미적, 무엇이 잇는 듯하다. B는 내가 잡은 손을 쌥으려고도 안이하고 다만 말째이 울기만 한다. 나는 순간에 갑재기 몸에 스름이 쭉 끼치고 맘에는 무섭고 두려움이 생겨서 잡앗던 B의 손을 얼는 노코 다시 고개를 숙엿다. 나는 나와 B의 미래 사회와 나 B 두 사람의 관계을 헤아려 보왓다. B는 창말 불상한 사람이다 뎌는 부모도 업고 동생도 업고 친척도 업다고 한다…… 세상에 뎌보다 더 불행하고 불상(不詳)한 사람도 잇을가 (…) 「몹시 쓸쓸하고 냉랭한 세상에서 제 몸의 기름자밧게는 나를 싸르는 것이 업는 줄 아랏쌉더니…… 과연 선생님은 사랑도 만코 동정이 만으심니다」 (…) 나는 숙으렷든 고개를 번젹 들면서 잡앗다가 노앗든 B의 손을 다시 잡으며 한 손으론 내 수건으로 B의 눈에서 흘으는 눈물을 싯쳐주고 묵묵히 안져 잇다가 다시 말을 새로 시작하엿다. (…) 『여보게 B군! 군의 과거한 니야기는 자미있게 동정하는 맘으로 잘 들엇네…… 나는, 군을 충심(衷心)으로 동정하네…… 이제붙어는 내가 군을 동생과 같이 인정할 터이니 군도 나를 형과 같이 알아주게…… 내가 비록 자격은 없지만은……』 / 『선생님! 그게 무슨 말슴야요? 자격이 없다니…… 과연 제가 선생님의 동생이 될 만

한 자격이 업음니다…… 제가 지금 말슴 들인 저의 과거한 니야기는 여탯것 한 번도 뉘게던지 말한 적이 없음니다…… 오늘 선생님씌 처음으로……』 말을 그치고 내가 잡은 손을 B도 한번 꼭 쥐엿섯다. 나와 B 두 사람 사이에는 무형한 사랑의 전류가 서로 감응됨이 있엇다. (…) 『선생님! 저도 그런 행복을 가졋든가요? 선생님…… 선생님씌서 힘없고 어린 아희를 버리시지 안으시면 저는 영원히 몸과 맘을 선생님씌 바치겟음니다…… 저는 십육년 동안을 어름같이 차듸찬 세상에서 외롭게 썰고 있엇음니다 제 자신의 기름자 외에는 저를 따르고 동정하는 이가 없엇서요! 그러나 이제붙어는 따뜻한 선생님! 형님의 가슴에 안기겟음니다. 선생님! 버리시지 마르소셔…… 형…… 님……』(강조—인용자)[224]

위의 인용에 나타나는 것처럼, B는 얼음처럼 차디찬 세상, 그를 위로해주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그림자밖에 없는 세상에 처해 있다. 화자는 이러한 B의 슬픈 속사정을 들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이때 그에게 B에 대한 동정=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다시 말해, 친밀한 신체접촉을 통해 동정=사랑이라는 감정이 추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과 동시에 두려움이라는 감정 역시 함께 느낀다. 이는 전술했듯이 이들의 사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동성연애"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자가 두려움을 느낀 뒤에 곧바로 자신과 B가 살게 될 미래의 사회를 떠올리는 모습은, 동성애자가 미래성이 결여된 존재로 점차 상상되기 시작했던 정황과 관계된다. 물론 화자는 이러한 두려움을 금방 떨쳐내고, 다시 B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다. 이때 화자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작품의 후반부를 함께 읽으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동료 교사가 화자와 B의 관계에 대해 "너머 그러케 친근하게 되면 사무실에 존위(尊威)가 없어지고 직원의 체면이 손실"된다고 에둘러 비판하자, 화자는 "아직도 사제의 구별이니 장유유서니 하는 것은 썩어진 유교의 유풍"이며, 그러한 악습을 혁신해야 "문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225] 환언하자면 동성애자가 미래성이 없는 존재로 상상되기

224) 위의 책, 75-76쪽; 백악, 「동정의 루」, 『학지광』 제20호, 78쪽.
225) 위의 책, 80쪽.

시작했으나, 동시에 아직까지는 유교의 구습을 타파하는 '정'의 해방으로도 인식되고 있었기에, 화자는 얼른 B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화자와 B 사이에는 "무형한 사랑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둘의 관계는 서로를 아우와 형으로 부르며 사랑하는 사이, 즉 「고향의 길」에 나타난 '나'와 P형 사이의 관계와 같은 사이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화자와 B의 관계는 서로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사이이며, 이는 기실 화자가 R군과 맺었던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정신적 위안"을 주고받는 사이와도 닮아 있다. 즉 「동정의 루」에 나타난 두 개의 퀴어한 관계는 「동도의 길」에 나타난 '나'와 C군 사이의 퀴어한 관계와도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향의 길」, 「동도의 길」, 「동정의 루」가 비슷한 관계를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동정의 루」에서 일본에 유학하던 화자가 잠시 고향을 다녀갔으나 B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대목을, 「동도의 길」의 '나'와 C군의 일화로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 때, 「향촌의 누이로부터」와 「자연의 자각」을 토대로 「동도의 길」의 C군을 여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루」를 토대로 「동도의 길」의 C군을 문면 그대로 남성으로 읽고, 나아가 「향촌의 누이로부터」와 「자연의 자각」에 나타난 여성과의 연애실패담 역시 남성과의 연애실패담으로 바꾸어 독해할 여지가 생긴다. 이로써 앞서 제기한 의문 ㉡에 대한 해답은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만약 신지연의 주장처럼 C군이 실제로는 여성이고 김환이 이를 숨기기 위해 C군을 남성 인물로 변형시킨 것이라면, 이는 기실 여성과의 사랑이 남성과의 사랑보다 더욱 감추어야 할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의 동/이성애 위계가 역전되어 있는 듯한 이러한 상황[226]은 결국 문명 및 개조를 향한 당대의 감정-공동체가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생산·요청했음을 방증하는 또 다른 증거에 다름 아니다. 즉

226) 김지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1950년대 여성국극 공동체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즉 "'정상적' 이성애가 불순한 것으로 보이고, 여성국극의 동성 쌍이 오히려 아름답게 미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지혜, 「1950년대 여성국극 공동체의 동성친밀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6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10, 105-107쪽을 참고할 것.

『창조』를 읽을 정도로 당대의 담론장과 문학장에 깊이 연루되어 있던 (지식인) 청년들은, 서로 "정신적 위안"을 주고받는 남성들 사이의 '사랑'을 전혀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을 여성과의 관계보다 더욱 권장되는 순수한 무엇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상술했던 「동정의 루」의 R군과 같은 인물상을 떠올려보면 더욱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C군이 실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문면 그대로 보았을 때 「동도의 길」에서 C군이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당시의 독자들이 이러한 관계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 ㉠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도의 길」에 나타난 배타적 관계에 대한 화자의 갈망은 감정-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다분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환은 욕망의 조절이 실패하고 있는 징후를 숨기기 위해, 「동도의 길」이 실린 『창조』 제3호의 「나믄 말」에 다음과 같은 '변명'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 C군에 대한 기사는 넘어 감정적으로 되엿나이다만은 그 글을 쓸 그때에는 신경이 몹시 흥분되여슬 때엿스니 작자의 그때 심리를 추상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제가 C군과 그러케 큰 감정이 잇슴도 안이오니 독자 여러분은 이를 양해하시고 넑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227]

이러한 김환의 언급은 C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지나치게 과잉되었다는 점, 즉 우정이나 사랑을 넘어 퀴어한 욕망으로까지 전이되었다는 점을 가리기 위한 '변명'이다. 이처럼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김환의 부기란, 욕망을 조절하라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감정-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지식인-청년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동도의 길」에서 얼핏 노출되는, 욕망을 조절하라는 명령에 대한 균열은 이광수의 「김경」(『청춘』, 1915.3)이나 「방황」(『청춘』, 1918.3) 등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이광수의 「방황」은 신체 접촉에서 추동되는 쾌락이 존재하지

227) 흰뫼, 「나믄 말」, 『창조』 제3호, 1919.12, 77쪽.

않는다면, 자신의 삶은 영원히 적막하고 추운 겨울이리라 생각하는 화자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히 청년들의 감정-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애'에 가까운 감정으로 상당히 전이된 퀴어한 감정-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욕망하는 모습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방황」에서 병상에 누워 잠깐 잠이 들었던 화자는 병간호를 위해 온 K군이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어주자, 이토록 추운 세상에서 그토록 따뜻한 손이 존재해 나를 위무해주는 것이란 참 이상하고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는 "그 손을 내 두 손으로 꼭 잡아다가 입을 마초고 가슴에 품고 십"어 하며, 실제로 "한 팔로 K군의 허리를 안"기도 한다.[228] 그러나 이러한 K군의 '사랑'도 화자에게는 충분하지 않으며, 도리어 화자의 생명을 더욱 춥게 만들 따름이다.

이는 화자에게 있어 K군의 피부와 접촉하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삶의 고통을 멈춰줄 뿐인 "캄훌 주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인혈(人血) 주사"를 원한다. 즉 그는 "엇던 사람이 자기의 동맥을 절단하야 그것을 내 정맥에 접하고 생기 잇고 펄펄 끌는 선혈을 싸늘하게 쇠약한 나의 몸에 주입 (…) 하기 전에는 내 압헤 잇는 것은 사(死)밧게 업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화자는 자신을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생각해주는 은인들의 마음에도, 나아가 그를 위해 애써주는 K군과 같은 친구들의 사랑에도 만족할 수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은 피부를 넘어, 핏줄과 핏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상징되는 '육체적 쾌락'이다. 이처럼 「방황」에 나타난 화자의 번민이란 결국 자신이 "조선과 혼인"하는 애국자가 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화자가 희구하는 사랑이란 "조선을 유일한 애인으로 삼아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동정의 루」에서의 화자와 R군 사이의 사랑보다도 한층 더 쾌락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229]

그러나 「방황」은 결국 '처녀과부'인 고모를 따라 자신도 승려가 되리라 결심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당대의 감정-공동체가 남성을 상대로 직접적인 육체적 쾌락을 충족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광수 역시 『무정』이나 「어린 벗에게」에서 보듯이 이러한 직접적인 육체적 성행

228) 춘원, 「방황」, 『청춘』 제12호, 1918.3, 77-78쪽.
229) 위의 책, 79-80쪽.

위를 '야만'으로 보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자는 어차피 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지 못할 바에야 "세상의 의무의 압박과 애정의 기반 업는 싸늘하고 외로운 생활"[230]을 하리라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방황」에 나타난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오산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경」의 화자와도 닮아 있다. 「김경」에서 화자는 "고상한" 자기희생을 통해 열심히 가르친 학생들을 "형제요, 자매요, 정인"이라고 느끼고, "그 아이들을 한 팔에 꼭 끼어안고 뺨을 마조 다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는 결국 사제지간에 불과하며, 이로부터 화자의 번민이 시작된다. 마침내 화자는 자신을 안아주지 않고, 자신과 뺨을 마주대어주지 않고, 그저 자신을 무심히 지나쳐 가는 학생들의 발뒤꿈치를 바라보며 무한한 공허를 느낀다.[231] 즉 「방황」과 「김경」의 화자들은 당대의 감정-공동체를 지탱했던 계몽에의 열정과 청년들 간의 동정을 자신의 쾌락의 원천으로 삼고자 했으나, 그 시도가 실패하는 데 따라 무한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232]

바꾸어 말하자면, 「방황」과 「김경」의 화자들은 감정-공동체에서 승인하는 만큼의 우정과 사랑, 즉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본고가 "고상한 쾌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까닭은 『청춘』에 실린 「고상한 쾌락」(1915.3)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이 글에 따르면, "고상한 쾌락"이란 오감과 외물(外物)에 의지하는 관능적 쾌락이 아니라, 정(情)의 수양을 통해 획득되는 정신적 쾌락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일체의 관능적 쾌락을 거부하면서, 오직 정신적 쾌락만을 추구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상한 쾌락」의 진의란 인간에게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성질이 있음을 기꺼이 인정한 뒤, "취미[taste]"를 향상시키는 감정교육을 통해, 관능적 쾌락을 추구할 때에도 "고상한" 것만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3] 요컨대 "고상한 쾌락"이란 당대 감정-공동체가 부단히 생산·요청했던 '동정=사랑'을 의미하며, 이를 추구하는

230) 위의 책, 82쪽.
231) 고주, 「김경」, 『청춘』 제6호, 1915.3, 123-126쪽.
232) 손유경,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의 개인과 인류」, 『현대소설연구』 제4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262-263쪽 참고.
233) 「고상한 쾌락」, 『청춘』 제6호, 1915.3, 53-55쪽.

것은 감정-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자격 요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 벗에게」의 화자는 6년 전 김일련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후, "모든 희망과 정력이 다 슬어"진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동족을 위한다는 신념 덕택에 "새 희망과 새 정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화자는 소년들을 교육하는 데 헌신하고, 학생들이라는 "이 신(新)애인에게서 사로온 쾌락을" 얻으려 한다. 「김경」에서도 나타났던 이러한 모습은 「어린 벗에게」에서 직접 제시되듯이, "정신적 쾌락이라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234] 물론 김일련과의 재회 이후, 이러한 화자의 신념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기혼 남성인 화자가 비혼 여성인 김일련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본고의 맥락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화자가 김일련과의 사랑을 우정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 흉벽 하나를 격(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중은 마치 차계(此界)와 타계(他界)와 가타야 기간(其間)에 교통이 생기게 전에는 결코 접촉하지 못하는 것이로소이다. 그 교통 기관은 언어와 감정이니 이 기관으로 피차의 내정(內情)을 사실(査悉)한 후에야 화친도 생기고 배척도 생기는 것이로소이다. 그럼으로 붕우라 함은 서로 이해하야 각기 타인에게 자기(自己)과의 공통점을 발견함으로 생기는 관계라 할 수 잇는 것이로소이다. 그러나 사랑은 이와는 싼 문제니 그의 성정이며 사상 언행이 혹 사랑의 원인도 되며, 혹 이믜 성립된 사랑을 강하게 하는 효력은 잇스되 그것은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로소이다.[235]

인용한 대목에 따르면, 우정이란 언어와 감정의 교환을 통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나'와 '너'를 '우리'로 묶어주는 공통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랑에는 이러한 필요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구절을 본고의 맥락에 맞추어 재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감정-공동체의 구

234)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9호, 108쪽 및 121쪽.
235)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11호, 1917.11, 131-132쪽.

성원들은 서로 사랑(←"우정")을 교환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추동·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연애(←"사랑")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실 이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문면에 드러난 것만을 보았을 때, 「어린 벗에게」는 여성을 향한 연애 감정(←"사랑")으로 인해, 화자가 "고상한 쾌락"에 대한 신념을 추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제1절에서 언급했듯이, 김일련에 대한 감정이 남성인 "그대"에 대한 감정과 그 강렬도에 있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실패는 ㉠ 표면적으로 여성과의 "상사하는 애정"에 의한 것이지만, ㉡ 동시에 남성과의 "상사적 우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는 「어린 벗에게」가 동성에 대한 욕망을 조절하라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균열을 드러내지만, 이성에 대한 감정을 동원해 이를 적절히 은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김동인의 「마음이 여튼 자여」(『창조』, 1919.12~1920.5)에서도 드러난다. 소설은 C에게 "한 줄기의 동정"[236]을 구하는 K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김동인은 서간체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함으로써, K의 일화를 동정해 달라는 메시지를 작중인물인 C뿐만 아니라 독자인 C'들'에게 보낸다. 작품에서 K는 이미 조혼을 해 아내를 두고 있으면서도, Y라는 여성과 연애를 하는 인물이다. 이때 작품의 제1장에 나타나는 K의 번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참사랑"과 "육적 사랑"을 이분한 뒤, 이 기준에 의거해 자신을 향한 아내와 Y의 사랑을 각각 해석해보려는 데서 비롯된 내적 갈등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연인인 Y가 이미 정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음을 알게 된 뒤,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분노이다. 이러한 번민 끝에 K가 C에게 유서를 동봉해 보내자, 그를 구하기 위해 C가 직접 K를 방문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C의 동정에 마음이 움직인 K가 "이유는 모르지만, 자긔 왼 목숨까지라도 바칠 만한 C에 대한 극도의 연애에 갓가운 사랑이 생김을 깨다랏다"는 점이다. 나아가 K는 "C의게 손을 잡히고 잇는 거시 붓그러워서 그것까지 쏩"기도 한다.[237] 이러한 구절은 K와 C 사이의 '동정=사랑'

236) 김동인, 「마음이 여튼 자여」, 『창조』 제3호, 1919.12, 27쪽.
237) 김동인, 「마음이 여튼 자여」, 『창조』 제5호, 1920.3, 29쪽.

이 기실 퀴어한 감정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K가 Y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신체 접촉에서 추동되는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는 점[238]이나, K가 C와 Y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서로 비교한다는 점[239]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을 향한 K의 감정은 실제로 비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인용할 금강산 물놀이 장면에 따르면, K는 C라는 남성에 대한 감정을 다시 여성에 대한 감정으로 굴절시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 「K, 밋그러우에, 주의하게」 하는 C의 소리를 듯고, K는, 두 팔을 들고 춤추덧 중심을 잡으면서 물 잇는 데로 가다가, 물에서 일이척 되는 거리에서 모—든 노력 쓸데업시, K는 밋그러져서 물에 첨벙 빠졋다. (…)「이 손 잡게」 하며 내여미는 C의 손을 K는 잡고, 푸—푸— 머리에서 흐르는 물을 입으로 쌋리면서, 밋그러운 거슬 도로 빠졋다 나왓다 하다가 겨우 언덕 우에 올나왓다. 옷에서는, 찬 샘물이 줄줄줄 흐른다. /「에, 칩다」 K는 왼몸을 부르륵 써럿다. /「치운가? 이게 야—단이루다. 외딴 데라 닙을게 잇서야지」 (…) K는 도라안저서 바지를 싸서 닙고, C의 양복 저구리를 어더 닙엇다. / <u>K는 이째야, 아까와 가튼 그 겉의 치위가 아니고 참심장의 치위를 의식하엿다.</u> (…)「건 멀하레 빠진담— 엇더턴 야—단이루군. 엇잣단 말인고. 가만, 조흔 수가 잇다」 하며 C는 벌덕 니러선다. 쪼갑을 줍는다. <u>K는 이것만 보아도 좀 안심된다.</u> (…) <u>K는 치위까지 좀 적어지는 거슬 깨다랏다.</u> / 한참 모아 노흔 나무 부시럭이는 작은 테—블만큼 K의 아페 가려젓다. /「이전 됏다」 하면서 C는 셩냥을 끄내여 거긔 불을 지르고— /「자 담배나 먹으며 녹이게」 하면 자긔 바지ㅅ주머니에서 파이레—트를 두고 치내여 자기도 하나 부치며 K의게 준다. (…) K의 바지에서는 김—이 나서, K의 몸

238) "무릅의 전쟁은 여러 번 니러낫다. 내가 무릅을 가만이 그의 무를에 댄다. 무엇인지 모를 것이 찍! 내 무릅에서 약하게 쩔니는 그의 무릅으로 가고 그의 무릅에서 내게로 온다. 좀 잇다 그는 슬젹 무릅을 치운다. 좀 잇으면 내가 갓다 대지 안는데 그의 무릅이 가만이 내 무릅으로 온다. 입으로는 뚱단지 니야기가 왓다갓다 하는 두 사람의 무릅은 이와 갓튼 원정, 퇴각이 생긴다. (…) 닷다, 써러졋다 하던 무릅은 차차 변하여 단단이 다앗다 가만이 다앗다 하게 되엿다. 그의 쩔님은 내게까지 젼혜 와서 머출 수 업시 다리가 부루루 논다."(김동인, 「마음이 여튼 자여」, 『창조』 제3호, 40쪽.)

239) "C와 함씌 잇는 거슨 자미잇다. 저긔는 정신상의 오락—물론 그와 함씌 이슬 때는 정신상 압박도 적지 안치만—이 잇다. / Y와 함씌 잇는 것도 자미잇다—오히려 C와보담 더 즐겁달 수가 잇다. 그러치만— 아— 쓰기도 실타."(김동인, 「마음이 여튼 자여」, 『창조』 제4호, 1920.2, 11쪽.)

> 의 왼 아렛동을 적시여, K는, 바위 우에 안저서 증기욕을 하고 이섯다. K는, 마음이 하눌로 너울너울 써올나 가는 것 가탯다. 아렛동이 모도 근질근질한 거시 그는 육감(肉感)에 갓가운 한 자극적 감각을 깨다랏다. 이때에 K는,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존재의 여부도 모르는 엇던 이성에 대한 참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니러나는 거슬 깨다랏다. K는 이때만큼 이성에 대한 뜨거운 집착을 경험한 적이 없다. (…) K의 마음에는 알지 못할 엇던 꼬—만틱한 거시 왕래할 때에 / 「몸 다— 녹엇나?」 C는 뭇는다.(강조—인용자)[240]

이와 관련해 손유경은, K가 C로부터 무한한 동정을 갈구하고 있으며, K를 전적으로 보살펴주는 C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의 정신적 충일감이 때때로 육체적 자극에 가까운 '낯선' 감각으로도 전이되는 듯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241]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K가 자신이 느끼는 '낯선' 감각을 "존재의 여부도 모르는 엇던 이성에 대한 참 뜨거운 사랑"으로, "알지 못할 엇던 꼬—만틱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K가 느끼는 '참심장의 추위'를 보듬어준 것이란 기실 C의 '동정=사랑'이지만, K는 C에게 '연애'에 가까운 감정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여성을 향한 감정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컨대 대상에게 느끼는 자아의 감정을 강렬도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과잉된 '사랑'은 이성 간의 관계에 사용되었던 '연애'라는 감정과 그리 큰 위상차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성과의 관계를 특권화하는 언어의 규약에 따라, 남성 간의 관계에서 이 '연애'에 가까운 '사랑'을 느끼는 개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연애'로 포착하지 못하는 바, 자신의 감정을 굴절시켜 이를 이성에 대한 감정으로 곡해하는 식의 기제가 작동된다. 즉 「마음이 여튼 자여」는 「어린 벗에게」와 마찬가지로, 욕망을 조절하라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균열을 보이지만, 동성을 향한 욕망을 이성에 대한 감정으로 치환함으로써 그 균열 양상을 은폐한다고 할 수 있다.

---

240) 김동인, 「마음이 여튼 자여」, 『창조』 제6호, 1920.5, 1-4쪽.
241) 손유경, 앞의 책, 138-140쪽.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는 연애라는 감정으로 전이되지 않게끔 잘 봉합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공적 영역에서 ‘동정=사랑’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생산·요청했다. 그러나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랑과 퀴어한 감정을 나누는 경계란 매우 불확실했다. 따라서 동성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언제든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었다. 이광수의 「윤광호」는 그러한 경계 넘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소설은 “동경 유학생 중에 최고급으로 진보된 학생 중 일인(一人)”인 광호의 적막과 비애에 대해 다룬다. 광호에게는 “크고 깁흔 공동(空洞)”이 존재하며, “이 공동을 전충(塡充)할 자는 광호 이외의 인(人)”뿐이다.[242] 소설에서 광호는 적막과 비애를 안겨주는 무한한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 즉 자신을 ‘동정=사랑’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희구한다.

이처럼 ‘동정=사랑’에 대한 갈망은 일문소설 「사랑인가」와 단편 「무정」(『대한흥학보』, 1910.3~4)[243]을 거쳐 「김경」, 「어린 벗에게」, 「방황」 등에 이르기까지, 이광수의 1910년대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어 왔던 욕망이다. 이것이 「윤광호」에서는 광호와 준원 사이의 관계, 나아가 광호와 P 사이의 관계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준원은 “광호의 뜻을 알아주는 (…) 오직 한 사람”이자, “진정으로 광호의 생각에 동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광호는 이러한 준원의 ‘동정=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 즉 준원이 “정신상으로 항상 광호에게 위안과 희열과 희망을 주”긴 하지만, “친우의 애정과 위안의 힘은 엇

242) 춘원, 「윤광호」, 『청춘』 제13호, 1918.4, 68-69쪽.

243) 특히 단편 「무정」에 나타난 여성의 고독의 시발점에 “애정과, 육욕의 기갈”이 놓여 있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주, 「무정」, 『대한흥학보』 제12호, 1910.4, 50쪽.) 이는 「사랑인가」에서부터 「윤광호」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재현된 ‘동무’에 대한 욕망이 기실 육체적 쾌락에 대한 갈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정」에 재현된 고독에의 갈망은 다음을 참고할 것. “사람이ᄅᆞᆫ 동물은 고독을 슬여하ᄂᆞᆫ 고로 항상 기 「동무」를 구ᄒᆞ며, 구ᄒᆞ야 엇으면 깃버ᄒᆞ고, 행복되며, 엇디 못하면 슬퍼ᄒᆞ며 불행되ᄂᆞ니라. 연이(然而) 기(其) 「동무」에ᄂᆞᆫ 조건이 이스니 즉 「정다아운 자」, 「사ᄅᆞᆼ스러운 자」라, 만일 차(此) 조건에 불합(不合)ᄒᆞᄂᆞᆫ 자면 비록 백만의 「동무」가 이셔도, 오히려 무인광야에 호을노 셧 것 갓ᄒᆞ야 깃붐과 행복이 업스되 만일 일인(一人)이라도 차 조건에 합(合)ᄒᆞᄂᆞᆫ 자 이스면 깃붐과 행복이 마음에 충만ᄒᆞ야 전 우주 간에 만물이 하나도 미(美) 안님이 업고, 하나도 애(愛) 안님이 업ᄂᆞ니 전자ᄂᆞᆫ 인류에 가장 불행ᄒᆞ며 가련ᄒᆞᆫ 자요, 후자ᄂᆞᆫ 가장 복되며 운 됴흔 자니라, (…) 전자에 속ᄒᆞᄂᆞᆫ 가련ᄒᆞᆫ 뎌 부인은 고독의 비애가 기 극점에 달ᄒᆞ야 애(愛)를 실(失)ᄒᆞᆯ 시에 기 행복과, 깃붐을 일코, 심지(甚至)에 기 생명ᄉᆞ지 바리려 하ᄂᆞᆫ도다.”(고주, 「무정」, 『대한흥학보』 제11호, 1910.3, 42쪽.)

던 정도 이상에 밋지 못함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광호가 단순히 준원과 "담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광호와 준원 사이의 "애모의 정"은 점점 줄어들고, 준원은 자신의 품에 안겨 있던 "광호가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의 품으로 쒸어"갔다고 생각하게 된다.[244]

이때 광호는 전차에서 미소년이나 여학생을 관음함으로써, 자신의 적막과 비애를 달래보려 한다. 이러한 광호의 행위는 「고상한 쾌락」에서 인간의 "고등 감각"으로 분류되었던 시각을 통해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즉 고상한 관능적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경」이나 「방황」의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각적 쾌락은 결코 광호의 공동을 메워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광호는 "소년소녀가 자기의 겻헤 안저서 그 체온이 자기의 신체에 올마올" 때에야, "자기의 손이 여자의 하얏코 싸뜻한 손에 스칠 째에야 비로소 만족하게 쾌감을 맛보게" 된다.[245] 이는 인간의 "열등 감각"에 해당하는 촉각적 쾌락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다름 아니다.[246] 그렇다면 광호가 준원과 "담화"를 나누는 것에만 만족할 수 없었던 까닭 역시 이러한 촉각적 쾌락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광호가 이를 "여자의 살의 싸뜻한 맛"[247]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마음이 여튼 자여」에서 C에 대한 K의 퀴어한 욕망이 이성에 대한 감정으로 변이되어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준원에게서 충족하지 못한 광호의 갈망이 여성을 향한 것으로 왜곡·굴절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은 감정-공동체에서 퀴어한 욕망을 생산·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연애'에 가까운 것으로 전이되어 공동체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과잉될 경우, 이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과 관련된다. 즉 계몽주의자로서 이광수는 이성을 향한 욕망을 동성을 향한 욕망으로 변주해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동성을 향한 욕망을 이성을 향한 욕망으로 변형시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

244) 춘원, 앞의 책, 70-71쪽.
245) 위의 책, 71쪽.
246) 「고상한 쾌락」, 51쪽.
247) 춘원, 앞의 책, 72쪽.

그러나 「윤광호」에서 이는 곧바로 “본 적도 업고 일홈도 모르는 아름다온 소년소녀”에 대한 갈망으로 재서술되며, 광호는 결국 P라는 남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이때 광호에게 P는 생명 자체이자 우주 그 자체로 인식된다. 이러한 달뜬 사랑 끝에, 광호는 용기를 내 P에게 직접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심지어 혈서까지 써서 보낸다. 또한 광호는 P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P의 사진에 입을 마초고 또 이것을 밤낫 품에 품으며 잇다금 못 견듸게 P가 그리을 적에는 그 사진을 압헤 노코 눈물을 흘려가며 진정을” 하기도 한다.[248] 그러나 광호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P의 답장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 익일에 편지 답장이 왓다. 그 속에는 광호가 자기를 사랑하여 줌을 지극히 감사하노라 하야 훨신 광호의 비위를 독근 뒤에 이러한 구절을 너헛다, / 「대뎌 남에게 사랑을 구하는 대는 세 가지 필요한 자격이 잇나니 차(次) 삼자를 구비한 자는 최상이오 삼자 중 이자를 구(具)한 자는 하(下)요. 삼자 중 일자만 유(有)한 자는 다수의 경우에는 사랑을 어들 자격이 무(無)하나이다. 그런데 귀하는 불행하시나마 전자에 속하지 못하고 후자에 속하니이다」 하고 한 줄을 쎄어 노코, 「그런데 그 삼자격이라 함은 황금과 용모와 재지(才地)로소이다. 차 삼자 중에 귀하는 오직 최후의 일자를 유할 섄이니 귀하는 맛당히 생존경쟁에 열패할 자격이 십분하여이다. 극히 미안하나마 귀하의 사랑을 사퇴(辭退)하나이다」 하고 혈서도 반송하엿다. / 광호는 「올타 나는 황금과 미모가 업다」 하고 울엇다. 울다가 행리(行李) 속에서 특대장(特待狀)과 우등졸업증서를 내어 쪽쪽 쓰젓다. 「재지는 최말(最末)이라, 재지는 사랑을 구할 자격이 업다」 하고 그 쓰져진 조희 조각을 발로 비비고 즛밟아 돌돌 뭉쳐서 불에 태엇다. (…) 삼사일 식음을 폐하던 광호는 눈에서 술이 흐르도록 취하엿다. 그러고는 책장에 끼인 책을 끄집어내어 말씀 쓰져 바리고 깔아 노핫던 니불과 방석도 왼통 쓰져 바렷다. 그러고 광인 모양으로 P의 일홈을 부르며 「그래 나는 황금이 업고 미모가 업다」를 염불하드시 부르지진다.(강조—인용자)[249]

248) 위의 책, 72쪽 및 75쪽.
249) 위의 책, 75-76쪽.

이처럼 쾌락과 수치를 공히 안겨주었던 사랑이 실패하자, 광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다시 말해, “미지근한 추상적 사랑으로는 만족지 못하고 쓰거운 구체적 사랑을 요구”했던 광호는 무인지경(無人之境)과 같은 “빙(冰)세계”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단 한 사람을 발견하는 데 실패하고,[250] 결국 그 “빙세계” 속에서 죽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P는 광호가 오직 재주만을 가지고 있을 뿐 황금과 미모를 겸비하지 못했기에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즉 P의 거절은 광호가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는 광호가 추구했던 사랑 그리고/또는 P가 예상했던 사랑이 촉각적 쾌락에 기반을 둔 ‘연애’에 가까운 관계였음을 의미한다. 광호가 P에게 편지를 보낸 뒤 답장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할 때 하숙집 하녀가 “상사(相思)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점, 또 광호가 “눈에서 술이 흐르도록 취하엿”던 것을 보고 준원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 “실연(失戀)”이라고 칭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환언하자면, 광호가 자살을 선택한 직접적인 원인은 기실 P와의 ‘연애’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점은, P가 광호의 고백을 거절할 때 그가 남성인지 아닌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과는 별개로, 당대 감정-공동체가 이러한 남성 간의 ‘연애’를 극히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① 먼저 이러한 ‘연애’에 가까운 감정은 감정-공동체가 기반으로 하고 있던 문명 담론과 진보적 역사관 등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광호는 막연히 인류에 대한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친우에 대한 사랑, 자기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망만으로는 만족지 못하게 되엇다. 그는 누구나 하나를 안아야 하겟고 누구나 하나에게 안겨야 하겟다. 그는 미지근한 추상적 사랑으로 만족지 못하고 쓰거온 구체적 사랑을 요구한다. 그의 공동은 이러한 사랑으로야만 전충하겟고 그의 적막과 비애는 이러한 사랑으로야만 위안하겟다. 광호도 근래에 이 줄을 자각하엿다. 동경 시내에 준준(蠢蠢)하는 수백만 인류나 밤에 창공에 반작거리는 무수한 성신(星辰)이나 하

250) 위의 책, 72쪽.

> 나도 광호의 동무는 되지 못한다. 마치 길에 나서면 대한(大寒) 바람이 치운 것과 가티 실내에 들어오면 화기 업는 침구가 산뜻산뜻한 것과 가티 광호에게 대하야 전 세계는 빙세계와 가티 칩고 무인지경과 가티 적막하다. 광호가 반야(半夜)에 적막한 비애를 이긔지 못하야 우는 눈물만이 오직 더울 뿐이다.(강조—인용자)[251]

인용문에 서술된 바와 같이, 당대에 '연애'에 가까운 감정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나 "동족에 대한 사랑" 등과 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즉 인류적 차원에서의 자유의 점진적 확대라는 진보적 역사관이나, 동족을 계도해 문명한 사회로 이끌어야 한다는 문명 담론 등이 퀴어한 감정에는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는 '사랑'과 퀴어한 감정 사이의 연속성이 존재하는바, 당대 감정-공동체란 기실 퀴어한 감정-공동체였음에도, 지식인-문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음을 보여준다.

② 나아가 「어린 벗에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연애'에 가까운 감정이 "친우에 대한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감정-공동체가 이러한 낭만적 사랑을 배척하려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된다. 앞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는 (표면적으로) 우정에 의해 지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루만(Niklas Luhmann)의 지적대로, 우정이란 "자신을 단 한명의 친구와만 결속시켜 그 친구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게 해주는 고유성 위에서"는, 즉 고유성과 배타성 위에서는 구축되지 않는다.[252] 이러한 고유성과 배타성이란 우정보다는 오히려 낭만적 사랑의 특성에 가깝다.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가 주춧돌로 삼았던 우정이란 '나'와 '너' 사이의 단수적·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희들'의 복수적 관계였다. 환언하자면, 감정-공동체가 요청했던 것은 복수적 '우정들'이었지만, 「윤광호」의 광호나 「어린 벗에게」의 화자는 "상사적 우정"과 같이 특권적·단수적인 '우정'을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수적 '우정'은 낭만적 사랑과 유사하며, 나아가 공적인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복수적 '우정들'과 명백히 구분된다.[253] 또한 이처럼 배타적 관

---

251) 위의 책, 같은 쪽.
252) 니클라스 루만, 앞의 책, 198쪽.

계에 몰두하는 것은 감정-공동체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일뿐더러, 기실 감정-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안고 있는 행위였다. 「윤광호」에 드러나듯이, "오직 한 사람"과 배타적·쾌락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은,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에 헌신하게끔 하는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망"보다도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복수적 '우정들'은 "공동체를 지키는 정서적 힘"이지만, 동시에 단수적·배타적 '우정'으로 전이됨으로써 "언제든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반동적 힘이기도" 했다.[254] 따라서 감정-공동체는 이러한 배타적 욕망을 조절할 것을 구성원들에게 명령·요청했다. 그러나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는 원래의 의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윤광호」는 그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광호의 죽음이란 감정-공동체에서 요구했던 욕망의 조절에 실패한 죄, 그리하여 감정-공동체 자체를 위협한 죄로 '상징적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5]

한편 김환의 「동정의 루」에 재현된 퀴어한 욕망도 이성을 향한 것으로 굴절되지 않는다. 또한 소설에서 화자와 B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동성연애"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술했던 대로, 이들의 퀴어한 관계가 고루한 관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정'의 해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253) 서종석, 「'완전한' 우정과 '낭만적 사랑'—몽테뉴의 「우정에 대하여」에 나타난 우정의 개념」, 『프랑스학연구』 제61권, 프랑스학회, 2012, 106-112쪽.

254) 김경태, 「친밀한 유토피아: 동시대 한국 남성 동성애 영화가 욕망하는 관계성」,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32쪽.

255) 물론 이광수는 「윤광호」를 통해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당대의 관습적 독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윤광호」는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P의 젠더를 공개하지 않다가, 마지막 구절 "P는 남자러라"에서 이를 밝힌다.(춘원, 앞의 책, 82쪽.) 이는 젠더 표지가 드러나지 않을 때, '연애'에 가까운 감정으로 얽힌 관계를 무조건 이성 간의 관계로 치환해 이해하는 관습을 문제 삼는 것처럼 읽힌다. 예를 들어, 이러한 관습은 박영희에게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박영희는 「윤광호」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자신의 친구들과 실소를 터뜨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작품을 읽는 내내 P를 여성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은 남성이었다는 데서 기인한 웃음이었다.(박영희, 「이광수론—문학상으로 본 이광수」, 『개벽』 제55호, 1925.1, 86쪽.) 이광수는 바로 이러한 독해를 의식하면서, 남성과 남성 사이에도 낭만적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외적인 목적을 위해, 이광수는 광호를 더욱 더 적막과 비애에 휩싸인 인물로 만들고 만다. 즉 광호의 죽음을 목도한 준원 역시 오직 여성만이 광호를 위안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그의 상처가 어디에 기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추가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곧 광호가 죽음 이후에도 그 욕망을 정확히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결국 그의 죽음을 상징적 처벌로 읽게끔 한다.

다. 나아가 「동정의 루」는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난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 ‘상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 ㉠ 나와 B와의 두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인력이 생기여 서로 정신상 위안을 상대자의게서 밧게 되엿섯다. 하로만 서로 보지 못하여도 보고 십픈 생각이 간절하며 공연이 심사가 산란하다고 말한다. (…) 제삼자의 눈으로 관찰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소위 「동성연애」라는 명칭을 부칠 수밖게 없이 되엿섯다. 네로붙어 조흔 일은 마(魔)가 많은 법이라. B와 동급 학생 중에 R이란 학생이 있엇다. R은 나의게 사랑을 받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쓴다. (…) 그는 집에 단녀올 때마다 반닷이 엿이나 떡을 남모르게 나의게 갓다 준 적도 있엇다. 그는 B를 몹시 싀기하고 나의 사랑을 자기가 혼자 졈령하려고 노력하엿섯다. (…) B R 두 사람의 경쟁적 사랑의 주인공 된 나는 실노 두 손에 떡을 쥐인 모양이다. 혼자 속으로 「내가 그러케 남의 사랑을 슬 만한 무엇이 있는가? 전에 이성의 사랑을 받아본 일은 잇지만은 동성의게까지…… 내가 이런 행복을 일평생 누려스면 죠흐련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니…… 인생도 한번 늙어지면 허사로다……」 이런 생각을 하면셔 내 몸을 도라보고 스사로 우슨 적도 있엇다.(강조—인용자)[256]

> ㉡ 『여보게 B군! 나는 밤낫이 학교에만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대로 가려네……』 / B는 내 말을 듯고는 놀나는 듯! 애원하는 듯! 한목소래로 다만 「선생님!」 한매듸 부른 뒤에는 사방을 휘— 도라보고 다시 말을 시작하엿다. / 『형님! 저를 버리고 어대로 가셔요? 선생님! 가시면 저는 엇더케 살아요…… 혼자 외로워서……』 / B의 눈에는 눈물이 피—ㅇ 돌면서 나의 무릅에 쓰러져 어리광을 부린다. 나는 B의 하는 양을 볼 때에 더욱 사랑스러운 듯하지만은 무거운 짐을 내 억개에 지우는 듯한 늣김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나도 석별의 루(淚)를 흘니엿섯다. 그러나 사회를 위하야 나의 몸을 밧치겟다고 결심한 내가 엇지 사소한 사랑으로 인하야 내 전정을 그릇치리요! 남이 보기에는 사랑이 젹은 일이라 하겟지만 당자로 보면 그도 젹은 일은 안이엿섯다.(강조—인용자)[257]

256) 백악, 「동정의 루」, 『학지광』 제20호, 79쪽.
257) 위의 책, 81쪽.

인용문 ㉠은 우선 화자와 B의 관계가 제삼자에게 “동성연애”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에 R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끼워 넣음으로써, 화자가 B에게 배타적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용문에서 B와 R은 화자와 배타적 관계를 맺고자 한다. 하지만 화자는 이를 “두 손에 떡을 쥐인 모양”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러한 서술은 소설의 전개와 그리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즉 김환은 이처럼 불필요한 설정을 가미하면서까지, 화자와 B 사이의 관계가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인용문 ㉡은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OS학교[오산학교]를 떠나 동경으로 유학을 가려 한다는 뜻을 화자가 B에게 밝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B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자이기에 사소한 사랑 따위에 얽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화자와 B의 관계가 설령 배타적인 “동성연애”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화자가 이러한 배타적·단수적 ‘우정’보다는, 감정-공동체가 추구했던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더욱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는 과거 R군과 약속했던, “남을 위하야 내 몸을 희생하며 공익을 위하야 사리를 도라보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258] 즉 「동정의 루」에 재현된 남성 간 친밀성은, 문명 담론 및 진보적 역사관을 기반으로 한 감정-공동체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언하자면 「동정의 루」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는 균열의 양상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라는 감정-공동체의 이상을 강화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상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익상의 「망우(亡友) 최이군의 추억」(『학지광』, 1921.1)은 애도의 정치를 구성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이러한 ‘상징적 처벌’을 피한다.

---

258) 이때의 R군은 위의 문단에 서술된 R과 동일인물이 아니다. R군은 조선의 문명화에 헌신하고자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인물로서, 화자의 죽은 옛 친구이다. 화자와 R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군아 십년 전에 너의 쌋듯한 사랑의 가슴에 안기엿든 나는 십년 후 지금에 이 학교에 와서 남을 가라친다는 명목을 가지게 되엿다. 내가 무얼 아는 것이 잇기에 남을 가라치느냐고 혼자 생각할 때에는 자괴함도 적지 안타만은 군이 항상 「남을 위하야 내 몸을 희생하며 공익을 위하야 사리를 도라보지 말나……」 하던 말을 나는 잇지 안코 실행하려 한다…… 아! 나의 사랑하던 친구…… R군이여……”(백악, 「동정의 루」, 『학지광』 제19호, 72-73쪽.)

> 연인을 원향에 두고 자나 깨나 애처러히 생각하는 연인의 생각과 같이 나는 나의 사랑하든 고우(故友) 나를 사랑하든 최군을 추억한다. 원향에 잇는 연인을 사모하는 연인의 생각에는 그래도 그 연인에 대하여 엇더한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것이다. 만은 나의 망우를 생각함에는 그러한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 (…) 사람에게 사랑을 들이고 사랑을 바드냐는 것이 군의 유일한 위안이오 군을 고적(孤寂)에서 구하여내는 광명이엇섯다. 군은 또한 그와 갓흔 열정의 사람이엇섯다. 군은 누구든지 사랑하엿섯다. 그의 아모악의 업고 평화로운 사랑이 뚝뚝 뜻는 듯한 얼골을 접하는 누구든지 그의 사랑에 취(醉)치 안이할 수 업섯섯다. 군은 생래에 모든 사람에게 친애를 받을 풍부한 소질을 갖으고 왓섯다. 군은 애(愛)의 덩어리엇다.[259]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이익상은 죽은 벗을 "연인"으로 상상하면서, 그에 대한 달뜬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 주목할 것은 텍스트 속에서 죽은 최이 군이 "연인"이면서 동시에 "동지"로도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최이 군이 "연인"으로 표현된다손 치더라도, 화자와 최이 군의 관계가 배타적·단수적 '우정'을 의미하진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러한 호명은 같은 목표 아래 결속된 동질적인 집단, 즉 "동지"라는 환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해당한다. 예컨대 화자는 최이 군이 평소에 "부탁한 바를 어더케 하자든 바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군의 모든 사랑하든 사람"이 이를 위해 "한갈가티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260] 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문장이라기보다, 고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문장에 가깝다. 다시 말해, 「망우 최이 군의 추억」은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최이 군의 죽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연대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임옥희에 따르면, 애도의 정치란 "애도를 공적인 장에서 함께 나누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슬픔을 보고 들어줄 청자를 만드는 것"이다.[261]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애도는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목격한 증인으로 '당신'을 호명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나'와 '당신'이 상실의 슬픔을 공유한다면, '나'

259) 성해, 「망우 최이 군의 추억」, 『학지광』 제21호, 1921.1, 69-70쪽.
260) 위의 책, 71-72쪽.
261) 임옥희, 「애도의 정치」, 『젠더 감정 정치』, 여이연, 2016, 246쪽.

와 '당신'은 '우리'라는 슬픔의 공동체로 결속된다. '우리'는 이 슬픔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어떤 죽음을 망각의 영역으로 섣불리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망우 최이 군의 추억」은 바로 이러한 애도의 정치를 활용하며, 이와 같이 벗의 죽음에 "'우정을 표명하는 일'을 통해 형제애를 다시 무대에 올리는 기능을 수행"[262]한다. 즉 남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이 개입된 애도를 통해, 청년들의 감정-공동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한승의 「친구의 묘하(墓下)」(『여광』, 1920.3)[263] 역시 친구 네 사람이 "대시인(大詩人)의 천재(天才)를 품은"[264] R군의 묘지에 추모를 하러 가는 일화를 묘사한다. 특히 "사건의 인과관계보다 동지를 잃은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데 치중하고 있"[265]다는 이경돈의 지적대로, 이 작품은 오직 애도의 장면만을 전경화한다. 이러한 슬픔과 애도의 감정은 아래의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 오오— 우리의 가장 사랑하던 R군이여! 군과 한가지 싸뜻한 손을 서로 잡고 달고 단 장래를 이약이하던 사람은 여긔 다 왓네……만은 군은 영원히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잇는 동안에는 만나지 못하게 되엿네 그려…… 예전 친구가 되엇네 그려…… (…) 우리를 빗내고 우리 흉중을 읊흘 천재는 사라젓스니…… 군이여! 군의 임종의 말은 똑똑이 기억하네, 기필코 군의 희망을 만분지일이라도 발휘하겟네……[266]

인용문에서 K는 R군이 꿈꾸었던 이상을 그 만분지일이나마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K의 다짐은 단지 작품 내에서 K를 포함한 친구 네 사람의 공동체 의식을 추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애도의 문학화란 기실 독자들을 슬픔의 공동체 안으로 포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섭을 위해서는 독자로 하여금 작중 인물의 감정에 충분

---

262) 권명아, 「슬픔과 공동체의 윤리」,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105쪽.
263) 이 작품은 고한승이 SW생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작품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경돈, 앞의 책, 91쪽 참고. 이경돈은 이 작품을 서원이라는 별호로 발표된 "친구의 막하"라고 써 놓았으나, 이는 착오이다.
264) SW생, 「친구의 묘하」, 『여광』 제1호, 1920.3, 13쪽.
265) 이경돈, 앞의 책, 같은 쪽.
266) SW생, 앞의 책, 14쪽.

히 이입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즉 독자의 감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모든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애도에는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애착"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267] 고한승은 이러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로, K와 R군이 "싸뜻한 손을 서로 잡"고 '동정=사랑'의 감정을 나누었던 경험을 활용한다.

이는 감정-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인 청년들이 서로 관계 맺고 있던 방식을 청년 독자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R군의 죽음을 마치 자신과 '친밀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즉 「망우 최이 군의 추억」과 마찬가지로, 동성 간 친밀성이 애도의 정치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친구의 묘하」에 나타난 동성 간 친밀성은 「망우 최이 군의 추억」이 보여주는 것만큼 과잉되어 있진 않다. 그럼에도 이처럼 동성 간 친밀성과 애도의 정치가 깊이 연루되어 있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포착된다는 사실은, 욕망을 조절하라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우회하는 한 가지 방식이 애도의 정치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퀴어한 감정-공동체 내에서도 청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조절해야 했다. 나아가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그들은 자신이 욕망과 쾌락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동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과 퀴어한 욕망이 더 이상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광수의 경우, 1910년대에 발표한 일련의 퀴어 서사로 인해, 동성애자를 '색출'하려는 문학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여기에는 욕망을 조절하라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 인물을 매우 직접적으로 재현한 「윤광호」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실제로 이광수의 1910년대 소설 중에서도, 가장 설왕설래가 많았던 작품이 바로 『무정』과 「윤광호」였다.[268] 이는 이광수의 소설에 나타난 동성 간

---

267) 임옥희, 앞의 책, 220-221쪽.

268) 제2장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무정』에는 형식과 희경 사이의 퀴어한 관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무정』에 나타난 퀴어한 감정은 「어린 벗에게」에 나타난 것과 강렬도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정』이 가장 빈번하게 화두에 올랐던 까닭은 연재 당시부터 많은 독자들, 특히 비평가들이 이 작품에 주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이전

친밀성을 “동성애”로 재규정하는 심훈과 김동인의 저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심훈은 『무정』의 형식과 희경이 각각 이광수와 그의 오산학교 제자를 모델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동성애”로 해석한다. 또한 그는 희경의 모델이 된 인물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의 장래를 위하기 때문이라고 첨언하기도 한다.[269] 이는 심훈의 글이 발표된 1927년 무렵부터 이미 동성애가 ‘저급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김동인 역시 「어린 벗에게」를 미소년에 대한 사랑으로, 「윤광호」를 “동성애”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광수의 소설에서 “동성애”가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고 주장한 후, 이는 그런 하찮은 것이나마 간절히 희구했던 작자의 고독한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한다. 이러한 김동인의 발언은 동성애와 이성애 사이에 명백한 위계를 설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270]

흥미로운 것은 이광수가 1930년에 직접 『무정』과 「윤광호」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광수는 심훈이 제기했던 의혹을 의식한 듯이, 『무정』에서 실존 인물을 모델로 취한 캐릭터는 신우선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과 이희철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을 잠재움으로써, 동성애자라는 ‘혐의’로부터 스스로를 구출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271] 이는 제3절에서 살펴보듯이, 이광수가 회고담으로서 『그의 자서전』(『조선일보』, 1936.12.22~1937.5.1)을 발표했던 근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윤광호」가 “동성애와 실연을 취급하엿든” 소설이라고 직접 언급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작품이 자신의 심경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즉 “실재의 인물과 실재의 사실이 뿌럭지가 되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목할 것은 그가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위하야 누구라고 지목하기를 피하겟다”고 말한다는 점이다.[272] 이는 심훈 및 김동인과

까지 제출된 『무정』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황정현, 「『무정』에 관한 초기 비평 연구—1945년 이전의 비평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7권, 민족어문학회, 2008을 참고할 것.

269) 심생, 「무정·재생·환희·『탈춤』 기타 소설에 쓰인 인물은 누구들인가, 만히 닑혀진 소설의 『모델』 이약이」, 『별건곤』 제3호, 1927.1, 75쪽.

270) 김동인, 「춘원연구 (2)」,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8, 148-149쪽.

271) 그러나 이러한 소문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은 바로 이광수 자신이다. 전술했듯이 이광수는 이희철의 「K선생을 생각함」에 대한 답신으로 「H군의게」를 『창조』에 게재했으며, 이희철의 사망 이후 그를 추모하며 쓴 「H군을 생각하고」라는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72) 이광수, 「내 소설과 모델: 『혁명가의 안해』와 모(某) 가정」, 『삼천리』 제6호, 1930.5,

마찬가지로, 이광수 역시 “동성애”에 관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야만의 징표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은 문학의 영역에서 동성애혐오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당대 문학장에 만연했던 동성애혐오는 남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 내지 “동성애”를 육체적 성행위와 강력하게 결부시켰다. 일례로 박영희는 「윤광호」를 ‘불쾌한 남색적 실연’[273]이라고 평함으로써, P를 향한 광호의 퀴어한 욕망을 곧바로 항문 성교와 연결시킨다. 또한 김문집은 홍명희와 이광수를 “동성애 관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두형(頭形)으로 보아 홍 선생이 「포지」요 이 선생이 「네가」 역을 했을 것 같다”고 조롱하기도 했다.[274] 이처럼 이광수와 그의 작품을 남성들 사이의 육체적 성행위로 연결시키려는 당대의 동성애혐오적 ‘관심’은 이광수가, 나아가 모든 지식인-문인들이 더 이상 현재진행형으로 자신의 퀴어한 욕망을 써내려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는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정신적 동성애’는 인정하더라도 ‘생리적 동성애’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원시적(原始的) 감정으로 이야기되었다는 점, 특히 남성의 ‘육체적 동성애’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구습으로 확정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275]

이광수는 「어린 벗에게」에서 자신이 죽더라도 정신만은 살아 동포와 민족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쓴 바 있다. 또한 이 영향이 자손 대대로 전해져 “영원히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잇는 것”이라는 믿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는 「어린 벗에게」의 화자가 “나의 잡을 직업은 아비, 교사, 사랑하는 사람, 병인 간호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대목과도 연결된다.[276] 주지하듯이 뒤의 세 가지는 이광수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주목할 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직업인데, 「어린 벗에게」에서 화자는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이는 이성과의 결혼보다도 희망의 상징으로서의 ‘아이’를 재생산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64쪽.

273) 박영희, 앞의 책, 86쪽.

274) 김문집, 「문단인물지」, 『사해공론』 제4권 제8호, 1938.8, 45쪽.

275) 「사람은 몃 살부터 이성을 아느냐 (3)」, 『동아일보』, 1929.11.4.

276) 외배, 「어린 벗에게」, 『청춘』 제9호, 96쪽 및 99쪽.

환언하자면, 그는 역사의 진보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세대를 거쳐 흘러가는 흐름 위에만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던 바와 같이,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 속에서 동성애자는 이러한 희망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성장을 거부하는 아이"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어린 벗과의 퀴어한 관계를 재현한 소설에도, 동성애 담론과 절합해 문학장을 동성애혐오적으로 구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진보적 역사관과 미래 담론이 삽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는 이제 퀴어 서사를 포기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이성애 제도에 완벽하게 안착시킨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는 회고담의 방식으로만 동성애/퀴어를 재현하게 된다.

제3절 '퀴어 서사 시대' 이후의 억압된 '퀴어 서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 문명 및 동정 담론, ㉡ 진보적 역사관과 미래 담론, ㉢ 성과학과 동성애 담론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퀴어한 감정-공동체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퀴어 서사 시대'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277] 이 절에서는 이처럼 '퀴어 서사 시대'가 저문 뒤, 문학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동성애/퀴어를 재현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크게 세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1920~1940년대에 동성애/퀴어를 재현한 텍스트들은 (1) 회고담, (2) 데카당스의 징표, (3) 이성애 서사로의 은폐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각각의 유형을 대표하는 작품 한두 개씩을 선별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1) 회고담으로서의 퀴어 서사

먼저 회고담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이광수의 『그의 자서전』을 꼽을 수 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자서전 양식을 취해, 화자 남궁석의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다. 그러나 이광수가 서문에서 직접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내 자서전"[278]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실 이광수의 자전적 소설에 가깝다. 즉 이광수는 "허구적 글쓰기의 자유를 확보한 가운데 자신의 삶 자체를 방불케 하는 이야기를 전개해나감으로써, '사실'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적 이상에 맞추어 재조정된, 자신에 관한 '판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279]

본고의 맥락에서 이처럼 이광수가 유사 자서전[280] 형식을 취해 허구적 자

277) 여기에는 ㉣ 여성혐오 담론 역시 개입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1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78) 신지연, 「이광수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성 간 관계와 감정의 언어화 방식」, 213쪽.

279)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62쪽.

280) 유사 자서전이라는 개념은 강현국이 "자서전의 형식을 취하되 엄밀한 의미에서 자서전이 될 수 없는" 작품을 지칭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그는 르죈(Philippe Lejeune)을 원용해, "자서전이 성립하려면 화자와 저자의 일치라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의 자서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작품에 재현된 화자 남궁석의 삶이 아무리

아를 재창조해야 했던 까닭이란, 그의 초기작에 대해 동성애 '혐의'를 제기하는 동성애혐오적 분위기가 1930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경에 있을 때 다른 남성과 "서로 꼭 껴안고 키스까지도 하였"던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한자리에서 자더라도 "피차에 징그럽게 되어서 서로 고개를 돌려 대고 엉덩이만 마주 대"고 잔다는 식으로 그러한 욕망을 과거의 것으로 확실하게 못박아두는 것이야말로 『그의 자서전』의 의도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281]

작품에서 이광수는 남궁석의 청년기를 "저주와 불평과 불만과 육욕과, 이러한 열등 감정의 포로가 되"었던 '음란한 성욕의 노예' 시절로 규정한다. 즉 "그때에 내 마음속에는 술과 계집에 관한 욕심밖에 없었"고, 그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랑의 "아귀"가 되었다는 것이다.[282]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퀴어한 관계를 재현한 그의 초기 소설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면모에 해당한다. 물론 청년기 이광수가 자신의 삶을 서사화한 작품에서도 육체적 쾌락을 죄악시하는 모습,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육체적 쾌락을 갈망하는 모습이 드러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방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향해 있었으며, 때때로 남성만을 향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차이는 이광수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청년기를 재차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를 짐작케 한다. 우정권은 두디(Terrence Doody)를 원용해, 고백이란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화자는 공동체 속에 자신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백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83] 이를 수용한다면, 이광수가 자신을 '합법적인' 공동체

작가 이광수의 삶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서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와 저자 사이의 불일치는 "자서전과 유사 자서전류를 가르면서 사실과 허구를 가르는 거리이기도 하다." 이때 강현국은 올니(James Olney)를 따라, 자서전을 구성하는 두 축을 기억과 서사로 구분한 뒤, 기억을 재현하려는 의지가 서사를 구성하려는 의지보다 우세하다면 사실 쪽으로 기울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허구에 더욱 가깝게 된다고 주장한다. 유사 자서전은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이광수의 유사 자서전은 "기억을 재배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억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강현국, 「기억의 연금술—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성격 연구」, 『한국학연구』 제3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212, 218-219, 225쪽 참고.) 한편 본고는, 이광수가 이러한 '기억의 제작'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동성애'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281) 이광수, 「그의 자서전」, 325쪽.

282) 위의 책, 305쪽.

283)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2004, 27-28쪽.

의 구성원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고백의 의도란, 자신이 이성애 제도에 안착해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추악한' 청년기를 고백하는 이광수의 모습은 내부의 타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는 노력, 즉 공동체의 경계 바깥으로 영원히 추방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에 가까운 것이었다.[284]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이광수의 문학적 고백이 『그의 자서전』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수행된 바 있다는 점이다. 「혈서」(『조선문단』, 1924.10)와 「사랑에 주렷던 이들」(『조선문단』, 1925.1; 미완)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혈서」는 조선인 남성 김행일과, 일본인 여성 노부코(信子) 사이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에서 노부코는 아버지의 결혼 강요를 피해, 마음에도 없는 결혼 대신 김행일과의 사랑을 선택한다. 그러나 소설의 화자인 김행일은 이러한 노부코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 작품에서 수차례 반복되듯이, 그는 "사랑보다도 큰일에 몸을 바친 사람"[285]이기 때문이다.

> 그때는 청년 간에 (십오자 삭제) 뎡돈되기까지는 장가도 안 들고 시집도 안 가기로 혹은 혼자 맹셰도 하고, 혹은 여럿이 동맹도 하는 일이 만히 잇섯다. 우리는 가정을 일러서는 아니 된다—일신의 행복을 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십오자 삭제) 일생을 독신으로 보내기를 작뎡하는 것이 그때 청년의 자랑이엇섯고 더욱이 그중에 예수교의 영향을 바든 엇던 일부의 청년은 오직 혼인만 아니할 것이 아니라 일체로 이성과 졉하는 것을 죄악으로 알아서 오직 나라에 몸을 바치는 즁과 가튼 생활을 하기로 맹셰를 하엿다. 나도 그 맹셰 중에 든 한 사람이엇슴으로 비록 엇더한 녀자가 오더라도 거졀하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잇섯다. (…) 그러나 일은 그러케 단순하지 아니하엿다. 나도 젊은 남자라 아름다운 젊은 녀자가 나를 사모하여 올 때에 단마듸로 끈허버리기는 심히 어려웟다. 진정을 말하면 (…) 나는 한잠도

284) 이광수는 작품에서 화자 남궁석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자서전을 읽는 여러분은, 제목에는 「그」라고 하고 본문에는 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신네 동네, 당신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그만일 것이다. (…) 사람의 생활이란 어느 곳에를 가거나 대개 비슷한 것이니까 내 생활이 곧 당신의 생활이 아닐까."(이광수, 앞의 책, 241쪽.) 이 구절은 다소 상투적이지만, 또한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작가 이광수 또는 화자 남궁석이 이 공동체에 속한 매우 '평범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285) 춘원, 「혈서」, 『조선문단』 제1호, 1924.10, 12쪽.

> 일우지 못하고 괴로워하엿다. 하늘이 주시는 사랑의 단 술을 바들가 물리칠가. 길지 못할 인생의 일생 더구나 길지 못할 꼿다온 청춘에 마실 수 있는 대로 사랑의 단 술잔을 마실 것이 아닌가. 봄은 한 번 가고 다시 오건마는 인생의 봄은 한 번 가버리면 다시 못 올 것이 아닌가. (…) 이러한 생각이 날 때에 나는 누를 수 업는 굿센 유혹을 깨달앗다.(강조—인용자)[286]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혈서」는 청년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 즉 이성과의 연애를 죄악시하던 시기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또한 「혈서」가 창작된 해가 1924년이며, 작품의 주된 내용이 15년 전에 대한 회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화자와 노부코의 사랑을 둘러싼 사건은 1909년 무렵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09년이 동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을 극적으로 묘사한 이광수의 일문소설 「사랑인가」가 발표된 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랑인가」에서 문길이 자신의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동성의 동급생 미사오에게 "혈서"를 써서 보냈다는 점은 두 작품을 더욱 연관 지어 읽게끔 만든다.

그런데 「사랑인가」에서 전경화되었던 남성을 향한 퀴어한 욕망은 「혈서」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사랑인가」의 문길이 자신을 오롯이 이해해 주는 '벗'을 간절히 희구하는바, 이광수 초기 소설의 원형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술했듯이 「김경」부터 「윤광호」까지 이광수 초기 소설은 '벗'에 대한 갈망을 주요한 테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퀴어한 감정-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욕망을 부단히 조절해야 있던 인물들, 나아가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실패'했던 인물들은 모두 문길의 분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수는 「혈서」에서 1909년 무렵의 일을 그리면서도, 나아가 퀴어한 감정-공동체의 일면을 그리면서도, 동성 간 욕망의 존재를 철저히 도외시한다.

제2절에서 서술했듯이, 김환의 「동도의 길」이나 「동정의 루」 등에는 독신주의를 표방한 남성 청년들이 서로 "정신적 위안"을 주고받으며 퀴어한 관계를 맺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혈서」는 동일한 독신주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이러한 퀴어한 관계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환언하

286) 위의 책, 6쪽.

자면, 「혈서」의 화자는 “일생을 독신으로 보내기로 작뎡”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남성에 대한 어떤 욕망도 노출하지 않은 채, 단지 여성에 대한 “누를 수 업는 굿센 유혹”만을 느낄 따름이다. 이러한 이광수의 태도는 자신의 문학적 원형인 「사랑인가」를 외면하는 것이며, 자신이 1910년대에 제출했던 일련의 퀴어 서사 전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면은 결국 자신의 ‘이성애적 욕망’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87]

한편 이광수의 서간체 소설 「사랑에 주렷던 이들」에서, ‘나’는 “사랑하는 형”의 누이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동경 유학생 사회로부터 쫓겨난 인물이다. 소설은 사건 발생 8년 후의 시점에서, ‘나’가 이 사건의 전말을 ‘형’에게 고백하는 형식을 취한다. 주목할 것은 이 소설이 「윤광호」에 나타난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랑에 주렷던 이들」에서 ‘나’는 ‘형’의 누이야말로 자신을 “얼음 세계” 속에서 구원해 줄 사람임을 깨달은 까닭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는 「윤광호」의 “빙세계” 모티프를 직접적으로 상기시킨다. 주지하듯이 광호는 적막과 비애로 휩싸인 “빙세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희구했고, 그때 광호의 시야에 포착된 이가 바로 같은 남성인 P였다. 즉 「사랑에 주렷던 이들」은 「윤광호」에서 남성-남성의 관계에 적용되었던 모티프를 다시 활용해, 이를 남성-여성의 관계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288] 이러한 이광수의 시도는

---

287) 비슷한 맥락에서, 「애인과 안해—성(性)의 비극과 나의 애인과 안해」(『삼천리』, 1929.11)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어째서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다음을 참고할 것. “내가 처음 일본 류학을 갓슬 때는 동경에 도모지 조선인 녀자류학생이라고 업서서 설사 열칠팔의 소년의 가슴에 성(性)의 고민과 사랑이 싹이 움도닷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웟스니 그 이전에 내게에 이성과 사괴어 보앗다 할 기회가 잇섯슬 리 없다. 더구나 그때 나의 마음 가운데는 「톨스토이」의 영향을 밧어서 「인생을 엄숙하게 살자!」 하는 인생관에 꽉 억매인 배 되어서 여자란 생각할 것이 도모지 되지 못하는 것가치 알어 왓섯다. 그러다가 열아홉 살 되든 해에 학교라고 마치고 귀국하야 즉시 정주 오산학교에서 학감의 직책을 맛거소 4, 50 되는 어른들과 함께 교육 사업에 종사하엿스니 그 사이에 끼어 감히 이성에 대한 생각인들 내어 보앗슬 리 업섯다. 그 뒤에도 서백리아(西伯利亞)와 만주 들로 고독한 그림자를 오래 니끌고 도라다니다가 비로소 두 번재 일본 류학을 간 스물다섯 살 되든 해에야 나는 나의 이성에 대한 정열의 해방을 어덧섯다.”(이광수, 「애인과 안해—성의 비극과 나의 애인과 안해」, 『삼천리』 제3호, 1929.11, 26쪽.)

288) 이외에도 「사랑에 주렷던 이들」에서 ‘나’는 자신에겐 “돈도 없고 여자들의 맘을 끌 풍채도 없”기에, 원래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윤광호」에서

「혈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성애 제도에 안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얼음 세계" 모티프가 작품의 후반부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나'는 조선으로 돌아온 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7년째 되던 해, '나'는 그처럼 이상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추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나'는 결국 "사람의 살"을 그리워하게 된다.

> 칠년째 잡히던 째부터 점점 맘ㅅ속에 일종의 적막과 슬픔을 늣기게 되엇소. (…) 형아! 하나님께서는 잠깐ㅅ동안 나를 버리시엇소. 나의 몸의 치움과 맘의 치움은 하나님의 손으로는 더워지지 아니할 쯧하엿소. (…) 나와 가티 죄 만코 불완전한 「사람의 살」이 그리워지엇소 (…) 사람의 살이 짜쯧함이 내 몸에 다흐면 이 찬 바람과 찬 서리에 꽁꽁 언 내 몸은 금시에 풀려질 것 가탓소. (…) 아모리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도—비록 그 사람이 반쯤 썩어진 문동ㅅ병장이라도, 만일 사람만 잇섯던들 나는 「아 사람이여!」 하고 달겨들어 껴안고 흑흑 늣겨 울엇슬 것이오. / 생각해 보시오—내가 칠년의 긴 세월을 누구를 사랑햇스며 누구의 사랑을 바닷겟소. 혈혈한 단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걸어온 것이요. (…) 내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도 맛당한 일이 안이오.(강조—인용자)[289]

인용문은 숭고한 이상의 실현에만 만족하는 삶이란 기실 불가능하며, 인간은 반드시 다른 인간과의 피부 접촉을 통한 촉각적 쾌락을 욕망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김경」, 「방황」, 「윤광호」 등 1910년대 퀴어 서사를 통해 이광수 자신이 줄곧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하다. 이때 「사랑에 주렷던 이들」은 서간체 형식을 활용해, 작품 속 '형'과 독자 전체를 포함하는 '형들'에게, 그러한 욕망이 "맛당한" 것임을 설득하고자 한다. 나아가 '나'는 그러한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엔, "아모리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도"

광호에겐 황금과 용모가 없으므로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했던 구절과 공명한다. 또한 전차에서 타인의 몸을 관음하면서 성적 충동을 느끼는 장면 역시 두 작품 모두에서 나타난다. 다만 「사랑에 주렷던 이들」이 욕망의 방향을 여성으로 한정한 데 반해, 「윤광호」에서는 이러한 욕망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향해 있었다.

289) 춘원, 「사랑에 주렷던 이들」, 『조선문단』 제4호, 1925.1, 12-13쪽.

사람이기만 하다면 누구든지 "껴안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 이광수가 보여주었던 남성을 향한 남성의 욕망을, 사람을 향한 사람의 욕망으로 치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이란 결국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며, 단지 '휴머니스트'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 원래의 맥락으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고백의 결과 『그의 자서전』은 비교적 '안전하게'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묘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작품에서 남궁석의 첫사랑은 어린 시절 서당에서 만난 10살 연상의 심태섭이다. 남궁석은 심태섭을 사랑하고, 심태섭 역시 남궁석을 사랑한다. 석은 태섭이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 어쩔 줄 모르며, 그저 그에게 가 안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태섭은 석의 "고적한 혼을 만져주기 위하여 처음 나타난 사람"[290]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광수가 남궁석과 심태섭 사이의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따뜻함'이라는 감각이다.

> 오늘이야말로 나는 실컷 태섭의 곁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깎아드린 비탈길을 태섭의 손에 매달려 오를 때에 행복 그 물건인 듯하였다.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 할미성에 올랐다. (…) 나는 태섭과 단둘이 언제까지나 이 성안에 있고 싶었다. 성 오붓한 굽이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오직 하늘뿐이었다. 그 굽이는 아마 가장 거룩한 골인 듯한데 넓은 방 한 간만 하였다. (…) 지금 생각하건댄, 아마 이것은 옛날 우리 선인들이 하늘에 제사 드리던 거룩한 제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말에는 천태산 마고할미가 베치마 아홉 죽을 다 꿰뜨리면서 쌓은 성이라고 한다. 안민세(安民世) 말과 같이 성모시대의 유적일는지도 모른다. 아무려나 이 거룩한 성—산꼭대기 하늘 가까운 곳에 있는 성에서 나는 처음으로 애정의 경험을 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에 태섭은 바위 밑에서 나를 꼭 껴안아 주어서 젖지 않고 춥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소나기가 그치고 볕이 나서 우리가 바위 밑에서 나올 때에 태섭은 내 목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입의 향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향기였을는지도 모른다.(강조—인용자)[291]

290) 이광수, 앞의 책, 257쪽.
291) 위의 책, 258쪽.

소나기가 오던 날 석의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태섭의 체온과, 그와 입을 맞출 때 그의 입술에서 나던 "마음의 향기"는 아직도 석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따뜻함'이라는 감각은 1910~1920년대 초 퀴어한 감정-공동체를 지탱했던 '동정=사랑'의 또 다른 형태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은 일견 '퀴어 서사 시대'에 쏟아져 나온 이광수의 퀴어 서사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퀴어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선인들이 하늘에 제사 드리던 거룩한 제단"이며, 석의 나이 역시 고작 6~7세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석과 태섭의 관계를 '야만적인' 동성애 관계가 아니라, 순수의 결정체로 의미화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발표를 전후해 이광수가 젊은 시절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문단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자서전 양식을 취한 『그의 자서전』에서까지 이광수가 그 사실 자체를 완벽하게 부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여성을 향한 "성욕의 노예"였음을 고백하는 한편, 동성과 맺었던 퀴어한 관계들을 순정한 것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고자 한다. 남궁석이 심태섭과의 관계 이후, 13살 무렵부터 어렴풋하게 이성과 애욕을 향한 그리움을 갖게 되었다는 이성애규범적인 서술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이광수는 「김경」, 「방황」, 「윤광호」 등에서 보여준 남성을 향한 성적 욕망으로 달뜬 신체를 완벽하게 부정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정신적 동성애'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1910년대 퀴어 서사에서 주요 테마가 되었던 오산시절을 재현하면서도, 초기 소설과 달리 아내에 대한 감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술하려는 태도에서도 발견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은 동성애자는 평생 동성만을, 이성애자는 평생 이성만을 욕망해야 한다는 환상을 사회 전반에 두루 퍼뜨렸다. 이를 참조하면, 이광수가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사실'을 환기할수록, 이에 정비례해 그의 동성애 '혐의'는 벗겨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광수는 학생들을 "애인"으로 지칭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동성애자라는 '혐의'를 벗고자 노력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남궁석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동정=사랑'을 의미하는 '따뜻함'의 감각을 다시금 추동하려는 태도와도 공명한다. 예컨대 『그의 자서전』은, 학교를 떠나는 석을 위해 제자 중 한 명이 담요를 건네주는 장면을 묘사한다. 「인생의 향기—잊음의 나라로」(『영대』, 1925.1)나 『나의 고백』(춘추사, 1948) 등의 자전적 텍스트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이 담요 모티프는 '따뜻함'이라는 감각과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다.[292] 이러한 담요 모티프의 반복적 활용은 남궁석-심태섭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부각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가 승인했던 만큼의 욕망만을 가졌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자서전』과 「인생의 향기—잊음의 나라로」가 동일한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음에도, 그 기억을 서로 다르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생의 향기—잊음의 나라로」는 담요를 건네주었던 "그대"에게 보내는 서간체 형식의 텍스트이다. 여기에는 '나'와 "그대" 사이의 단수적이고 이상적인 '우정'이 드러나 있다. 즉 조선을 벗어나 세계 일주를 떠나려는 '나'의 발길을 붙잡는 것은 바로 "그대"가 '나'에게 담요를 건네주었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아로새겨져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이었다. 반면 『그의 자서전』에서 담요를 건네주었던 제자 C는 이후 더 이상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다. 나아가 남궁석이 K학교를 떠올리는 장면들에서도, 그의 기억은 어느 특정한 한 인물과 연관된 것들이 아니다. 남궁석에게 있어 K학교 시절은 복수적 '우정들'을 나누었던 기억, 나아가 단지 미래와 희망의 상징적 기호인 '아이'를 떠오르게 만들 뿐인 추상적 기억에 그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적인 서사화에도 균열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며, 이 균열에서는 미처 수습되지 않은, 남성 제자를 향한 남궁석 그리고/또는 이광수의 욕망이 흘러나온다. 작품에서 청교도적 정신으로 잡아 가두고 내리누른 남궁석의 청춘은 간혹 '반란'을 일으키며, 그는 "때때로 누구도 아닌 사람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때 "사람"의 젠더는 일차적으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가 가르치는 남성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궁석은 "사랑의 주림을 학생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채웠"던 것이다.[293] 아

292) 권두연, 앞의 책, 50-52쪽.
293) 이광수, 앞의 책, 313-314쪽.

래 인용은 K학교를 떠나기 전날 밤 남궁석이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 나는 발자국 소리 안 나게 기숙사 방방 문 앞으로 다니면서 그 방 속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였다. (…) 그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립고 정다운 마음이 북받쳐 오름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방방 앞에서 학생의 이름을 하나씩 들어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그러할수록 그들에게 대한 나의 그리움은 더욱 간절하였다. / 나는 방문을 열고 그들의 편안히 잠든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은 하지 아니하였고? 예전에 날마다 하던 모양으로 방 아궁이(기숙사는 옛날 조선식 건물이어서 방방이 툇마루 밑에 함실아궁이가 있었다)들을 돌아보고 어린 학생들이 벗어 던진 신발들을 바로 놓아 주었다. / 찌그러진 학생들의 신발. 나는 그것을 들고 반가움과 귀여움에 떨었다. 그 신발을 코에 댈 때에 나는 냄새,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살의 향기다.(강조—인용자)[294]

인용한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인 남궁석은 학생들이 춥지 않도록 매일 밤 아궁이를 점검해 왔다. 『그의 자서전』이 남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을 '따뜻함'의 감각과 연결시키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리 특별한 대목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궁석은 학생들의 방문 앞에 놓인 신발들을 보고 몸을 떨며, 그 신발 냄새를 맡으면서 학생들의 "살의 향기"를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살"을 온몸으로 감각하는 남궁석의 모습은 「사랑에 주렷던 이들」에서 "사람의 살"을 갈망했던 화자의 모습과 겹쳐진다. 그러나 두 인물의 욕망은 서로 다른 성별의 사람을 향해 있다. 즉 「사랑에 주렷던 이들」이 1910년대 퀴어 서사를 무마하고자 '여성'과 살을 맞대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렸던 데 반해, 『그의 자서전』은 '남학생'들을 향한 욕망을 다시금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이광수는 자신의 욕망을 이성애적인 것으로 정립하려 했으며, 그러한 이성애적 욕망을 유사 자서전 형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려 했다. 특히 『그의 자서전』은 청교도적 내지 민족주의적 정신을 역설하면서, 이

294) 이광수, 앞의 책, 317쪽.

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남궁석이 어떻게 여성을 향한 애욕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그려내는 데 치중하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첫사랑인 심태섭을 제외하면, 『그의 자서전』은 동학교도 박 대령의 딸인 예옥, 일본 유학 시절의 S, 러시아에서 만난 마아가릿과 엘렌 자매, 대학 시절의 C 등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를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재현은 독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남궁석의 성욕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그는 자신을 둘러싼 동성애 '혐의' 역시 어느 정도 해명되었으리라 판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1910년대 퀴어 서사에서 보여주었던 퀴어한 욕망을 남궁석-심태섭의 관계처럼 오직 '정신적인' 것으로 재의미화해 회고담으로서의 퀴어 서사에 표현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앞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정신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제지간의 '따뜻함'뿐 아니라, "살"로 상징되는 남성의 '육체'에 대한 갈망 역시 부지중에 노출하고 만다. 이러한 균열은 ① 정신과 육체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② 따라서 '정신적 동성애'만을 표현하려던 회고담으로서의 퀴어 서사 역시 '육체적 동성애'로 인식될 행위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동성 간의 퀴어한 욕망을 다소 왜곡시켜 재현하려 했던 회고담으로서의 퀴어 서사 역시, 한국문학의 전통 속에 퀴어한 욕망이 존재해 왔음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의 자서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1900년대 사회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남자들[끼리]의 부자연한 성욕 만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남궁석은 11살 무렵에 부모를 모두 잃고, 약 1년 동안 홀로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떠돌던 가운데 그는 "세상 인정의 차고 쓴맛을 꽤 보았고, 또 세상의 더러운 것도 꽤 보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남자들[끼리]의 부자연한 성욕 만족"이었던 것이다. 이때 남궁석이 "어떤 집 웃목에서 얻어 자다가" 이러한 행위를 목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95] 제2장에서 서술했듯이, 이광수는 『무정』에서 이미 비슷한 종류의 성 행위를 재현한 바 있다. 형식이 어린 시절 평양의 한 객주에서 성인 남성에

295) 위의 책, 277쪽.

게 강간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남성들이 한방에 모여 잘 때, 연장자 남성이 연소자 남성에게 돈을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풍속은 1900년대 사회에 두루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관수에 따르면, 이러한 남색 풍속은 적어도 강원도에선 194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296] 그런데 1910년대를 주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무정』과 『그의 자서전』은 이를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두 작품 모두 유년기에 수동무 관계를 목격·경험했다고만 술회할 뿐, 동성 간의 '사랑'을 통해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꿈꾸었던 1910년대에 이러한 풍속이 지속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선 침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략을 통해 수동무 관계는 1910년대 이전의,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적' 습속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퀴어 서사 시대'에 요구되었던 남성 지식인 청년들 사이의 '사랑'을 과거의 유풍인 남색, 즉 남성 간의 '육체적' 성욕 만족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광수가 자신의 생애적·문학적 회고담으로서 1920년대 중반 이후 『그의 자서전』을 비롯한 몇몇 퀴어 서사들을 써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서사들이 단순히 이광수라는 특정 작가 '개인'의 회고담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광수가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 (적어도) 1900년대엔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욕망이 존재했다고 소설을 통하여 고백하는 순간, 이는 그 자체로 '시대'의 회고담이 된다.

이처럼 원래의 의도에 반해 퀴어한 욕망의 존재를 증언하는 또 다른 회고담 서사로 이기영의 자전적 소설인 『봄』(『동아일보』, 1940.6.11~8.10; 『인문평론』, 1940.10~1941.2)을 꼽을 수 있다. 작품은 철도, 시계, 학교, 금점판(금광) 등으로 상징되는 근대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1900년대 전후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이때 이기영은 석림이라는 소년이 "전근대적 농촌 공동체 '방깨울'의 세계를 벗어나 '서울'로 표상되는 근대적인 세계를 동경하기에 이르는 의식의 각성 과정"[297]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봄』은 시대의 풍경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핍진하게 재현한다. 첫 번째로 『봄』은

296) 박관수, 앞의 책.
297) 김병구, 「이기영의 자전적 장편소설 『봄』 연구」, 『건지인문학』 제14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38쪽.

개화계몽기 지식인들을 강력히 사로잡았던 진보적 역사관을 그대로 혹은 여전히 보여준다.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봉건적 양반 세력에 대한 비판, 애장[兒葬]이나 노름과 같은 민간의 악습에 대한 비판, 학교라는 근대적 교육기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 및 헌신 등은, "묵은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려 했던 당대 지식인들의 "선각자로서의 자부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봄』이 문제적인 까닭은, 이러한 "선각자로서의 자부심"이 단순히 등장인물에게서만 엿보이는 게 아니라, 서술되는 시간적 배경(1900년대)보다 훨씬 뒤의 시간적 위치(1940년대)에 놓여 있는 서술자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봄』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은 아슬아슬하였다"[298]와 같은 구절을 비롯해, '그 시절은 그러했다'라는 식의 구문을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술자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서술자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건들을 그저 시간 순서대로 복기하듯 서술하는 기법은, 『봄』을 "당대 현실의 본질적인 모순과 그 극복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그리기보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그리는 데 치중한 작품"으로 읽게끔 만들기도 한다. 다시 말해, 『봄』은 리얼리즘적인 의미에서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 실패한, 단지 현상들의 세부에만 몰두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299]

그러나 바로 이러한 '한계'야말로 『봄』이 1900년대 전후의 시대적 풍경을 더욱 핍진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다. 환언하자면 『봄』은 일제와 관련한 정치적 언술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당대 농촌 풍속의 '세부'를 복원해내는 데 성공하고, 그 결과 진보적 역사관이라는 시대의 풍경뿐 아니라 농촌 풍속이라는 시대의 풍경까지를 더욱 핍진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풍속들 가운데에는 수동무 관계와 같이 퀴어한 욕망의 역사를 담은 풍속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봄』은 리얼리즘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퀴어한 욕망의 역사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특히 『봄』은 『무정』이나 『그의 자서전』 등이 매우 단편적인 차원에서 수동무 관계를 언급했던 것과 달리, 당시 수동무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

298) 이기영, 『봄』, 도서출판 풀빛, 1989, 69-70쪽.
299) 오성호, 「닫힌 시대의 소설—이기영의 『봄』에 대하여」, 위의 책, 347쪽.

정』에 나타난 '강간 문화'는 자발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기에 기실 수동무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의 자서전』 역시 수동무 관계를 단지 "남자들의 부자연한 성욕 만족"으로만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두 작품 모두 수동무 관계라는 실제 존재했던 현상을 정확히 그려내지 못한다. 반면 『봄』은 상당히 반복적으로 농촌 사회에 존재했던 미동 문화에 대해 언급한다. 예컨대 석림의 아버지인 유선달은 젊은 시절 미동을 좋아했던 인물이다. 그는 안참령집 사랑에서 마을 남자들이 한데 모여 자던 중 한 노인을 자신이 좋아하는 미동으로 착각해 뒤에서 그를 껴안는 실수를 저지른 후, 더 이상 미동을 가까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유선달은 석림이 다니는 서당에서 14살 소년인 월성을 보고 그에게 "남사당패를 따라다니는 미동태"가 흐른다고 생각하며, 또 그에게 술시중을 받으면서는 "월성이가 따르는 술은 여간내기의 계집보다 술맛이 더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하다.[300]

한편 월성이 거리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실갱이"를 한다는 서당 선생의 말이나, "월성이는 워낙 그런 일에는 경험이 많은 터이요 미동으로 소문이 높던 만큼 파겁(破怯)이 잘되었다"는 대목 등이 시사하듯, 많은 남성들은 월성을 자신의 미동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월성은 단순히 성인 남성으로부터 선택을 당하는 수동적인 위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성인 남성들에 의한 성적 대상화 자체를 즐기며,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이 더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자만심을 갖기까지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월성이 이후 안참령의 아들인 영준과 수동무 관계를 맺는 데에는, 영준이 월성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사실보다, 월성이 영준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된다. 이는 1900년대 사회의 남색 풍속을 가해자-피해자의 서사로 묘사한 『무정』이나, 성인 남성의 시각만을 (주로) 다루었던 18~19세기 야담 등과 확연히 대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월성-영준의 관계를 바라보는 석림의 시선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전술했듯이 『봄』은 이기영이 자신의 성장기를 문학화한 자전적 소설이며, 소년 이기영은 작품에서 석림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석림은 작가 이기영과 정서적으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인물이라고 할

300) 위의 책, 51-52쪽.

수 있다. 소설에서 석림은 사촌형인 영준이 수동무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면구스럽고 부끄럽게 여긴다. 이 대목은 수동무 관계를 바라보는 이기영의 비판적 시각을 언뜻 내비친다. 그렇다면 남색 문화에 대한 반복적 묘사에는, 진보적 역사관에 입각해 조선의 '부끄러운' 옛 풍속을 비판하려는 이기영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940년대의 시점에서 이미 '야만적인' 것이 되어버린 남성 간의 성행위가 1900년대 사회에 '만연'했음을 반복적으로 암시함으로써, 방깨울의 전근대적인 모습과 그 '야만성'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근대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려는 것이다.

> 밤이 차차 깊어가자 조무라기와 노인들은 집안으로 들어가고 젊은 축들만 멍석 위로 여기저기 쓰러졌다. (…) 남서방은 상룡이를 미동으로 같이 누웠다. 그들이 서로 좋아하는 줄은 동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상룡의 집에서도 그 속을 잘 알았다. 남서방은 명절 때마다 상룡이에게 중둥푸리를 삭혀주고 머리를 곱게 빗겼다. 맛난 음식을 사 먹이고 알뜰히 거두었다. / 그것은 그의 아내로 하여금 우습고도 기가 막히게 하였다. 차라리 정말로 시앗이나 본 것이라면 대판 싸움이나 하겠는데 이건 그럴 처지도 못되고 은근히 골나니, 자기만 뒷전이 되는 것이 분하였다. / 멀쩡한 계집을 내놓고 그 짓에 미쳐 날뛰는 꼬락서니가 도무지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다. / 그래 어떤 때 그런 말이 나서 그 남편의 변태적 행동을 비난할라치면 앞뒷집에 사는 남술의 처는 진정인지 농담인지 모르게 / "아따 밥 내놓구 죽 먹는 사람두 있지 않어요. 제각기 식성이 달라서 그리는데 뭘 그리서요." / 하고 그 유명한 웃음으로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다. / 그때 남서방댁은 / '너두 그런 년이다!' / 하고, 남편의 편을 드는 것이 속으로 얄미워서 / "어떤 놈의 식성이 그래 밥 내놓구 죽을 먹는담. 평생 빌어먹을 놈의 팔자지." / 하고 화를 발끈 내었다던가. 그러나 이런 일은 비단 남서방뿐만 아니었다. 젊은 청년들은 거개 짝패를 짓고 놀았다.(강조—인용자)[301]

위의 인용문은 『봄』에 나타난 또 다른 수동무 관계인 남서방과 상룡의 일화를 다룬 대목이다. 남편과 미동 사이의 관계를 질투하는 아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일화는 서론에서 언급한 18세기 야담 「비역을 좋아하는 남

301) 위의 책, 91-92쪽.

편」과 묘하게 닮아 있다. 그러나 두 작품 사이의 차이 역시 결코 작지 않다. 「비역을 좋아하는 남편」에서 아내는 남편과 미동의 관계를 질투할 뿐, 남성 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비난하진 않는다. 반면 『봄』의 남서방댁은 남편이 "멀쩡한 계집을 내놓고" 상룡과 수동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창피하게 여기는 이성애규범적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그녀는 이러한 "남편의 변태적 행동을 비난"하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변태적"이라는 관념은 1920년대 성과학 담론의 수입과 함께 탄생한 지극히 '근대적인' 감각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장면은 『봄』이 당대의 감각이 아닌 '근대적인' 감각에 기반을 두고, '전근대적인' 조선의 풍속을 비난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과학의 언어로 덧칠되어 있긴 하지만, 나아가 풍속을 핍진하게 재현하고자 한 의도가 다소 수상쩍긴 하지만, 그럼에도 『봄』은 1900년대 남성 간 섹슈얼리티의 전체적인 상을 짐작케 해주는 작품이다. 이와 관련해, 잠시 박차민정의 분석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 그는 김기전이 여학생들 사이의 S 관계[302]를 "남자 편으로 치면 짝패라 할 만한 사랑"[303]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성들의 S 관계에 상응하는 남성들 사이의 관계가 이미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인 S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참조했을 만큼 폭넓게 인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1920~1930년대에 짝패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어, 그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긴 힘들다고 덧붙인다.[304]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기영은 남서방과 상룡의 관계를 "짝패"라 칭하고 있으며, 나아가 "젊은 청년들은 거개 짝패를 짓고 놀았다"라고 쓰고 있다.[305] 그렇다면 김기전이 S 관계를 설명하

302) '에스'는 "여학생 간에 동성애 동지를 지층하는 말인데 씨스터—에서 S자를 쎄여낸 것"이다.(「모던어사전」, 『신여성』 제6권 제2호, 1932.2, 77쪽.)

303) 소춘, 「요때의 조선 신여자」, 『신여성』 제1권 제2호, 1923.11, 58쪽, 오식 수정—인용자.

304)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238-239쪽.

305) 이러한 사항은 이기영의 『신개지』(『동아일보』, 1938.1.19~9.8)에서도 발견된다. 금점판 노동자들은 '미동'을 '짝패'의 유의어로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저근이! 오늘은 짝패가 갈렷네그려』 / 하고, 빙글빙글 웃는다. (…) 그들은 다시금 윤수를 처다보며 수군거린다. 경후와 윤수는 그들의 대화를 뒤로 듣고 고소(苦笑)하지 안흘 수 없엇다. 그만해도 금점판에 익어서 오히려 들하지만, 윤수는 그런 말을 듣기가 퍽이나 어색하엿다. (…) 여러 일꾼들은 또 다시 경후를 놀리고 윤수에게 수작을 부친다. / 『아니 이번에 한 자네

기 위해 끌어온 '짝패'는 수동무 관계를 가리키며, 이처럼 '짝패'를 짓는 문화란 김기전의 글이 발표된 1920년대 초까지도 성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봄』에서 짝패가 성인 남성과 미성년 남성 사이의 성적 실천을 가리킬 때뿐 아니라, 성인 남성들끼리의 관계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색 혹은 미동을 재현한 대부분의 작품이 성인 남성과 미성년 남성 사이의 관계만을 다루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봄』이 1900년대 혹은 그 이후 1940년대까지 존재했던 남성 간 섹슈얼리티의 전체적 상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기영은 방깨울에서 사금광이 발견되고, 마을에 금점꾼들이 밀려들던 혼란한 상황을 그리기 위해 남성 간의 섹슈얼리티를 적극 활용하는데, 이 장면들에서 당대의 퀴어 섹슈얼리티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어께동무는 똑 글빵 서방님 같구나』 / 윤수의 힌 손과 얼굴을 보고 이러케 놀리는 사람도 잇엇다. (…) 사실은 그들은 롱담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경후를 귀찬케 구는 이가 잇엇다. (…) 그중에도 김 서방은 마을에서 머슴꾼 아이들을 귀찬케 굴든 만큼 호젓할 때마다 경후를 집적대는 데는 웃음이 나왓다 그는 지금도 신이 나서 옛날에 남색하든 이야기를 내놋는다. / 『옛날은 참 조터니— 첫재는 글빵 애들 그담에 남사당패하며 동내마다 미동이 좀 만헛나베— 참 미동 조치. 그까진 웬만한 게집에다 댈 겐가』 /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여편네하구두 바꾼다지 안허? 허허』 (…) 김 서방은 아무러치도 안케 따러 웃으며 『아닌 게 아니라 바꿔도 아깝지 안치! 자네들 기생 오입은 별 겐 줄 아는가? 예전 시절에는 우리 같은 촌사람들에게야 어디 게집 차례가 잘 왓느냐 말야! 그래 미동이 기생 대신 노릇을 햇거든— 아니 요새 시체말로는 연애니 뭐니 하면서 대가리에 피두 안 말른 것들이 죽자사자 하게쯤 되엇지만 그때 시절이야 어디 이웃집 색실망정 건드릴 수가 잇엇나베! 그러니까 자연 미동이 성풍할밖에…… 그것은 우리 따위뿐 아니라 점잔은 양반들두 그랫는걸 뭐—』 / 『참 그랫지— 우리 어렷을 쩍만 해두 퍽 심햇드니— 여북해 얼굴이 이뿐 아이들은 혼자 길에 나서지도 못하지 안헛어?』 / 『암! 그때는 알구 모르는 게 도무지 상관이 없엇거든— 저만큼, 머리 딴 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만 해, 그 당장 이러케 얼르거든— 『아나—, 엿다바라 젓다바라 며기챙챙 감어쥐고, 용지뼈 종지뼈 시다시다발길 이 자식아, 게 섯거라! (…) 그때 만일, 저 불러 곕시요 하고 그 자리에 섯어야 망정이지 못 들은 척하고 그대로 가… 그럼 따귀는 갈 데 없지! 이 자식 어룬이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타니…… 그라구 막우 조지거든. 그래 『저 불러 곕시요』 할나 치면 『너 불지 어럿깨 넘어 그럼자 불럿더냐…』 이러케 또 수작을 부치게 되면 그 애는 그대로 못 가거든 기어히 견디야지 허허……』 / 『아따 그 자식 만히 놀아먹엇다』"(이기영, 「신개지 (51)」, 『동아일보』, 1938.3.23.); 한편 차상찬은 김 서방이 말하고 있는 풍속을 "괴이한 (…) 강제 통성명"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강제 동성애에서 나온 악풍"이라고 말한다. 즉 동성애 담론 수입 이전의 '전통적인' 풍습이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야만적인' 동성애로 재의미화되고 있는 것이다.(관상자, 「전조선 괴풍속 전람회, 입장무료」, 『별건곤』 제11호, 1928.2, 53쪽.)

외부에서 유입된 금점꾼들이 방깨울에서 사금을 채취하기 시작하자, 이를 보고 허욕이 생긴 마을 사람들 역시 "토박이 금점꾼"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단조하던 산촌은 별안간 색다른 풍경을 나타"낸다. 이러한 마을의 변화는 양반가 자제 영준의 짝패였던 월성이 이방인 금점꾼과 새로운 짝패를 짓는 상황으로 묘사된다.[306] 이방인 금점꾼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가게가 들어서면서, 방깨울은 표면적·일시적으로 경제적인 호황을 맞는다.[307] 이는 곧 엿방망이와 같은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지는데, 『봄』은 이 도박이 빚어낸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통해, 물상화된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점차 파괴되어 가는 상황을 극적으로 제시한다.[308]

주목할 것은 이기영이 사건의 발단 부분에 또 다시 짝패 문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배도수, 피해자인 창길 등과 함께 엿방망이를 하고 있는 인물은 이방인 금점꾼 김운선이다. 김운선은 오인호와 짝패 관계인데, 두 사람은 모두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

306) 140-141쪽; 월성에 관한 대목은 다음을 참고할 것. "월성이는 벌써 저의 집에 묵고 있는 일꾼과 짝패를 정하였다. 그래 그는 전보다도 호사를 더 하고 히로를 사 피웠다. / 월성이의 참한 태도에 반해서 딴사람이 그를 꼬이다가 칼부림이 일어난 일도 있었다."

307) 그리하여 그해 여름에 주막거리에 새롭게 장이 열리기도 한다. 이에 걸립패(혹은 사당패, 원문에는 "근립"으로 되어 있음)가 마을을 방문한다. 송석하에 따르면, 당시 사당패는 연행과 더불어 성을 팔기도 했다.(송석하, 「전승 음악과 광대 (3)」, 『동아일보』, 1935.10.5.) 『봄』에는 무동들이 성매매에 동원되는 장면이 양각되어 있지만, 무동의 성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다. 비록 남성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여남 모두 무동이 될 수 있었고, 또 (남)사당패에서 여남 모두 성을 판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봄』에 등장하는 무동의 성별을 여남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존재치 않는 듯하다. 다만 관객들이 무동을 '사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따로 여성 연행자(사당)가 없어 '여복'을 입은 남성 무동을 '사당'이라 칭한 것으로 읽을 여지가 있다. 작품의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그해 한여름에는 난장을 주막거리에다 텄다. (…) 이런 판에 근립 한패가 들어와서 또 한바탕 똥땅거렸다. (…) "사당 돈이야!" / 소리를 사방에서 외쳤다. 그러면 쾌자를 입고 갑사댕기로 머리를 곱게 땋아 늘인 무동들이 춤을 납신납신 추며 쫓아간다. / "사당 돈이야!" / 외치던 금점꾼은 입에다 백통전을 한입씩 물고 있었다. 무동은 그것을 보자 한달음에 뛰어가서 그의 품에 앵긴다.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그 돈을 제 입으로 물어오는 것이었다. 무동은 희희낙락해서 침 묻은 돈을 입안에서 꺼내들고는 다시 춤을 추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거기서도 역시 그런 짓을 한다. / 그날 밤에 무동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금점꾼들이 제가끔 맡아갔다. / 무동들은 마치 기생과 같이 아양을 부리고 갖은 수단을 피웠다. 그들은 저마다 데려간 사내의 주머니와 봉창을 뒤져서 돈이란 돈은 있는 대로 털어내려고 밤새도록 공작을 하였다."(위의 책, 141-142쪽.)

308) 김병구, 앞의 책, 48-49쪽.

> 국실네 집 윗방에서는 그 집에 묵어 있는 뒤대 금점꾼 김운선, 배도수와 창길이 세 사람이 밤을 새워 엿방망이를 하고 있었다. / 또 한 사람—오도령(인호)이 그 집에 있었다. 그는 김운선과 짝패로 붙어 다니는데 이번에도 신혈 소문을 듣고 같이 따라와서 역시 국실의 집에 함께 있는 중이었다. 그는 지금 이십이 남짓한 총각이나 몸집이 호리호리하고 애티가 나는 것은 얼굴에 귀인성이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하나 그보다도 그는 일을 세우 하지 않았던 것이다. (…) 일이 있을 때에도 김운선은 그에게 일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그랬겠지마는 일을 세우 하면 몸태가 나빠지고 살결이 억세질까 염려함이었다. / 그러므로 그의 생활비는 전수이 김운선이가 대고 있다. 아니 그들은 정말로 부부와 같이 한살림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잠을 자도 같이 자야 한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과 가까이 굴었다가는 눈이 빠지게 책망을 듣고 심하면 매를 맞는다. (…) 인호는 차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생활이 부끄러워졌다. 그보다도 그는 귀찮은 생각이 들고 남의 사정을 보기 전에 제 욕정이 먼저 발동하였다. 수염이 시커멓게 나 가는 놈이 이게 무슨 추잡한 짓인가. 그런 자멸(自蔑)하는 마음이 치받치기도 한다. 그래 그는 할 수 있으면 김운선이와 떨어지고 싶었다. (…) 좋게 갈리는 수는 꼭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기가 먼저 장가를 들면 된다. 아무리 심한 사람이라도 장가를 든 뒤까지 그전처럼 지내자 할 염치는 없을 것이다.[309]

이처럼 김운선과 오인호는 엇비슷한 나이의 “동무” 내지 “짝패” 관계로 표현된다. 이때 두 사람 모두 성인이지만, 오인호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김운선에게 경제적으로 완벽히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 관계로 인해, 오인호는 전적으로 김운선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그들은 “부부와 같이 한살림을 하는” 배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인호가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경우, 김운선은 그런 오인호를 구타하기도 한다. 그가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성과의 결혼뿐이다. 이에 오인호는 석림이 짝사랑하던 국실과의 결혼을 꿈꾸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이후 석림이 첫사랑 국실과 점차 멀어지고, 결국 다른 여성과 원치 않는 조혼을 하는 개연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방인 금점꾼

309) 이기영, 앞의 책, 142-143쪽.

들의 짝패 관계가 이와 전혀 무관한 방깨울 토박이 석림의 전정을 방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봄』에서의 짝패 관계가 남성들끼리의 '전통적인' 관계 맺음의 방식과, 농촌 공동체의 파국을 야기하는 자본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310] 그러나 『봄』은 짝패를 이러한 비판의 도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짝패를 존재의 영역에 기입하는 파생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311] 1920~1930년대 공론장에서 짝패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그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봄』은 그 난점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짝패 관계가 성립되는 다양한 조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봄』이 1900년대에 존재했던 퀴어 섹슈얼리티 즉 짝패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데 반해, 1910년대의 퀴어 섹슈얼리티 즉 남성들끼리의 '연애'에 대해서는 다소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당을 벗어나 사립광명학교에 입학한 후, 석림은 서울에서 전학 온 장궁이라는 '미소년'을 만나게 된다. 장궁의 외모는 유난히 눈에 띄어서, 학도들 중 오재철과 같은 "머리통 큰 상투쟁이들은 그를 미동을 만들려고 서로 넘실대었다."[312]

---

310) 김종욱에 따르면, 학교·철도·시계 등은 "객관적 시간의 생활화"를 추동한다. 이처럼 정밀한 시계 시간이라는 "새로운 시간적 리듬에 따라 훈련된 주체는 일상적인 생활 내에서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보여주기도 한다." 즉 시간관의 변화가 전통적인 의미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금욕주의적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금욕주의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희생을 그 요체로 하는바, 직선적 역사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봄』에 나타난 '전통적인' 것과 '야만적인' 것을 등치시키는 근대성 담론은 바로 이러한 직선적 역사관을 전제로 한다. 한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야만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시간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시간의 누적을 통한 역사의 연속적인 전진을 예감하면서 인류 역사의 법칙성과 필연성을 실체화하려고 시도했던 근대화 담론과 사회주의화 담론은 '대립하면서 닮아 가는' 모순적인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기영의 『봄』은 이러한 190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까닭에 근대성(또는 근대화) 담론을 자연스레 보여주면서, 동시에 작가 이기영의 사상적 특성에 의해 사회주의화 담론의 색채를 노출하기도 한다. 환언하자면 『봄』은 김종욱이 말한 "'대립하면서 닮아 가는'" 두 담론의 모순적인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욱, 「머리말」, 『한국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김종욱, 「근대성의 수용과 민족 담론의 형성」, 위의 책, 67-68쪽 참고.)

311) 이처럼 퀴어를 시대의 병폐 중 하나로 지목·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봄』은 후술할 데카당스의 징표로서의 퀴어 서사와, 착상의 차원에서 볼 때 다소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312) 비록 미동이나 짝패 등으로 명시되진 않지만, 10살 차이의 연장자 남학생이 연소자 남학생을 "몹시 사랑"하는 또 다른 서사로 방인근의 「비 오는 날」(『조선문단』, 1924.11)을 꼽을 수 있다. 소설에서 A는 주인공 "재수의 얼골이 퍽 입분"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인물이다. 나태하고 폭력적이며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A는 한 일본인의 돈을 주운 뒤, 재수의

그러나 석림은 장궁과 짝패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장궁과 사귀고 싶기 때문이다. 석림과 장궁의 첫 만남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 신입생 장궁이는 어딘지 모르게 석림이의 시선을 끌게 했다. (…) 새옷을 깨끗하게 입고 기름을 발라서 곱게 빗은 머리채를 매끈하게 따 늘인 것이 매우 몸태가 나서 읍내사람들보다도 땟물이 빠져 보인다. / 해맑은 얼굴이 약간 갸름하고 날씬한 키가 호리호리한 몸집에 걸맞는다. 체격도 똑바르다. 그는 날렵하고도 청강(淸剛)한 맛이 돈다. (…) 석림이와 (…) 나이도 걸맞으려니와 몸태까지 비슷한 데가 있었다. 그는 웃을 적마다 덧니가 나오는 게 그것이 도리어 귀인성 있어 보인다. 그럴 때마다 두 뺨에 샘을 판다. (…) 장궁이가 서울사람이란 말에 학도들은 더한층 흥미를 끌리었다. 머리통 큰 상투쟁이들은 그를 미동을 만들려고 서로 넘실대었다. 오재철이는 (…) 남보다도 먼저 그 아이와 친근할 틈을 탔다. / 그러나 석림이는 재철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그를 친하고 싶었다. 그는 어쩐지 첫눈에 들어서 그와 맘이 맞을 것 같았다. 그것은 장궁이가 서울사람이라는 데 흥미를 더 느낀 것은 사실이나 다만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 장궁이와는 첫 인상부터 남다른 애정을 느끼게 한다. 다음날 그들의 우정이 연애의 감정을 계속한 것도 아마 이와 같이 첫눈에 들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 그는 조용한 틈을 타서 장궁이와 단둘이 학교 뒷산 잔등 언덕 밑으로 양지쪽을 찾아갔다. 거기서 서울 이야기를 잠착히 듣고 앉았을 때는 그것이 다시없는 행복감을 준다. 동시에 그것은 황홀한 희망의 날개를 끝없이 펼치게 하였다. (…) 그럴수록 장궁이와 친하고 싶었다. 그것은 장궁이도 석림이를 싫지 않은 모양으로 친절히 대하였다.(강조—인용자)[313]

『봄』은 한학을 가르치는 서당과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대비하면서, 근대적 교육 기관인 학교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 이는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 만류하는 재수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달아난다. 그러나 재수는 곧 경찰에 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소설은 이후 A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사랑하는 동생" 재수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굿고 굿은 형제의 의"를 지키자는 서신을 보내면서 마무리된다.(방춘해, 「비 오는 날」, 『조선문단』 제2호, 1924.11, 23쪽 및 30쪽.)

313) 이기영, 앞의 책, 238-239쪽.

통해 문명한 역사로의 진보 의지를 추동하려 했던 1910년대 담론과도 유사하다. 주지하다시피 1910~1920년대 초의 담론장은 청년들끼리의 '사랑'을 통해 감정-공동체를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문명화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희망했다. 석림-장궁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감정-공동체의 구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인용한 대목에서 석림은 장궁을 통해 문명화된 대도시 서울을 향한 "황홀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간다. 이러한 근대화·문명화에 대한 의지가 『봄』의 핵심적인 주제이므로, 이를 추동하는 남성들 간의 관계 맺음 방식은 부정적인 의미로 충전된 이전의 전통적인 짝패 관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기영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동성 간 친밀성 그 "남다른 감정"을, 이후 "연애의 감정"으로 전이될 "우정"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봄』에서 석림-장궁의 관계가 다른 학도들 사이의 관계보다 특별한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관계를 "연애"에 가까운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봄』은 사립광명학교에서 석림과 장궁이 서로 어떤 감정을 주고받았는지에 얽힌 구체적인 일화들을 생략한 채, 단지 "연애"에 가까운 감정이라고만 짧게 언급할 따름이다. 이는 '퀴어 서사 시대'에 남성 청년들이 교환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일으키고 내보이기 위해 수행했던 특정한 몸짓들이, 1940년대에는 이미 동성애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야만적인' 것들로 의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석림-장궁의 관계가 '야만적인' 섹슈얼리티인 짝패 관계와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 '문명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1910~1920년대 초에 '문명한' 것이었던 감정-공동체의 퀴어한 우정은, 1940년대의 시점에선 또 다른 '후진적인' 친밀성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기영은 석림-장궁 사이의 "연애"의 감정을 노출하는 일화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314]

---

314) 한편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봄』은 석림 일가가 경제적 파산으로 인해, 민촌인 방깨울을 떠나 반촌인 가코지로 이사를 가면서 급히 마무리된다. 즉 이기영이 연재 전에 밝힌 "소년 주인공이 역경과 싸워가며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 입지전적 투쟁 기록"을 쓰겠다는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채, 『봄』은 어정쩡한 대목에서 서사를 끝내버린다.(「차회연재장편소설예고—거탄의 농민소설」, 『동아일보』, 1940.6.7.) 그리하여 『봄』은 미완성이라는 인상마저 주기도 한다. 이때 전술했듯이 서술자가 각 인물의 뒷이야기를 이미 숙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문에 인용한 대목에서 말하는 "다음날"은 석림이 상경한 이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석림과 장궁이 서울에 있는 학교

그런데 인용문에서 보듯이, 석림은 장궁이 단지 “서울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장궁의 출중한 외모에 석림이 첫눈에 반했다는 해석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즉 석림-장궁의 관계에서 ‘문명’과 ‘근대’를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은 그들의 ‘사랑’을 촉발한다기보다는, 이를 그저 강화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기영은 이러한 측면을 더 이상 부각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를 강조할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연애” 감정의 실체가 결국 상대의 ‘몸’에 대한 갈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회고담으로서의 퀴어 서사는 이러한 ‘몸’에 대한 갈망을 괄호치고, 과거의 퀴어한 욕망을 오직 정신적인 것으로 (재)정향하려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나아가 ‘퀴어 서사 시대’의 작품들에 비해, 동성을 향한 달뜬 감정 역시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키고, 이광수와 이기영의 작품에서처럼,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퀴어한 욕망과 존재의 역사를 증언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회고담으로서의 퀴어 서사는 퀴어를 재현한 ‘한국퀴어문학사’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게 된다.

(2) 데카당스의 징표로서의 퀴어 서사

1920년대 초반 이광수는 「문사와 수양」을 통해, 청년 문사들에게 당시 식민지 조선에 유행하고 있던 퇴폐주의를 경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써 왔던 소설들이 “지금에 ᄉᆡᆼ각ᄒᆞ면 십에 칠팔은 아니 썻더면 ᄒᆞ는 것ᄲᅮᆫ”이라면서, “그 무지ᄒᆞ고 천박한 문(文)이 사랑ᄒᆞ는 청년 형제자매에게 해독을 ᄭᅵ쳣스리라고 ᄉᆡᆼ각ᄒᆞ면 이 붓대를 잡은 손을 ᄭᅳᆫ허바리고 십도록 죄송ᄒᆞ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315] 이익상이 「문사와 수양」을 읽은 뒤, “그때의 우리들에게 춘원 군이 붓대 잡어던 손을 끈흘 생각이 나도록 후회할 만한 영향을 준 것도 사실”[316]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에서 ‘연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일화들을 염두에 두고, 이기영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과 가설일 뿐이다. 『봄』 한 작품만을 놓고 보았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연애”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는 일화는 존재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15) 이광수, 「문사와 수양」, 14쪽.

초기 소설 및 논설이 1920년대 초의 '퇴폐적인' 경향을 부추겼다는 이광수의 회한에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당시 이광수 초기 소설의 어떤 측면이 '퇴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문사와 수양」은 '국민성'을 함양하는 문학을 창작함으로써, 민족과 인류를 문명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청년 문사들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광수 초기 소설은 동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을 묘사할뿐더러, 거기에서 추동되는 촉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는 욕망을 조절하라는 감정-공동체의 명령이 균열되고 있는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감정-공동체가 추구했던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다시 말해, 육욕(肉慾)의 핍진한 재현과 함께, 그러한 육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절망해 자살을 선택하고 마는 인물을 그린 「윤광호」야말로, 당대 '나약한' 지식인의 표상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퇴폐'의 일단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광수가 1920년대 중반에 발표한 한 평론에서, "세기말적 정조(情調)"를 남성 간의 퀴어한 욕망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사(死)를 찬미하"거나, "독주(毒酒)에 자격(刺激)을 구하고 도취를 구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육욕에 침면(沈湎)하다가 그것도 실증이 나면 오스카 와일드 모양으로 부자연한 남색의 쾌미라도 구하게" 되는 것 등은 모두 당대 조선 청년을 지배했던 데카당스의 징후들이라고 할 수 있다.[317]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 기실 준원과의 '사랑'이 시들해졌을 때, 나아가 P로부터 실연을 당했을 때 광호가 보였던 반응들이기도 하다. 이처럼 1910년대 퀴어 서사가 문명과 진보를 가로막는 '불건강한' 퇴폐의 징후로 인식될 때, 이광수는 더 이상 퀴어 서사를 쓰지 않게 된다.

특히 동성애 담론의 수용과 정착 이후, 남성 동성애자는 육욕의 화신으로서, 언제나 "부자연한 남색의 쾌미"를 추구하는 이들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조희순은 베를렌(Paul Verlaine)과 랭보(Arthur Rimbaud) 사이의 "동성애"를 소개한 글에서, 이들의 삶을 "데카단틱"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318] 이

316) 이익상, 「예술적 양심이 결여한 우리 문단」, 107쪽.
317) 장백산인, 「문예쇄담—신문예의 가치 (13)」, 『동아일보』, 1925.11.14.

는 '퀴어 서사 시대'의 마감 이후, 남성 '동성애' 혹은 남성들 사이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재현한 퀴어 서사들이 데카당스의 한 징표로 널리 이해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데카당스의 징표로서의 퀴어 서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이효석의 『화분』(인문사, 1939)을 들 수 있다.[319]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효석의 『화분』은 "애욕의 만화경"[320]으로 불릴 만큼 여러 등장인물들 사이의 얽히고설킨 애정 관계를 그리고 있으며, 그중에는 남성을 향한 남성의 욕망과 여성을 향한 여성의 욕망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현마와 단주 사이의 퀴어한 관계만을 다루고, 여성을 향한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먼저 『화분』에서 현마와 단주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십여 년이나 연소한 단주를 사실 현마는 동생을 대하는 이상의 정으로 사랑해 온다. (…) 얼굴을 발갛게 물들이는 소년의 자태—그는 미란보다도 못지않게 미목이 수려하다. (…) "미란이 '비너스'라면 단주는 무얼꼬—아도니

318) 조희순, 「문예 로만스 (8)—양시인의 진교분」, 『동아일보』, 1934.8.11.

319) 한편 이러한 경향은 『그의 자서전』에서도 나타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윤리관에 환멸을 느낀 남궁석은, 아르치바셰프(Mikhail Petrovich Artsybashev)를 즐겨 읽는 S와 함께 유곽을 찾아갈 결심을 한다. 평소 남궁석을 금욕주의적인 교육가·종교가로 생각하던 S는 이러한 남궁석의 결정에 반색을 표한다. 허무주의자이자 쾌락주의자인 S의 모습은 '인간적인' 것 일체를 거부하면서 성적 방종을 그려냈던 아르치바셰프의 데카당스적인 면모와도 어느 정도 닮아 있다.(D. P. 미르스끼, 『러시아 문학사』, 이항재 역, 써네스트, 2008, 503-504쪽 참고.) 주목할 것은 S가 남궁석의 유곽행 제안을 환영하면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뺨을 비비고, 나중에는 입을 맞추"기도 했다는 점이다.(이광수, 『그의 자서전』, 436쪽.) 그런데 이후 남궁석은 유곽의 참상을 경험한 뒤, 다시는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을 것을 혈서로써 다짐한다. 그는 유곽을 "인류의 더할 수 없는 치욕"이고, "어떠한 국가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며, "인류의 자기모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술은 자신의 1910년대 소설이 당시 청년들을 데카당으로 만들었다는 이광수의 '반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그의 자서전』에서 S는 남궁석을 환락의 세계로 이끄는 부정적인 인물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S가 술에 취해 남궁석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은 이러한 S의 부정적 면모를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의 자서전』의 초반부에서, 이광수는 동학교도였다가 이후 밀고자가 된 비열한 인물 운현을 그릴 때에도, 운현이 남궁석에게 입을 맞추려 한다는 설정 등을 가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남성과 남성 사이의 신체 접촉, 특히 성적인 함의가 다분한 입맞춤 등의 행동을 부정적인 인물의 특징으로 내세운다는 점은, 「어린 벗에게」와 같은 1910년대 소설의 경향과 매우 대조적이다.

320) 김교선, 「조화미의 정점—이효석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75.3, 305쪽.(김미현, 「이효석 소설과 남성성의 균열—『화분』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67집, 한국비평문학회, 2018, 39쪽에서 재인용.)

스. 신화 속의 미소년 아도니스—그게 단주야.” / 다시 얼굴을 물들이는 단주를 그림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마는 지나는 택시를 잡아 세우고 운전수가 문을 열고 기다릴 때 문득 무슨 마음이 내켜선지 단주의 몸을 달룽 안아서는 차 속에 앉히는 것이다. 세란의 몸을 장난삼아 몰래 들어 보는 적이 있었으나 그 세란의 몸보다도 부드럽고 해까운 단주의 몸이다. / 이어 성큼 뛰어 들어가서 단주의 몸을 거의 윽박을 듯이 주저앉는 현마의 모양은 마치 어린 양을 채 가는 독수리의 시늉과도 같고 미소년 아도니스를 후려 가는 페르세우스나 플루토의 모습일 듯도 하다. 짐승같이 육중한 현마와 아름다운 단주와의 대립되는 인상은 삼십대와 이십대의 차이도 아니요 이십 관과 십오 관의 체중도 아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괴이한 애정관계에서 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자태는 형제의 그것도 아니요 주인과 종의 그것도 아니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모양이었다. 현마는 사실 마음속으로 은근히 세란과 단주를 달아 보고는 어느 편이 더 무거운가를 주저하는 때가 많았으며 그 감정을 스스로 괴이히 여기곤 한다. (…) 거리에서 펀둥거리는 단주를 현마가 당초에 주워 올린 동기부터가 그의 용모에 혹한 까닭이었다. 이십 세를 잡아들락 말락 한 예쁘장한 얼굴에 머리를 길러 내린 나어린 보헤미안의 꼴이 알 수 없이 마음을 당겨 현마는 그날로 그를 데려다가 몸을 가꾸고 치장을 갈아서 멀끔한 딴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 [영화사에서 단주가 할 일이란] 그림자같이 현마의 옆에 붙어서 혹은 단장(短杖) 노릇을 하고 혹은 한 송이의 꽃 노릇을 하면 그만이었다. 아파트의 한 간을 구해 가지고 유숙하게 된 때부터 현마는 거의 밤마다 찾아와서는 별일 없으면서도 이야기하고 놀고 하다가는 늦어서야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침대에서 같이 밤을 새우거나 했다. 참으로 한 송이의 꽃을 대하듯 현마는 신화 속의 미소년 같은 단주를 정신없이 바라보는 것이었다.(강조—인용자)[321]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현마와 단주 사이의 퀴어한 관계는 명시적으로 “형제의 그것도 아니요 주인과 종의 그것도 아니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모양”으로 규정된다. 이는 일견 ‘퀴어 서사 시대’에 제출된 그 어떤 퀴어 서사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애’로 규정하는 태

321) 이효석, 「화분」, 『이효석전집』 제3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270-272쪽,

도로 읽히기도 한다. 물론 아내(실제로는 정부에 가깝다)인 세란이나 처제인 미란에 대한 감정을 단주에 대한 감정과 이리 저리 비교해 보는 현마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화분』에 재현된 남성들 사이의 관계를 근대의 동/이성애 규정에 따른 엄밀한 의미의 동성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40년대까지 한국문학에서 사제관계나 우정 등의 프리즘을 거치지 않고, 남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표현한 텍스트로는 『화분』이 거의 유일하다.[322]

문제는 인용한 대목에서 단주가 현마보다 10살가량 어린 "미소년 아도니스"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작중 단주가 실제로 미성년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323] 당대 독자들에게 이처럼 연장자(성인)와 연소자(미성년) 사이의 퀴어한 관계란 기실 수동무 관계로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효석이 두 사람의 사랑에 연령이나 계층에 따른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독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남색과, '야만적인' 의미로 충전된 '동성애'를 연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떠나, 『화분』에 재현된 퀴어한 관계가 당대에는 단순히 '퇴폐'의 징후 정도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효석의 직접적인 언술과는 달리, 현마와 단주의 관계에는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의 위계가 명확하게 개입되어 있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단주가 철저하게 '수동적인' 특성만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마에게 있어 단주는 그저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무해하며 행위성이 탈각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현마와 단주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단주가 "애정을 받아들이는 소년의 경지를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되려 대상 속으로 쑤셔 넣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어른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순간이다. 다음은 미란과 자신을 결혼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단주가 현마를 재촉하자, 현마가 단주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다.

단주는 현마와 같이 지낼 때에는 언제든지 그래 왔고 그런 때 조금의 거역

322) 김미현, 앞의 책, 42-43쪽 참고.
323) 이효석, 앞의 책, 304쪽.

도 없이 잠자코 현마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습관이었으나 이날은 웬일인지 부끄럽고 께끔한 생각이 들면서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과는 다른 이미 일정한 자신의 뜻과 고집이 들어서 몸에는 뼈가 생기고 심지가 서게 되어 현마의 애정을 휘연휘연 잡아들이는 법 없이 장승같이 뻣뻣한 몸에 힘까지 맺혀 있었다. (…) 그것은 물론 단주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애정을 받아들이는 소년의 경지를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되려 대상 속으로 쑤셔 넣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어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증거로도 보였다. 부드러운 볼을 따끔따끔 찌르는 현마의 수염과 듬성한 가잠나룻이 전에는 탐탁하고 즐거운 것으로 생각되던 것이 오늘에는 그같이 천하고 추접스러운 것은 없는 듯이 느껴졌다. (…) 그러나 그 단주의 수염을 민첩하게 느낀 것은 단주 자신보다도 도리어 현마 그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주가 현마의 이날의 애정을 거역하며 그의 몸을 밀치기보다도 이전에 그의 입술을 찾다가 되려 따끔하게 입술을 찔러 오는 단주의 수염에 놀라며 몸을 일으킨 것은 현마 자신이었다. (…) 현마로 보면 그 단주의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자란다는 것이 추하면 추했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 (…) 을 생각하면서 현마는 커다란 환멸을 느꼈다. 무서운 일만 같았다. 아이가 자라서 가시가 돋고 거역하고 요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신기하고 엄청난 것으로만 생각되었다.[324]

위의 장면이 등장하기 이전, 단주는 세란·미란 자매와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현마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현마와 단주 사이의 관계에 생긴 균열이 네 사람 사이의 복잡한 애정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보긴 어렵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수염'이 상징하는 단주의 남성성 내지 그것의 환유인 독립성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20세기 전반에 존재했던 수동무 관계는 대체로 소년이 성인이 되거나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면 자연스레 해체되었다. 즉 (대부분의) 수동무 관계란 남성성을 체현한 남자와 남성성을 획득하지 않은/못한 남자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 남성성의 주체와 비남성성의 주체 사이의 권력 관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325] 이 지점

324) 위의 책, 353-355쪽.

325) 김미현, 앞의 책, 43-44쪽; 그런데 수동무 관계가 갖는 이러한 특성을 단순히 "이성애적 성 관계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는 기실 이성애를 자연적인 것으로 승인하는 이성애규범적 서술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버틀러는 부치와 펨의 관계를 설명

에서 현마와 단주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피지배의 권력 관계가 미란의 입을 빌어 직접 서술되기도 하는 만큼,[326] 독자들 역시 이를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리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독자들은 현마와 단주 사이의 권력 관계를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는 수동무 관계로 유비해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동무 관계는 곧바로 남색을 환기하며, 이러한 남색은 당대 담론장에서 데카당스의 징표로 널리 활용되었던바, 『화분』에서의 현마-단주의 관계 역시 데카당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판단된다.

물론 신범순이 니체(Friedrich Nietzsche)를 원용해 말했듯이, 데카당스는 "한 시대와 그 체제의 붕괴에 따른 여러 가지 병적 현상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역으로 "한 사회를 정력적으로 대담하게 전진시키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327]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화분』이 과연 그러한 '힘'을 발휘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예컨대 김남천은 『화분』에 대한 현장비평에서, 『화분』이 인간의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을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성 도덕을 파괴하려 했으나, 결국 기성의 도덕으로 재귀하고 말았다고 평한 바 있다.[328] 이처럼 당대 독자의 관점에서 『화분』이 기존의 도덕을 전복하는 데 실패했다면, 결국 남는 것이란 남성 간의 퀴어한 욕망을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던 애초의 효과뿐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담론장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변태성욕적인 타락자의 형상으로만 재현되

하면서, "동성애 맥락 안에 존재하는 이성애 관습의 '현존'을, 본래 이성애적인 정체성의 유령 같은 재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이성애적 틀 안에서 이성애의 구성물을 반복하는 것은, 이른바 이성애적 원본이라는 것이 순전히 만들어진 위상임을" 드러낸다. 현마-단주의 관계에 대한 김미현의 서술은, 기실 『화분』에 재현된 남성 간의 퀴어한 관계를 이성애라는 "원본"에 대한 "복사본"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반대로 버틀러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관계는 복사본과 원본이 **아닌** 복사본과 복사본의 관계"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성애를 원본으로 취급하는 자연화의 논리를 거부한다.(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144-145쪽.)

326) 폭풍우가 치던 날 밤, 비를 피하기 위해 미란과 단주는 함께 단주의 아파트로 가게 된다. 이곳에서 미란은 단주의 방에 깃든 "현마의 냄새를 맡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즉 "침대와 의자에서 현마의 지배를 받는 수밖에는 없었고 그 지배를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단주의 꼴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어지러운 방 안의 모양이 바로 발버둥치는 단주의 반항의 마음의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효석, 앞의 책, 285쪽.)

327) 신범순, 「30년대 문학에 있어서 퇴폐적 경향에 대한 논의」, 『관대논문집』 제24권 제2호, 관동대학교, 1996, 13쪽.

328) 김남천, 「이효석 저 『화분』의 『성』 모랄」, 『동아일보』, 1939.11.30.

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효석의 재현 실패는 기실 동성애혐오적인 당대 담론장의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라일락 가지를 꺾고 있는 현마와 단주의 모습을 보고, 세란이 "스틱 뽀이나 데리구 건들건들—"[329]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주목을 요한다. 『화분』에서 라일락은 "잘 익은 살 냄새"이자, "갖은 비밀을 다 가진 몸 냄새"[330]를 풍기는 꽃으로 의미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스틱 보이라는 단어를 통해, 세란이 두 남성 사이의 '비밀스러운' 성적 욕망을 희화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스틱 보이란 "남자의 지팡이 구실을 하는"[331] 남자를 일컫는 단어로, 1930년대 일본의 에로·그로·넌센스 열기가 식민지 조선에 유입된 결과 대중적으로 알려진 '스틱 걸'을 변형한 단어이다. 예컨대 『별건곤』 제25호(1930.1)에 실린 한 기사는 "파리의 미인이 소위 스틱뽀—이(人短杖)라고 체구가 늠늠한 색깜한 흑인을 고입(雇入)하여 가지고 그것을 맛치 인형을 가지고 노듯이 하며 단장(短杖)을 집듯이 가치 산보를 다"닌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 문제는 저자가 이를 문명 속에 숨어 있는 "야만"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모더니즘의 향락자'들이란 기실 "신경병자이며 변태성욕자인 문명병자"라고 말한다는 점이다.[332] 이는 결국 스틱 보이가 근대 문명의 질병인 데카당스의 한 징후라는 말에 다름 아니며, 현마와 단주의 퀴어한 관계 역시 이처럼 데카당스의 징표로서 야만적이고 병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으리란 점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효석이 현마와 단주의 관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괴이하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괴이함' 역시, 데카당스의 한 징후로서 1930년대 일본 및 식민지 조선을 풍미했던 에로·그로·넌센스 열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에로·그로·넌센스란 ㉠ 에로틱(erotic), ㉡ 그로테스크(grotesque), ㉢ 넌센스(nonsense)의 줄임말로, 각각 ㉠ 성적인 문란함과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 희열", ㉡ "기형적인 것 혹은 외설적인 범죄",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329) 이효석, 앞의 책, 275쪽.
330) 위의 책, 264쪽.
331)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13쪽.
332) 임인생, 「모던이쓤」 『별건곤』 제25호, 1930.1, 139쪽.

적 모순 속에서 배태된 사회적 관습들, ㉢ 서구적 근대성이 가져온 사회 변화에 대한 "정치적 풍자와 유머"를 의미한다.[333] 1930년대 일본의 소설, 잡지, 라디오, 영화 등의 매체들은 이러한 에로·그로·넌센스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이를 하나의 유행으로 만들어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매체 생산자들의 의지만 작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채석진에 따르면, 에로·그로·넌센스 열기에는 "세계대공황과 군부체제라는 가시적인 경제적·정치적 힘의 교차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을 비정치화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즉 에로·그로·넌센스에 대한 반복적인 재현은 지식인들의 정치적 발언을 억압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의 몰락과 전쟁에 대한 예감"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발언할 수 없는바, "세기말적인 폐색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에로·그로·넌센스 열기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저항의 무력감"에 젖은 식민지 조선 역시 이 유행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나아가 여기에는 제국의 지식인과 동일한 시선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욕망 역시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었다.[334]

『화분』에서 '괴이하다'라는 표현은 에로·그로·넌센스 중 특히 그로와 관련된다. 『동아일보』의 「신어해설(新語解說)」(1931.3.9)에 따르면, 그로라는 단어는 "괴상한 것 이상야릇한 것"으로서 "세인(世人)의 이목을 놀랠 만한 기형이태(奇形異態)"를 지칭하는 데 쓰였다.[335] 특히 그로는 "「에로」라는 말과 연락(連絡)을 식혀 변태성욕적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잇다는 의미로 통용"[336]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단주와 현마의 관계를 스틱 보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서술과, 그들의 관계를 '괴이함'이라는 감각과 연결시키는 서술 등은 에로·그로·넌센스 열기를 상기시킴으로써, 당대 독자들이 이 관계를 '에로·그로한' 변태성욕의 일단으로 인식하게끔 했으리라 판단된다. 물론 이효석의 본의가 퀴어

333) 미리엄 실버버그,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강진석·강현정·서미석 역, 현실문화, 2014, 59쪽.
334)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제5집, 한국여성연구소, 2005, 46-48쪽.
335) 「신어해설」, 『동아일보』, 1931.3.9.
336) 「모던신어사전」, 『신여성』 제5권 제1호, 1931.1, 26쪽.

한 욕망을 '에로·그로한' 변태 성욕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성적 규범을 전복시키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남천의 비평에서 보았듯이, 당대 독자들은 이를 전복적이거나 혁명적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병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다.

나아가 설령 이효석의 시도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동성애자/퀴어의 삶을 오직 근대가 배태한 모순과 부조리를 폭로하는 도구로 삼는 태도, 그리하여 누군가의 삶을 단지 혁명과 전복의 수단으로만 삼는 태도가 온당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이처럼 퀴어의 존재론적 지위를, '죽음'을 상기시키는 '병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이효석의 전제는 한국문학(장)의 뿌리 깊은 동성애혐오를 보여줄 따름이다. 이는 데카당스 문학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떠나, 이효석의 구상 자체에 이미 근본적으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근대의 '불건강한' 질병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카당스 문학을 통해, 다시 '건강한' 생명에의 의지를 추동하려는 시도란, 어떤 대상을 병적인 것으로 확정하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를 대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한 어떤 감정, 욕망, 신념, 행위, 대상 따위를 내부의 타자[337]로 지목함으로써만, 데카당스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 정반대처럼 보이는 진보적 역사관과 데카당스란 기실 동일한 열망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338] 즉 지금-여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능력의 회복과 이를 통해 추동되는 희망에 대한 열망은 양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다. 환언하자면 진보적 역사관이 퀴어를 내부의 타자로 지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카당스 역시 퀴어를 내부의 타자로 지목하며, 양자는 동성애혐오적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실 하나로 합류한다.

이는 에로·그로로 대변되는 문단의 퇴폐적 경향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던, 나아가 1920년대 중반 이후 남색을 부자연한 섹슈얼리티로 확정했던 이광수의 경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이광수는 「문예만화(文藝漫

---

337) 여기에서 내부의 타자란 '나'와 구분되는 어떤 인격체로서의 '그들'을 지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감정, 욕망, 신념, 행위 등도 내부의 타자가 될 수 있다.

338) M.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백한울·오무석·백지숙 역, 시각과 언어, 1994, 193-194쪽 참고.

話)」(『동광』, 1931.1)에서, 에로·그로에 대한 일본 문단의 열기를 “병적인 것”의 유행으로 규정한 뒤, 조선 문단 역시 “성욕적 흥미를 만족시키는” 에로나 “호기벽(好奇癖)을 만족시킬 만한” 그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때 그의 비판은, “고급 감정”을 양성해 인류를 향상·진보시켜야 하는 문학이 오히려 “저급 감정”의 재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339] 이러한 비판의식은 4개월 뒤에 발표된 「야수에의 복귀, 청년아 단결하야 시대 악과 싸호자」(『동광』, 1931.5)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그는 “장차 오는 건전한 조선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독감과도 같은 에로 탐닉에 감염되느니 차라리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정신을 배우라고 말했던 것이다.[340][341] 이는 진보적 역사관이 어떤 욕망을 병적인 것으로 전제한 후, 다시 건강한 삶의 의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진보적 역사관과 데카당스는 결국 똑같은 목표를 ‘정반대의’ 방식으로 구현할 따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데카당스의 징표로서의 퀴어 서사, 특히 이효석의 『화분』은 ㉠ 작가의 실제 의도가 어떠했는지를 떠나 결과물만을 놓고 보았을 때, ㉡ 또한 이효석의 전체 작품세계와 무관하게 『화분』 하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 ‘퀴어한 욕망=병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담론을 강화하는 데 복무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 당대 독자들이 이를 기존의 성적 규범을 전복하는 것으

339) 춘원, 「문예만화」, 『동광』 제17호, 1931.1, 69-71쪽.

340) 춘원, 「야수에의 복귀, 청년아 단결하야 시대 악과 싸호자」, 『동광』 제21호, 1931.5, 43쪽.

341) 상술한 두 편의 글에서의 에로·그로 열기에 대한 이광수의 비판에는 또 하나의 결이 존재한다. 즉 조선의 문명·문화가 아직 난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으면서, 단지 일본 문단이 에로·그로를 추구한다고 이를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광수가 1925년에 발표한 「문예쇄담」에서 1920년대 전반의 데카당한 분위기란 김억의 번역시집 『오뇌의 무도』(광익서관, 1921)의 영향이 컸다고 증언하는 대목과 묘하게 공명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뇌의 무도』는 쇠퇴, 황혼, 가을, 권태 등의 시어를 통해 데카당한 감정을 추동하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들을 번역·편집한 책이다. 흥미로운 것은 변영로가 이 시집에 부친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대 지식인들 역시 원시(原詩)가 서양문명의 오랜 하중 속에서 창작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또한 진보적 역사관이 여전히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때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을 ‘소년’으로 인식하는 각종 텍스트들이 산출되던 때이기도 했다. 비유컨대 1920년대 초의 조선은 ‘조로(早老)한 소년’의 형상이었던 것이다. 이 ‘조로한 소년’은 진보적 역사관과 데카당스가 명백하게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로 읽었을지라도, 즉 퀴어한 욕망을 데카당하게 그렸던 이효석의 계획이 '성공'했을지라도, 이는 여전히 '퀴어한 욕망=병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인용하는 한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화분』은 기존의 성적 규범을 답습함으로써 역으로 그 성적 규범을 파괴하려 하지만,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342] 체제의 전복을 위해 퀴어의 삶을 수단화하는 것은, 결국 현실을 살아내는 몸이 소거된 기표로서의 퀴어만을 인용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는 이러한 인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도를 초과해 전복적인 '힘'이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여성을 향한 여성의 욕망을 다루는 제4장 제2절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3) 이성애 서사로 은폐되는 '퀴어 서사'

한국 퀴어 서사의 계보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동성애 담론의 수용·정착 이후 많은 수의 텍스트들이 퀴어한 욕망을 의식적으로 왜곡·굴절·은폐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퀴어한 욕망과 감정을 매우 '미묘하게'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마치 이성애 서사인 것처럼 읽게끔 하는 경향은 "한국에도 퀴어문학이 있나요?"[343]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이성애 서사로 은폐되는 '퀴어 서사'의 대표적인 예로 먼저 김동인의 「사진과 편지」(『월간매신』, 1934.4)를 들 수 있다. 소설은 L군, 혜경, 혜경의 남편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두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성애 삼각관계의 전형적 구도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본고는 소설에서 혜경을 향한 L군의 이성애적 욕망뿐 아니라, 혜경의 남편을 향한 L군의 퀴어한 욕망 역시 나타나 있음

342) 오드리 로드,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 『시스터 아웃사이더』, 주해연·박미선 역, 후마니타스, 2018, 177-178쪽 참고.

343) 이 표현은 한국퀴어문학종합플랫폼을 지향하는 단체인 '무지개책갈피'의 인사말에서 빌려 왔다. '무지개책갈피'는 한국어로 창작·번역·출판된 퀴어 문학을 아카이빙함으로써, "한국에도 퀴어문학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한국에도 퀴어문학은 있습니다."라고 확언한다.(http://rainbowbookmark.com/new/bbs/board.php?bo_table=B01; 접속일—2018.10.02.)

을 밝혀 보고자 한다.

소설은 매일 해수욕장에 나와 그저 먼 바다만 바라보는 혜경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L군은 이런 혜경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껴 그녀에게 말을 붙이고, 이를 계기로 이윽고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L군은 혜경의 집에 갔다가, 벽에 걸린 미남자의 사진을 발견한다. L군이 사진에 대해 묻자, 혜경은 그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대답한다. 이때부터 L군은 혜경의 남편의 아름다운 외모와 풍채를 떠올리면서, 혜경을 두고 그녀의 남편과 홀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즉 혜경의 남편을 늘 의식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더욱 열중하게 된 것이다.

여름휴가가 끝나고 도시로 돌아간 뒤에도 L군과 혜경의 관계는 지속된다. 혜경의 남편이 현재 이탈리아 여행 중으로, 집을 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L군은 남편이 귀국하면 자신에게도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혜경은 "L씨야 그이 안 계실 동안 임시로 제 말벗"[344]일 뿐이라며 이를 거절한다. 이 말에 불안감을 느낀 L군은 더욱 몸치장에 열중한다. 이듬해 봄, L군은 혜경의 남편이 귀국했으며 두 사람이 곧 어느 극장에서 관극을 할 예정이라는, 혜경의 친구의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L군은 편지의 내용을 따라 극장에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혜경의 옆에 앉아 있는 남자는 더할 수 없는 추남이었다. 이를 본 순간, L군은 혜경에 대한 사랑도 식고, 결국 몸치장도 중단하게 된다. 이후 혜경과 재회한 L군은 일의 자초지종을 묻는다. 이에 혜경은 사진은 L군이 자신의 몸을 더 열심히 가꾸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으며, 편지 역시 새로운 남자에게 예의 그 사진을 보여주었기에 이제 L군이 필요 없어져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태연스레 말한다.

여기에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L군이 혜경의 남편과 경쟁을 하려들수록 혜경을 향한 L군의 사랑이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이는 지라르(René Girard)가 제안한 '삼각형의 욕망'에 완벽히 들어맞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삼각형의 욕망이란, 주체가 대상을 욕망할 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간접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주체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욕망하게 하는 것은 중개자(경쟁자)

344) 김동인, 「사진과 편지」, 『김동인전집』 제3권, 조선일보사, 1988, 169쪽.

역시 그 대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45] 이에 따르면, 「사진과 편지」 역시 전형적인 이성애 삼각관계 구도를 재현한 데 불과한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세즈윅 식으로 재독해한다면, 이러한 경쟁의 결과 혜경에 대한 L군의 사랑이 커지는 만큼, 혜경의 남편에 대한 L군의 욕망 역시 자라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잠시 세즈윅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즈윅에 따르면, "남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성"을 의미하는 호모소셜(homosocial, 동성사회)과 "남성을 사랑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호모섹슈얼(homosexual, 동성애)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는 호모소셜이 동성애혐오적인 남성 연대(male bonding)를 지칭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세즈윅은 『두 남성 사이(Between Men)』에서, 이러한 호모소셜과 호모섹슈얼을 일종의 연속체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세즈윅의 논리는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개념과 루빈(Gayle Rubin)의 '여성 거래' 개념에 빚지고 있다. 먼저 세즈윅은 상술했던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개념 속에서, 남성 경쟁자들 사이를 묶어주는 유대가, 남성 경쟁자와 여성 대상 사이의 유대만큼이나 강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세즈윅은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보다도 경쟁자인 남성과 남성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강력하고, 이 유대감이야말로 그들의 행위와 선택에 더욱 결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감에는 기실 동성애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세즈윅의 지라르 재해석의 요체이다.[346]

한편 루빈은, 근친상간의 금기를 통해 족외혼이라는 '선물'이 마련되고, 두 씨족이 이를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친족이 형성된다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주장을 페미니즘적으로 재독해한다. 여성이 선물로 교환될 때, 그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조직이라는 산물의 수혜자는 항상 남성들임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이다.[347] 또한 이러한 가부장제적인 친족 구조는 필연적으로 의무적 이성애(obligatory heterosexuality)라는 동성애혐오적 제도를

---

345)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1, 41-50쪽 참고.

346) Eve Kosofsky Sedgwick, 앞의 책, 1-2쪽 및 21쪽.

347) 위의 책, 25-26쪽; 게일 루빈, 「여성 거래」, 『일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역, 현실문화, 2015, 110쪽.

요청한다. 이는 곧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기제와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동일함을 의미한다.[348] 세즈윅은 이러한 지라르와 루빈의 주장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두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거래함으로써 경쟁자 남성에 대한 동성애적 욕망을 효과적으로 은폐하고 남성들 간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가부장제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성애혐오가 반드시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세즈윅의 논의를 김동인의 「사진과 편지」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진과 편지」의 삼각관계는 혜경의 계략에 따라 형성된 거짓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L군과 혜경의 남편 사이에 쌍방향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즈윅의 논의는 혜경의 남편을 향한 L군의 욕망, 즉 남성을 향한 남성의 욕망이 어떻게 이성애적 욕망으로 포장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작품에서 L군이 혜경의 남편을 의식하는 부분은 매우 자세히 묘사되며, 그 어조 역시 경탄에 가까울 정도로 과잉되어 있다.

> 그날 밤 L군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아까 낮에 혜경의 방에서 본 사진이 연하여 L군의 눈앞에 어릿거렸다. / 미남자, 호남자, 풍채 좋은 남자— 세상에서 보통 풍채 좋은 남자를 가리켜 부르는 명사가 꽤 많이 있지만 L군은 아직껏 아까 본 그 사진의 주인과 같은 호남아를 본 일이 없었다. / 얼굴이 계집같이 이쁘게 생겼다기보다 남자답고 고귀하게 생긴 그 사진의 주인은, 옛날 희랍 조각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나, 현세에 생존하는 인물로는 있을 수가 없을 만치 절세의 풍채 좋은 인물이었다. (…) 아까 그 사진의 주인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에 L군은 제 가슴을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 그 사진의 주인과 자기를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태양과 자라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도 되지 않았다. (…) 이튿날 혜경을 방문하기 위하여 L군은 머리에 빗질을 삼십 분은 하고 면도를 네 번이나 다시 하고 넥타이를 십여 차 고쳐 매도록 자기의 몸치장에 노력하였다. (…) 그 뒤로부터 L군은 그 사진의 주인과 맹렬한 경쟁을 하였다. 풍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348) 박이은실, 「퀴어 이론가—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윅」, 『여/성이론』 제30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4, 138쪽.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수단을 물론하고 취하였다.(강조—인용자)[349]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L군은 혜경의 남편을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소유자이자 현존하지 않을 법한 고귀한 외모의 미남자로 인식한다. 나아가 L군은 이러한 미남자와 "맹렬한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자 한다. 흥미로운 것은 혜경의 남편이 미남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혜경에 대한 L군의 사랑 역시 함께 식어버린다는 점이다. 이는 혜경과의 교제가 시작될 당시엔 혜경의 남편에 대한 욕망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혜경의 남편이 미남자라고 착각하게 된 이후, 혜경과 혜경의 남편에 대한 L군의 욕망이 공히 커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처럼 혜경의 남편이 추남임을 알게 되었을 때 혜경에 대한 사랑이 식는 장면은 혜경에 대한 욕망보다도 오히려 혜경의 남편에 대한 욕망이 더욱 컸음을 보여준다. 환언하자면, 그가 사랑했던 것은 혜경이 아니라 기실 혜경의 남편이었고, 그가 욕망했던 것 역시 그러한 미남자와 경쟁을 즐긴다는 사실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욕망에는 그 미남자에 대한 성적 욕망이 내포되어 있었다.

한편 지하련의 창작집 『도정』(백양당, 1948)에 실린 「종매」와 「양」 역시 이성애 서사로 은폐되는 퀴어 서사의 한 예로 읽을 수 있다.[350] 먼저 「종매」는 석히[奭熙]가 사촌누이인 정원으로부터 "방금 병을 몹시 알른 어떤 화가와 함께 운각사라는 절에" 머물고 있으니, 자신을 좀 방문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운각사에 도착한 석히는 정원과 친밀해 보이는 화가 철재에 대해 처음에는 경계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윽고 "누이가 동정하는 사람을 저도 동정해서 못쓰란 법도 없"으며, 나아가 철재를 동정하는 정원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철재의 간호를

349) 김동인, 앞의 책, 168-169쪽.

350) 호모소셜이라는 개념을 통해 「종매」와 「양」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손유경에 의해 이미 행해진 바 있다. 그러나 손유경은 우에노(上野)의 세즈윅 분석을 경유해 호모소셜한 남성 연대가 갖는 여성혐오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뿐, 호모소셜한 욕망으로 은폐된 남성들 사이의 호모섹슈얼한 욕망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하지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유경, 「지하련이 인격화한 진보의 민낯」,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217-228쪽; 우에노 치즈코, 「호모소셜, 호모포비아, 여성 혐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5, 30-44쪽 등을 참고할 것.

돕게 된다. 석히는 한편으로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철재를 극진히 간호함으로써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351]

주목할 것은 철재를 간호하기 위해 석히가 그와 한방을 쓰게 된 후부터, 당초 석히-정원-철재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던 정원이 점차 주변화된다는 점이다. 즉 두 남성 사이의 유대감이 증대됨과 동시에 정원의 주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잠이 쉬이 들지 않던 날 밤, 석히는 철재 또한 잠을 자지 않고 있음을 알아차린 뒤, 철재 쪽으로 몸을 돌려 눕는다. 그러자 철재 역시 “그가 깨어있는 것이 반가운 것처럼 마조 보았다.” 석히는 철재의 웃는 얼굴에서 “순수한 고독의 그림자”를 발견하곤, 그 “그림자가 순간 이상하게 심정에 와” 부딪힘을 느낀다. 이런 석히에게 철재는 “이젠 형도 옆에 게시고, 또 열도 차차 좋아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꼭 낫게 하겠읍니다”라고 말한다. 석히는 이러한 “유의 말이란 혼자ㅅ말이 아니라면, 완전이 저 편을 신뢰할 때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그는 역시 조금 전 철재의 웃는 얼골에서와 같은, 이상한 것을 마음으로 느끼며 (…) 별생각도 없이, 그저 얼결에 옆에 놓여진 [철재의] 손을 잡어 보았다.” 이런 친밀한 신체 접촉이나 감정 교환은 석히로서는 매우 드물고 낯선 일이었다. 이를 간파한 철재는 석히의 “손을 드러 제 손과 비교해 보면서, /「내 손보다 더 여읍니다—」/ 하고 우섯다. 두 사람은 이상 더 말을 건너지는 않았으나, 석히는 철재가 좋게 생각되었다.”[352]

이처럼 몸과 몸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추동된 석히와 철재 사이의 친밀성은 점점 정원을 이들의 관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에 정원은 그런 석히와 철재 사이의 관계를 ‘질투’하기에 이른다.

> 어느 날 석히는 주막집 노인이 은주에 가서 사흘이나 묵고 사온, 등의자를 제일 전망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절 문밖 은향나무 밑에다 갖다 놓은 후 철재를 대려다가 앉히고는 아주 만족해하였다. 정말, 병인이 오래간만에 “자연”을 대하고 신기해하는 거라든지, 만족해하는 것은 또 유별란 것이어서, 그도 덩다라 괘니 웃고 떠들고 하였다. 이때 누가 뒤에 섯는 것 같은

351) 지하련, 「종매」, 『지하련전집』,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152쪽 및 166-168쪽.
352) 위의 책, 168-169쪽.

> 인기척이 있었음으로 두 사람은 모르는 결에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랬드니 그곳엔 원이가 별루 시—ㅇ글해서 꺼—뚝 서 있는 것이었다. 그 서 있는 모양이 하두 우수워서, /「웨 그렇거구 있니?」/ 하고, 오빠가 무러 보았다. 그랬는대도 원이는 이 말엔 별 대척도 없이, 이상하게 쭈볏쭈볏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하드니, 그대로 드러가 버리고 말았다. / 이날 저녁에도 원이는 별로 말이 없을 뿐 아니라 전 같으면 방도 치워 주고, 수건에 물도 축여 왔을 게고, 또 직접 철재에게도, 뭐구 제게 시킬 일이 없느냐고, 무러도 보고 했을 텐데, 일절 이런 일 없이 그냥 제 방으로 가버렸다.[353]

이러한 정원의 행동을 목격한 철재는 석히에게 '육친'이란 어떤 것인지 묻는다. 예전에는 정원이 마치 '육친'처럼 느껴졌던 데 반해, 이젠 무언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석히는 "나보담도 오빠가 더 동무지 뭐—" 하는 정원의 말을 떠올리면서, "남성끼리는 친하면 혹 당신 말대로 육친이란 걸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이성일 땐 좀 다르리다"라고 대답한다. 이에 철재는 "이성과의 사귐이란 너무 편협"하다고 대꾸하고, 석히 역시 이 말에 동의를 표한다.[354] 이러한 석히와 철재 사이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석히와 정원의 관계에 끼어든 새로운 남성 인물 철재가 "상대 여성으로부터 받는 애정보다 그녀들의 오빠로부터 받는 신임을 훨씬 더 중시한다는"[355] 사실이다. 즉 석히-정원-철재의 관계에서, 정원은 석히-철재 사이의 호모소셜한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나아가 이들의 '우정'을 동성애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을 따름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두 사람의 호모소셜한 유대에는 서로 손을 마주잡는 식의 친밀한 신체 접촉이 개입되어 있으며, 또한 이 신체 접촉이 추동하는 "이상한" 즉 퀴어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의 퀴어한 감정은, 이광수의 「윤광호」에서 자신을 무한한 고독으로부터 구원해 줄 누군가, 자신의 '공동(空洞)'을 전충해 줄 그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던 광호의 갈망과도 닮아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광호가 그러했던 것처럼 배타적인 우정에 대한 갈망을 언뜻 내비친다. 예컨대 석히의 동

353) 위의 책, 174쪽.
354) 위의 책, 174-175쪽.
355) 손유경, 앞의 책, 225쪽.

경 유학 시절 친구인 태식이 운각사에 찾아 왔을 때, 석히에게 있어 더 큰 관심사는 정원보다도 철재에게 태식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한 것이다. 즉 석히는 정원과 태식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철재와의 우정과 태식과의 옛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

> 석히는 밤이 이식해진 것을 깨다르며, 지금쯤 아무 영문 모르고 자기를 기두르고 있을 철재를 생각하며, 이러섰다. / "자네 곤하지? 나 이 뒤 암자에 잠간 단여 옴세—」 / 석히가 말을 하니까, 암자에 누가 있느냐고, 태식이 무렀다. 그래서 어떤 알른 친구와 같이 있노라고 대답을 했드니, 태식이는 별루 고개를 꺼떡이며,「아— 그런가? 어—ㅇ, 그래?」 / 하고, 그 말의 억양과는 달리, 아주 무심한 얼골로 대답을 했다. (…) 석히가 암자로 드러서니까, 이번엔 철재가 제법 어리둥절해서 이편을 보았다. 그 얼골이 꼭「대체 누가 왔길래 웨 이렇게 왔다 갔다 부산하냐?」는 것 같어서, 그는 모르는 결에 어색하게 우슴을 띈 채, /「나허구 친한 사람인데… 원이에게 얘기 들었지? 하도 오래간만이라 그동안 얘기도 좀 하고, 그럴라니까, 이리로 오면 당신헌테 언짢을지도 모르고 해서……」 / 하고, 길다랗게 말을 느러놓았다.[356]

인용문에서처럼 석히는 철재가 자신과 태식 사이의 옛정을 혹여 '오해'할까봐 지레 변명을 늘어놓는다.「종매」가 석히, 정원, 철재, 태식 등 네 사람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여성과 두 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여러 '삼각관계'들이 교차한다는 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원을 둘러싼 남성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감정선으로 인해 다소 가려져 있지만, 철재-석히-태식의 관계와 같이 세 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 역시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삼각구도 속에서 석히는 일차적으로 철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재가 있는 암자와 태식이 있는 큰절 중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 "어듸로 어떻게 옮든지, 석히는 철재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러 사정들로 인해 이러한 석히의 바람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에도, 석히는 "큰절에서는 잠

356) 지하련, 앞의 책, 179-180쪽.

만 잤을 뿐이지, 낮의 대부분은 암자에서 지"내기도 한다.[357]

하지만 이처럼 태식과의 옛정보다 철재와의 '배타적' 우정을 선택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히는 근자에 들어 비교적 혼자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하였다." 이는 철재를 향한 마음의 크기가 줄어들어서도 아니고, 태식에게 새로이 정을 느끼기 시작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석히의 바람은 철재의 병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이젠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모종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석히와 철재의 ""자기 처소"란 햇빛 하나 드리우지 않는 몹시 어둡고 서글픈 곳이었든지, 이렇게 혼자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한 이후부터, 두 사람의 얼골은 날로 우울해 갔다." 즉 "가슴 속 어느 한 곳에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크다란 구멍이 하나 뚜러져 있는"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358]

석히와 철재 사이를 갈라놓았던 '고독'은 「양」에서 "고독이란 괴물"[359]로 표현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지하련의 「양」은 산골에서 함께 양 목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성재와 정래 사이의 이야기를 그린다. 소설에서 성재는 정래와의 교우 관계로 인해 번민에 빠져 있다. 그러나 성재 역시 자신의 번민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하련은 '야릇한'이라는 단어를 반복 활용해 이러한 성재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한다. 이에 따르면, 성재의 번민이란 "잠자는 벗의 얼굴로부터 야릇한 압박과 불안을 느끼"는 것, 정래가 쏜 총소리에 "야릇한 흥분"을 느끼는 것 등과 같이, 그가 친구인 정래에 대해 언어화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때 정래를 향한 성재의 '이상한' 감정은 기실 정래의 아름다운 외모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래의 총소리에 "야릇한 흥분"을 느낀 성재가 이윽고 "땀에 저진 약간 검고 기름한 [정래의] 얼굴이 몹시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360]

이처럼 정래를 향한 '이상한'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성재의 앞에 제종

357) 위의 책, 181쪽.
358) 위의 책, 187-189쪽.
359) 지하련, 「양」, 위의 책, 212쪽.
360) 위의 책, 201쪽 및 203쪽.

매 봉아가 나타난다. 평소 성재의 결혼을 닦달하던 그의 어머니와 당숙의 심부름으로, 봉아가 성재를 선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성재는 예전부터 선을 보는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왔지만, 결국 봉아를 따라 당숙의 집으로 향한다. 성재가 선을 보고 돌아오니, 이번에는 정래의 여동생 정인이 집에 와 있다. 정래는 성재에게 선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서, 정인의 혼처가 이제 정해졌으니 성재도 어서 결혼을 하라고 농담조로 말한다. 성재는 이러한 정래의 말에 마치 조롱을 당했을 때와도 같은 불쾌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때 성재가 왜 불쾌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유는 작품에 그리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이는 정래가 성재를 결국 여동생 정인의 남편감으로 여겨 왔음을 성재가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성재와 정래의 관계가 어떠한 성적인 욕망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이성애자 남성들 사이의 완벽히 탈성화된 우정이라면, 예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불쾌감까지 느끼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이 지점에서 성재의 불쾌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정래를 향한 성재의 '이상한' 감정을 퀴어한 감정과 욕망으로 독해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독해를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이루어진 성재와 정래 사이의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래의 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전부터 성재의 방에서 함께 지내 왔는데, 이날도 그들은 성재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정래가 "평소 과묵한 대신 취하면 훨씬 다변한 것"을 아는 성재는 "남어 있는 한잔을 정래에게 권하며 (…) 장차 있을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가만—이 가져"본다. 과연 술에 취한 정래가 성재에게 자신의 여성 편력을 늘어놓지만, 이것은 성재가 '기다리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성재는 이야기를 하는 정래의 "웃는 얼골이 몹시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이번엔 그곳에 야릇하게 끌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이때 성재의 머릿속에는 예전부터 정래에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늘 무엇인지가 불안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이 "끝내 저편에 대한 경계를 새롭히든 것"을 떠올린다.[361]

---

361) 위의 책, 210쪽.

이 장면에서 성재는 정래에 대해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정래가 만났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여성을 향한 정래의 '이성애적' 욕망에 대해 듣길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성재는 그 말을 하는 정래의 얼굴만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 아름다움에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 이와 같은 대목들에서 정래를 향한 성재의 '퀴어한' 욕망을 읽어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성재는 자신의 이 퀴어한 욕망을 자각할 때마다 불안을 느껴 왔고, 그리하여 자꾸만 정래를 밀어내 왔다. 성재에게 있어 이성과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희망은 전무하며, 그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정래뿐이다. 그러나 이성애규범적인 1940년대 사회에서 이러한 욕망은 언어화되지 못한 채 "야릇한" 어떤 것으로만 감각되고, 그것의 실체가 어렴풋하게나마 성재에게 인식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욕망을 떨쳐내려 시도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성재의 번민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정래에게 느꼈던 불쾌감 혹은 배신감 역시 자신이 정래에게 가지고 있는 강렬한 감정을 상대방은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성재의 생각과는 달리, 정래 또한 자신들이 맺고 있는 퀴어한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정래는 성재에게 "우리 이런 일 이젠 관둡시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란 "고독이란 괴물"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신뢰하지 못하는 삶, 특히 "애정"을 느끼는 사람에게조차 "작구 속는 것 같은 일종의 공포"를 느끼는 삶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런데 성재는 정래가 하고 있는 말들이 기실 자신이 정래에게 줄곧 하고 싶었던 말이었으며, "지금껏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괴롭게 여긴 것이 정래가 고집하는 이 "고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362]

본고의 맥락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래가 "아무것도 살어나지 못한다는 이토록 무서운 고독", 즉 퀴어한 감정의 자유로운 표출을 제한당함으로써 발생한 '이상한'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재를 정인의 남편감으로 생각해 왔다는 점이다. 즉 성재-정인-정래를 잇는 삼각구도 속에서, 정래는 성재와

362) 위의 책, 211-212쪽.

의 사이에 존재하는 퀴어한 욕망을 끊어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여동생인 정인을 성재에게 '증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예의 말을 듣고 이러한 정래의 의중을 짐작케 된 성재는 어떻게든 정래를 붙잡아보려 한다.

> 마츰내 성재는 몸을 이르키며 / 「정말은 내가 매씨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매씨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오?」 / 하고, 다잡었다. / 「잘 믿지 않을 거요—」 / 성재는 이 말을 듯자 이상하게 괴로웠다. 사람과 사람끼린데, 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린데, 무엇이 이처럼 여지없는 장벽을 가저왔나 싶다. / 「여보! 이건 지옥이요!」 / 마츰내 그는 자기도 모르는 말로 벗을 바라다보았다. 순간 정래도 뭔지 괴로운 얼굴이다. 그러나 역시 그 이왼 아무것도 아니었다. / 성재는 도로 자리에 누었다. 몹시 피곤하였다. / 조곰 후 정래는 극히 낮은 목소리로 / 「정인이에게 대한 이야기는 형이 직접 무러 보시요—」하면서 이번엔 사뭇 혼잣말투로 / 「우리 훨신 늙거든 어데서고 만납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도 그 "승천(昇天)"이란 것을 하게 합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강조—인용자)[363]

이와 같이 성재는 만약 자신이 예전부터 정인을 사랑해 왔으며, 이제 그녀를 붙잡겠다고 말하면 그것을 믿겠느냐고 정래에게 묻는다. 정래가 아마 믿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자, 성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을 괴로워하며, 이것은 "지옥"이라고 소리친다. 주의할 것은 이때 정인을 연모해 왔다는 성재의 말이 어디까지나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정인에 대한 성재의 감정은 일회적인 '끌림'에 지나지 않으며, 그보다 더욱 지속적이고 강렬한 감정은 정래를 향한 퀴어한 욕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작품의 후반부에서 성재가 정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정인에 대한 욕망에서 기인한다기보다, 정인을 매개로 성재와의 호모소셜한 유대나마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먼 훗날 노인이 된 뒤 다시 만나 함께 생을 마감하자는 정래의 약속이 성재를 완벽히 사로잡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성재는 정래의 말대로 정

363) 위의 책, 214-215쪽.

인을 만나 그녀와 친밀하게 지내려 노력한다. 그러나 정인의 “다정한 눈은 역시 그에게 생소한 것이었고 타인의 것이었다.” 이는 정인이 결코 정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재가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윽고 성재에게 아찔한 현기증을 불러일으킨다. 그 현기증 속에서 성재는 정래의 약속이자 자신의 간절한 희망, 즉 먼 훗날 재회해 함께 승천하자는 “벗의 말도 그의 말도 아닌 먼 곳에의 이야기를, 가만이 입속으로 외어” 본다.364) 이처럼 「양」은 성재-정인-정래의 삼각구도를 통해, 성재와 정래의 퀴어한 관계가 정인을 매개로 어떻게 이성애적이고 동성사회적인 남성 유대로 전화하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이는 또한 당대 사회가 어떻게 퀴어한 욕망을 은폐하도록 강제했는지, 다시 말해 퀴어한 욕망들이 이성애적 매트릭스 속에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김동인의 「사진과 편지」 및 지하련의 「종매」와 「양」 등을 이렇듯 퀴어하게 재독해할 수 있다면, ‘퀴어 서사 시대’에 창작된 몇몇 작품에도 동일한 독해 방식을 적용해, 한국 퀴어 서사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일례로 방정환의 「유범(流帆)」(『개벽』, 1920.6)은 독립운동을 계획 중인 중식, 혜숙, 동호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 대해 다룬다. 중식과 동호는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지내 온 친구 관계이다. 또한 중식과 혜숙은 둘 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각자 홀어머니 밑에서 크다가, 두 사람의 어머니들이 “형제의 의를 맺고 살림까지 가티하다십히 되”365)자 친남매와 같은 사이가 된다. 소설의 주요한 갈등인 삼각관계는 동호와 혜숙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린 중식이 그동안 자신도 혜숙을 연(戀)하고 애(愛)해 왔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중식과 동호의 관계는 “사업”을 함께 이루어 나갈 동지이면서, 동시에 혜숙이라는 여성을 사이에 둔 “연적” 관계가 된다. 나아가 그들은 이 사랑과 혁명 사이의 양자택일이라는 문제 앞에서 번민에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 ㉠ [중식의 번민—인용자] 남모르는 큰 활동을 나는 동호와 함께 시작한다 그러타 그것은 과연 장쾌하고 용감하고 가치 잇는 활동이다. (…) 그 협력자인

364) 위의 책, 215쪽 및 217쪽.
365) 목성, 「유범」, 『개벽』 제1호, 1920.6, 145쪽.

동호는 지금 저 도염동에 잇다 (…) 다만 하나 밋고 의논하고 손목 쥐고 씃가지 일할 친우 동호…… (…) 아아 대의를 위하야 생사를 가티할 친우를 연적으로 보게 되는 비열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그래도 무엇을 하겟다고……. / 아니다 아니다!! 혜숙이는 나의 동생이다!! / 그는 몃 번이나 이러케 부르지젓스나 (…) 동호의 말에 혜숙이가 찬동하고 혜숙의 말에 동호가 귀를 기울일 쌔마다 조흔 심기는 가지지 못햇다 금하려도 금치 못할 일종 질투의 마음을 아모려도 눌르는 수가 업섯다. (…) 아— 무서운 연착(戀着)의 염! 비열한 속정(俗情)! 그 때문에 내가 동호의 의견과 배치가 되닷게…… 아아 아니다 아니다 혜숙이는 나의 누의이다 동호는 나의 신우(信友)이다 / 오오,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것도 두 사람에게는 죄이다 죄인이다(강조—인용자)[366]

㉡ [동호의 번민—인용자] 혜숙이와 중식이는 어렷슬 때부터 친형친제로 알고 자랏다 이십이 넘은 이쌔까지! 그러나 중식이가 혜숙에게 대하는 마음에는 중식이 자신도 인식치 못하는 별다른 애(愛)가 숨겨 잇던 것이다 그것이 당자 자신도 모르고 잇다가 제삼자인 내가 자조 오게 된 쌔부터 아니 내가 혜숙이를 사모하게 될 쌔에 이쌔까지 숨겨 잇던 그 애가 비롯오 발동된 것이다 / 그래서 근래 중식이는 그 마음을 억제하려고 억제하려고 무한 고민하는 중인가 보다 (…) 아아 대사를 압헤 둔 우리가 이런 일로 가슴을 태우니 참으로 세상이라는 게 웃읍다 (…) 나로 인하야 친남매보다 더 의조케 살아가던 생활이 파괴된다면 아— 나는 죄인이다 / 아아 나는 가리라 중식이 남매의 파란 업는 생활을 위하야 또 한편으로는 중식이와 나와의 영원한 우의를 보존하기 위하야 세 엉킈 중에서 내 몸을 쌔이리라 / 나의 일생의 기념일 풋사랑인 이 애를 희생하야 그 남매의 진정한 애를 살리리라 그리고 아모 것으로도 바꾸지 못할 신우를 일치 말리라(강조—인용자)[367]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식과 동호는 자신의 번민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뒤, 스스로를 "죄인"으로 칭한다. 즉 ① 동호와 혜숙 사이의 사랑이 점점 커지자, 이를 본 중식이 혜숙을 더욱 사랑하게 됨으로써, 번민의 씨앗인 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두 사람 모두 잘

366) 위의 책, 143쪽 및 145-146쪽.
367) 위의 책, 147-148쪽.

알고 있다. ② 나아가 이러한 삼각관계가 독립운동이라는 “대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은 번민한다. 앞에서 본고는 이를 사랑 대 혁명의 구도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둘러 정정하건대, 이 구도는 기실 중식과 동호의 번민을 적실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은 ‘퀴어 서사 시대’의 감정-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혁명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에서 추동되었던 동지들 간의 ‘사랑’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재서술하자면, 중식과 동호의 번민은 이성과의 사랑 대 동성과의 사랑 사이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 ㉡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번민 끝에 동호는 중식·혜숙 남매의 사랑을 위해, 또 자신과 중식 사이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 혜숙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다. 문면에 나타난 그대로 이 대목을 읽을 때, 동호는 사랑 대신 혁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이성에 대한 사랑 대신 동성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세즈윅의 논의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 삼각관계 속에서 중식-혜숙이나 동호-혜숙 사이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후경화되고, 중식과 동호 사이의 우정이 오히려 전경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중식과 동호의 번민은 사랑의 대상인 혜숙이 겪을 고통보다도, 사랑의 경쟁자와 자기 자신이 이후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지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식보다도 동호에게서 더 농후하게 발견되며, 따라서 동호는 혜숙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동호는 혜숙이 아니라 중식을 선택한 것이다.

전술했듯이 세즈윅은 두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 속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거래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유범」의 맥락에 적용하면, 이 삼각관계 속에서 공고해진 것은 중식과 동호 사이의 유대이며, 이를 통해 혁명으로 나아가는 감정-공동체의 기반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성과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공동체에서 생산·요청했던 동성 간의 사랑이 지켜진 것이다. 흥미롭게도 방정환은 이러한 동호의 선택을 “사랑으로 사랑을 구한”[368] 행위라고 표현한

368) 위의 책, 150쪽.

다. 그러나 ⓐ 첫 번째 사랑과 ⓑ 두 번째 사랑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추측컨대 이는 ⓐ 동호와 혜숙의 사랑이 포기된 결과, ⓑ 중식과 혜숙 사이의 사랑이 지켜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중식과 혜숙이 은행나무 밑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동호가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장면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 동호와 혜숙의 사랑이 포기된 결과, ⓑ 중식과 동호 사이의 사랑, 즉 감정-공동체의 토대가 지켜졌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369] 그렇다면 방정환의 「유범」은 남성에 대한 남성의 사랑을 이성애 서사로 봉합해 표현하고 있는 소설인바, '퀴어 서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성애 담론이 수용·정착된 1920년대 중반 이후의 퀴어 서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굴절·은폐되어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억압의 양상은 동시대 한국문학이 답습하고 있는 몇몇 동성애혐오의 징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1) 회고담으로서의 퀴어 서사는 자신의 욕망이 이성애 제도에 완벽하게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퀴어한 욕망을 왜곡시켜 재현했다. 이는 '청소년기 성 정체성 혼란'으로 요약되는,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혐오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데카당스의 징표로서의 퀴어 서사는 우선 퀴어한 욕망을 '병적인 것'으로 전제한 뒤에라야 제출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했다. 이는 동성애와 퀴어를 병리화하는 담론에 복무할뿐더러, 다른 한편으로 전유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이러한 담론을 재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3) 마지막으로 이성애 서사로 은폐되는 '퀴어 서사'는 문자 그대로 퀴어한 욕망을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냈다. 이는 퀴어한 욕망을 일차적으로 부재의 영역에 정박시킨다는 점에서 동성애혐오의 징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369) 장정희 역시 "실제 「유범」이 엮어가는 서사는 중식-동호의 갈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연애의 중심자인 혜숙의 감정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입장이 서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중식과 동호의 동지애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결말 구조란, 「유범」이 이성 간의 삼각관계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 아니라, 항일정신에의 고취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작품임을 방증한다.(장정희, 「방정환의 소설 「유범」 연구—독립의 서사전략화 및 항일저항소설로서 문학사적 의의」,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387쪽 및 389쪽.)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경향이 동성애혐오적인 담론장과 문학장이 야기한 효과이기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상술한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퀴어 서사들은 억압된 양상으로나마 퀴어한 감정과 욕망을 문학으로 남겼다. 문인들 개인의 의도와 의지가 이러한 문학화에 얼마나 자율적으로 작용했는가를 넘어, 이 서사들은 한국문학의 전통 속에 퀴어한 욕망이 존재해 왔음을 '증명해버린다'. 다시 말해, 이 서사들은 퀴어에게도 '역사'가 존재함을 증명하며, 따라서 더 정치적으로 다시 읽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시 읽기의 과정 속에서만 퀴어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 그리하여 지금-여기의 퀴어들에게 "견본"을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퀴어문학사'를 쓰는 작업이 추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둘러싼 담론과 문학

제1절 강제적 이성애와 여성들의 감정-공동체

제4장에서는 '퀴어 서사 시대' 속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둘러싼 담론과 문학에 대해 살펴본다. '퀴어 서사 시대'의 문학장은 남성 작가와 남성 독자로 이루어진 연대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문명의 전위이자 미래/희망의 기호로서 호명된 청년 주체들의 젠더 역시 대체로 남성이었다. 당대의 감정-공동체는 남성들 사이의 사랑을 생산·요청함으로써, 이 감정을 매개로 문명한 사회로의 진보를 이룩하고자 했다. 그 결과 '퀴어 서사 시대'에 제출된 퀴어 서사는 대부분 남성들의 퀴어한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는 주변화되었을지언정 끈질기게 존재해 왔다. 따라서 한국 퀴어 서사의 계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간의 퀴어한 관계 역시 반드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동성애 담론이 수용·정착되던 1920~1930년대에 '동성(연)애'라는 새로운 개념이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설명할 때보다, 오히려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설명할 때 더욱 많이 적용되었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제출된 동성연애를 다룬 텍스트 가운데, 현철의 「여학생과 동성연애 문제」(『신여성』, 1924.12)는 가장 주목할 만한 텍스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1920~1930년대에 전개된 여성 동성애 담론을 매우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현철은 과학의 이름을 빌려, 남성 동성애와 여성 동성애가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 본래 성학(性學) 상으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 남성 여성으로도 이분할 수가 잇는 것임니다. (…) 남자들도 동성의 연애가 업는 것은 안이지만은 원래 남자는 (…) 직접으로 성욕 쾌감이 안이면 그처럼 동성의 연애에 심곡(深曲)한 행동이 나타나지 안이하지만은 여자는 남자와 달나서 원시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만음으로 그 행동이 지극히 심곡할 뿐 안이라 비상한 편협

성을 갓게 되는 것인니 이것이 남자와 달나서 성욕을 의식하는 것이 안이고 다만 성욕의 원동 즉 원인만 잇슬 뿐이요 의식은 업는 것임니다. (…) 동성연애는 남자를 물론하고 다 가티 잇는 일이지만은 여자 더구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 만이 실견할 수가 잇는 것이니 (…) 성적으로 하등의 지식이 업슬 뿐만 안이라 또한 하등의 목적도 업시 성의 본능적 암시로 가장 접촉되기 쉽고 또는 친밀할 가능성이 잇는 친구들과 동성의 연애를 여자들에게 만이 볼 수 잇는 (…) 것임니다.[370]

이에 따르면, 남성은 성욕과 쾌감에 의해 동성연애를 하며 그 결과 그리 깊지 않은 사랑을 한다. 반면 여성은 "원시적으로" 수치심이 많은 까닭에, 성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도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현철의 주장은 성차를 본질화함으로써, 여성을 수동적이고 탈성화된 존재로 규정하는 여성혐오 담론에 복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남성 동성애자가 과잉성애화된 범죄자의 형상으로 공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여성 동성애자는 탈성화된 소녀의 형상으로 성적 실천의 가능성 자체가 무시되었던 정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371] 주목할 것은 이러한 현철의 주장이 성과학의 수입과 함께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남성 동성애와 여성 동성애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현철의 주장은 성욕('육체적 사랑')과 감정('정신적 사랑')이 완벽히 배치된다는 '퀴어 서사 시대'의 담론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퀴어한 감정-공동체 내에서도 남성을 향한 성욕의 직접적인 표출은 금기에 해당했다. 항문 성교는 구습을 환기하는 행위이자, 촉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열등한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당대 감정-공동체는 남성 간의 신체 접촉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우정의 모범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신체 접촉이 추동하는 느낌을 낭만적 사랑 또는 성욕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을 구성원들에게 명령했다. 이는 낭만적 사랑을 특징짓는 유일성과 배타성에 대한 갈구가 감정-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요청되었던 복수적인 '사랑들'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370) 현루영, 「여학생과 동성연애 문제」, 『신여성』 제2권 제9호, 1924.12, 21-22쪽.
371) 미미 마리누치, 『페미니즘을 퀴어링!』, 권유경·김은주 역, 봄알람, 2018, 53쪽.

감정-공동체의 명령은 성욕과 감정의 이분법에 기대고 있었으며, 바로 그 이분법의 '허구성'으로 말미암아, 즉 그러한 명령이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킴에 따라, 결국 그 기획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벗을 찾으려던 시대, 그리하여 거대한 폭력으로 경험되는 식민지적 모순을 뚫고 나가려던 시대[372]는 그 유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과잉'을 여성성의 본질로 규정하는 성과학과 심리학 등의 서구 담론이 식민지 조선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남성 지식인-문인들은 정치적으로 이미 시효 만료된 듯한 감정이라는 항을, 여성성의 내포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한 이러한 수용에는 서구적·근대적인 남성성/여성성 규범에 '과학자'들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도 강한 영향을 끼쳤다.[373] 종합하자면, 현철이 답습하고 있는 성차의 본질화가 서구의 성과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남성성/여성성 규범의 재편은 그 이전 '퀴어 서사 시대'의 담론장과 문학장의 흐름 속에서 자못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 지식인-문인들의 '능동성'은 결국 지배적 남성성의 내포에 속할 수 없는 모든 잔여적인 의미를 여성성에 투사해 버리는 여성혐오적 경향을 보여준다.[374] 즉 현철이 동성애를 여성의 전유물로 의미화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던 감정과잉이라는 여성의 '본질'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그러한 구성 과정에는 뿌리 깊은 여성혐오

---

372) 한샘, 「서문」, 이광수, 『무정』, 7-9쪽; 관련된 대목은 다음과 같다. "남보담 곱 되는 설움과 아픔과 갑갑함을 가진 우리네 가운데 아무 들리는 소리의 없음이 이럴 수 없도다. 아무 넋두리와 아무 푸념과 아무 하소연의 없음이 이럴 수 없도다. / 소리! 소리! 우리는 참소리에 주리는도다. (…) 그[이광수—인용자]의 덕에 아프면 앓는 소리, 즐거우면 웃는 소리, 갑갑한 때 부르짖음, 시원한 때 지저거림, 떠들기, 속살거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도다. (…) 혼자매 크지 못하도다. 그러나 빈 들에 부르짖는 소리는 본디 떼 지어 하는 것 아니로다. 벗 부르는 맹꽁이 소리는 하나가 비롯하여 온 벌이 어우르는 것이로다. (…) 이로써 비롯한 이 땅 사람의 소리가 늘고 불고 가다듬어져서 마침내 하늘과 사람을 아울러 기껍게 할 줄을 믿을 때에 누가 다시 가슴 앓는 벙어리 될까를 설워하랴. (…) 울어라, 울어라, 줄기차게만 울어라."

373) 박숙자, 「근대문학의 형성과 감정론—'감정과잉'의 문학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어문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361-366쪽 참고.

374)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20쪽.

가 얽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여성혐오는 '퀴어 서사 시대'에 감정-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활발히 생산·요청되었던 남성 퀴어 서사들이 어째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이 된다. 이 퀴어 서사들은 남성 간의 달뜬 감정을 재현했었지만, 이러한 감정의 달뜸 자체가 여성성의 내포로 점차 고정되어 가자, 남성 지식인-문인들은 더 이상 남성 간의 퀴어한 관계를 재현하지 않겠다고 '능동적으로' 선택한다. 이는 현철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이 "원시적"인 존재, 다시 말해 문명하지 못한 존재로 규정되는바, 이러한 "원시적"인 존재의 전유물인 달뜬 감정을 통해서는 더 이상 남성 공동체를 조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문학장 속에서 동성애혐오와 여성혐오는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한편 현철은 같은 글에서, 여학생이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는 한 성과학자의 이론을 빌려 성욕의 발달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제1기는 아동기로 성욕이 없는 시기이며, 제2기는 성욕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고, 제3기는 "보통의 상태로 성욕 방면이 이성을 바라게 되는" 시기이다. 나아가 그는 제2기인 무차별기에 접근이 용이한 상대에게 성욕이 향하기도 하는바, 여학교와 같은 공간에서 간혹 동성연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철은 "학교 교육자나 또는 여자들를 가진 부모내들이 이 동성연애기에 가장 주의하여 성질 발전상에 장애가 되지 안이하도록", 그리하여 여학생을 현모양처로 길러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375]

이러한 현철의 제안은 기실 모든 미래와 희망을 아이라는 상징적 기호에 투사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여성이 그러한 희망의 재생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인다운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부인의 책임 중 가장 큰 책임"을 다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재생산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야말로 한집 한나라 또는 세계에 큰 죄악"이라는 박달성의 주장과 공명하는 것이다.[376] 흥미로운 점은 김기전의 「요때의 조선 신여자」(『신여성』, 1923.11)에서, 동성(연)애가 이러한 교육상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된

375) 현루영, 앞의 책, 22-25쪽.
376) 춘파, 「어쩌케 하면 부인다운 부인이 될가」, 『부인』 제1권 제3호, 1922.8, 15쪽.

다는 점이다. “사랑—애형, 애제”라는 소제목이 붙은 절에서, 김기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것[애형애제(愛兄愛弟)—인용자]은 주로 여학생 사이에, 여학생 중에도 기숙사에 드러 잇는 학생 새에 잇는 일이거니와, 그들 사이에는 남자 편으로 치면 짝패러 할 만한 사랑이란 것이 잇다. 가령 갑이란 여자와 을이란 여자 새에 사랑이 생겻다 하면, 그들은 거희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서로 그리워하며 서로 싸루난 것이다. (…) 이것이 유행어로 하면, 니른바 동성애이라는 것이다. 동성애가 됴흔 것이냐 언싼은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말이 잇고, 싸라서 이에 대한 여학교 당국자의 태도도 제각각이지마는, 우리의 생각으로써 보건대 동성애란, 그것이 더러웁게 성욕의 만족을 엇으려 하는 수단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이익이 잇슬지연뎡 해는 업슬 관계이라고 한다. 여자들 사이에는 이 동성애가 잇슴으로 해서, 정서의 애틋한 발달을 재촉함이 되고, 싸라서 남녀 간의 풋사랑에 대한 유감(誘感)을 면함이 될 것이다. 다못 쥬의할 것은, 사랑이란, 남녀 간이고 여여 간이고, 놉고 깨끗한 것이 되여야 하는 것이다. 거긔에 한 점(點)만큼이라도 야비하고 셜만한 것이 석기면, 그것은 결국에 자독(自瀆)이오 자멸이다.(강조—인용자)[377]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김기전은 동성애가 여성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이익이 잇슬지연뎡 해는 업슬 관계”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여성이 미래의 남편을 위해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러한 김기전과 현철의 텍스트는 여성 동성애를 둘러싼 담론이 현모양처 담론 및 순결 담론에 깊이 연루되면서, 여성 동성애가 이성애를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 동성애는 가족-친족 제도의 유지를 위한 결혼과 재생산이라는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때때로 권장되기도 했던 것이다.[378]

---

377) 소춘, 「요때의 조선 신여자」, 53쪽.

378) 위의 인용문에서 김기전은 여학생들 사이의 애형애제 관계가 남자들의 짝패 관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짝패 관계란 농촌 사회에 존재했던 미동 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명백하게 성적인 함의를 내포한 단어였다. 이러한

이처럼 여성 동성애는 “더러웁게 성욕의 만족을 엇으려 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즉 탈성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남성 동성애에 비해 훨씬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은 일차적으로는 남성들이 여성 동성애를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예컨대 김기전은 위의 글을 발표하기 약 1년 전, 『부인』(1922.10)에 실은 글에서도 애형애제 관계를 다룬 바 있다. 먼저 그는 “여자란 남자와도 크게 달라 그가 어써케 감정뎍임은 누구나 다 아는 바”라며, 본디 여학생은 외로움을 잘 타는 법이라는 말로 운을 띄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여학생들끼리 교제를 하는 애형애제 문화는 “예전으로부터 어써한 긔숙사 안에나 잇서” 왔던 일이다. 이때 김기전은 이러한 여성 간의 퀴어한 관계 속에서도 이성 간의 연애와 마찬가지로 질투의 감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이를 그저 “어엽부고 귀여운” 소녀들 사이의 “자미 잇는 교제” 정도로만 받아들일 뿐이다.[379]

이러한 김기전의 반응은 남성 지식인들에게 ‘소녀’들의 동성연애가 탈성화된 것으로(만)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있어 여학생 간의 퀴어한 관계란 낭만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도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그저 ‘재미있는’ 일일 따름이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한, 여학교 생활에 대한 기사들은 바로 이러한 ‘재미있는’ 소녀들의 동성연애 일화를 전함으로써, (남성) 독자들의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다.[380] 예를 들어, 1920~1930년대의 대표적인 대중·오락잡지인 『별건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실렸다.

㉠ 이 긔숙사 앗씨들은 이성연애의 연습 격인지 가을 지나 겨울로 기우러

측면에서 볼 때, 짝패를 인유해 애형애제를 설명하는 김기전의 시도는 애형애제 관계에 성욕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부지중에 노출해버리는 ‘실수’라고도 볼 수 있다.

379) 소춘, 「칠백여명의 새로운 녀자를 내인 셔울녀자고등보통학교의 긔숙사 생활」, 『부인』 제1권 제5호, 1922.10, 39-40쪽; 한편 앞에서 인용했던 1년 뒤의 글과는 달리, 이 글에서 김기전은 애형애제 관계를 동성애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김기전이 1922년과 1923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성과학 및 동성애 담론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며, 1920년대 초·중반이 동성애 담론이 수용·정착되는 과도기였음을 보여준다.

380) 물론 이러한 관음증적 욕망을 이성애자 남성의 전유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지기만 하면 동성연애에 열중하시느라고 낫이면은 편지질 초저녁이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서로 붓삽고 울기 밤만 되면 건성 스립빠들만 방문 압헤 고이 노아 두고 남의 방에서 잘 자리 닷톰질하기 나종에는 서로서로 끼여 안고 각각 제 사정 속살거리기 이러다가 정밤중쯤 되면 아주 피곤 중에 못 견대시는 듯 잠간 사히에 천귀 잠잠으로 형편 몰으시는 판이 되어 버린다.381)

㉡ 차 양(孃) / 23세. 조흔 녀자다. 일물 조코 마음 조코 교제성 조코 지식이 상당하고 그 가뎡은 시골 어느 야소교 장노님 댁이고 이 녀자가 글씨를 잘 쓰고 음악을 잘하고 연설도 해 보앗고 제일 연극을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공하는 조흔 녀자다. 그런데 이이가 박애주의자가 안인지 그것 한 가지가 겁나는 조건이다. 그의 둘네를 에워싸고 도는 청년들이 4, 5인 된다는데 아모에게도 불평을 사지 안코 원만히 교제해 나간다. 학교에 잇슬 때에 동성련애 소위 녀학생끼리 사랑을 하는 데에도 넌즛이 여러 동생을 일시에 원만히 사랑해 왓섯다 한다. 그것은 언잿든지 그가 녀학교를 이 학교에서 저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로 한 학교에 꼭 박여 잇지 못하고 전학을 하며 도라단긴 것을 보아도 그의 성격을 의심하지 안을 수가 업다.(강조—인용자)382)

먼저 ㉠은 동성애를 이성애의 연습이라고 표현하면서, 상술했던 김기전의 글들에 나타난 여학교 내의 연애 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인간계에서 모르고 잇는 여학교 기숙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텍스트는 여학교에 다녀보지 않은 이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 즉 여학교 기숙사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화들을 독자에게 전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엿보고자 하는 독자의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은 “신부후보자 전람회”라는 제하의 연재물 중 한 편에 해당하는 글이다. 총 네 편으로 이루어진 이 연재물은 주최자 쌍S가 자신의 신부를 찾고자 “신부후보자 전람회”를 연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신여성 “40여 명의 장뎜, 단뎜, 용모, 성격을 자세 공개해 노코 독자의 투표를 모아서 제일

381) 흰달, 「인간계에서 모르고 잇는 여학교 기숙사의 비밀」, 『별건곤』 제15호, 1928.8, 132쪽.
382) 쌍S, 「학후·풍자·기발 신부후보자 전람회 (제2회)」, 『별건곤』 제30호, 1930.7, 84쪽.

만흔 투표를 엇는 이와 결혼을 하겟"다는 식으로 홍보되었다.[383] 즉 이 기획은 문자 그대로 여성들의 삶을 공론장에 '전시'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에 재현된 여학교 내의 동성연애 역시 이처럼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여학교 기숙사 비화(祕話)"라는 꼭지에 실린 윤봉순의 「명랑한 제복의 처녀」(『신여성』, 1933.6)는 실제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동성연애"의 실연으로 음독자살 소동을 벌인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384] 이 글 역시 '비화'라는 표지를 달고 있다는 점에선 위의 『별건곤』 기사들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글에 나타난 동성연애는 여학생들 사이의 '재미있는' 교제를 넘어, 자살로 치닫기까지 하는 '위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정사(情死)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실연 비관 자살 소동이 독자의 관음증적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으리란 점이다. 독자의 관음증적 욕망이 연애와 죽음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와 긴밀하게 얽혀 있으리란 사실은 윤심덕-김우진, 강명화-장병천, 김갑순-노병운 등의 정사 사건에 쏟아진 관심과, 그것을 낭만화하고자 하는 당시 지식인 및 대중의 충동을 떠올렸을 때 쉬이 짐작 가능하다.[385]

이러한 사실은 동성애와 관음증적 욕망 사이의 관계가 '안정성'과 '위험성'의 이분법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보다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1년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홍옥임과 김용주 사이의 '동성 철도 정사 사건'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3일 뒤에 발표된 『동아일보』 기사는 이들이 "이십세 내외의 청춘이란 것,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앗다는 것, 명가(名家)의 출(出)이라는 것, 미인이라는 것, 그리하고 동성(同性) 정사라는 것" 등으로 인해 사건의 흥미가 더욱 크다고 말한다.[386] 즉 박차민정이 지적하듯이, 동반 자살이라는 파국적 결말을 맞게

383) 쌍S, 「신부후보자 전람회 입장무료 쌍S주최」, 『별건곤』 제29호, 1930.6, 119쪽; 결과적으로는 30여 명의 여성들이 거론되었으며, 독자들의 투표도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384) 윤봉순, 「명랑한 제복의 처녀」, 『신여성』 제7권 제6호, 1933.6, 141쪽.
385) 구인모, 「사실의 낭만화, 욕망의 팰림시스트(palimpsest)」, 『국제어문』 제59집, 국제어문학회, 2013.
386) 「이(二) 여성의 자살」, 『동아일보』, 1931.4.11.

된 두 사람의 동성연애가 “이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관심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둘러싸고 발표된 기사와 논설 들이 실제로는 “두 여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387] 예컨대 『별건곤』 제40호(1931.5)에 실린 한 기사는 두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 “동성애 정사”라고 하는 풍문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선 “학교 단일 때 친밀하게 지내든 (…) 사이가 우연한 긔회로부터 더욱 친밀하게 되”[388]었다고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당시 기사와 논설 들은 김용주와 홍옥임의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 모두 “부르주아 계급의 딸이자 식민지 조선에서는 드물게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은 여성들이었”으나, 김용주가 “전통적인 구식 가정”에서 성장했던 반면, 홍옥임은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인 “모던 가정”에서 자랐다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사와 논설 들은 부친의 조혼 강요로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남편과의 애정 없는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라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김용주의 상황에 동정어린 시선을 보낸다.[389] 이에 반해 홍옥임은 학창 시절부터 수많은 동성 애인을 가졌던 여성이며, 동성 간의 관계에서 “관능적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자 R이라는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여성이고, R과의 실연 이후에는 허무주의에 경도되어 결국 불행한 친구와의 동반자살을 선택한 사회적 책임감을 결여한 여성이라는 식으로 비판받는다.[390] 즉 “구식 결혼의 피해자로 표상되는 김용주가 동정과 연민의 자리에 놓인다면, 홍옥임은 (…) 허무주의에 빠져 현모양처의 사회적 역할로부터 도피한 일탈적인 신여성의 전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391]

이러한 차이는 ‘위험한’ 동성연애에 대한 독자의 관음증적 욕망을 이용하는 매체 생산자의 태도가 현모양처 담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동성애가 현모양처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한’ 것으

387)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255-256쪽.
388) 복면아, 「그 여자들은 웨 철도 자살을 하엿나?, 홍·김 양 여자, 영등포 철도 자살 사건 후문」, 『별건곤』 제40호, 1931.5, 19쪽.
389) 박차민정, 앞의 책, 253-255쪽.
390) 복면아, 앞의 책, 19-21쪽.
391) 박차민정, 앞의 책, 255쪽.

로 규정되어, 독자의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소재로 활용되었던 경우와도 기실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성(연)애가 '안전한' 것이든 '위험한' 것이든, 그것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었던 이유의 기저에는 여성을 현모양처로 길러내야 한다는 단일한 '이상'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홍옥임-김용주의 정사 사건과 대조적으로, 그보다 약 7년 앞서 월미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작부"들의 동성 정사 사건[392]은 사회적으로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사실[393]이 이를 뒷받침한다. "작부"들은 현모양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결여된 존재들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죽음으로 귀결된 "작부"들의 '위험한' 동성연애 사례를 반복적으로 화두에 올리는 일이란 동성애의 재현이 가져오리라 기대되는 효과, 즉 '재미'도 '교화'도 꾀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30년대의 몇몇 소설들은 바로 이러한 '재미'와 '교화'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동성 간의 정사를 재현했다. 먼저 박영희의 장편소설 『반려』(『삼천리』, 1936.8~1938.1; 『삼천리문학』, 1938.4; 미완)는 '의자매' 관계에 있는 기생 초련과 도화가 "마치 사랑을 속삭이는 소년과 소녀와 같이 (…) 손을 꼭 붓잡"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초련과 도화는 술을 마시러 바(bar)에 들르는데, 여기에서 바의 마담은 "오늘같이 달 밝은 밤에 동성연애는 좀 살풍경인데"라고 말하며 하하거린다. 이때 도화가 "웨 동성연애는 사랑이 아닌가?"라며 마담을 비꼬자, 마담은 "올치 그래 동성연애도 잘하면 정사까지 한대…… 하긴 동성연애 제물에 산아제한이 되고 편할 거야"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마담의 '농담'에 세 사람은 함께 웃는데, 이 장면은 동성 정사 사건이 '재미'를 꾀하기 위한 서사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394]

다음으로 한인택의 『선풍시대(旋風時代)』(『조선일보』, 1931.11.7~1932.4.23)는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지만, 홍옥임과 김용주의 정사 사건을 명백히 지시하면서, 이러한 "변태적 자살 혹 정사"가 성행하는 것에 분개심을 느끼는 주인공 철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아가 철하는, 언론이 "동

392) 「작부 이명이 정사, 동성연애가 염세증이 되어 월미도 앞에 허리매고 빠져」, 『시대일보』, 1924.5.6.
393) 박차민정, 앞의 책, 252쪽.
394) 박영희, 「반려」, 『삼천리문학』 제2집, 1938.4, 50-51쪽.

성의 정사 [혹은] 동정(同情) 정사"[395]를 "세기말적 인심의 산물로만 돌"려 "시대의 첨단을 지시하는 일종의 「모—던」 행사로만" 보며, 또 정사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일종 흥미 기사를 만드는 감상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뿐이었고, 대중에게 자극을 줄 만한 비판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396] 이러한 장면은 동성 간의 정사를 재현함으로써 세태 비판과 '교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삽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 동성애를 '안전한' 것으로 의미화하든 '위험한' 것으로 의미화하든, 나아가 이를 '재미'를 목적으로 재현하든 '교화'를 목적으로 재현하든, 여성 동성애는 이성애의 준비 단계 내지 이성애로 회귀해야 할 일탈 정도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는 곧 미래와 희망의 기호인 아이를 재생산하기 위해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에게조차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이성애적 생애 각본이 강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리치(Adrienne Rich)의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는 많은 통찰을 제공해준다. 이 글에서 그녀는 남성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 강제적 이성애라는 제도 속에서 무(無)로 취급되어 버리고 마는 레즈비언 존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레즈비언 연속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이때 레즈비언 연속체는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여성들까지 포함하는 개념, 즉 여성으로 동일시하는 여성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397]

이는 여성들이 서로 다른 방식과 정도이긴 하지만, 강제적 이성애라는 제도 속에서 끊임없이 억압을 당해 왔으며, 동시에 그러한 억압에 맞서 함께 저항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데 착안한 개념이다. 리치는 이러한 여성 간의 친밀성의 역사, 그리고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강제적 이성애에 대한 저항의 역사와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강제적 이성애

---

395) '동정 정사'는 홍옥임이 김용주의 불행을 동정해 함께 자살했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당시 이들의 동반자살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어휘 중 하나이다.

396) 한인택, 「선풍시대」, 권영민·이주형·정호웅 편,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제24권, 1988, 315쪽.

397) Adrienne Rich,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Adrienne Rich's Poetry and Prose*, Selected and Edited By Barbara Charlesworth Gelpi & Albert Gelpi, W.W. Norton, 1993, 217쪽.

제도 자체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추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98] 다시 말해, 이처럼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 들이 기실 동일한 정치적 목적 아래에서 연대해 왔고, 나아가 양자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면,[399] 이들을 하나의 연속체로 이해함으로써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역사를 회복함이 온당하다는 것이다.[400]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선 나혜석의 목판화 「저것이 무엇인고」(『신여자』, 1920.4)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나혜석은 당대 남성들이 신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에 따르면, 바이올린을 든 신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은 "앗다 그 기집ᄋᆡ 건방지다 저거를 누가 데려가나"와 "고것 참 입부다 장가나 안 드럿더면……."의 두 유형으로 대별되어 나타난다.[401] 이는 남성들이 결혼을 확고부동한 전제로 상정한 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남성에게 딸린 부속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성적 "선호"와 무관하게, 여성으로 동일시하는 여성이 강제적 이성애라는 제도 속에서 이성애적 생애 각본을 강요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402] 이러한 상황은 나혜석이 「경희」(『여자계』, 1918.3)에서, "경희도 사ᄅᆞᆷ일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져 사ᄅᆞᆷ일다."[403]라고 부르짖게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질서 속에서, 나혜석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작품을 통해 반드시 천명해야 했던 것이다.

나아가 나혜석은 「잡감—K언니에게 여(與)함」(『학지광』, 1917.7)에서, 「저것이 무엇인고」에 등장하는 신여성에 대한 "욕"을 전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남성들이 신여성을 가리켜 "건방지다"고 말할 때, 여성들은 이것에 움츠러들

398) 위의 책, 213쪽 및 217-221쪽.
399) Eve Kosofsky Sedgwick, 앞의 책, 2-3쪽 참고.
400) 리치의 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미선, 「애드리언 리치: 반여성주의에 맞서 다시 읽는 급진 여성주의」, 『여/성이론』 제22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 173-177쪽을 참고할 것.
401) 나혜석, 「저것이 무엇인고」, 『나혜석전집』,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13, 96쪽.
402) Adrienne Rich, 앞의 책, 209쪽; 부언하자면, 리치는 남성에 대한 성적 "선호" 역시 사실상 이성애 제도 속에서 강제된다고 주장한다.
403) 정월, 「경희」, 『여자계』 제2호, 1918.3, 74쪽.

기보다 오히려 더욱 건방져져야 한다는 것이다.

> 나도 욕보다 칭찬이 깃븜을 주는 줄도 알앗쇼마는 욕도 춤된 욕이 잇고 칭송도 거짓된 무가치흔 칭송이 잇난 줄을 알앗쇼, 그러면 금일의 이십세기에셔 사는 자각한 사름에게는 무가치흔 칭찬보다 가치 잇는 욕이 귀ᄒᆞ지 아니ᄒᆞᆯ가 ᄒᆡ요. (…) 여자라는 온랑공겸(溫良恭謙)이라든지 재가(在家)에 부(父)를 좃고 출가의 부(夫)를 좃고 부사(夫死)에 자(子)를 좃츠라는 삼종지도로만 언졔ᄭᆞ지 여자의 전 생명을 삼을가요? (…) 언니 나는 허영이 잇고 욕심이 잇는 자라야 공부도 잘ᄒᆞ고 대사업을 일우는 자라 ᄒᆞ오, (…) 우리는 어셔 남들의 주장ᄒᆞ는 「인격존중이니 사름은 사름답게 이상(理想)의 반분(半分)이라도 실현ᄒᆞ야겟고 ᄯᅩ 사름다운 생활을 ᄒᆡ야겟다」는 것을 바라볼 욕심도 ᄂᆡ야겟고 모방ᄒᆞᆯ 허영심도 만하져야 할 거시 아닐가요? (…) 우리가 욕심을 ᄂᆡ지 아니 ᄒᆞ면 우리 자손들을 무어슬 주어 살니잔 말이오. 우리가 비난을 밧지 아니면 우리의 역사를 무어스로 ᄭᅮᆷ이잔 말이오. 다행이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잇는 욕을 먹는 자(者)이 잇다 ᄒᆞ면 우리는 안심이오 이 여자는 우리의 갈망ᄒᆞ는 사업가라 ᄒᆞ겟쇼 (…) 언니! 어셔 공부ᄒᆡ 가지고 사업합세다.(강조—인용자)[404]

이러한 나혜석의 주장은 여성을 늘 남성 혹은 가정(家庭)과 연결시키는 인식에 대한 반감과, 여성의 본질적인 특성을 미리 가정(假定)하는 인식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르면, 강제적 이성애 제도에 안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아가 여성성의 '본질'을 체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이 비난을 들을 경우, 여성들은 이를 "사업"을 이룩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역사", 즉 여성들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을 강제적 이성애 제도의 바깥에서 사유하려는 태도는 「이상적 부인」(『학지광』, 1914.12)에서 여성에 대한 참된 교육이란 현모양처 교육과 같이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개성을 발휘코저 허는 자각을 가진 부인"[405]을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역설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

404) CW, 「잡감—K언니에게 여함」, 『학지광』 제13호, 1917.7, 66-68쪽.
405) 나혜석, 「이상적 부인」, 『학지광』 제3호, 1914.12, 13-14쪽.

이처럼 강제적 이성애 제도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역사”를 쓰는 작업은 나혜석의 저술 전반을 꿰뚫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쓰는 작업에는 반드시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요구되었다. 본고는 리치의 논의를 빌려, 이러한 여성들의 연대를 레즈비언 연속체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다룬 서사들이 문학장에 드러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여성들의 연대와 관련해, 나혜석의 「잡감」(『학지광』, 1917.7)은 주목을 요한다. 이 글에는 주변인으로서의 여성들 사이에 공유됨으로써 연대감의 형성을 가능케 했던 ‘동정(同情)’이라는 감정이 부조되어 있다.

> 너 잘 가는 거시 내게도 영광이오, 나는 못 가더라도 너만 무사히 도착되어도 죠타. 허나 너머 다름질 말고 잇다금 뒤 좀 돌아보아주오. 올나가지 못홀 곳에는 손목도 좀 쓸어주어야겟소. 다리가 압하 주저안질 씩에 가야만 홀 이유를 설명히 주어야겟소. 밋건듸 먼져 밟으시는 언니들이어! 둑둑듸듸어서 쑤려시 발자최를 내어주시오. 좀체름ᄒᆞ게 또 눈이 오더라도 그 발자국의 윤곽이나 남아 잇도록. 쌀려 잇는 백설 우흐로도 만곡요철(彎曲凹凸)이 보이건마는 그 속에 뭇쳐 잇는 탄탄대로는 보이지 안는구려. 다행히 누가 먼저 밟아 노흔 발자국을 쌀라 길을 찻게 되엇소마는 그 사ᄅᆞᆷ도 몃 군대 햇듸딘 자국이 잇는 거슬 보니 이 두터운 눈을 한번 밟기도 발이 시리거든 그 사ᄅᆞᆷ은 길을 찻노라고 방황ᄒᆞ기에 어름도 밟게 되고 구렁이에도 빠지게 되엇스니 아마도 그 사ᄅᆞᆷ의 발은 썽썽 얼엇슬 것 ᄀᆞᆺ소. 동동 굴느며 울지나 아니ᄒᆞ엿는지 몹시 동정이 납데다.(강조—인용자)[406]

위의 인용은 조선 여성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일종의 여성들의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후에 이어지는 서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의 여성들의 연대는 동질적인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여성’의 연대라기보다, “그 발자국을 싸라 반(半)쯤 올라가니 그 사ᄅᆞᆷ의 간 길과 나 가고 십흔 길이 다”[407]른, 이질적이고 개별적인 ‘여성들’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용문은 여성들의 연대를 향한 “동정”이라는 정동적 기반을

406) 정월, 「잡감」, 『학지광』 제12호, 1917.4, 55쪽.
407) 위의 책, 같은 쪽.

몸의 감각과 연결시키고 있기도 하다. 정동이 몸들의 마주침에서 혹은 그 마주침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동하고(affect) 정동되는(affected) 몸의 역량"[408]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동은 결국 몸들이 이 세계에 함께 속해 있음으로 인해 부단히 산출되는 종류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동은 늘 어떤 존재들과 함께-있음의 상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잡감」에서 나혜석은 다른 여성들의 아픈 몸에 의해 정동되고, 그러한 슬픔과 '동정'이라는 정동 속에서 그들과의 연대를 구축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한편 이러한 몸의 감각은 「경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 예컨대 경희는 자신이 배운 근대적 학문을 활용해 자각적·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 다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넙적 다리에는 살이 썻고 팔둑은 굴다"고 느낀다. 이렇게 튼튼한 몸을 움직여 활동할 때 경희는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희의 아버지가 경희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인을 결정하고 이를 강권했을 때, 경희는 "몸에 ᄆᆡ달닌 두 팔이며 느러진 두 다리가 밧짝 가ᄉᆞᆷ 속으로 ᄇᆡ속으로 옥으라드러", 자신이 "마치 어느 작난감 상점에 노은 ᄃᆡ가리와 몸ᄃᆡᆼ이ᄉᆞᆫ인 작난감"으로 화(化)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409] 이는 나혜석이 작사한 「인형의 가(家)」(『매일신보』, 1921.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희가 아버지의 딸이자 남편의 아내로만 규정됨으로써, 결국 주체적 삶이 불가능하게 된 "인형"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혜석에게는 "나를 사람으로 ᄆᆡᆫ드는 / 사명의 길로 밟아셔 / 사람이 되고져" 하는 "신성ᄒᆞᆫ 의무"가 있고,[410] 마찬가지로 경희 역시 인형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으로의 길을 택한 경희는 자신의 키가 엿 늘어지듯이 부쩍 커지는 기분, 눈이 얼굴 전체를 뒤덮을 것처럼 커지고 밝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이는 나혜석이 여성 해방 및 그것을 향한 의지를 몸의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의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몸의 '할 수 없음'의 상태는 기실 동정이

408) 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창안]」,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정동 이론』, 16쪽.
409) 정월, 「경희」, 70-71쪽.
410) 나혜석, 「인형의 가」, 『매일신보』, 1921.4.3.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바, 나혜석에게 있어 동정은 여성들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었다.

이는 '퀴어 서사 시대' 속에서 남성들만 감정-공동체를 구축했던 것이 아니라, 여성들 역시 또 다른 한편에서 그녀들만의 감정-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 주목되는 텍스트로, 나혜석의 「대구에 갓든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동아일보』, 1920.6.12~22)를 꼽을 수 있다. 나혜석과 김마리아는 동경 유학 시절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에서 처음 만나 "같은 기독교인이자 여성으로서 유대감을 형성"한 사이였다.[411]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우 관계를 넘어, 여성해방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동지적 관계였음을 의미한다. 나혜석은 이 텍스트에서,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김마리아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여성해방운동 동지인 황에스터 등을 만난 일화를 전한다. 이때 나혜석은 간수가 황에스터 등을 몰인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정과 친절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감정"[412]인데, (일제의) 감옥에는 그러한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몸의 '할 수 없음'과 직결되는 감옥의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모습을 "동정"과 연결시키는 나혜석의 서술은 결국 정동적 기반으로서의 동정을 통한 여성들의 감정-공동체 구축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희」의 서술자가 수남 어머니의 "셜음의 원인을 알고 보면 누구라도 동정을 아니 할 수 없다"[413]와 같이, 독자들의 "동정"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나혜석이 여성들의 감정-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공동체가 "동정"이라는 정동적 기반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때,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이란 기실 여성 독자들을 그 감정-공동체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으로 읽힌다. 즉 「경희」에 구현된, 여성해방을 향한 나혜석의 기획은 단순히 작품 내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걺으로써 작품 외적인 실천의 영

411) 전병무, 「신자료 「김마리아방문기」를 통해 본 나혜석의 삶」, 『나혜석연구』 제7집, 나혜석학회, 2015, 99-100쪽.
412) 삼일월, 「대구에 갓든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제3신 (2)」, 『동아일보』, 1920.6.19.
413) 정월, 「경희」, 65쪽.

역으로까지 나아가려 했던 것이다. 이는 나혜석이 「인형의 가」에서, “사랑ᄒᆞ는 소녀들”이 자신을 본(本)으로 삼아, 여성해방을 향한 감정-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던 대목과도 공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들의 감정-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나혜석의 기획에서 서간체 텍스트가 매우 긴요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술했던 「잡감」, 「잡감—K언니에게 여함」, 「대구에 갓든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 등은 모두 서간체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비단 나혜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일례로 이소아는 「나는 이러한 이성을 요구합니다」(『부인』, 1922.10)에서, 자신은 “지극히 외로운 사람이며 가려한 녀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눌 “동무”를 갖지 못한바, “아지도 못하는 언니에게” ‘편지’를 띄워 보낸다고 말한다.[414] 이 편지의 내용이란 ‘순결’이 오직 여성에게만 할당된 불평등한 구속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소아의 글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편지’를 띄움으로써, 여성해방을 향한 의지를 추동하려는 감정-공동체의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소아는 『부인』에 발표한 산문들에서 여성들의 연대를 구축해야 함을 수차례 역설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우리들 처녀의 속 타는 심정」(1923.2)에서, “조선 또는 조선 사람의 번민”을 묻는 설문조차 여성들의 번민을 다루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혁명이 과연 공동의 전환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415] 또한 「현대의 녀자 아닌 사람에게 전하노라」(1923.6)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욕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여성에게만 정조라는 굴레를 씌우는 사회 질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416] 물론 이 서간체 텍스트들은 남성을 향해 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술한 맥락과 일견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부인』이라는 ‘여성잡지’에 실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이소아의 글들은 표면적으로 이 잡

414) 리소아, 「나는 이러한 이성을 요구합니다」, 『부인』 제1권 제5호, 1922.10, 18쪽.

415) 리소아, 「우리들 처녀의 속 타는 심정」, 『부인』 제2권 제2호, 1923.2, 39-40쪽; 특히 이 글에서 이소아는 여성들의 번민이라고 모두 한결같지는 않으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여성해방을 위한 감정-공동체가 이질적인 ‘여성들’의 연대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416) 이남외인, 「현대의 녀자 아닌 사람에게 전하노라」, 『부인』 제2권 제6호, 1923.6, 7-13쪽.

지를 읽을 남성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기실 여성 독자들이 평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남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상징적인 층위에서 저자와 독자를 동일한 발화 주체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며, 이러한 일치에는 또한 저자와 독자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공감'(동정)이 전제되어 있었다.

요컨대 서간체 형식이 남성들의 퀴어한 감정-공동체를 형성·발전시켰던 것과 같이, 여성들 역시 서간체 텍스트를 이용해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이후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 본격적으로 문학장에 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이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설주(雪舟)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구우(舊友)를 생각하면서」(『여자계』, 1921.1)이다. 이 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언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의 기관지인 『여자계』 제6호에 실렸다. 제6호의 권두언 격인 이양선의 서간체 텍스트 「새로 오신 여러 형님에게」는 이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이 글에서 이양선은 부모 몰래 일본 유학길에 오른 "형님들"을 생각하면 "동정의 눈물"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가정에 매여 학대당하는 조선 여성들을 그 속박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우리"가 교학상장(教學相長)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함을 역설했다.[417]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아래의 시는, 바로 이러한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들의 감정-공동체 속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한다.

> 언니여! 내 언니여 / 별 보고 갓한 늣김 / 달 바라고 갓한 생각 / 누구라서 추측하리 / 맑히 흐르는 내물가에서 / 향긔 나는 꽃그림자 아래 / 갓한 우숨 한소래로 / 즐거움에 취한 꿈을 // 언니여! 내 언니여 / 오! 사나운 그 바람에 / 위력을 못 익이여 / 깨치고만 우리 2인 / 언제든지 그리울 뿐인가 / 도라왓소 도라왓서 / 그 어느 해 그때가 다시 / 엇던 씩는 만흔 말과 / 엇던 때는 침묵으로 / 꼭 붓잡은 우리 두 손 / 끌는 피가 연결되야 / 모흘 줄을 몰낫섯지 // 언니여! 내 언니여 / 봄이 오면은 꽃방석에 /

417) 이양선, 「새로 오신 여러 형님에게」, 『여자계』 제6호, 1921.1, 1-3쪽.

가을이면 처량한 단풍 / 우리는 더욱히 그리워서 / 남모르는 번민 고통으로 / 생밤을 샌 것 그 몇 번이며 / 두 눈에 맺츤 맑근 진주는 / 붉글 양(兩) 쌤을 지나 / 어대로 간는고? // 아! 언니여 내 언니여 / 서산에 걸인 힘 업는 태양은 / 벽해와 은근이 접문(接吻)을 한다 / 서산에 목동은 목가을 부르며 / 황혼을 등지고 가는 그 모양 / 아!!! 이때에 나는 더욱히 / 언니을 생각해![418]

한편 이처럼 1910~1920년대에 구축된 여성들의 감정-공동체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로 문학장의 한 실체로 등장하게 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강경애, 노천명, 모윤숙, 이선희, 장덕조, 최정희 등의 활약과 함께 여성 작가들의 문학이 '여류문단'이라 불릴 만큼 뚜렷한 집단적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물론 흔히 '제2기 여성 작가'로 지칭되는 '여류문단'의 구성원들은 김명순·김일엽·나혜석 등 '제1기 여성 작가'와의 반동일시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 나갔다.[419] 그러나 최정희가 곤경에 처한 나혜석에게 『삼천리』의 지면을 내주었다는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420] '제2기 여성 작가'들과 '제1기 여성 작가'들 사이에는 공감·연민·동정 등을 기반으로 한 모종의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즉 남성 평론가에 의해 고안된 제1기와 제2기라는 투박한 구분법을 넘어,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문학장에 깊은 영향을 끼친 여성들의 감정-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맥과 지면을 바탕으로 여러 여성 작가들을 문단으로 이끌었던 최정희는 1930년대 초반에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학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남성본위의 사회에서 자유평등을 맘으로만 웨치는 우리 여성들을 위하야 싸워 보겟다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하겟다. 그 수단 방법으로서는 이 몸이 기자인 만큼 직접 관계하는 언론기관을 이용하야 본래의 동무를 증대시키고 힘 잇는 데까지는 내가 청산이 잇는 만큼 좌우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418) 설주, 「구우를 생각하면서」, 위의 책, 40쪽.
419)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상허학보』 제13집, 상허학회, 2004, 301쪽.
420) 손유경, 「'여류'의 교류—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7, 389쪽.

잇는 기관까지도 청산이 잇을 것을 용감(?)히 선언하는 바이다. /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여성들이 목적의식을 가진 문인이 단 몇 사람이라도 잇어서 여인문예가크럽을 결성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선성(先聲)라고 할 수 잇는 김명순, 김일엽 씨 등이 잇엇다고 할지라도 현금에 잇어서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건대—찬성할 수 없는 공적과 결과를 지엇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이해부터 여류문인이 점차적으로 진출하야 한 조직체 밑에서 진정한 여성을 위한 기관지라도 발행햇으면 한다.[421]

이 글에서 최정희는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여성전용 문학 공동체 즉 '여인문예가크럽'을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여성을 위한 기관지"를 발행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정희는 기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문단 진출을 꿈꾸는 여성들을 힘닿는 데까지 도우리라 선언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기획이 현실화되지는 못했으나, 최정희가 보여준 여성전용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이를 향한 노력은 많은 여성 작가들이 문단에 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최정희는 재능 있는 벗들에게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자신이 관여하는 잡지의 지면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자를 설득했으며, 중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으로 애썼"던 것이다.[422]

손유경은 이러한 여성 작가들 사이의 교류가 "물적 기반인 매체를 전유하여 문단의 체질 자체를 탈구축"하는 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최정희와 지하련 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작품이 아내-남편-애인의 삼각구도 속에서 남편의 행위성(agency)을 박탈하고, 이를 여성들 사이의 문제로 치환해 여성에게 갈등 해결의 주도권을 쥐어 주는 "자매의 서사"라고 주장한다.[423] 다시 말해, 최정희와 지하련이 써내려간 "자매의 서사"는, 여성이 가부장제적 권력 구도 속에서 행위성을 상실하고 언제나 남성의 부속물로서만 그 존재 가치를 획득하게끔 하는 강제적 이성애 제도 자체를 심문한다는 것이다. 제2절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손유경이 "자매의 서사"의 일례로 제시하는 최정희의 「질투」(『신여성』, 1934.1)나 지하련의 「가을」(『조광』, 1941.1)

421) 최정희, 「신흥 여성의 기관지 발행」, 『동광』 제29호, 1931.12, 72쪽.
422) 손유경, 앞의 책, 392쪽.
423) 위의 책, 387쪽 및 408쪽.

등은 두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삼각구도를 통해 여성의 행위성을 복원하는 서사일뿐더러, 그 이면에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는 최정희를 중심으로 구축된 1930~1940년대 여성들의 문학 공동체가,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서사를 문학장에 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정희와 지하련 사이에 오간 편지들에서 발견되는 감정들은 예의 공동체 자체가 퀴어한 감정들을 토대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하련이 최정희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최정희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지하련이 과거 자신과 최정희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편지의 주조(主調)를 이루는 분노와 슬픔이 착종된 감정을 다소 걷어내고, 과거 지하련이 최정희에게 느꼈던 감정과 이로 인해 여전히 남아 있는 미련의 감정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정히야, 나는 이제 너를 떠나는 슬픔을, 너를 이즐 수 없어 얼마든지 참으려구 한다. 하지만 정히야, 이건 언제라도 조타! 네가 백발일 때도 좋고, 래일이래도 조타! 만일 네 ‘마음’이—흐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네 별보다도 더 또렷하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네 아름다운 마음이 행여 나를 찾거든 혹시 그러한 날이 오거든, 너는 부듸 내게로 와다고! 나는 진정 네가 조타! 웬일인지 모루겟다. 네 적은 입이 조코, 목들미가 조코, 볼다구니도 조타! / 나는 이후 남은 세월을 정히야 너를 위해, 네가 닷시 오기 위해 저 야공(夜空)에 별을 바라보듯 잠잠이 사러가련다…… 운운하는 어리석은 수작이엇스나, 나는 이것을 당신께 보내지 않엇습니다. (…) 그러나, 내 고향은 역시 어리석엇든지 내가 글을 쓰겠다면 무척 좋아하든 당신이—우리 글을 쓰고 서로 즐기고, 언제까지나 떠나지 말자고 어린애처름 속삭이든 기억이, 내 마음을 오래두룩 언잖게 하는 것을 엇지할 수가 없엇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을 위해—아니 당신이 글을 썻스면 좋겟다구 해서 쓰기로 헌 셈이니까요(강조—인용자)[424]

여기에서 지하련은 최정희가 자신에게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424) 지하련, 「편지—육필서한 1」, 『지하련전집』, 245-246쪽.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소설을 쓰며 즐기던 시절을 안타까이 떠올린다. 이는 최정희가 많은 여성 작가들을 문단으로 이끌었던 정황과 겹쳐지면서, 지하련과 최정희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여성들의 문학 공동체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정희가 지하련을 이 공동체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했으리라 판단된다. 양자 간의 친밀성이 미리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지하련이 글을 쓰겠다고 할 때 최정희가 무척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기실 지하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설을 쓰리라는 지하련의 선택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왠지 모르게 최정희가 그저 좋다는 감정, 그녀의 아름다운 입과 목덜미와 볼이 좋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정희가 만약 '또렷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시 자신을 찾는다면, 자신은 언제까지고 이를 기다릴 수 있으리라 말하는 지하련의 말 역시 주목에 값한다. 이는 최정희를 향한 지하련의 '미련'이 얼마나 커다란지, 그리고 이토록 커다란 미련을 남길 만큼 최정희에 대한 과거 지하련의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지하련과 최정희 사이의 감정은 여성해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1930년대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들의 공동체가 (부분적으로) 거의 '사랑'에 육박하는 퀴어한 감정에 의해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정희와 지하련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더 나아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발표된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이야기는, 이러한 페미니즘 공동체와의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산출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욕망하는 소녀와 퀴어 서사

이 절에서는 여성들 사이의 감정-공동체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간,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다룬 서사들을 살펴본다. 본고는 그 출발점으로 『무정』에 나타난 영채-월화의 관계와, 영채-병욱의 관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무정』에는 입술을 빨거나 젖꼭지를 깨무는 등의 신체 접촉을 동반한, 영채와 월화 사이의 퀴어한 관계가 등장한다.

> ㉠ 영채도 이제는 남자가 그리운 생각이 나게 되었다. 못 보던 남자를 대할 때에는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밤에 혼자 자리에 누워 잘 때에는 품어 줄 누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게 되었다. 한번은 영채와 월화가 연회에서 늦게 돌아와 한자리에서 잘 때에 영채가 자면서 월화를 꼭 껴안으며 월화의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월화는 혼자 웃으며 '아아, 너도 깨었구나—네 앞에 설움과 고생이 있겠구나' 하고 영채를 깨워 / "영채야, 네가 지금 나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더구나" 하였다. 영채는 부끄러운 듯이 낯을 월화의 가슴에 비비고 월화의 하얀 젖꼭지를 물며, "형님이니 그렇지" 하였다. 이만큼 영채도 철이 났으므로 월화의 눈물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으리라 하였다.(32회, 강조—인용자)[425]

> ㉡ "평양 성내 오륙십 명 기생 중에 나밖에 깬 사람이 누구냐. 모두 다 사람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중에 나밖에 깬 사람이 누구냐. 나는 외롭구나, 슬프구나, 내 정회를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하고 영채의 등에 이마를 비비며 영채의 허리를 끊어져라 하고 쓸어안는다. (…) 이런 말을 하고 그날 밤도 둘이서 한자리에 잤다. 둘은 얼굴을 마주 대고 서로 꼭 안았다. 그러나 나어린 영채는 어느덧 잠이 들었다. 월화는 숨소리 편안하게 잠이 든 영채의 얼굴을 이윽히 보고 있다가 힘껏 영채의 입술을 빨았다. 영채는 잠이 깨지 아니한 채로 고운 팔로 월화의 목을 꼭 쓸어안았다. 월화의 몸은 벌벌 떨린다. 월화는 가만히 일어나 장문을 열고 서랍에서 자기의 옥지환을 내어 자는 영채의 손에 끼우고 또 영채를 꼭 껴안았다.(34회, 강조—인용자)[426]

---

425) 이광수, 『무정』, 128쪽.

이광수가 『무정』에서 남성과 남성 사이의 육체적 쾌락을 죄악시하고, 형식과 희경의 관계처럼 '정신적 동성애'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관계만을 특권화했음을 상기한다면, 영채와 월화 사이의 이러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다소 놀랍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용문 ㉠에서 보듯이, 이광수는 영채와 월화 사이의 퀴어한 욕망을 이성애의 굴절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 역시 부조리한 세상에 환멸을 느낀 월화가 자살을 선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신체 접촉이 쾌락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게끔 잘 봉합되어 있는 대목에 해당한다. 특히 월화의 자살 직후에 등장하는, "영채가 형식을 일생의 짝으로 알고 칠년 동안 굳은 절을 지켜온 것도 월화의 힘이 반이나 되었다"[427]라는 서술은, 이광수에게 있어 이러한 여성 간의 신체 접촉이 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 너무나도 주변화된 결과, 인식의 층위 안으로 기입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정』이 영채의 '순결'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가 진행됨을 상기한다면,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가 그에게 얼마나 탈성화된 것으로 이해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한편 『무정』에는 영채와 병욱 사이의 동성 간 친밀성도 등장한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에는 작품 초반 형식-선형 사이에서도 등장했던 '입김' 모티프 등이 개입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무정』은 형식이 선형에게 영어를 가르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때 "순결한 청년"인 형식은 선형과 책상을 가운데에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혹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입김을 후 내불어 본다." 그런데 형식은 이윽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반성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라고 자문한다.[428] 이는 입김 모티프가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성적 욕망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반면 동성 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입김 모티프가 전혀 성애적이지 않은 것으로 표현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영채와 병욱의 첫 만남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 학감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평양으로 향하던 영

426) 위의 책, 136쪽.
427) 위의 책, 137쪽.
428) 위의 책, 11쪽.

채는 우연히 기차에서 병욱을 만나게 된다. 병욱은 영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눈에 혹시 석탄가루가 들어갔냐며 영채의 눈을 수건으로 씻어준다. 이러한 두 사람의 첫 만남 장면에, 이광수는 병욱의 "따뜻한 입김이 무슨 냄새가 있는 듯하면서도 향기롭게" 영채의 "입과 코에 닿는" 장면을 삽입해 놓았다.[429] 나아가 이는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이어진다.

> 부인[병욱—인용자]은 (…) "에그. 남들이 없었으면 혓바닥으로 핥았으면 좋으련만" 하더니 (…) 수건에 묻은 석탄가루를 영채에게 보인다. (…) 부인은 걸상에서 일어나 영채의 겨드랑에 손을 넣어 일으키며 / "자, 세면소에 가서 세수를 하셔요" 하고 앞서 간다. (…) 한 손으로 영채의 허리를 안는 듯이 영채의 몸을 자기의 몸에 기대게 하고 / "자 비누로 활활 씻읍시오" 하고 물끄러미 영채의 반질반질한 머리와 꽃 비녀와 하얀 목과 등을 보며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다가 이따금 영채의 어깨를 가린 수건도 바로잡아주고 귀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도 걷어 올려 준다. (…) 그 부인은 영채를 동생같이 생각하였다. (…) 그러고 석탄 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울던 것을 생각하고 '어리다. 사랑스럽다' 하였다. / 영채는 슬프던 중에도 그 부인의 다정한 것을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면서 잘 세수를 하였다. 자기의 등에 그 부인의 손이 얹힌 것을 감각할 때에 월화에게 안기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부인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나 월화와 비슷하다 하였다. (…) 부인은 어머니가 딸을 보는 듯한 눈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영채를 보더니 팔로 영채의 허리를 안으며 / "자, 갑시다. 가서 점심이나 먹읍시다." [하였다.](87회, 강조—인용자)[430]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영채와 병욱의 첫 만남에는 허리를 안는 장면을 비롯해 다양한 신체 접촉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이때 영채는 병욱이 마치 월화처럼 느껴진다면서, "월화에게 안기던 것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광수는 꽤 직접적으로 영채-월화와 영책-병욱이 유사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영채-월화의 관계가 성애적 관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채-병욱의 관계 역시 성애적이지 않은 관계로만 표현된다. 첫 만남

429) 위의 책, 331쪽.
430) 위의 책, 331-333쪽.

이후 허리를 쓸어안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들, 즉 이광수가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동원했던 신체 접촉들이 영채와 병욱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431] 『무정』에서 이 관계는 철저하게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들 정도로만 그려질 뿐인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 사이에 확실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한다.[432]

주목할 것은 영채와 병욱의 첫 만남 장면에, "맞은편에서 책을 보고 앉았

---

431) 위의 책, 336, 400-401, 447쪽 등 참고.

432) 특히 이러한 사항은 '짝과부'와도 관련된다. 짝과부란 과부들끼리 살림을 합쳐 서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으로,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동성애 담론의 수용·정착 이후, 이러한 짝과부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결합으로 재의미화되었다. 예컨대 개성 지역의 과부들에 대한 1920년대 기사들은, "과부 중에는 동성상애(同性想愛)하는 소위 짝과부가 잇서 호상부의(互相扶依)하고 호상구조(互相救助)하야 남녀의 부부와 가티 생활하는 사(事)가 잇다"거나, "과부들 간에는 소위 짝과부가 잇서서 부부와 가티 모혀(이것이 소위 동성해라할지—원문 그대로) 돈 취리(取利)도 하고 밧침술장사 기름장사를 한다"는 식의 풍습을 전하고 있다.(특파원, 「등하불명의 근기 정형」, 『개벽』 제47호, 1924.5, 80쪽; 「팔도여자 살님사리 평판기」, 『별건곤』 제16·17호, 1928.2, 132-133쪽.) 이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짝과부를 동성상애 혹은 동성애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일 뿐 아니라,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짝과부는 레즈비언 연속체를 현현하는 관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애영의 「사우가」(『은촌내방가사집, 1971)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존재한다. "초년과수 최봉란댁 그의단짝 박용애댁 / 나이보다 젊은단장 아니늙어 보이나니 / 황혼기에 남은기운 어디소비 한단말가 / 과부사정 과부알아 그네들은 동성연애 / 하로라도 아니보면 못살겠단 그이들은 / 불노초를 먹었는가 늙지않는 열정가라". 이 가사는 1960년대에 짝과부가 동성연애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고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학에 재현된 이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기실 한국에도 퀴어 서사가 존재함을 증명해 준다는 점이다.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910~1940년대 서사에서 이러한 짝과부 문화가 단편적으로나마 재현된 작품으로는 박이양의 번안소설 「명월정」(유일서관, 1912)과 방정환의 「유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김교제의 「경중화(鏡中花)」(보문관, 1923) 역시 한 남성과 결혼했던 두 여성이 각자의 이유로 시집에서 쫓겨난 뒤, 동경에서 우연히 만나 동병상련의 감정(동정)을 기반으로 자매의 의를 맺는 장면이 등장한다. 각각 미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도움으로 지식인이 된 이들은 "남자의 로예"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독신을 유지하며 "평싱을 셔로 써나지 말고 (…) 녀ᄌᆞ사회의 큰 ᄉᆞ업"을 하자고 결의한다.(김교제, 『경중화』, 보문관, 1923, 34쪽 및 49쪽.) 이후 조선으로 돌아온 두 여성은 한집에서 함께 살뿐더러,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개과천선한 전 남편과 재회한 후에도 그와의 재혼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권보드래, 「신소설의 여성성과 광기의 수사학」, 『한국문학연구』 제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4, 307쪽 참조.)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이성애적 생애 각본, 즉 강제적 이성애를 거부하는 두 여성의 관계는 짝과부 혹은 보스턴 결혼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30년대에 오랫동안 독수공방하던 두 여성이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록이 존재하기도 한다.(「동성의 신랑신부의 결혼식」, 『여인』 제1호, 1932.6, 41쪽.)

던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의 모양을 우두커니 보고 앉았더니 다시 책을 본다"[433]와 같은 불필요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구절은 영채와 병욱이 몸을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을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1920년대 이후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 남성의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안전한' 소재로 소비되었던 정황과 맞닿아 있다. 즉 여성들끼리의 친근한 신체 접촉은 성애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성애적이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안전하게' 구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성애 담론의 수용·정착 및 에로·그로·넌센스 유행과 더불어, 매체들은 바로 이러한 남성들의 관음증적 욕망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했다. 그리하여 전술했듯이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는 (주로) 남성작가들에 의해 흥미본위로 '착취'되었다. 예를 들어,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동아일보』, 1923.8.27~1924.2.5)[434], 『이심(二心)』(『매일신보』, 1928.10.22~1929.4.24)[435], 『황원행(荒原行)』(『동아일보』, 1929.6.8~10.21) 연재분[436],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동아일보』, 1932.11.5~1933.6.12; 남창서관, 1947)[437], 심훈의 『영원의 미소』(『중앙

433) 이광수, 앞의 책, 332쪽.

434) "스므 살 전후까지는 가튼 긔숙사에 잇는 어떤 동모나 자긔보다 상급에 잇는 학생들하고 형님 아오님 하며 이만한 나ㅅ세의 처녀에게 흔히 잇는 지향할 수 업시 애처럽고 「쎈틔맨탤」한 정서(情緖)를 북돗아 왓다 그러나 먹는 나희와 가치 부푸러 오르는 정렬은 동성간의 단조한 사랑으로만은 만족될 수 업섯다 이십 전후 된 처녀의 피ㅅ속에 피어오르는 생명력(生命力)은 이성(異性)에게 대한 렬렬한 동경(憧憬)으로 변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동경의 정렬이 눌리면 눌릴사록 이성을 쑴꾸고 그리우는 힘은 아모리 굿세인 절제라도 깨트리고야 말 것이다"(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68)」, 『동아일보』, 1923.11.3.)

435) 이 소설에서 "혜숙이와 정애는 동성연애 비슷이 의(義)형제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같은 장면에서 혜숙이 "은근히 마음에 두었던 남자"인 창호와 춘경의 사이를 질투한다는 점,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의 중반부에 다시 등장한 혜숙과 정애의 관계가 더 이상 "동성연애"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염상섭이 ① 혜숙-정애의 "동성연애"를 매우 단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② 여성들 간의 퀴어한 관계를 성인이 되면 곧 사라질 사춘기 시절의 일탈 정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염상섭, 『염상섭전집 3: 이심』, 민음사, 1987, 54쪽.)

436) "봉텬만 가면 부령사로 잇는 강장숙의 작은집이 보호해 줄 터이니까 념려는 족음도 업습니다 (…) 이 녀자는 그전 제가 서울서 XX녀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닐 때에 부끄러운 말슴입니다마는 동성련애를 하든 아우니까 어떤 수단을 쓰든지 몸을 우선 감출 수는 잇습니다"(염상섭, 「황원행 (66)」, 『동아일보』, 1929.8.13.)

437) "「왜 또 애희 씨 생각이 나십니까」 / 「작구만 나서 큰일낫서요 애희 생각하는 병이 들렷나 봐요」 / 「너머 그러면 신경쇠약이 되십니다 주의하십시요」 / 「그러지 안허도 신경쇠약이 생겻는데요 밤에 잠이 아니 오고 음식 소화가 안 되고요」 / 「그럼 안 됩니다. 동성

일보』, 1933.7.10~1934.1.10)[438] 및 『직녀성』(『조선중앙일보』, 1934.3.24~1935.2.26)[439], 최승일의 희곡 「이국에 사랑」(『삼천리』, 1934.11)[440], 이효석의 「수난」(『중앙』, 1934.12)[441], 김동인의 「김연실전」(『문장』, 1939.3)[442], 박계주의 『진리의 밤』(『경향신문』, 1948.10.1~1949.4.23)[443] 등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대체

련애를 하셧습니다그려」 / 「동성련애라고 이름을 부칠 수도 잇겟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케 야튼 사랑이 우니[원문 그대로]엿답니다. 서로 기피기피 리해하고 생명을 걸어 노코 사랑하엿답니다 아마 영철 씨도 그러케까지는 애희를 사랑하지 못하엿슬 것입니다 지금도 영철 씨가 애희를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신 더 할걸이요」 (…) 「상웅은 그들의 열렬한 우정(友情)이 아름답고 찬란한 무지개가 되여 눈앞에 뵈이는 것 가텃다」"(방인근, 「마도의 향불 (79)」, 『동아일보』, 1933.3.1; 원문에는 79회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0회에 해당한다.)

438) ""그러니 두말 말고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잔 말야. 우리 어머니 눈에만 들면 동경까지 같이 간대도 학비쯤은 걱정 없어. 그렇게만 되면 어머니도 퍽 든든하게 여기실 걸." / (…) / "아이 갑갑해 똑 죽겠네. 우리 집이 조용허구 방두 넓으니까 와 있고 싶다는 동무들은 많어. 그렇지만 다른 애들은 내 맘에 맞지를 않으니까 계숙이하고만 어떻게든지 해서 동경까지 가고야 말 테야." / 하고 소녀끼리 동성애나 하는 듯한 태도로 오늘 저녁에는 유난히 붙임성이 있게 군다."(심훈, 『심훈전집 3: 영원의 미소』, 글누림출판사, 2016, 131-132쪽.); 이 대목은 경자가 사촌오빠인 경호의 사주로 계숙을 유인하는 장면이다.

439) "봉희에게 막연하나마 연애의 개념(槪念)을 넣어준 것은 현해탄을 건너서 오는 여러 가지 부인잡지와 신문에 나는 통속소설과 요새 와서 세우 다니며 보게 된 이른바 '에로'미가 농후한 미국 영화였다. 몇 해 전에 어느 나이 더 먹은 동무와 소꿉장난하듯 동성연애를 하는 흉내를 내느라고 서로 찾아다니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고 편지를 써서 날마다 만나면서도 책갈피에 끼워서 주고받기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차츰차츰 나이가 차가면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말짱 연애 타령이요 애욕 묘사 투성인 소설과 영화였다. 판매 정책만 위주로 하는 천박한 신문 잡지는 수많은 처녀들로 하여금 나이가 들기도 전부터 달콤한 남녀관계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려내고. (…) 육체가 제대로 발육이 되기 전부터 성적 자극을 주사침 놓듯 한다."(심훈, 『심훈전집 4: 직녀성 (상)』, 글누림출판사, 2016, 379-380쪽.)

440) 자신과 혜숙의 관계를 질투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아니야. 여보 혜숙이 알기도 당신 때믄에 알엇지 무어요. 언니니 동생이니 하고 동성련애(同性戀愛)니 이성련애(異性戀愛)니 하는 바람에 알엇지 무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세한 정황이 드러나진 않지만, 혜숙과 '여성'이 S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후 '여성'과 '남성'이 사귀게 되자, '남성'과 혜숙 역시 서로 안면을 트게 된 것으로 보인다.(최승일, 「이국에 사랑」, 『삼천리』 제6권 제11호, 1934.11, 162-163쪽.)

441) "그[유라—인용자]의 장서[長書]는 나에게는 한 깃붐이엿다. 안해에게도 가튼 정도의 애정을 난우어 엇던 때에는 동성애적 열정이 서면에 넘처 잇슴을 발견할 수 잇섯다."(이효석, 「수난」, 『중앙』 제2권 제12호, 1934.12, 133쪽.)

442) "「언니. 아까 그 회장 이름이 뭐유」 / (…) / 「송안나. 웨?」 / 「이름두 야릇두 해라. 어느 학교에 다니우?」 / 「사범학교에」 / 「어딧사람이구?」 / 「아마 강서(江西)인가 함종(咸從)인가 그 근첫사람이지」 / 「몇 살이나 났수?」 / 「웨 이리 끈끈이 묻나? 동성연애 할라나베」 / 연애라는 말은 인전 짐작은 가지만 「연애」 위에 무슨 말이 더 붙었으므로 뜻을 똑똑이 못 알아들은 연실이는 눈치로 보아 조롱받은 것 같아서 / 「언니두」 / 한 뒤에 말을 끊어 버렸다."(김동인, 「김연실전」, 『문장』 제1권 제2호, 1939.3, 23-24쪽.)

443) "선생으로부터 귀염을 받는 것에 지지 않게 동무들도 서로 자기 짝(이것을 동성연애라

로 단편적인 차원에서 여성들의 동성연애, 특히 여학교의 동성연애 문화를 언급했다.

이처럼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가 단지 소재적인 차원에서만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광수의 장편소설 『애욕의 피안』(『조선일보』, 1936.5.1~12.21)이라고 할 수 있다. 이광수는 소설의 첫머리에서 혜련과 문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혜련의 동무 문임(文姙)은 혜련의 집 식객이 되어서 혜련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본래부터 혜련은 문임을 사랑하였으나 한방에 있어서부터는 더욱 사랑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나이의 처녀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어니와 두 사람의 사랑은 일종의 연애와도 같아서 그들은 같은 감으로 옷을 지어 입고 머리를 같은 모양으로 틀고 무엇이나 꼭 같이 하려 하였다. (…) 『나는 남자가 싫어.』 / 하고 한번은 혜련이가 시무룩하면서 문임에게 말하였다. / 『왜?』 / 하고 문임은 웃었다. / 『남자란 모두 고약하대. 겉으로는 번드르하게 꾸며두 속은 모두 개차반이라는걸. 언니는 남자 좋아?』 / 하고 혜련은 웃지도 아니하고 문임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 『그까진 남자는 해서 무얼 해? 우리 둘이서 일생 이렇게 같이 살아 응, 언니.』 / 하고 혜련은 문임의 목을 껴안는다. / 『그래.』 / 하고 문임은 무슨 뜻인지 모를 대답을 하면서 혜련의 허리를 안아 준다. (…) 『남자란 믿을 수 없다고 나많은 우리 선배들이 그런단 말요. 그러니깐 우리는 동맹허구 남자를 보이코트하잔 말야. 언니, 그리구 우리 둘이서 일생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 남자들헌테 속을 걱정두 없구, 소박 받을 걱정두 없구, 안 그래? 자식 때문에 걱정할 것두 없구. 그리구 남편이 다른 여자 따라 댕긴다구 생각할 걱정두 없구.』 / 하고 혜련은 웃지도 않고 주워대는 것을 문임이가 참다못하여, / 『망할 것. 청승스런 소리두 하네. 아주 시집살이나 해본 사람 같애. 아이 기가 막혀.』 / 하고 귀여운 듯이 혜련의 턱을 만진다.[444]

할지요)을 만들려고 저는 그들의 쟁탈전의 대상물처럼 되었었읍니다. 그것도 역시 그 반에서 수재 급에 들거나 인물이 뛰어나거나 천재 타잎의 애들뿐이요, 보통 애들은 저와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무슨 높은 여왕이나 보드키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만(혹 남이 볼 때는 교만했을지 모르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 즐겁고 모두 반갑고 모두 화려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제 일생의 천국의 계절이라고 할까요."(박계주, 「진리의 밤 (65)」, 『경향신문』 1948.12.29.)

소설에서 혜련과 문임은 마치 “연애”와도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로 등장한다. 그들은 서로 똑같은 옷을 입기를 늘 고수하며,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 남자를 보이콧하고 평생을 함께 살자고 약속한다. 특히 두 사람은 목이나 허리를 껴안고 턱을 만지는 등,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나아가 소설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는 것과 같은 신체 접촉을 그리고 있기도 하다. 『애욕의 피안』이 혜련과 문임의 관계를 그리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이러한 설정들은 S 관계를 다룬 많은 서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45]

그러나 한편으로 『애욕의 피안』은 혜련-문임의 관계를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설은 혜련의 부친인 김 장로가 문임에게 품고 있는 성욕에 대한 비판과, 문임이 김 장로의 막대한 재산에 혹해 자신의 애인인 은주를 버리고 김 장로와 결혼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쾌락주의와 배금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작품의 초반부에 강렬하게 제시되었던 혜련-문임의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만다. 일례로 김 장로가 문임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혜련에게 밝히는 대목에서, 혜련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때 혜련이 부친을 어이없어하는 이유란 자신과 문임 사이의 ‘동성연애’ 관계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죽은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오십이 넘은 노인이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 때문이다.[446] 이처럼 부친에 대한 혜련의 비판에 있어, 혜련과 문임 사이의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광수가 혜련-문임 사이의 관계를 작품 초반부에 등장해 독자의 흥미를 끄는 장치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란, 사회 비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대사회적 발언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447]

---

444) 이광수, 「애욕의 피안」, 『이광수전집』 제8권, 삼중당, 1966, 135-138쪽.

445) 일례로 ‘똑같은 옷’이라는 모티프는 방정환의 「이상한 인연」(『신여성』, 1924.3)을 떠오르게 한다. 이 작품은 용모, 체격, 옷차림까지 동일한, 마치 도플갱어와도 같은 두 여성이 우연히 만나 서로를 애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으나, 결국 유해성 열병에 걸려 나란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446) 이광수, 앞의 책, 240쪽.

한편 『애욕의 피안』과 비교했을 때, 이광수의 또 다른 장편소설인 『흙』(『동아일보』, 1932.4.12~1933.7.10)은 퀴어한 감정을 재현한 서사의 예로 그동안 잘 거론되지 않아 왔던 작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흙』은 여성 간의 퀴어한 관계를 작품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욕의 피안』보다도 더욱 다양한 종류의 퀴어한 관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먼저 최주한이 지적하듯이, 『흙』의 주된 갈등 구조인 유순-허숭-정선 사이의 삼각관계는 허숭이 "농촌 사업에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포부와 더불어 고향 살여울의 처녀인 유순에게 마음을 주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모와 재산과 지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정선 쪽의 청혼을 거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흙』을 이끌어 나가는 서사적 동력은 "〈의무〉를 저버리고 〈욕망〉을 선택한 데 대한 〈자책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허숭의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448]

이때 허숭은 정선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농촌 사업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절충"의 방식으로 자책감을 극복하려 한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정선과의 불화로 인해 살여울에 내려가 농촌 사업에 매진하는 동안, 정선이 갑진과 혼외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정선을 '용서'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허숭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정선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절충"에의 노력은

447) 나아가 이광수가 혜련과 문임의 관계를 '연애'와 유사한 것으로 설정한 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존재하는 듯하다. 그는 혜련과 문임이 서로의 뺨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묘사한 뒤,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과년되고 게다가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숙성한 편이요, 감수성이 대단히 예민한 처녀인 혜련은 동성 친구의 우정만으로만 만족하지 못할 비인 구석이 없지 아니하지마는 사랑하는 이성의 정이 올 때에 동성 친구의 우정 따위는 대낮에 외로운 촛불만도 못하겠지마는 그래도 고적(이것은 남녀를 물론하고 청춘 시대에 짝을 구하는 본능이다)한 오늘에는 문임의 사랑이 혜련의 총재산이다."(위의 책, 183-184쪽.) 이러한 서술은 혜련과 문임의 관계가 기실 이성애의 대체물이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한때의 성적 일탈이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퀴어 서사 시대'에 제출했던 「윤광호」 등의 소설이 어째서 동성 간의 과잉된 친밀성을 재현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공동(空洞)을 채워 줄 "오직 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 P라는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 광호의 삶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과민한 청춘들이라면 으레 겪는 '보편적인' 것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애욕의 피안』은 「사랑에 주렷던 이들」 등과 마찬가지로, 남성을 향한 남성의 욕망을, 사람을 향한 사람의 욕망으로 치환함으로써, '퀴어 서사 시대'의 소설들을 변명하는 작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48) 최주한, 「이광수 소설 연구: 애정 삼각관계의 양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57쪽.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허숭이 결국 결혼 생활을 청산한 뒤 홀로 살여울에 내려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주한의 설명처럼, 허숭과 정선 사이의 갈등, 나아가 '의무'와 '욕망'의 "절충"에 관한 허숭의 내면적인 갈등은 정선의 철도 자살 시도라는 뜻밖의 사건으로 간단히 해결된다.[449]

최주한은 허숭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한 정선이 생을 마감하려 철도에 뛰어들지만,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한 채 회생하는 상황을 가리켜, ① 갑진과의 혼외 관계가 세상에 알려져 정선이 더 이상 서울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설정이며, ② 장애를 갖게 되면서 '무력해진' 정선으로 하여금 허숭과의 살여울행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설정이라고 주장한다.[450] 그러나 이처럼 살여울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분석은 정선이 "마음에 걸렸던 모든 깨끗지 못한 관념과 감정"[451]을 극복했다는 서술이 등장하는 제3장 제107회를 상기할 때,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애초에 서사적 갈등을 극한으로 밀어붙였던 '회개'하지 않는 정선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과거의 동성 애인이었던 선희와의 만남 이후이다.

> 정선은 자는 체를 하고 있으면서 선희에게 대하여 할 행동을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분하기만 하였으나 선희가 언제까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분한 마음이 좀 풀리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오는 길로 남편을 찾지 아니하고 저를 찾아서 언제까지든지 (…) 제가 눈을 뜨기를 기다리고 섰는 것이 선희가 제게 대한 성의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정선은 아무쪼록 선희에게 대하여 호감을 가져볼 양으로 학생 적에 저와 선희와 의좋게 지내던 것을 생각하였다. / 이 모양으로 (…) 정선은 자다가 깨는 모양으로 가볍게 기지개를 켜면서 눈을 떴다. / "정선이." / 하고 선희는 눈을 뜨는 정선의 가슴 위에 엎더지는 듯이 몸을 던지며 제 뺨은 정선의 뺨에 비비고 최후에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동성연애 비슷한 것을 하면서 하던 버릇이었다. 그리고 선희는 코끝과 코끝이 서로 마주 닿을 만한 거리에서 정선의 눈을 들여다보며, / "네가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 하고

449) 이 문단은 위의 책, 58-60쪽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450) 위의 책, 61쪽.
451) 이광수, 「흙」, 『이광수전집』 제6권, 삼중당, 1966, 328쪽.

또 한 번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었다. (…) 정선도 선희의 열정적인 포옹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 (…) / "기관차 이맛불 빛에 웬 젊은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눈이 쌓인 철로길에 가로누워 있단 말이야, (…) 그것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 몸이 아닌가 하고 마음이 슬퍼지드구나. 그러기로 그것이 정선일 줄이야 꿈엔들 생각하였을 리가 있나." (…) 하고 선희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 선희가 우는 것을 보고 정선도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두 사람의 마음에 걸렸던 모든 깨끗지 못한 관념과 감정을 녹여 버렸다.(강조—인용자)[452]

작품에서 선희는 전문학교를 다니기 위해 진 빚 때문에 결국 기생이 된 인물이다. 그녀는 허숭과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는데, 이때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여울로 향하는 허숭과 동행하게 된다. 정선은 처음에는 이러한 선희를 밉게 보지만, 자신을 위해 병문안까지 온 선희의 마음에 응답하기 위해, 과거에 선희와 '동성연애'를 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를 맞는다. 이때 선희는 정선과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 친밀한 신체 접촉을 행한다. 정선 역시 이러한 선희의 "열정적인 포옹에 감격"한다. 이윽고 선희는 정선의 사고를 목격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녀의 말에는 "나도 저렇게 죽을 몸이 아닌가 하고 마음이 슬퍼"졌다는 공감(동정)의 정서가 아로새겨져 있다. 이처럼 여성들 사이에 공유되는 동정이라는 감정은 두 사람을 슬피 울게 만들고, 또한 그 눈물로 "두 사람의 마음에 걸렸던 모든 깨끗지 못한 관념과 감정을 녹여 버"린다.

다시 말해, 제3장의 후반부까지 산발적으로 등장했던 허숭과 정선의 애욕을 둘러싼 갈등, 특히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허숭과 선희의 하룻밤을 둘러싼 갈등이 여성들 사이의 '동정'이라는 정서를 통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이다.[453] 이처럼 이광수는 정선과 선희를 과거의 연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농

452) 위의 책, 326-328쪽.

453) 물론 이때 정선이 선희를 완벽히 '용서'한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정선은 허숭과 선희의 사이를 간혹 의심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갔을 때 선희를 붙들고 그간 자신이 선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희가 협동조합 일로 구속되어 3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정선과 선희가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고 서로 얼싸안고 우는 장면은 이들의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선희가 "미친 듯한 열정으로 정선의 목을 안고 수없이 그 입을 맞"추는 장면에서, 선희는 노동의 흔적이 역력한 정선의 몸을 보며 더욱 '열정'을 느끼는바, 두 사람의 '사랑'은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촌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제4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즉 『흙』에서 정선과 선희의 동성연애는 작품의 주된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의 전체 주제를 향해 서사를 견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애욕의 피안』에서 여성들 간의 퀴어한 관계가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과 무관하게, 단순히 흥미본위의 소재로만 활용되었던 것과 대조된다.

그러나 여성들 간의 퀴어한 관계 내지 퀴어한 여성을 하나의 흥미로운 소재로 활용한다는 비판으로부터 『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잉된 남성성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여의사 '현'은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 중 하나이다. 이광수는 현을 묘사하는 대목마다 그녀가 얼마나 '남성적'인지를 집요하게 강조한다. 현은 하인들로부터 아씨나 마님 등의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남성적인 어조와 행동을 "흉내" 내며, 나아가 "남자가 제 애인에게나 하는 모양으로 정선을 한 번 껴안고, 그 이마에 키스를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정선은 현을 가리켜 "사내 싫어하는 병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454] 이러한 현의 모습은 여학생이 아닌 성인 여성의 퀴어성(queerness)이 표현된 드문 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455]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책, 419쪽.)

454) 위의 책, 190-191쪽 및 196쪽.

455) 여기에서 잠시 김남천의 「당대 조선 여성 기질」(『사해공론』, 1938.8)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김남천은 "여학교 시대부터 씨스터—를 맨드러서 소위 교제라던가 에쓰를 맨는다던가 하는 것은 일종의 연애 예측 연습 행위 가태서 어느 곳에나 흔한 풍경"이라고 말하는 등, S 관계에 대해 다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성해방운동단체의 구성원인 성인 여성들 사이의 "동성연애의 유행"을 가리켜, "결혼에 대한 공포나 경멸이나 성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나온 성행위의 변태적인 상모"라며 강하게 비난한다. 즉 미국 선교사 여성들이 조선 여성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미국 유학을 주선하며, 나아가 종종 성애적 관계까지 맺는 것을 본 허영심 많은 조선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을 모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남천의 주장은 ① 여성 동성애가 이성애를 위한 준비 단계일 때에만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② 당시 모든 여성들에게 이성애적 생애 서사가 강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③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들의 단체 속에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④ 그러한 "여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여성"들이 의식적으로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을 실천하고 있었을 가능성까지 언뜻 내비친다.

한편 김남천은 「여성과 직업 문제」(『여성』, 1940.12)에서도 "남의 안해가 되지 않고 남의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서까지 교육가가 되어야 할 자긍이나 공명심은 전혀 무의미한 허영심"이라며, "독신주의란 말할 필요도 없이 자연에 어그러지는 일이며 인류와 민족과 국가의 경영을 생각할 때엔 하나의 죄악"이라고 주장했다.(김남천, 「여성과 직업 문제」, 『여성』 제5권 제12호, 1940.12, 28쪽.) 즉 앞의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혼을 실천하는 (여성을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적인 성인 여성'의 형상이 당대 공론장에서 주로 외신의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456]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의 모습이 갖는 '이국성'은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으리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이행하는 "정상적인 심리 발달"에 실패한 남성적인 성인 여성[457]이라는, 당대 문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형상은 독자들의 관심을 붙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458] 실제로 근본적인 갈등이 종결된 뒤 주요 인물들의 후일담을 그리는 작품의 결말부[459]에서, 이광수는 악한 남성으로 설정된 이건영 위에 군림하면서 그를 "장난감"처럼 대하는 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등장시켜, 그녀의 '이국성' 내지 '이질성'을 강조하기도 한다.[460] 그러나 『흙』이 현을 전복적인 퀴어 주체로 그려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성을 향한 "젊은 여성의 애욕의 불길"이 타고 있다거나, 현이 "젊은 아내로의 괴로움"과 "어머니로의 괴로움"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광수는 이 독특한 주체를 결국 이성애규범적인 현모양처 이상에 미달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61]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이성애적 생애 각본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남성 동성애자를 비체화시킨 원흉이었던 진보적 역사관이 (S 관계에는 그렇지 않지만) 성인 여성들 사이의 동성애적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흙』은 비난의 대상인 성인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재현할 뿐 아니라, 미국인 여선교사들 사이의 보스턴 결혼과도 같은 관계(박차민정, 앞의 책, 247쪽.) 및 미국인 여선교사와 조선인 여학생 사이의 가벼운 신체 접촉 등을 단편적으로나마 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이광수, 앞의 책, 168-169쪽.)

456) 박차민정, 앞의 책, 267쪽.

457) 위의 책, 264-265쪽.

458) 또 다른 예로는 이효석의 「소복과 청자」(출처미상)를 들 수 있다. 작품은 은실을 사랑하는 유한마담 임부용의 모습, 즉 '여성을 사랑하는 성인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임부용은 다방에서 일하는 은실과 "같이 여행이나 떠나자고 아득바득 내대고 있"으며, "남편이구 머구도 없구 이젠 그저 은실에게만 미친" 인물로 묘사된다. 나아가 은실이 다방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자, 임부용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실을 따라 서울로 갈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이효석, 「소복과 청자」, 『이효석전집』 제6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92-93쪽 및 103-104쪽; 진은아,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성의 양상과 성담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6-27쪽 참고.) 또한 은실을 향한 임부용의 사랑이 S 관계를 경유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라는 점 역시 이 작품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459) 최주한, 앞의 책, 62-63쪽.

460) 이광수, 앞의 책, 438쪽.

또한 『별건곤』에서 기획하고 네 명의 작가가 집필한 연작만담 「여자의 일생」(1933.2~1933.6) 중 이서구가 맡은 제2회에는, 주인공 무던이가 여학교에서 후배 은봉 및 "올드 미—스" 체조 선생 K와 삼각관계에 빠지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462] 한편 제3회를 쓴 채만식은, 무던이의 졸업식에서 엉엉 우는 K선생의 모습을 희화화하면서, '노처녀'인 K선생은 대안이 없어 무던이를 사랑했던 것이지만, "연애도 남녀가 서로 주고 밧고 하는 것"인바 무던이는 늘 K선생을 싫어했다며 이서구의 글을 이어 받았다.[463] 이러한 채만식의 '처리'는 이성애규범성을 내면화한 결과,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단지 우습고 재미난 것으로만 인식했던 당대 문인들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퀴어 서사 시대'에는 주변화되었던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를 재현한 서사들은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환언하자면 '퀴어 서사 시대'가 종언을 고한 뒤, 남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다룬 서사가 점점 감소하는 데 반해,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다룬 서사는 독자들의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면서 더욱 증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앞에서 여러 차례 '자행'했듯이, 이러한 관음증적 욕망을 이성애자 남성의 전유물로 해석하는 것은 기실 여성의 욕망을 부정하는 독해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분』에 재현된 여성을 향한 여성의 욕망을 자동적으로 "남성적인 관음증"[464]으로 치환하는 태도는 기실 여성 퀴어 당사자를 다시 한 번 탈성화하는 데 복무한다.

> [옥란에게는] 세란들의 목욕하는 자태를 창으로 엿보는 것도 즐거운 것의 하나였다. / 지금도 옥녀는 한가한 틈을 타서 잠깐 부엌일을 멈추고 철벅거리는 미란의 자태를 창밖에 서서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그 고운 살결을 탐내고 있는 것이다. 보얗게 서리운 안개 속에 움직이는 처녀의 자태는 배추단같이 멀쑥하면서도 물고기같이 퍼들퍼들하다. 봉곳한 팔이며 앵두알 같은 젖꼭지가 그대로 보기는 아까운, 뛰어 들어가서 만져라도 보고 싶은 것

461) 위의 책, 287쪽.
462) 고범, 「연작만담 여자의 일생 (제2회) 수학편」, 『별건곤』 제62호, 1933.4, 36-37쪽.
463) 백릉, 「연작만담 여자의 일생」, 『별건곤』 제63호, 1933.5, 38쪽.
464) 김미현, 앞의 책, 44쪽.

이다. 자기가 만약 사내라면 그 신다리를 독수리같이 물어뜯고야 말 걸, 망간 북새들을 친 찔레나무 아래 뱀이 마음 있던 짐승이라면 그 고운 팔다리를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귀중한 보물같이 싫어지지 않는다. / 미란이 나간 후에 뒤를 이어 세란의 몸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같은 모습이기는 하나 팽팽한 처녀의 몸과는 달라 함박꽃같이 활짝 피어난 허벅진 한 송이다. 목욕실 안이 꽉 차며 금시에 서리었던 김이 젖어드는 듯도 하다. 무슨 복을 가지면 사람이 저렇게도 곱게 태어날 수 있을까—황홀한 정신으로 확실히 꿈속에 잠겨 있을 때에 세란의 목소리가 창밖으로 새어 나왔다.(강조—인용자)465)

인용한 대목에서 하녀인 옥란은 주인인 세란·미란 자매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관음증적 쾌락을 느낀다.466) 김미현은 이 대목을 두고 "이런 옥녀의 시선이 여성을 바라보는 여성의 동성애적 시선이 아니라 현마와 같은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이성애적 시선에 더 가깝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동성애적 시선"과 "이성애적 시선"이 정확히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해, 그는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옥녀의 시선이 현마가 단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유사하며, 이러한 현마의 시선은 기실 "동성애 속에 파고 든 이성애의 관습"인바, 옥녀 역시 이성애자 남성의 시선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주장만 제시되어 있을 따름이다.467) 짐작컨대 "여성을 바라

465) 이효석, 「화분」, 267-268쪽.

466) 하녀가 여주인의 목욕 장면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 장면은 이효석의 「개살구」(『조광』, 1937.10)에서도 발견된다. 서울집의 하녀로 일하는 점순은 남편과 정부(情夫)가 있는 여성이지만, 동시에 "사내가 그에게 반한 듯이" 서울집에게 반한 상태이다. 점순은 서울집의 외모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뒤안에 물통을 들여다 놓고 그 속에서 목물을 할 때 그 희멀건 등줄기를 밀어 주노라면, 점순은 그 고은 몸동이를 그대로 덥석 안어 보고 싶은 충동이 솟군 하었다."(이효석, 「개살구」, 『조광』 제3권 제10호, 1937.10, 251쪽.)

한편 윤승한의 역사소설인 『만향』(『동아일보』, 1937.12.1~1938.7.19; 보성서관, 1939)에는 주인과 몸종 사이의 보다 직접적인 성적 관계가 그려져 있다. 작품에서 김 정승의 첩인 나합은 몸종인 "향련에게 성적 만족을 구하"는, "요염하게 어여뿐 여자를 사랑하는 변태적 성욕자"로 묘사된다. 이때 윤승한은 나합이 "이상하게도 동성연애를 조와하"게 된 까닭에 대해, 유달리 성욕이 강한 나합이 늙은 김 정승만으로는 성적 만족을 충분히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왕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만향』에서 '동성애'는 이성애의 굴절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윤승한, 「만향 (185)」, 『동아일보』, 1938.6.19; 「만향 (186)」, 『동아일보』, 1938.6.20.)

467) 김미현, 앞의 책, 45-46쪽.

보는 여성의 동성애적 시선"은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이성애적 시선"과 달리, 성적 욕망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김미현의 주장인 듯하다.

환언하자면 김미현의 주장은 결국 여성 동성애자가 어떤 욕망을 가지는지 혹은 가져야 하는지를 미리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퀴어한 욕망을 본질화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섹스와 젠더의 주체들이 갖는 모든 욕망"을 "일종의 남성적이고 이성애적인 위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는 해석인 것이다.[468] 이에 따르면,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은 그러한 사랑 속에서도 '과잉된' 성적 욕망을 드러내어선 안 된다. 성적 욕망의 '과도한' 노출이란 기실 그녀가 남성과 동일시했다는 징후로서, "동성애 맥락 안에 존재하는 이성애 관습"을 현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 표출할 수 있는 성적 욕망의 기준을 미리 규정하는 발언은 결국 여성의 퀴어한 욕망을 탈성화시켰던 기존의 담론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를 흥미본위로 단편적인 차원에서 재현했던 텍스트들 역시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동성(연)애' 즉 여성들의 퀴어한 욕망을 존재의 영역에 기입함으로써, 오히려 동성애적 욕망을 생산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루빈의 일화를 참고하면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루빈은 자신이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하는 과정에서, "명명법(naming)"의 강력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그녀는 "레즈비언 활동가가 새로운 게이 정치를 설명"한 직후에 커밍아웃을 했다. 이는 "레즈비언, 동성애, 게이와 같이 정황적이고(situated) 의미 있는 단어들이 갑작스럽게 이용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즉 언어가 "자신의 경험과 정서적 역사를 재해석하도록 해"준 것이다.[469]

이를 염두에 두고 식민지 조선의 맥락을 살펴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텍스트는 바로 여성 명사들의 동성연애기이다. 최백월의 「내가 여학생 시대를 갖는다면」(『학생』, 1929.5), 「여류명사의 동성연애기」(『별건곤』, 1930.11), 「삼대여성이 본 문화반세기」(『동아일보』, 1939.1.1~3) 등은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

468)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188쪽.
469) 게일 루빈, 「섹스, 젠더, 정치」, 앞의 책, 56쪽.

에 선 여성들이 학생 시절 자신의 동성연애 경험을 고백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학생들끼리의 연애는 금지되고 배척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이성과의 연애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로 묘사된다. 이처럼 사회적 명사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동성연애"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동성연애"가 여학교 내에서 흔하다는 증언일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로 하여금 S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종의 동기 부여로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여성 명사들의 동성연애 고백은 퀴어한 욕망을 생산하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했던 것이다.

또한 파리대학에 재학 중인 한 여성이 자신이 현재 동성과 연애를 하고 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동기부여는 회고담뿐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퀴어한 관계에 의해 행해지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성이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영화 〈제복의 처녀(Mädchen in Uniform)〉(1933)를 그 예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470] 비록 당시 여성의 영화 관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했지만, 『신여성』 등의 여성지에 영화를 소개하는 꼭지가 마련되기도 했음을 고려하면, 여성들 역시 대중문화의 향유자로서 영화를 즐겨 관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30년대에 이르면 여성 관객은 전체 관객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 그 여성 관객 중 절반 이상은 여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71] 그렇다면 이처럼 퀴어한 관계를 재현한 서구 영화가 식민지 조선

470) "파리대학에 입학한 뒤 처음으로 고국 게신 선생에게 이 편지 드리나이다. 저는 그 동안 미국 잇다가 마츰 동행할 동무 조흔 분이 잇서 뉴-욕에서 배를 타고 태서양을 건너 파리에 온지 두어 달박게 아니 됨니다. / 동무라 하니 또 남자친고인가고 알지 마소서 실상은 나와 가치 화신톤에서 글을 배우든 미국 엇든 큰 시게 상인의 따님이외다. 일홈은 「코루베-루」라 함니다. 아메리까 녀학생은 모다 말광대 갓다고 하지만 내 동무인 이 코루벨-루만은 정말 동양 녀자 가치 몹시 붓그럼을 타고 겸손하고 얼골도 수양버들입 가치 길죽한 것이 동양미가 잇슴니다. 나와 가치 가튼 전문학교에 다니는 생해에서 온 중국 녀학생도 코루벨을 몹시 조와 함니다. 혹 영화에 나오는 「제복의 처녀」를 보섯는지요. 그 속에 녀성끼리 동성애하는 섬세한 젊은 녀성들끼리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잇지 안슴니까. 마치 그와 가튼 동경의 정을 저는 이 「코루벨」에게 가지고 왓나이다. 이제 그러케 그립든 「코루벨」하고 함께 가튼 배, 가튼 방 가튼 침대 우에서 푸른 물결을 갈느고 저 멀니 태서양 바다를 건너 구라파의 꼿의 도회라 하는 파리로 행하게 되엇스니 이 몸의 유쾌를 어대에다 비하리까. / 아마 남성인 선생께서는 결혼 전인 저이들 녀성의 가비여운 동성 사이의 애정을 리해하시지 못할가 함니다"(김연금, 「내가 본 파리제」, 『삼천리』 제6권 제9호, 1934.9, 96-97쪽.)

471) 노지승, 「식민지 시기, 여성 관객의 영화 체험과 영화적 전통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4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181쪽.

의 여학생들, 특히 그들 사이의 S 관계에 미친 영향 역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유정은 1920~1930년대 신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가 출연한 영화 〈크리스티나 여왕(Queen Christina)〉(1933)에 재현된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이 영화에는 크리스티나와 에바 사이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특히 영화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육체적 쾌락이 소거된 관계이자, 이성애를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의미화되는데, 이는 식민지 조선의 담론장이 S 관계를 규정하던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이유정은 S 관계를 맺고 있던 신여성들이 〈크리스티나 여왕〉 속 그레타 가르보의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우월감과 특권의식 그리고 희열을 느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이는 그레타 가르보가 가지고 있던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 이미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S 관계가 자유연애와 마찬가지로 근대적 주체로의 도약을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472]

나아가 여학생들 사이의 로맨스를 집중적으로 다룬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 등의 일본 소설이 식민지 조선의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두루 염두에 둔다면, 『신여성』을 중심으로 S 관계를 고백하는 산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순영의 「언니 저 달나라로」(『신여성』, 1933.6)가 이에 해당한다.[473]

> S 언니! 참말이여요 사람이 그립어요 언니가 그립어요 맘껏 부등켜안고 숨맥히는 키쓰를 하고 십허요 언니! 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가요 저와 가티 마음의 하소를 글노 쓰고는 안 게시겟지요 아마 소설을 읽고 계실 게여요 언니! 지금 당장 쒸여가보고 십흡니다. S언니! 언니가 나를 귀여워 안

472) 이유정, 「1920~30년대 조선의 신여성과 그레타 가르보」,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73) 또 다른 예로는 정숙, 「영원히 니즐 수 없는 그리운 K언니에게!」, 『신여성』 제3권 제10호, 1925.10; 월견초생, 「여학생 일기」, 『신여성』 제7권 제6호, 1933.6, 136-138쪽; 이옥녀, 「그리움을 다시 그리며—옥녀의 가느단 소망」, 『신여성』 제8권 제1호, 1934.1 등을 들 수 있다.

해주섯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 쓸쓸하얏슬가요 그러나 언니는 나를 어린애로만 역이시는 걸요 (…) 언니! 맘대로 한다면 저— 멀고 먼 천공 우에 잇다는 선녀의 나라로 언니 속목을 꼭 붓잡고 날라가고 십흔 나의 언니! 언니는 나의 이 안탁가운 마음을 아라주지 못하시지요 언니! 이 글을 읽으시고 저의 가엽고 외로운 마음을 짐작해주세요 네. 나를 귀여워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참아 말로는 할 수가 업서서 이러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글로 써 드리는 것입니다. S 언니! 그리고 나를 꼭 붓잡아 주세요 어듸를 가시든지 꼭 다리고 가주세요 나는 인제부터 언니 곗을 써러지지 안을 테야요.[474]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남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가 억압·굴절·은폐되어서만 나타날 수 있었던 데 반해,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관계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문학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언니 저 달나라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재현된 서사들은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결코 소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를 탈성화된 존재로 상상했던 당대의 수많은 담론들과 달리, 이러한 당사자들의 서사는 욕망하는 소녀의 형상을 재현하고 또 이를 한국문학의 전통 속에 남김으로써, 퀴어에게도 역사가 있음을 증명해준다.

한편 『신여성』에 실리지 않은 퀴어 서사의 예로는 '실화'라는 표지를 달고 발표된 박은애의 「삼각연애에 대한 나의 해결책—C언니는 나의 은인이외다」(『삼천리』, 1931.10)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나'와 C언니, 그리고 남성인 P 사이의 삼각관계를 다룬다. 여학교 학생인 '나'와 C언니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이이다. 그러던 어느 날 C언니는 '나'에게 자신의 팔촌오빠인 P와 연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몹시 불쾌함을 느끼는데,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C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생각조차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C언니의 계속되는 주선으로 '나'는 결국 P와 사귀게 된다. 그런데 약 반년 뒤 P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알려온다. 이에 충격을 받은 '나'는 P의 방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C언니였다.

474) 김순영, 「언니 저 달나라로」, 『신여성』 제7권 제6호, 1933.6, 54-55쪽.

‘나’는 “내가 사랑하든 P—또 내가 제일 믿엇든 C언니에게 「더러운 년놈들」이라는 한마듸의 말만 남겨 놋코 그 방문 압흘 떠”[475]난다. 이때 C언니가 ‘나’의 은인인 것은 그녀와 P가 곧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와 비슷한 삼각관계가 앞서 제1절에서 언급했던 최정희의 「질투」에도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S 관계 당사자들의 고백이 당대 문학장에 영향을 끼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은애, 혜우, 혜우의 남자친구로 이루어진 삼각관계를 다룬 짧은 소설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자신의 애인이 은애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혜우가 이를 질투해 은애의 눈썹을 몽땅 밀어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의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관계가 ‘본격적인’ 삼각관계로 접어들기 이전, 즉 혜우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은애가 알게 된 그 직후부터 은애가 혜우에게 모종의 증오를 느낀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애인이 은애를 마주치지 않게끔, 애인이 찾아오면 은애에게 다른 방에 가 있을 것을 종용하는 혜우의 반복된 행동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증오’라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설정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혜우의 모습에 대해 “은애뿐 아니라 하숙집 어린애들 할 것 업시 전부 다— 혜우의 비겁한 행동을 미워햇섯다”[476]라는 서술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혜우의 행동이 은애에게 다소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일지는 몰라도, 하숙집 학생들이 이를 비겁하다고까지 할 이유는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소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는 서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설의 첫머리에 제시된 은애와 혜우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본 경험이 적은 혜우는 평소 은애를 친동생보다도 더 사랑해 왔다. 그러던 혜우가 애인을 만난 뒤로 은애를 멀리하자, 은애는 이를 불쾌하게 여긴다. ‘친동기보다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다수의 서사들에서 S 관계를 지시/암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감안한다면,[477] 이러한 혜우와

475) 박은애, 「삼각관계에 대한 나의 해결책—C언니는 나의 은인이외다」,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10, 81쪽.

476) 최정희, 「질투」, 『신여성』 제8권 제1호, 1934.1, 119쪽.

477) 일례로 뒤에서 다룰 박태원의 『미녀도』(『조광』, 1939.7~12; 미완)는 여학생들 사이의 S 관계를 “친형제처럼 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박태원, 「미녀도」, 『조광』 제5권 제10호, 1939.10, 78쪽.)

은애의 관계는 S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정희가 학창시절 S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음을 직접 밝힌 바 있거니와,[478] 「봄」(『문예』, 1950.1)이나 『녹색의 문』(『서울신문』, 1953.2.26~7.8) 등에서 여학생들 사이의 S 관계를 소설화했다는 사실[479]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측 역시 해봄직하다. 특히 혜우와 은애를 S 관계로 파악할 때, 은애가 혜우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째서 혜우의 행동을 '비겁하다'고 비난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최정희의 「질투」가 수록된 잡지가 바로 『신여성』이라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신여성』은 S 관계가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제시되기도 했던 매체인 만큼, 이 잡지의 독자들은 S 관계에 꽤 익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질투」가 실린 잡지 『신여성』의 독자들과 작품 속 은애·혜우의 하숙집 '학생'들은 현재의 독자보다 S 관계에 더욱 친숙한바, 명시적인 서술이 없더라도 은애와 혜우의 사이가 S 관계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고가 이를 강조하는 까닭은, 최정희를 비롯해 1930~194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소설에서 종종 발견되는 여학생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굳이 동성(연)애나 S 관계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대의 독자들은 이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많은 경우 이를 자연스레 생략하기도 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이는 작품에 재현된 여학생들 사이의 '우정'을 이성애자 여성들 사이의 완벽하게 탈성화된 친밀성으로 읽는 독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독자들의 관습적이고 이성애규범적인 독법을 역전시켜, 당대 독자의 감각을 염두에 두고 여학생들 사이의 '우정'을 일단 S 관계로 '의심'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독법을 활용한다면, 여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1920년대 중반 이후 서사의 퀴어한 요

478) 최정희, 「오동나무 미테서—한끄트럭의 조고만 기억」, 『삼천리』 제4권 제4호, 1932.4.

479) 「봄」에 S 관계가 재현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비교문화협동과정의 주최로 열린 새뮤얼 페리(Samuel Perry) 교수의 강연 '세상의 모든 퀴어: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젠더와 섹스의 다양성(All Kinds of Queer: Gender and Sex variance in Modern Korean Literature)'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 1950년 1월에 발표된 「봄」은 동숙-심미, 차순-심미 사이의 성애적인 신체 접촉을 매우 직접적·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동숙-심미-차순 간의 삼각관계, 즉 세 꼭짓점이 모두 '여성'인 삼각관계를 재현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녹색의 문』에 대해서는 허윤,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최정희의 『녹색의 문』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8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를 참고할 것.

소들을 더욱 많이 발견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박태원의 『미녀도』(『조광』, 1939.7~12; 미완)는 1920년대 중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보배와 경수 사이의 "씨스타" 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은 "애형애제"나 "동성연애"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가 아닌,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규정할 때 사용했던 용어인 'S'[480]를 명시적으로 사용해, 이들의 관계를 보다 적실하게 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즉 작품의 초반부에 직접 제시되어 있듯이, 여학생들은 "「사랑언니」[愛兄]니 「사랑동생」[愛弟]이니 그러한 말을 잘들 쓰지" 않았으며, 그저 "「씨스타」 한마디면 그만"이었다는 사실을 적절히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481]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작품이 제5회를 끝으로 돌연 연재가 중단되어, 보배와 경수 사이의 "씨스타"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연재분까지에 나타난 『미녀도』의 서사적 줄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보배와 부친 사이의 갈등이다. 어느 날, 13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보배의 아버지가 돌아와, 보배를 만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죽은 후 보배를 맡아 기르던 친척 아저씨는 그런 보배의 아버지에게 호통을 친다. 보배의 아버지가 무당과의 외도 끝에 만주로 도망간 후, 그곳에서 조선인 처녀들을 중국인 남성에게 '팔아먹는' 뚜쟁이 노릇을 하고 있음을 이미 알았던 까닭이다. 호통을 들은 보배의 아버지는 자리를 피하지만, 어찌 되었든 자신이 보배의 부친이므로 조만간 보배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한다. 실제로 며칠 뒤 아버지가 학교 앞에 찾아오자, 보배는 함께 가자며 자신의 손목을 잡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달아난다. 결국 보배는 아버지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두게 된다.

두 번째는 보배가 학교를 그만둔 뒤 경수와 S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이다. 학교를 자퇴한 후 보배는 달포 만에 경수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경수의 애정 공세에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귀찮아하던 보배였으나, 학교를 그만둔 뒤에 받은 이 편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어보기도 전부터 일종의 그리움이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482] 이는 하신

480) 앞에서 설명했듯이, 당시 'S'는 "여학생 간에 동성애 동지를 지칭하는 말"로서, "씨스터—에서 S자를 쎄여낸 것"으로 이해되었다.(「모던어사전」, 77쪽.)
481) 박태원, 「미녀도」, 『조광』 제5권 제7호, 1939.7, 92쪽.

애의 분석대로, 보배에게 S 관계가 부계적 질서로부터 벗어난 근대적 공간, 다시 말해 자신을 근대적 주체로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되었을 수도 있는 학교 공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킴을 의미한다.[483] 즉 경수의 편지를 받은 뒤 맺게 되는 보배와 경수의 S 관계는, 강제적 이성애라는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방편을 제공함으로써, 근대적 여성 주체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보배의 '꿈'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S 관계가 강제적 이성애로부터의 '탈주'로 기능한다는 점은 경수가 아버지에게 혼인을 '권유'받은 뒤, 보배와 경수가 평생 결혼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는 약속을 주고받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484] 그러나 이 대목 이후에 작품 연재가 중단되어, 이 두 갈래의 서사적 줄기가 어떻게 교직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두 사람이 S 관계를 토대로 각자의 부친의 '혼사 강요'에 대응해 나가리라는 점만을 막연히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본고의 맥락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보배-경수의 S 관계가 점차 전경화되어 가던 때에 맞추어 『미녀도』의 연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1930년대 후반 문학장의 변화를 암시하는 일종의 징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1938년 "동성애를 선정적으로 또는 찬미구가한 것"[485]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동경으로부터 들려옴으로 인해,[486] 나아가 여성동성애를 끊임없이 병리화하려는 성과학 담론이 여전히 그 위력을 떨치고 있음으로 인해,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문학장은 점차 여성 간의 퀴어한 관계를 다룬 서사 역시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여성들의 퀴어한 관계는 몹시 은폐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퀴어한 존재에 대한 은폐 내지 침묵을 퀴어한 존재의 부재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이고, 이야기된 스토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부와

482) 박태원, 「미녀도」, 『조광』 제5권 제10호, 1939.10, 72쪽.
483) 하신애, 「전시체제 하의 여성성과 징후로서의 동성애」, 『반교어문연구』 제32권, 반교어문학회, 2012, 393-394쪽.
484) 박태원, 「미녀도」, 『조광』 제5권 제12호, 1939.12, 80-82쪽.
485) 「정조경시의 소설. 정사, 동성애의 예찬은 불가. 전시하의 소설도 통제」, 『동아일보』, 1938.9.14.
486) 한편 풍속 통제의 기준에 대해서는 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96-98쪽을 참고할 것. 이에 따르면, "동성 간의 성행위"는 "반자연적 성행위이므로 통제"되고 있었다.

부재의 영역에 집중"[487]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정희의 「인맥」(『문장』, 1940.4), 지하련의 「결별」(『문장』, 1940.12), 「가을」(『조광』, 1941.11) 등에 '은폐' 되어 있는 여성 간의 퀴어한 관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시 읽힐 필요가 있다.

언급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여학교 시대에 맺었던 S 관계를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인맥」, 「결별」, 「가을」 등은 표면적으로 친구의 남편을 사랑하는 여성의 이야기, 즉 두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이성애 삼각관계를 그림으로써, 두 여성 사이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은폐한다.[488] 그러나 「인맥」에서 선영과 혜봉은 여학교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혜봉을 남자라 하고 나[선영]를 여자라 하"는 놀림을 받을 만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묘사된다. 즉 두 사람은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자는 "약속"을 했던 사이로서, 혜봉의 모친으로부터 "가시내들이 밤낮 맡붙어 있고 바누질, 살림살인 언제들 배[우]느냐고 꾸지람을" 듣기까지 했던 것이다. 나아가 선영이 부친의 결혼 강요로 지금의 남편과 늑혼한 뒤,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멀어지게 되었었다는 사실 역시 자못 의미심장하다.[489] 이러한 사항들은 선영과 혜봉이 과거에 강제적 이성애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S 관계였지만, 선영이 이러한 S 관계를 '배신'하자 혜봉이 이에 분노해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독법을 적용한다면, 지하련의 「결별」과 「가을」에서도 과거 S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결별」에서 "학교를 마추던 해 정히와 도망갈 약속을 어기든 일, 별로 맘이 내키지도 않는 것을 어머니가 몇 번 타이른다고 그냥 시집갈 궁리를 하든 일"이라는 구절은, 형

487)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제17권, 한국여성철학회, 2012, 55쪽.

488) 이 작품들에 대해 김주리와 강소희는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개념을 기반으로 두 여성 인물 사이의 사랑과 동일시 욕망을 읽어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리, 「신여성 자아의 모방 욕망과 '다시쓰기'의 서사전략—최정희의 「인맥」과 지하련의 「결별」 연작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0집, 한국비평문학회, 2008; 강소희, 「근대 여성 소설의 수행성 연구: 백신애, 이선희, 지하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85-96쪽을 참고할 것.

489) 최정희, 「인맥」, 『문장』 제2권 제4호, 1940.4, 7-9쪽.

예와 정히가 과거 S 관계였음을 암시한다. 나아가 이 모든 일이 “아무리 제가 한 일이래도 모도 지랄같다”는 형예의 생각이란, 가부장제에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자신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근대적 주체로 도약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과거의 가능성을 비교해 보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90]

또한 「가을」은 “가장 친했든 동무”인 석재의 아내와 정예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위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결별」은 표면적으로 정예가 석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나 김주리와 강소희가 지적했듯이 이를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속에서의 욕망의 모방과 굴절로 이해한다면,[491] 석재에 대한 정예의 사랑이란 기실 석재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정예의 모습이 “단지 벗을 잃은 슬픔만은 아닌 듯했다”는 대목은 결국 정예가 (여학교 시절의) ‘연인’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사랑허기만 하면 백 년 천 년을 보지 않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정예의 말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정예가 지금 잃어버린 “단 한 사람의 자기 사람”, 다시 말해 석재의 아내였다고 할 수 있다.[492]

한편 「인맥」, 「결별」, 「가을」 등 대부분의 1940년대 서사들이 말하지 않거나 에둘러 말하는 방식으로 여성들 사이의 퀴어한 감정의 역사를 ‘은폐’했던 것에 반해, 최정희의 「여명」(『야담』, 1942.5)은 여전히 ‘동성연애’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때 「여명」에서의 은영과 혜봉의 관계란 기실 「인맥」에 나타난 선영-혜봉 관계의 반복과 변주이다. 여학교 시절 S 관계를 맺었다는 것, 둘 중 한 명이 결혼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등이 보여주듯이, 「여명」과 「인맥」에서 두 여성 인물의 관계는 매우 비슷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이란, 「인맥」과는 달리 「여명」에서 ‘동성연애’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까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여명」에서 은영과 혜봉의 ‘동성연애’가 이미 지나간 한때의 “철없이 어리든 (…) 마음”[493]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인맥」의 선영은

490) 지하련, 「결별」, 『문장』 제2권 제10호, 1940.12, 70쪽.
491) 김주리, 앞의 책, 266-267쪽; 강소희, 앞의 책, 90-93쪽.
492) 지하련, 「가을」, 『조광』 제7권 제11호, 1941.11, 204-205쪽.

과거 혜봉과 나눴던 근대적 여성 주체에의 꿈을 떠올리면서, 여학교 시절 자신과 혜봉 사이에 존재했던 사랑과, 그것의 굴절로서의 혜봉의 남편에 대한 사랑에 붙들려 있는 인물이다. 스위트홈으로부터의 일탈, 성적 방종과 타락, 스위트홈으로의 복귀로 이어지는 선영의 행적은 기실 여학교 시절 자신과 혜봉이 나누었던 강렬한 감정과, 거기에서 추동되는 선영과의 동일시 욕망에 의해 결정된다.[494]

반면 「여명」에서 은영과 혜봉이 공유했던 "여학교 시절의 꿈같이 랑만하고 가지가지 재미잇든 일"[495]들이란, 대동아공영권과 동아협동체론의 사상적 근거였던 동양주의[496] 속에서, 극복되어야만 할 서구의 달콤했던 거짓말로 의미화된다. 즉 '서구적 근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여학교 시절에 대한 향수는 "이얘기해서는 안 될", "한 개의 쎈치에서 지나지 못하는 갑싼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497] 환언하자면, 「여명」에서 '동성연애'는 강제적 이성애라는 제도를 위협하지 않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이기에 명시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여명」은 과거의 '동성연애'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목표 삼고 나가면 그만"[498]이라는,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499]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작품은 '군국의 어머니' 상을 체현한 은영이 여전히 서구적 근대에의 향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혜봉을 '계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동양주의와 '군국의 어머니'에 관한 은영의 일장연설에, 혜봉이 "알아들었어, 네 말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들었어"[500]라고 대답하는 장면은, 두 사람의 사이의 친밀성이 결국 '군국의 어머니'라는 프로파간다를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한 매개로 기능한다는 인상을 준다. 다시 말해, '서구적 근대'와 '동양적 근대 초극'을 대립시키고, ① 후자를

493) 최정희, 「여명」, 『야담』 제8권 제5호, 1942.5, 81쪽.
494) 김주리, 앞의 책, 251-256쪽 참조.
495) 최정희, 앞의 책, 같은 쪽.
496) 김유중, 「김기림의 역사관, 문학관과 일본 근대 사상의 관련성—'근대의 초극'론의 극복을 위한 사상적 모색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6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261-264쪽 참고.
497) 최정희, 앞의 책, 같은 쪽.
498) 위의 책, 82쪽.
499) '군국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179-189쪽 참고.
500) 최정희, 앞의 책, 같은 쪽.

주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맞수로 전자의 상징인 '동성연애'를 끌어들인 뒤, ② 바로 그 '동성연애'가 담보하는 친밀성을 토대로 후자의 사상을 전파하며, ③ 이 과정에서 아들을 기꺼이 전장에 내보내는 '군국의 어머니' 상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맞수로 '동성연애'를 소환하는 전략은, 강제적 이성애로부터 벗어난 근대적 여성 주체로의 도약 가능성에 대한 환기를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 즉 하신애가 적절히 분석하듯이, "웨 그렇게 얼굴이 못쓰게 댔느냐"는 물음이 촉발하곤 하는 은영의 "우울"[501]이,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근대적 여성성에 대한 애착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데서 기인한다면, 과거의 연인인 헤봉과의 조우란 그 기억을 매우 강렬하게 상기시키는 마주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은영은 바로 이 마주침 속에서 여학교 시절의 기억에 "덥석" 사로잡히는 등, '군국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어떠한 균열 지점을 노출하게 된다.[502]

전술했듯이 「여명」에서 '동성연애'가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까닭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으로 의미화되었기 때문이라면, 나아가 그것이 프로파간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면, 최정희는 바로 그 과거의 '동성연애'라는 소재를 활용해 역으로 제국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근대적 여성 주체로의 '꿈'을 공유하던 S 관계를 통해, '군국의 어머니' 상을 체현한 은영이 완전무결한 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균열을 드러내는 주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전략은 퀴어한 존재·감정·욕망을 과거의 것으로 확정한 뒤에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적이다. 다시 말해, 이 전략 속에서 퀴어는 스스로를 이성애자 주체로 정립한 자에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말해질 수 없는 불온한 것으로 규정되어 은폐되거나, 이성애 제도에 안착한 주체에 의해서만 과거형으로 말해질 수 있다는 '난국'은 1940년대까지의 한국 퀴어 서사가 맞닥뜨린 하나의 종착지와도 같았다. 이후 한국문학(장)은, 국민-국가(nation-state)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던

501) 위의 책, 76쪽.
502) 하신애, 앞의 책, 413-418쪽 참고.

1950년대[503]와, AIDS 패닉과 함께 동성애혐오가 더욱 노골적으로 광범위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1980년대[504]라는 두 개의 변곡점을 지나, 지금-여기의 동성애혐오적인 모습으로 구성되게 된다.

503) 허윤, 「멜랑콜리아, 한국문학의 '퀴어'한 육체들—1950년대 염상섭과 손창섭의 소설들」, 오혜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504) 전원근,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제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5.

제5장 결론

> 안데르센이 바이섹슈얼이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금기를 어기고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어째서 그렇게 끔찍하게 쓰고 말았을까. 그는 왜 그런 이야기로 동화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어쨌거나 어머니가 모성을 말하고 아버지가 금기를 말하는 이야기는 싫다. 그런 이야기를 도취된 채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어른도 싫다. 정진원은 그것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읽고 자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독서의 경험이란 앞선 삶의 문장을, 즉 앞선 세대의 삶 형태들을 양손에 받아드는 경험이기도 하니까.[505]

황정은의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에서 화자는, 독서의 경험이 "앞선 삶의 문장을, 즉 앞선 세대의 삶[의] 형태들을 양손에 받아드는 경험"이기에, 자신의 조카 정진원은 "좋은 이야기를 읽고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본고의 첫머리에 놓인 김현의 산문 역시 다음 세대의 퀴어에게 "견본"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더욱 많이 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바, 이 세대적 흐름의 감각 속에서 황정은의 소설은 김현의 산문 「견본 세대 2」와 합류한다. 그런데 이처럼 지금-여기의 문학이 "앞선 세대", 즉 다음 세대를 위한 "견본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문장을 읽는 '지금 세대로서의 퀴어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여기의 퀴어 독자인 '나'에게도 "앞선 세대" 혹은 "견본 세대"로서의 문학이 존재하는가.

한설은 「무지개빛 무지개—이광수부터 김봉곤까지」[506]라는 글에서, 이광수의 1917년작 『무정』으로부터 김봉곤의 2018년작 「시절과 기분」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의 "퀴어 소설의 계보"를 그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글은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간을 사실상 퀴어 소설의 '공백기'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적이다. 김윤식, 김미현, 차미령, 김건형, 김녕 등의 연구/비평을 참조해 이 글을 작성했다는 한설의 말이 보여주듯이, 퀴어 문학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대체로 1990년대 이후의 문학에 한정되어 왔으며,

---

505) 황정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211쪽.
506) 한설, 「무지갯빛 무지개—이광수부터 김봉곤까지」, 『크릿터』 제1호, 민음사, 2019.

그리하여 '지금 세대로서의 퀴어 독자'에게는 접근 가능한 "앞선 세대"/"견본 세대"로서의 퀴어 문학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한다. 본고의 목표들 중 하나는 바로 이 "앞선 세대"/"견본 세대"로서의 퀴어 문학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본고가 지향하는 아카이브란 단순한 작품 이름의 나열이나 집적이 아니라, 텍스트의 재/배치를 통해 한 편의 '이야기'를 직조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 '한국퀴어문학사'라 이름 붙일 만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문학사'는 지금-여기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만 그 가치와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507]

이처럼 본고는 1910~1940년대까지의 한국문학에 나타난 퀴어한 존재·욕망·감정을 발굴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지금 세대로서의 퀴어 독자'의 물음에 응답하고자 했다. 특히 1910~1920년대 초를 '퀴어 서사 시대'로 재규정하고, 이를 통해 2010년대의 퀴어 독자가 마주해야 했던 한국문학의 동성애 혐오가 왜,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제3장까지 문명의 전위이자 미래/희망의 기호로서 남성 청년들의 감정-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되었던, 남성들 사이의 '사랑'을 재현한 퀴어 서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남성들 사이의 '사랑'이 '연애'에 가까운 퀴어한 감정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남성들 사이의 '사랑'을 표현한 서사 일체를 잠정적으로 퀴어 서사의 계보에 위치시킴으로써, 퀴어 서사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이때 분석의 초점은 이러한 퀴어 서사들이 ㉠ 문명 및 동정 담론, ㉡ 진보적 역사관과 미래 담론, ㉢ 동성애 담론, ㉣ 여성혐오 담론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1920년대 중반 이후 억압된 형태로(만) 문학장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데 맞추었다.

나아가 제4장에서는 이처럼 '퀴어 서사 시대' 이후 남성의 퀴어한 욕망을 재현한 서사가 억압·굴절·은폐되어 감소했던 반면, '퀴어 서사 시대'에는 주변부에 머물렀던 여성의 퀴어한 욕망을 재현한 서사가 동성애 담론 수입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장면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강제적 이성애로부터의 '탈주'로서 퀴어한 감정과 욕망을 재현한 서사들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문학

507) 허윤, 「번역된 섹슈얼리티, 식민지 조선의 퀴어와 만나다—박차민정(2018),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한국여성학』 제34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18, 164쪽.

장에 기입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양상이 일제 말기라는 엄혹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시금 퀴어 서사의 은폐로 이어지는 모습까지 제시하려 했다.

이러한 기획의 기저에는 ① 한국문학(장)의 만성적인 동성애혐오를 계보학적 관점에서 구명(究明)함으로써, '근대 문학'과 '동시대 문학'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함을 밝히려는 의도가 놓여 있었다. 러브(Heather Love)가 말했듯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혐오가 퀴어의 삶을 구조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외면할 수 없다. 대신 비록 우리가 잊고자 하는 사회적·정신적 현실에 우리를 개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508] 본고는 이처럼 과거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② 한국문학의 전통 속에 잠재해 있는 퀴어한 존재·욕망·감정을 회복하고, 과거의 문학을 읽는 행위를 (다시) 정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본고의 기획이란 ③ "'부재하는/누락된' 사실을 발명"하고 "견본"이라는 "특정한 경험의 역사"를 다시 씀으로써,[509] 한국문학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고, 한국문학의 정치적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재차 강조하자면, 이러한 기획의 출발점에는 '지금 세대로서의 퀴어 독자'가 존재하며, 앞에서 제기한 물음 '퀴어 독자에게도 역사가 존재하는가'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기실 '퀴어에게도 역사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의 다른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퀴어 역사 기술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1910~1920년대 초를 '퀴어 서사 시대'로 재규정하는 작업은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즉 본고는 이 작업이 ㉠ 퀴어 역사 기술의 빈 공간을 채워 넣음으로써, 근대 이후 한국에서 이성애 섹슈얼리티가 자연화되고 특권화된 것은 언제인가라는 의문[510]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또한 퀴어가 주로 사건·사고나 가십의 형태로 언론에 재현되어 왔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예컨대 퀴

508) Heather Love, 앞의 책, 29쪽.
509) 루인, 「캠프 트랜스—이태원 지역 트랜스젠더의 역사 추적하기, 1960~1989」, 『문화연구』 제1권 제1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12, 248-249쪽.
510) 최태섭, 『한국, 남자』, 은행나무, 2018, 277쪽.

어의 역사가 곧 “범죄의 역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난국[511]을 해결하는 데 문학이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나아가 궁극적으로 본고가 시도하고 있는 ‘한국퀴어문학사’의 기술을 넘어, 다양한 학제 간의 교류를 통해 더욱 두터운 퀴어의 역사를 구축하는 데 이 작업이 일조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지금 세대로서의 퀴어’에게 적절한 사적(史的) “견본”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문학에 나타난 퀴어한 존재·욕망·감정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511) “한국에서 트랜스젠더퀴어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이자 성매매의 역사다. 따라서 트랜스젠더퀴어의 역사를 찾는 작업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체화하는 개개인을 찾아가는 작업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이 구성되는 방식, 범죄가 구성되는 방식을 찾아가는 작업이다.”(루인, 「트랜스젠더퀴어를 찾아가는 방법: 1980년대를 중심으로」, 『제11회 성소수자인권포럼 여기, 축제: 퀴어-젠더 연구포럼 자료집』,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2019, 271쪽.); “1920~30년대의 신문과 잡지 속에서 범죄 기사, 논설, 오락 기사 등과 같 (…) 은 자료들은 1920~30년대 조선에서 살았던 퀴어한 존재들에 대해 완벽하거나 정확한 상을 제공하지 못한다. (…) 퀴어한 존재들의 목소리는 매우 드물게만 드러날 뿐 아니라, 등장하더라도 경찰의 심문 내용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맥락 속에서만 나타난다. (…) 이러한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은 퀴어의 ‘진실’과 무관하게, 당대의 경찰, 판사, 의사, 언론인들이 이 기이한 존재들에 대해 생산했던 담론들이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박차민정, 앞의 책, 8-9쪽.)

참 고 문 헌

1. 기 본 자 료

- 고한승, 「산구 C형에게」, 『여광』 제2호, 1920.6.
- _____, 「친구의 묘하」, 『여광』 제1호, 1920.3.
- 김교제, 『경즁화』, 보문관, 1923.
- 김동인, 「김연실전」, 『문장』 제1권 제2호, 1939.3.
- _____, 「마음이 여튼 자여」, 『창조』 제3호~제6호, 1919.12~1920.5.
- _____, 「사진과 편지」, 『월간매신』 제3호, 1934.4(『김동인전집』 제3권, 조선일보사, 1988).
- 김순영, 「언니 저 달나라로」, 『신여성』 제7권 제6호, 1933.6.
- 김용원, 「나의 사랑ᄒᆞᄂᆞᆫ 벗에게」, 『신청년』 제1호, 1919.1.
- 김 환, 「고향의 길」, 『창조』 제2호, 1919.3.
- _____, 「나의 묵은 일기에서」, 『창조』 제9호, 1921.6.
- _____, 「동도의 길」, 『창조』 제3호, 1919.12.
- _____, 「동정의 루」, 『학지광』 제19호~제20호, 1920.1~7.
- _____, 「자연의 자각」, 『현대』 제1호, 1920.1.
- _____, 「향촌의 누이로부터」, 『매일신보』, 1919.11.17.
- 노자영, 「애우를 일코」, 『매일신보』, 1919.10.6.
- 박계주, 『진리의 밤』, 『경향신문』, 1948.10.1~1949.4.23.
- 박달성, 「대경축시의 감으로 ㄷ형에게 올림」, 『개벽』 제3호, 1920.8.
- 박석윤, 「벗의 죽엄」, 『학지광』 제20호, 1920.7.
- 박영희, 『반려』, 『삼천리』 제8권 제8호~제10권 제1호, 1936.8~1938.1; 『삼천리 문학』 제2집, 1938.4.
- 박은애, 「현상실화 삼각연애에 대한 나의 해결책—C언니는 나의 은인이외다」,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10.
- 박이양, 『명월정』, 유일서관, 1912.
- 박종화, 「눈물의 ᄭᅮᆷ길」, 『신청년』 제4호, 1921.1.
- 박태원, 『미녀도』, 『조광』 제7호~제10호·제12호, 1939.7~12.
- 방인근, 『마도의 향불』, 『동아일보』, 1932.11.5~1933.6.12.
- _____, 「비오는 날」, 『조선문단』 제2호, 1924.11.
- 방정환, 「경성 P형에게」, 『개벽』 제1호, 1920.6.
- _____, 「유범」, 『개벽』 제1호, 1920.6.
- _____, 「이상한 인연」, 『신여성』 제2권 제3호, 1924.3.

- 보 월,「애우」,『개벽』 제15호, 1921.9.
- 설 주,「구우를 생각하면서」,『여자계』 제6호, 1921.1.
- 심 훈,『영원의 미소』,『중앙일보』, 1933.7.10~1934.1.10(『심훈전집』 제3권, 글누림출판사, 2016).
- _____,『직녀성』,『조선중앙일보』, 1934.3.24~1935.2.26(『심훈전집』 제4·5권, 글누림출판사, 2016).
- 야광주,「B형의게」,『청년』 제2권 제9호, 1922.10.
- 염상섭,『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동아일보』, 1923.8.27~1924.2.5.
- _____,『이심』,『매일신보』, 1928.10.22~1929.4.24(『염상섭전집』 제3권, 민음사, 1987).
- _____ 외,『황원행』,『동아일보』, 1929.6.8~10.21.
- 오광진,「나의 편지」,『청년』 제2권 제6호, 1922.6.
- 월견초생,「여학생 일기」,『신여성』 제7권 제6호, 1933.6.
- 윤봉순,「명랑한 제복의 처녀」,『신여성』 제7권 제6호, 1933.6.
- 윤승한,『만향』,『동아일보』, 1937.12.1~1938.7.19.
- 윤자영,「고생하는 언니와 외로운 아우의게」,『아성』 제1호, 1921.3.
- 이광수,『그의 자서전』,『조선일보』, 1936.12.22~1937.5.1(『이광수전집』 제9권, 삼중당, 1966).
- _____,「김경」,『청춘』 제6호, 1915.3.
- _____,『나의 고백』, 춘추사, 1948.
- _____,『무정』,『매일신보』, 1917.1.1~6.14(문학과지성사, 2005).
- _____,「방황」,『청춘』 제12호, 1918.3.
- _____,「사랑에 주렷던 이들」,『조선문단』 제4호, 1925.1.
- _____,「사랑인가」,『백금학보』, 1909.12(김윤식 편역,『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 도서출판 역락, 2007).
- _____,『애욕의 피안』,『조선일보』, 1936.5.1~12.21(『이광수전집』 제8권, 삼중당, 1966).
- _____,「어린 벗에게」,『청춘』 제9호~제11호, 1917.7~11.
- _____,「윤광호」,『청춘』 제13호, 1918.4.
- _____,「인생의 향기—잊음의 나라로」,『영대』 제5호, 1925.1.
- _____,「혈서」,『조선문단』 제1호, 1924.10.
- _____,『흙』,『동아일보』, 1932.4.12~1933.7.10(『이광수전집』 제6권, 삼중당, 1966).
- _____,「H군을 생각하고」,『조선문단』 제2호, 1924.11.
- _____,「H군의게」,『창조』 제7호, 1920.7.
- 이기영,『봄』,『동아일보』, 1940.6.11~8.10;『인문평론』, 1940.10~1941.2(도서출판 풀빛, 1989).

- _____, 『신개지』, 『동아일보』, 1938.1.19~9.8.
- 이상구 역, 『방한림전』, 문학동네, 2017.
- 이서구, 「연작만담 여자의 일생 (제2회) 수학편」, 『별건곤』 제62호, 1933.4.
- 이옥녀, 「그리움을 다시 그리며—옥녀의 가느단 소망」, 『신여성』 제8권 제1호, 1934.1.
- 이익상, 「망우 최이 군의 추억」, 『학지광』 제21호, 1921.1.
- 이효석, 「개살구」, 『조광』 제3권 제10호, 1937.10.
- _____, 「소복과 청자」, 출처 미상(이호철 역, 『이효석전집』 제6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_____, 「수난」, 『중앙』 제2권 제12호, 1934.12.
- _____, 『화분』, 인문사, 1939(『이효석전집』 제3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이희철, 「K선생을 생각함」, 『창조』 제5호, 1920.3.
- 정 숙, 「영원히 니즐 수 없는 그리운 K언니에게!」, 『신여성』 제3권 제10호, 1925.10.
- 조두섭, 「신춘에 고향의 벗에게」, 『배재』 제1호, 1922.11.
- 조애영, 「사우가」, 『은촌내방가사집』, 금강출판사, 1971.
- 지하련, 「가을」, 『조광』 제7권 제11호, 1941.11.
- _____, 「결별」, 『문장』 제2권 제10호, 1940.12.
- _____, 「양」, 『도정』, 백양당, 1948(『지하련전집』,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 _____, 「종매」, 『도정』, 백양당, 1948(『지하련전집』,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 ㅊ 생, 「이형에게」, 『학생계』 제17호, 1922.9.
- 채만식, 「연작만담 여자의 일생」, 『별건곤』 제63호, 1933.5.
- 최승일, 「이국에 사랑」, 『삼천리』 제6권 제11호, 1934.11.
- 최정희, 『녹색의 문』, 『서울신문』, 1953.2.26~7.8.
- _____, 「봄」, 『문예』 제6호, 1950.1.
- _____, 「여명」, 『야담』 제8권 제5호, 1942.5.
- _____, 「인맥」, 『문장』 제2권 제4호, 1940.4.
- _____, 「질투」, 『신여성』 제8권 제1호, 1934.1.
- 춘강생, 「금계동 Y군을 생각하고」, 『신청년』 제4호, 1921.1.
- 한인택, 『선풍시대』, 『조선일보』, 1931.11.7~1932.4.23(권영민·이주형·정호웅 편,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제24권, 1988).
- 해북생, 「병우」, 『개벽』 제2호, 1920.7.

2. 국 내 논 저

- 강동호·박인성·오혜진·이우창·황현경, 「좌담: 우리 세대의 비평」, 『세대론-픽션』 (『문학과사회』 제115호 별책), 문학과지성사, 2016.
-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성」,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한국한문학회, 2008.
- 강문종, 「전통시대 동성애 연구」, 『영주어문』 제30집, 영주어문학회, 2015.
- 강소희, 「근대 여성 소설의 수행성 연구: 백신애, 이선희, 지하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강현국, 「기억의 연금술—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성격 연구」, 『한국학연구』 제3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6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 구사회, 「「모죽지랑가」의 가요적 성격과 동성애 코드」, 『한민족문화연구』 제38집, 한민족문화학회, 2011.
- 구인모, 「사실의 낭만화, 욕망의 팰림시스트(palimpsest)」, 『국제어문』 제59집, 국제어문학회, 2013.
- 권두연, 「소설의 모델, 독자, 작가—이희철의 문학적 행보에 대한 고찰」, 『비평문학』 제42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
-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 _____,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 _____,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 권보드래, 「신소설의 여성성과 광기의 수사학」, 『한국문학연구』 제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4.
- _____,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운동」, 『대동문화연구』 제6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 권유성, 「1910년대 『학지광』 소재 문예론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45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 길진숙, 「문명 체험과 문명의 이미지」, 권보드래 외,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연구』 제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 김경태, 「친밀한 유토피아: 동시대 한국 남성 동성애 영화가 욕망하는 관계성」,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미현, 「이효석 소설과 남성성의 균열—『화분』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67집, 한국비평문학회, 2018.
- 김병구, 「이기영의 자전적 장편소설 『봄』 연구」, 『건지인문학』 제14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 김병국, 「「구운몽」에 반영된 어머니 컴플렉스적 요소」,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제1권, 한국어교육학회, 1969.
- 김성수, 「근대 서간의 매체별 존재양상과 기능」, 『현대문학의 연구』 제4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 _____,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 양식 연구 (1)—근대 서간의 형성과 양식적 특징」, 『민족문학사연구』 제39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 _____,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 양식 연구 (2)—근대 서간 텍스트의 역사적 변천과 문학사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4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제17권, 한국여성철학회, 2012.
- 김예림, 「1920년대 초반 문학의 상황과 의미—서사 장르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6집, 상허학회, 2000.
- 김유중, 「김기림의 역사관, 문학관과 일본 근대 사상의 관련성—'근대의 초극'론의 극복을 위한 사상적 모색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6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제1권, 솔출판사, 1999.
- 김인숙, 「심사평」, 임현 외, 『2017 제8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7.
-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 김주리, 「신여성 자아의 모방 욕망과 '다시쓰기'의 서사전략—최정희의 「인맥」과 지하련의 「결별」 연작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0집, 한국비평문학회, 2008.
- 김준형 역, 『조선후기 성 소화 선집』, 문학동네, 2010.
- 김지혜, 「1950년대 여성국극공동체의 동성친밀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6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10.
- 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제33집, 상허학회, 2011.
- 김 현, 「견본 세대 2」, 『질문 있습니다』, 서랍의날씨, 2018.
- 김현주, 「1930년대 "수필" 개념의 구축 과정」, 『민족문학사연구』 제22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3.
- 김홍중,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시학—니체와 벤야민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70호, 비판사회학회, 2006.
- _____,「미래의 미래」,『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 노지승,「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 사적 영역의 성립 및 근대적 개인의 탄생 그리고 편지 형식 소설과의 관련에 대하여」,『민족문학사연구』 제20집, 민족문학사학회, 2002.
- _____,「식민지 시기, 여성 관객의 영화 체험과 영화적 전통의 형성」,『현대문학의 연구』 제4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 노태훈,「깨어 있는 꿈—예술가의 정체성, 퀴어라는 장르」, 박민정 외,『2018 제9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8.
- 루 인,「괴물을 발명하라: 프릭, 퀴어, 트랜스젠더, 화학적 거세 그리고 의료규범」, 권김현영 외,『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모음, 2012.
- _____,「규범이라는 젠더, 젠더라는 불안: 트랜스/페미니즘을 모색하는 메모, 세 번째」,『여/성이론』 제2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
- _____,「캠프 트랜스—이태원 지역 트랜스젠더의 역사 추적하기, 1960~1989」,『문화연구』 제1권 제1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12.
- _____,「트랜스젠더퀴어를 찾아가는 방법: 1980년대를 중심으로」,『제11회 성소수자인권포럼 여기, 축제: 퀴어-젠더 연구포럼 자료집』,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2019.
- 민승기,「재로 남아 저항하는 편지들—데리다의『우편엽서』」,『비교문학』 제74집, 한국비교문학회, 2018.
- 박관수,「1940년대의 '남자동성애' 연구」,『비교민속학』 제31집, 비교민속학회, 2006.
- 박미선,「애드리언 리치: 반여성주의에 맞서 다시 읽는 급진 여성주의」,『여/성이론』 제22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
- _____,「행복을 통한 규율과 "정서적 변환"의 정치 비판—사라 아메드의『행복의 약속』」,『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 박성진,「일제하 인종주의의 특성과 적용형태」,『한국근현대사연구』 제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6.
- 박숙자,「근대문학의 형성과 감정론—'감정과잉'의 문학사적 평가와 관련하여」,『어문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박이은실,「퀴어 이론가—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윅」,『여/성이론』 제30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4.
- 박차민정,「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애 규범성'의 탄생」,『역사와 문화』 제22집, 2011.

- _____,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 방민호, 「「문학이란 하오」와 『무정』, 그 논리구조와 한국 문학의 근대 이행」, 『춘원연구학보』 제6집, 춘원연구학회, 2012.
- _____, 「이광수의 자전적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어문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 _____,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의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 배개화, 「이광수 초기 글쓰기에 나타난 '감정'의 의미」, 『어문학』 제95집, 한국어문학회, 2007.
- 서종석, 「'완전한' 우정과 '낭만적 사랑'—몽테뉴의 「우정에 대하여」에 나타난 우정의 개념」, 『프랑스학연구』 제61권, 프랑스학회, 2012.
-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 손유경,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의 개인과 인류」, 『현대소설연구』 제4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 _____,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 _____, 「'여류'의 교류—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 (2)」,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7.
- _____, 「지하련이 인격화한 진보의 민낯」,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 송지연, 「1910년대 계몽의 기획—근대소설과 근대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4집, 구보학회, 2008.
- 신범순, 「30년대 문학에 있어서 퇴폐적 경향에 대한 논의」, 『관대논문집』 제24권 제2호, 관동대학교, 1996.
- 신지연, 「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 『민족문화연구』 제4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_____, 「'느슨한 문예'의 시대: 편지형식과 '벗'의 존재 방식」, 『반교어문연구』 제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 _____, 「이광수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성 간 관계와 감정의 언어화 방식」, 『상허학보』 제21집, 상허학회, 2007.
- 실비안, 가브리엘, 「'정'의 각성과 그 표현—「사랑인가」를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제1집, 춘원연구학회, 2008.
-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상허학보』 제13집, 상허학회, 2004.
- 안용희, 「신청년의 분화(噴火/分化)와 '운동'의 문학적 형상화」, 『어문연구』 제44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 엄미옥,「한국 근대 여학생 담론과 그 소설적 재현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20세기 여성 사건사』, 도서출판 여성신문사, 2001.
- 염희경,「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숨은 방정환 찾기—방정환의 필명 논란을 중심으로」,『아동청소년문학연구』제14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4.
- 오성호,「닫힌 시대의 소설—이기영의『봄』에 대하여」, 이기영,『봄』, 도서출판 풀빛, 1989.
- 오혜진,「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문화과학』제85호, 문화과학사, 2016.
- 우정권,『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양식』, 소명출판, 2004.
- 유광수,「「옥루몽」, 성애 표현의 서사적 기능과 은폐된 폭력성」,『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윤조원,「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영미문학페미니즘』제17권 제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9.
- 이경돈,「동인지『여광』의 문학과 정체성의 공간」,『한중인문학연구』제26집, 한중인문학회, 2009.
- 이경훈,「춘원과『창조』—근대 문단 형성의 한 양상」,『현대소설연구』제14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 이문우,「1980년대를 퀴어링하기: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명호,「감정의 문화정치」, 이명호 외,『감정의 지도 그리기』, 소명출판, 2015.
- 이사유,「『창조』의 실무자 김환에 대한 고찰」,『한국학연구』제3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이 서,「언니 저 달나라로: 백합물과 1910-30년대 동북아시아 여학생 문화」,『퀴어인문잡지 삐라』제1호, 노트인비트윈, 2012.
- 이성희,「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동성애" 고찰」,『관악어문연구』제30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 이영아,「1910년대 조선인의 타자의 몸에 대한 시선 고찰—잡지『청춘』,『학지광』을 중심으로」,『한국문화』제4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 이유정,「1920~30년대 조선의 신여성과 그레타 가르보」,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재원, 「식민주의와 '인간 동물원'—'호텐토트의 비너스'에서 '파리의 식인종'까지」, 『서양사론』 제106권, 한국서양사학회, 2010.
- 이정숙, 「1910~20년대의 '동성애' 모티프 소설 연구」, 『한성어문학』 제26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7.
- 이희춘, 「춘원 소설의 동성애에 관한 고찰」,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88.
- 임동현, 「동성애적 정체성 형성의 퀴어이론적 분석: 노년 게이 남성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여이연, 2016.
- _____, 「혐오 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 임은희, 「탈주하는 성, 한국 현대소설: 1910~20년대 소설의 동성애적 모티프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 장시광 역, 『방한림전: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06.
- 장정희, 「방정환의 소설 「유범」 연구—독립의 서사전략화 및 항일저항소설로서 문학사적 의의」,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 전병무, 「신자료 「김마리아방문기」를 통해 본 나혜석의 삶」, 『나혜석연구』 제7집, 나혜석학회, 2015.
- 전원근,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제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5.
- 전혜은, 「수잔 웬델—손상의 현상학자」, 『여/성이론』 제27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2.
- 정민우, 「퀴어 이론, 슬픈 모국어」, 『문화와 사회』 제13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 정병설 역, 『조선의 음담패설: 『기이재상담』 읽기』, 예옥, 2010.
- 정주환, 「수필문학의 명칭 형성과정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
- 정현숙, 「차상찬 연구 (1)—기초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위한 제언」, 『근대서지』 제16호, 근대서지학회, 2017.
-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 조광국 역, 『홍계월전』, 문학동네, 2017.
- 조주영,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5권 제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 조혜란, 「좌절과 모색의 경계—개화 지식인 의전 육용정의 인물전 연구」, 『탈경계

인문학』 제10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1.
- 진은아,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성의 양상과 성담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제5집, 한국여성연구소, 2005.
-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제1권, 현암사, 2004.
- 최성경, 「아주 오래된 후일담」, 이종산 외,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큐큐, 2018.
- 최주한, 「이광수 소설 연구: 애정 삼각관계의 양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최태섭, 『한국, 남자』, 은행나무, 2018.
- 친구사이 & 가구넷, 「사랑에 차별이 있나요—레즈비언 부부 '낮잠과 유다' 이야기」, 『신가족의 탄생』, 시대의창, 2018.
- 하신애, 「전시체제 하의 여성성과 징후로서의 동성애」, 『반교어문연구』 제32권, 반교어문학회, 2012
- 한 설, 「무지갯빛 무지개—이광수부터 김봉곤까지」, 『크릿터』 제1호, 민음사, 2019.
- 한승옥, 「동성애적 관점에서 본 『무정』」, 『현대소설연구』 제2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허 윤,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최정희의 『녹색의 문』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8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 _____, 「멜랑콜리아, 한국문학의 '퀴어'한 육체들—1950년대 염상섭과 손창섭의 소설들」, 오혜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 _____, 「번역된 섹슈얼리티, 식민지 조선의 퀴어와 만나다—박차민정(2018),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한국여성학』 제34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18.
- 황정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디디의 우산』, 창비, 2019.
- 황정현, 「『무정』에 관한 초기 비평 연구—1945년 이전의 비평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7권, 민족어문학회, 2008.

3. 국 외 논 저

- Ahmed, Sara,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 Austin, John L., 『말과 행위』, 김영진 역, 서광사, 1992.
- Berlant, Lauren, 「잔혹한 낙관주의」,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정

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 _____ & Warner, Michael, "Sex in Public," *Critical Inquiry*, Vol.24, No.2, Winter 1998.
- Bertram, Georg W.,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정대성 역, 도서출판 박이정, 2015.
- Brown, Wendy, 『관용』, 이승철 역, 갈무리, 2010.
- Burkitt, Ian, 『감정과 사회관계』, 박형신 역, 한울아카데미, 2017.
- Butler, Judith,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 _____, 『혐오 발언』, 유민석 역, 알렙, 2016.
- Călinescu, Matei,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백한울·오무석·백지연 역, 시각과 언어, 1994.
- Carlin, Norah & Wilson, Colin,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이승민·이진화 역, 책갈피, 2016.
- Derrida, Jacques, 『법의 힘』, 진태원 역, 문학과지성사, 2004.
- _____, "Signature Event Context," trans. Samuel Weber & Jeffrey Mehlman, *Limited Inc*, ed. Gerald Graff,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 Edelman, Lee, "The Future Is Kid Stuff,"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2004.
- Foucault, Michel,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2010.
- Girard, René,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1.
- Halberstam, Judith, 『여성의 남성성』, 유강은 역, 이매진, 2015.
- Halperin, David M., "How to Do the History of Male Homosexuality," *How to Do the History of Homosexu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Jagose, Annamarie, 『퀴어 이론: 입문』, 박이은실 역, 여이연, 2012.
- _____, 「페미니즘의 퀴어이론」, 박이은실 역, 『여/성이론』 제2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
- Kant, Immanuel,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 Le Blanc, Guillaume, 『안과 밖』, 박영옥 역, 글항아리, 2014.
- Lorde, Audre,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 『시스터 아웃사이더』, 주해연·박미선 역, 후마니타스, 2018.
- Love, Heather, *Feeling Backward: Loss and the Politics of Queer*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Luhmann, Niklas,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새물결출판사, 2009.
- Marinucci, Mimi, 『페미니즘을 퀴어링!』, 권유경·김은주 역, 봄알람, 2018.
- Mosse, George L.,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소명출판, 2004.
- Rich, Adrienne,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Adrienne Rich's Poetry and Prose*, Selected and Edited By Barbara Charlesworth Gelpi & Albert Gelpi, W.W. Norton, 1993.
- Rubin, Gayle, 『일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역, 현실문화, 2015.
-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 _____, *Epistemology of the Close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Seigworth, Gregory J. & Gregg, Melissa, 「미명의 목록[창안]」,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 Silverberg, Miriam,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강진석·강현정·서미석 역, 현실문화, 2014.
- Svyatopolk-Mirsky, Dmitry Petrovich, 『러시아 문학사』, 이항재 역, 써네스트, 2008.
- Young, Iris M.,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역, 모티브북, 2017.
- 東浩紀, 『존재론적, 우편적』,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15.
- 上野千鶴子, 「호모소셜, 호모포비아, 여성 혐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5.

4. 기 타 자 료

- 「각 민족의 안면각도」, 『개벽』 제5호, 1920.11.
- 「고상한 쾌락」, 『청춘』 제6호, 1915.3.
- 「동성의 신랑신부의 결혼식」, 『여인』 제1호, 1932.6.
- 「등하불명의 근기 정형」, 『개벽』 제47호, 1924.5.
- 「모던신어사전」, 『신여성』 제5권 제1호, 1931.1.
- 「모던어사전」, 『신여성』 제6권 제2호, 1932.2.

- 「벗의 왕국」, 『개벽』 제3호, 1920.8.
- 「사람은 몃 살부터 이성을 아느냐 (3)」, 『동아일보』, 1929.11.4.
- 「삼대여성이 본 문화반세기」, 『동아일보』, 1939.1.1~3.
- 「세계 일등의 야만인」, 『청춘』 제2호, 1914.11.
- 「신어해설」, 『동아일보』, 1932.3.9.
- 「여류명사의 동성연애기」, 『별건곤』 제34호, 1930.11.
- 「이(二) 여성의 자살」, 『동아일보』, 1931.4.11.
- 「인종」, 『청춘』 제1호, 1914.10.
- 「인종기선학」, 『우리의가뎡』 제3호, 1914.2.
- 「작부 이명이 정사, 동성연애가 염세증이 되어 월미도 앞에 허리매고 빠져」, 『시대일보』, 1924.5.6.
- 「정조경시의 소설. 정사, 동성애의 예찬은 불가. 전시하의 소설도 통제」, 『동아일보』, 1938.9.14.
- 「차회연재장편소설예고—거탄의 농민소설」, 『동아일보』, 1940.6.7.
- 「팔도여자 살님사리 평판기」, 『별건곤』 제16·17호, 1928.2.
- 김기전, 「칠백여명의 새로운 녀자를 내인 서울녀자고등보통학교의 긔숙사 생활」, 『부인』 제1권 제5호, 1922.10.
- _____, 「요때의 조선 신여자」, 『신여성』 제1권 제2호, 1923.11.
- 김남천, 「당대 조선 여성 기질」, 『사해공론』 제4권 제8호, 1938.8.
- _____, 「여성과 직업 문제」, 『여성』 제5권 제12호, 1940.12.
- _____, 「이효석 저 『화분』의 『성』 모랄」, 『동아일보』, 1939.11.30.
- 김동인, 「춘원연구 (2)」, 『삼천리』 제6권 제8호, 1934.8.
- 김문집, 「문단인물지」, 『사해공론』 제4권 제8호, 1938.8.
- 김연금, 「내가 본 파리제」, 『삼천리』 제6권 제9호, 1934.9.
- 김원태, 「산아이거든 풋뽈을 차라」, 『개벽』 제5호, 1920.11.
- 김유방, 「「K」형의게」, 『폐허』 제1호, 1920.7.
- 김이준, 「출진하는 용사 제군의게」, 『학지광』 제6호, 1915.7.
- 김형원, 「그래도 「불만족」」, 『청춘』 제13호, 1918.4.
- 김 환, 「나믄 말」, 『창조』 제3호, 1919.12.
- _____, 「신비의 막」, 『창조』 제1호, 1919.2.
- 나혜석, 「경희」, 『여자계』 제2호, 1918.3.
- _____, 「대구에 갓든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제3신 (2)」, 『동아일보』, 1920.6.19.
- _____, 「이상적 부인」, 『학지광』 제3호, 1914.12.
- _____, 「인형의 가」, 『매일신보』, 1921.4.3.

- _____, 「잡감」, 『학지광』 제12호, 1917.4.
- _____, 「잡감—K언니에게 여함」, 『학지광』 제13호, 1917.7.
- _____, 「저것이 무엇인고」, 『신여자』 제2호, 1920.4(『나혜석전집』,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13).
- 박달성, 「어떠케 하면 부인다운 부인이 될가」, 『부인』 제1권 제3호, 1922.8.
- 박석윤, 「자기의 개조」, 『학지광』 제20호, 1920.7.
- _____, 「C형님의게」, 『학지광』 제19호, 1920.1.
- 박영섭, 「실연을 동정하면서」, 『매일신보』, 1919.12.8.
- 박영희, 「이광수론—문학상으로 본 이광수」, 『개벽』 제55호, 1925.1.
- 박윤원, 「대유잡감」, 『개벽』 제9호, 1921.3.
- 박이규, 「여의 직관적 소감」, 『학지광』 제6호, 1915.7.
- 변영로, 「『오뇌의 무도』의 머리에」, 김억, 『오뇌의 무도』, 광익서관, 1921.
- 복면아, 「그 여자들은 웨 철도자살을 하였나?, 홍·김 양 여자, 영등포 철도 자살 사건 후문」, 『별건곤』 제40호, 1931.5.
- 석란생, 「소설 임상순」, 『개벽』 제13호, 1921.7.
- 송석하, 「전승 음악과 광대 (3)」, 『동아일보』, 1935.10.5.
- 심 훈, 「무정·재생·환희·『탈춤』 기타 소설에 쓰인 인물은 누구들인가, 만히 닑혀진 소설의 『모델』 이약이」, 『별건곤』 제3호, 1927.1.
- 쌍 S, 「신부후보자 전람회 입장무료 쌍S주최」, 『별건곤』 제29호, 1930.6.
- _____, 「학후·풍자·기발 신부후보자 전람회 (제2회)」, 『별건곤』 제30호, 1930.7.
- 안 확, 「조선의 문학」, 『학지광』 제6호, 1915.7.
- 유창선, 「전통과 창조 (4)」, 『동아일보』, 1939.1.26.
- 윤익선, 「엄격한 의미로 본 오인의 행복」, 『개벽』 제12호, 1921.6.
- 이 경, 「일기의 편편」, 『문우』 제1호, 1932.12.
- 이광수, 「거울과 마조 안자」, 『청춘』 제7호, 1917.5.
- _____, 「금일 아한 청년과 정육」, 『대한흥학보』 제10호, 1910.2.
- _____, 「애인과 안해—성의 비극과 나의 애인과 안해」, 『삼천리』 제3호, 1929.11.
- _____, 「내 소설과 모델: 『혁명가의 안해』와 모 가정」, 『삼천리』 제6호, 1930.5.
- _____, 「동경에서 경성까지」, 『청춘』 제9호, 1917.7.
- _____, 「동정」, 『청춘』 제3호, 1914.12.
- _____, 「무정」, 『대한흥학보』 제11호~제12호, 1910.3~4.
- _____, 「문사와 수양」, 『창조』 제8호, 1921.1.
- _____, 「문예만화」, 『동광』 제17호, 1931.1.
- _____, 「문예쇄담—신문예의 가치 (13)」, 『동아일보』, 1925.11.14.

- _____, 「문학의 가치」, 『대한흥학보』 제11호, 1910.3.
- _____, 「문학이란 하오」, 『매일신보』, 1916.11.10~23(『이광수전집』 제1권, 삼중당, 1966).
- _____, 「상해서」, 『청춘』 제3호~제4호, 1914.12~1915.1.
- _____, 「새 아이」, 『청춘』 제3호, 1914.12.
- _____, 「야수에의 복귀, 청년아 단결하야 시대 악과 싸호자」, 『동광』 제21호, 1931.5.
- _____, 「위선 수가 되고 연후에 인이 되라」, 『학지광』 제11호, 1917.1.
- _____, 「자녀중심론」, 『청춘』 제15호, 1918.9.
- _____, 「해삼위로서」, 『청춘』 제6호, 1915.3.
- 이돈화, 「생활상으로 관한 경제관념의 기초」, 『개벽』 제11호, 1921.5.
- _____, 「생활의 조건을 본위로 한 조선의 개조사업, 이 글을 특히 민족의 성쇠를 쌍견에 부한 청년제군에 부팀」, 『개벽』 제15호, 1921.9.
- 이석훈, 「동성애 만담」, 『동아일보』, 1932.3.17·19.
- 이소아, 「나는 이러한 이셩을 요구합니다」, 『부인』 제1권 제5호, 1922.10.
- _____, 「우리들 처녀의 속 타는 심정」, 『부인』 제2권 제2호, 1923.2.
- _____, 「현대의 녀자 아닌 사람에게 전하노라」, 『부인』 제2권 제6호, 1923.6.
- 이양선, 「새로 오신 여러 형님에게」, 『여자계』 제6호, 1921.1.
- 이익상, 「예술적 양심이 결여한 우리 문단」, 『개벽』 제11호, 1921.5.
- 임노월, 「경이와 비애에서」, 『개벽』 제21호, 1922.3.
- 임영빈, 「K형에게」, 『여광』 제2호, 1920.6.
- 임인생, 「모던이쓤」, 『별건곤』 제25호, 1930.1.
- 장덕수, 「졸업생을 보내노라」, 『학지광』 제6호, 1915.7.
- 정충원, 「아아 형제여」, 『학지광』 제6호, 1915.7.
- 조희순, 「문예 로만스 (8)—양시인의 진교분」, 『동아일보』, 1934.8.11.
- 주요섭, 「학생풍기물란론」, 『동광』 제28호, 1931.12.
- 주요한, 「장강 어구에서」, 『창조』 제4호, 1920.2.
- 지하련, 「편지—육필서한 1」, 『지하련전집』,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 차상찬, 「대탐사기 깍정이로 변신 잠입하야 포사군의 소굴에 일야동숙, 경성명물. 깍정이. 땅군의 진기한 생활내막」, 『별건곤』 제7호, 1927.7.
- _____, 「색색형형의 경성 첩마굴 가경가증한 유산급의 행태」, 『개벽』 제49호, 1924.7.
- _____, 「전라북도답사기」, 『개벽』 제64호, 1925.12.
- _____, 「전조선 괴풍속 전람회, 입장무료」, 『별건곤』 제11호, 1928.2.
- 최남선, 「널니 인류를 보라」, 『청춘』 제8호, 1917.6.

- _____, 「『소년』의 기왕과 및 장래」, 『소년』 제3권 제6호, 1910.6.
- _____, 「잡언십」, 『소년』 제3권 제8호, 1910.8.
- 최백월, 「내가 여학생 시대를 갖는다면」, 『학생』, 1929.5.
- 최승구, 「정감적 생활의 요구」, 『학지광』, 제3호, 1914.12.
- _____, 「불만과 요구」, 『학지광』 제6호, 1915.7.
- 최정희, 「신흥 여성의 기관지 발행」, 『동광』 제29호, 1931.12.
- _____, 「오동나무 미테서—한끄트럭의 조고만 기억」, 『삼천리』 제4권 제4호, 1932.4.
- 현상윤, 「조선 청년과 각성의 제1보」, 『학지광』 제15호, 1918.3.
- 현 철, 「여학생과 동성연애 문제」, 『신여성』 제2권 제9호, 1924.12.
- 흰 달, 「인간계에서 모르고 있는 여학교 기숙사의 비밀」, 『별건곤』 제15호, 1928.8.

Abstract

The Genealogy of the Modern Korean Queer Narrative

Baek Jong-Ry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tore the emotion and desire of queer existence within modern Korean literature not yet fully dealt with in treatments of its literary history. By capturing the original moment when the Korean literary field was reorganized heterocentrically, this thesis focuses on proving that the heteronormativity of the Korean literary field is not natural. Through this, this thesis will (re)invigorate the politics of Korean literature and make the act of reading Korean literary works of the past into a political act (again). With the recent social visibility of the queer community, the longing of queer people to find "a sample" to prove their existence within literary works of past grows increasingly more intense. In response to this desire to discover traces of past queer existence, this thesis attempts to write a new "history of Korean queer literature" by recovering the rightful voice of queer people represented in narratives from the 1910s to the 1940s.

This thesis seeks to redefine the period from the 1910s to the early 1920s as "The Era of Queer Narrative." The male youth of this period was

represented as a pioneering spirit of the times, leading Joseon into a civilized society, as an emblem of hope pushing history constantly forward. In addition, a "love" among male youth, a form of sympathy, was actively demanded by society. At the time, on the argument from many intelligentsia-literati that civilization was differentiated from barbarism depending on the non/existence of sympathy towards others, male youth possessed the potential to become pioneers of civilization and emblems of futurity (only) by exchanging a "sympathy=love" with each other. Male youths from "The Era of Queer Narrative" confirmed their "sympathy=love" towards each other with physical contact such as hugging and kissing, on the basis of which they constructed an Emotional-Community.

The Emotional-Community was a community formed by male youth for the civilization of Joseon through the exchange of "sympathy=love," in order to continue to provide emotional momentum for progress towards a civilized society. In addition, literary form, such as novels and epistolary texts, performed the role of teaching the codes of "sympathy=love" to male youth. In particular, the explosion of epistolary texts in "The Era of Queer Narrative" greatly influenced the spread of the notion that expressing "love" among friends of the same sex adhered to the correct writing convention.

In the process of these repetitive citations of "love," however, "love" could be cited against its original intention, and "love" among male youth always had a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converted into romantic love, that is, queer emotion. In this way, if there is a close continuity between the "love" among male youth and queer emotion, the foundation of the Emotional-Community was indeed queer emotion, therefore the Emotional-Community of "The Era of Queer Narrative" might be defined as a Queer Emotional-Community. And through this, all texts expressing a male's "love" towards another male can also be placed provisionally within

the genealogy of the queer narrative.

However, while the Emotional-Community of "The Era of Queer Narrative" required a male-oriented same-sex "love," it also forbade male youth from expressing their romantic love, namely, queer emotion, to another male. It was because constructing this Emotional-Community required "loves" as a plurality, with many members within the community, not a singular and exclusive "love" with only one person. Thus, this "love" was a contradiction in terms: in the face of such a command to "love," yet not romantically, the male youth had to control their desires in order not to "deviate" into queer desire. Novels from "The Era of Queer Narrative," which did demonstrate a same-sex intimacy, performed the command according to the letter, while also revealing the cracks in its façade.

Meanwhile, after the mid-1920s, Western sexology and discourses on homosexuality were introduced to Colonial Joseon via Japan. The trends in sexology of that time held the belief that heterosexuality was the foundation for social progress, and it described sexual practices such as sodomy as a sign of racial inferiority to define primitive and barbaric existence. As a result, this assemblage of heterosexuals as civilized and homosexuals as barbaric began to take effect even within the single country of Korea. The behaviors of holding hands or rubbing cheeks between men became regarded as a token of the "homosexual=barbarian." In other words, in "The Era of Queer Narrative," physical contact among men, which had been a bodily act meant to arouse the will to progress towards a civilized society, now became a bodily act that put men at risk of being stigmatized as a "barbarian" without a future, that is, an outsider within, with an acceptance of the current discourses on homosexuality.

Thus, the status of literary representation of same-sex intimacy was reversed: from "civilization" to "barbarism," after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international discourses on homosexuality. As a result, to avoid any "misunderstanding" that they represented homosexuality, and not to be "misconceived" as homosexuals themselves, writers consciously endeavored to exclude a depiction of same-sex intimacy. Furthermore, this necessity was closely related to a longing of the intelligentsia-literati for occupying and retaining their status as a transmitter of knowledge and a disseminator of thought. The long-standing belief in the "politics" of the Korean literary field, that they could and should transform society through literature, solidified the position of the Korean literary field as homophobic.

From the mid-1920s to the 1940s, after the discourse against homosexuality was introduced and established in Korea, the queer narrative was repressed, refracted or concealed into three different forms. These were (1) queer narrative as a personal and historical reminiscence looking "back" on the situation where one's desire was perfectly fixated on heteronormative institutions, (2) queer narrative as a token of decadence that premised queer desire as pathological, and (3) a hidden "queer narrative" within a heterosexual narrative that concealed queer desire, in order not to be read as a queer narrative. These three aspects of "queer narrative" clearly show certain limitations, but at the same time, it is noteworthy that they testify to the presence of queer emotion and desire within the tradition of Korean literature, regardless of the will of writers.

In "The Era of Queer Narrative," male bonding between male writers and male readers had taken a central position on the literary field, and therefore queer narratives focused primarily on portraying desire among men. However, literature representing queer relationships between women has also existed persistently, despite being marginalized. Therefore, in order to write a new history of Korean queer literature, it is also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queer relationship between women. Of particular interest is that, after the importation of the discourse against homosexuality, the number of narratives representing the desire between men decreased, while the number of narratives representing the desire between women increased. The first reason for this phenomenon was that, through the complete desexualization of homosexual women, female homosexuality was represented as a "safe" sexuality which did not threaten the heteronormative social order. Often, female homosexuality was defined as a preparatory stage for heterosexuality, and it was understood as an object which could "safely" satisfy the voyeuristic desire of readers and, as a result, literature depicting a queer relationship between women increased rapidly.

What should be emphasized here, however, is that every woman, regardless of sexual preference, was forced to follow a heterosexual life script in institutions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In order to break down patriarchal oppression and achieve women's liberation, women also constructed an Emotional-Community of women based on sympathy, and many stories about "women loving women" emerged from this community of "women promoting the interests of women," which had existed since "The Era of Queer Narrative." But as censorship and the pathologization of homosexuality became even more intense in the late 1930s, narratives depicting queer relationships between women likewise began to appear in highly refracted and concealed form. Thus, the shuttering and distortion of female queer narrative would be the final destination of Korean queer narrative until the 1940s. The current homophobia of the Korean literary field would later be shaped at two points of inflection: first, in the 1950s when the making of the nation-state was proceeding in earnest, and then in the late 1980s when the AIDS panic would incite more flagrant homophobia.

■ **Keywords:** Queer Literature, Queer Narrative, The Era of Queer Narrative, Queer, Homosexuality, Same-sex intimacy, Sexuality, Genealogy, Emotion, Community

■ **Student Number**: 2017-27718